2024년. 제21차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기총회 자료집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정기총회

**일시**
2024년 2월 19일(월) - 20일(화)

**장소**
무주 태권도원

# 제21차 정기총회

■ 일시 : 2024년 2월 19일(월) 13시 ~ 2월 20일(화) 12시
■ 장소 : 무주 태권도원
■ 프로그램

| 1일차 | | | |
|---|---|---|---|
| 시간 | 내용 | 담당 | 장소 |
| 13:00~14:00 | 등록 | | 운영센터 1층 대강당 |
| 14:00~14:20 | 환영인사 | | |
| 14:20~15:45 | 강의 1. 백래쉬와 여성운동 대응 | 김민문정_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
| 16:00~17:30 | 강의 2. 성매매사회에 맞선 반성매매운동의 과제 | 이하영_전국연대 공동대표 | |
| 17:30~19:30 | 쉬는 시간 및 저녁 식사 | | |
| 19:30~21:00 | 연대의 밤 | | 나래홀 |
| **2일차** | | | |
| 8:00~9:00 | 아침 식사 | | |
| 9:00~9:20 | 총회 등록 | | 운영센터 1층 대강당 |
| 9:20~10:00 | 단체별 활동보고 | | |
| 10:00~11:30 | 정기총회 | | |
| 12:00 | 사진 촬영/해산 | | |

# 목 차


■ 제21차 정기총회 본회의 순서 ····· 1
■ 전 회의록 ····· 3
■ 2023년 감사보고 ····· 5
■ 2023년 사업보고 및 승인 ····· 17
  ▪ 2023년 사업 총괄 평가 ····· 19
  ▪ 조직사업 ····· 22
  ▪ 정책사업 ····· 67
  ▪ 교육사업 ····· 99
  ▪ 연대사업 ····· 100
  ▪ 프로젝트사업 ····· 129
  ▪ 홍보사업 ····· 133
  ▪ 재정사업 ····· 136
  ▪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 137
  ▪ 부설 여성자활센터 해봄 ····· 150
■ 2023년 결산보고 및 승인 ····· 157
■ 임원 선출 ····· 165
■ 2024년 사업계획(안) 보고 및 승인 ····· 169
■ 2024년 예산(안) 보고 및 승인 ····· 199
■ 별첨 자료 ····· 207
  ▪ 성명서 및 논평 ····· 209
  ▪ 정관 ····· 249
  ▪ 회원단체 주소록 ····· 253

# 제21차 정기총회 본회의 순서

1. 회원 등록
2. 본 회의
   1) 개회선언
   2) 여성의례
   3) 대표인사
   4) 서기임명
   5) 회원성원보고
   6) 회순채택
   7) 전 회의록 보고
   8) 2023년 감사보고
   9) 2023년 사업보고 및 승인
   10) 2023년 결산보고 및 승인
   11) 임원 선출
   12) 2024년 사업계획(안) 보고 및 승인
   13) 2024년 예산(안) 보고 및 승인
   14) 기타 토의
   15) 회의록 채택
   16) 폐회

전국연대 제21차 정기총회

# 전 회의록

■ 일시: 2023년 2월 15일(수) 10:00-12:00
■ 장소: 고창선운산유스호스텔 대강당

1. **개회선언:** 10시 17분. 이하영 대표가 2023년 제20차 총회 개회를 선언하다.

2. **여성의례:** 다함께 묵념하다.

3. **대표인사:** 손정아, 이하영 공동대표가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다.

4. **서기임명:** 송수연(광주), 임승희(목포) 회원이 서기로 추천되어 김유순(창원) 회원 동의, 한혜진(창원) 회원 재청으로 임명하다.

5. **성원보고:** 이하영 대표가 회원 154명 중 132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6. **회순채택:** 회순채택(안)에 대해 김봉심(살림) 회원 동의, 정선영(수원) 회원 재청으로 모두가 가하여 통과하다.

7. **전 회의록 낭독:** 2022년 제19차 정기총회 회의록을 전 회의록 서기 권효은(서울) 회원이 낭독하다.

8. **2022년 감사보고:** 2022년 전국연대 사업에 대하여 정박은자 사업감사가 영상으로 감사보고를 진행하다. 이어서 이현숙 회계감사의 감사보고를 이선미(해봄) 활동가가 대독하다.

9. **2022년 사업보고 및 승인:** 백조연 활동가가 2022년 사업을 PPT 및 자료집을 근거하여 조직, 정책, 교육, 연대, 홍보, 재정 사업 및 부설기관 사업을 보고하다. 2022년 전국연대 사업보고에 대하여 강혜정(인천) 회원 동의, 송민진(서울) 회원 재청으로 모두 가하여 승인하다.

**10. 2022년 결산보고 및 승인:** 백조연 활동가가 2022년 결산서를 자료에 근거하여 보고하고, 질의 사항에 대해 요청하다. 질의 사항이 없어 2022년 결산보고에 대하여 이선희(인천) 회원 동의, 이선미(서울) 회원 재청으로 모두 가하여 승인하다.

**11. 임원선출:** 이하영 대표가 정박은자 사업감사, 이현숙 회계감사의 연임을 제안하여 김수민(서울) 회원 동의하고, 김하나(대구) 회원 재청하고 전체 박수로 승인하다.

**12. 2023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이하영 대표가 2023년 전국연대 사업방향 및 사업계획(안)을 PPT와 자료집에 근거하여 보고하고, 질의 사항으로 서면자료 공유를 요청하고 손정아(대전) 요약 보고 제안하다. 김란희(광주) 회원 동의, 최명순(대전) 회원 재청으로, 모두가 가하여 2023년 사업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되다.

**13. 2023년 예산(안) 승인의 건:** 이하영 대표가 2023년 사업예산(안)을 별도 자료에 근거하여 보고하다. 예산안에 대한 추가 질의 사항을 요청하다. 결산 이월금 및 교육비에 대해 정미례 질의하였고, 제안을 받고 운영위에서 논의하기로 하다. 이에 장은희(대구) 회원 동의, 최민혜(대구) 회원 재청으로 모두가 가하여 2023년 예산(안)을 승인하다.

**14. 운영위원 인사:** 이하영 대표가 전 회원에게 운영위원을 소개하다. 박수로 소개를 마치다.

**15. 회의록 낭독:** 서기 송수연(광주) 회원이 회의록을 낭독하다.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변정희(부산) 회원 동의, 경희선(대구) 회원의 재청으로 2023년 제20차 정기총회 회의록을 승인하다.

**16. 폐회:** 11시 38분, 이하영 대표가 제20차 정기총회 폐회를 선언하다.

2023년 2월 15일

서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송수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임승희
공동대표 손정아·이하영

# 2023년
# 감사보고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 2023년 사업감사

_정박은자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회원님들에게 2023년(01.01.~12.31) 사업감사 보고를 드립니다.**

*20여 년간 우리 사회의 반성매매운동을 이끌며 성매매여성들의 비범죄화를 위해 애써왔으며, 특히 2023년에는 현행 성매매방지법의 기본틀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개정 입법안을 마련하고 전국적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입법을 위한 가열찬 활동을 전개하였기에 지부와 회원단체들의 사랑과 연대의 마음을 모아 이 상을 드립니다.*

들어는 봤나? '돌을 뚫은 물방울 상'이라고! 한 방울씩 떨어지는 낙숫물이 댓돌을 뚫는다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직하고 부단하게 성매매 그 현장을 뛰며 '언니들' 곁을 찾아가 인사를 나누고, '어디서든' 만나는 여성들 목소리에 마음을 여는 '현장활동가들'의 소중한 경청과 질문 그 화답들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성매매 문제'를 배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하여 연대할 수 있었고, 그 연결된 힘으로 '오늘'까지 올 수 있었겠지요. 그 하루하루가 모여 어언 20여 년이 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지난달 제38차 한국여성단체연합 정기총회 자리에서 결국 한국여연 7개 지부와 28개 회원단체들로부터 '돌을 뚫은 물방울 상'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밖으로는 성매매 착취구조 해체와 수요차단을 선언하고, 안으로는 내실 있는 성매매경험당사자운동에 박차를 가한 숭고한 실천의 보답인 듯 한층 여물어진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외침은 마침내 성매매처벌법 개정운동으로 그 단단한 댓돌을 뚫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할 뿐, '새롭게 시작되는' 성매매방지법 제정 20주년을 맞은 올 2024년을 기점으로 '앞으로 20년' 반성매매운동의 비전과 전략을 논하고 공존의 가치를 선포하는 시절이 도래한 듯합니다. 좌 성매매 착취구조 해체 – 우 처벌법 개정에 덧붙여, 아마도 그 한가운데 시민사회 젠더규범 즉 일상적 삶의 형식이자 삶의 기술인 규범의 실천적 변화를 모색하는 도전적 '대중 사업'의 추진전략이 요구될 듯합니다. 지난 20년간 시급한 이슈대응과 사안들로 다소 늦었지만, 법 제정이 시작에 불과하다면 그 촘촘한 실천들이 반성매매운동과 성매매현장 간의 간극을 메워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 정국은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예측하기 어려운 또 다른 '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전국연대는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퇴행의 시대를 넘는 거센 연대의 파도'라는 기치 아래 3.8 세계여성의날을 열어젖혔습니다. 전국연대 사업보고 총평에서 보듯이 '정치의 퇴보는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졌고 여성운동과 여성단체도 이 광풍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이례적 성평등 '백래시'(반발 행동)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예산 142억 축소로 인하여 '그나마' 유지해오던 피해자 지원정책 전반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예산 또한 축소되는 혹독한 전환점과 마주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전국연대 생활지원시설 쉼터와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그룹홈은 24시간 365일 입소자 거주안전 및 일상생활지원과 구조지원사업을 이어나갔고, 이용자 지원시설인 상담소·아동청소년지원센터와 자활지원센터는 위기지원 속에서 포착된 사안별 대응에 즉각적 네트워크 가동으로 실태 파악·제안서 작성·전국적 공동행동으로 확산하는 등 일사불란한 조직화로 맹렬히 대처하였습니다.

**'위대한' 전국연대 상근활동가 여러분!**

2023년 국·내외, 주·야간! 그야말로 불철주야 현장 활동 곳곳에서 발로 뛰신 그 헌신과 노고 덕분에 '오늘'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시대적 연대사업을 손수 기획하고 추진하고 연대세력을 모아 나가며 실천하는 현장활동가들의 진면목을 보는 듯하여 107쪽에 이르는 사업보고를 읽는 내내 가슴 벅찼습니다. 특히 '다양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연대활동을 강화하며 성매매 현장의 의제를 정책과 운동으로 길어올리기 위해 부단히 애썼다'는 연간사업 총평은 대한민국 반성매매운동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는 숭고함으로 보여 저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가지요, 그렇게 가지요, 너와 나 함께 가지요!**

2023년 조직사업은 단연, '전국연대 자부심'인 6개 단위 네트워크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6월 '사무국 네트워크'가 새롭게 조직되어 법제정 20주년을 맞이한 대전환점에서 우리 연대의 새로운 비전 모색과 그 실천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연대 사무국을 포함하여 10개 지역이 연결되어 부산 천마산 워크숍을 열었으니, 열악한 사무국 환경에서 활동하는 '외로운' 가운데 '내심'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사업평가에서도 '지역별 사무국 운영현황과 방식을 알게 되면서, 사무국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고' 더불어 '효율적인 운영방식의 변화를 모색하는' 또 다른 결의 동지들 만나 날개를 달았으니 2024년 보란듯이 그 날개 펼치며 행복하게 활동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놀라운 것은, 사무국네트워크 기획 아래 9개 지역이 '아름다운재단' 프로젝트 사업수행을 멋지게 수행한 것

입니다. 각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모임을 발굴하듯 만나고 찾아가는 새로운 네트워크 생산은 분명 새로운 에너지 교류임과 동시에 반성매매운동 커뮤니티 확산으로 이 시대에 매우 주목되는 운동 방법론으로 보이기에 이 끈을 놓지 않고 재생산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찐_공감' 네트워크 뭉치! 2023년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의 그 첫 번째 단행본 『무한발설』이 신박진영 정책팀장의 『성매매, 상식의 블랙홀』에 연이어 일본어로 번역되어 출간되는 큰 성과를 낳았습니다. 국제네트워크 DDA(현, FWF) 기금으로 5박 6일 일본행 여정 'Moongchi, Now Here! JAPAN!' 속에서, '일본 북콘서트 출판기념회-일본탐방-일본 성매매경험당사자들과의 간담회' 추진이라는 새로운 내용의 국제연대사업 쾌거를 생산해냈습니다. 전국연대의 일본 '콜라보'의 카페버스 운영요청 건 또한 이러한 기반 위에서 더 큰 연결의 힘을 갖는 듯합니다. 덧붙여 릴레이 기고 '6411' 짤의 목소리와 '삶도 시즌2_실패를 기록하는' 진의 목소리 또한 큰 울림이었습니다. 제주 '뱅디'의 결합·활약으로 '별하-하쿠나마타타-나린아띠-보따리-키싱구라미-예그리나'는 '럭키-세븐'(Lucky Seven) 뭉치를 만들고, 2023년 아카데미 진행으로 다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대한민국 반성매매운동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성과를 생산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있는데, 과연! '뭉치, 더 세미나(The Seminar), 뭉치 더 세지나(The stronger)?' 그랬다고 하네요. 다만, 일본탐방 이후 활동을 중단한 회원들 상황과 맥락을 소거하지 않고, 이후에라도 연결 가능한 때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경청할 수 있는 깊은 배움의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여정을 함께 한 뭉치의 '두 매니저'님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2년 새롭게 출발한 아동청소년네트워크는 2023년 현장단체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듯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스코 팡팡' 직원들의 성매매 강요 및 협박, 성폭행 등이 드러남에 따라, 전국 22곳 디스코 팡팡 실태조사가 잇따랐고 DJ 팬덤 형성 및 그루밍 운영방식으로 청소년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갈취한 조직적 범행에 연대단체들이 공동성명문을 채택하며 즉각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동행동은 '아청넷-전상넷' 간의 유기적 공동협력의 성과로도 보입니다. 무엇보다 지역 내 지방교육행정기관을 비롯한 유관단체들과 접촉면을 넓히는 등 현안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성매매문제를 논의해나가는 것은 반성매매운동의 네트워크 확장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아청넷의 주체적 액션'으로 평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게시물 등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촉구하는 '엑스(구, 트위터) 코리아' 기자회견은 주요 현장이슈를 끌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논의를 넘어 그 정책대안 제시로 국정감사까지 준비한 것만으로도 크나큰 성과입니다.

다만, 국내 주요 사안인 만큼 전국연대 소속 6개소를 포함한 전국 18개(중앙 1개, 지역 17개) 아청센터 간의 유기적 흐름과 소통의 도의적 책임은 '국내 반성매매 운동을'을 먼저 시작한 '전국연대'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앞으로 아청네트워크가 센터들 간의 활발한 교류를 시작하는 '더 큰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제안하고 시도하는 고민과 실천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 해간 발 빠른 대응과 풍성한 논의 생산 그리고 외연을 확장해 나간 아청네트워크의 노고와 실천에 감사드립니다.

11개 지역 자활지원센터의 '공동사업 및 정책연구, 제안활동 등에 대한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한 자활네트워크는 2023년 자활정책연구사업 TF에서 6년간(2017~2022) 운영실적을 분석했습니다. 즉 자활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지자체의 정책적 개입영향과 코로나 이전(2017~2019)과 이후(2020~2022) 자활넷 운영 비교분석의 유의미한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자활지원센터 위상과 역할 및 운영 방향을 가늠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2023년 정책사업수행으로 1차적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관련 원자료를 축적한 만큼, 이후 질적 연구 병행으로 지속적인 비교분석작업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탈성매매이후 '언니들'의 포근한 인큐베이팅 과정으로 안전한 공간으로 든든하게 위치한 '공동작업장-인턴십-직업훈련'이 되고자 언니들에게 오만 정성을 들이며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자활넷 활동가들의 반짝이는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님들의 깊은 노고에 정성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에 수록되지 않은 숱한 에피소드 항목들이 해마다 '사건으로' 불거지고 자활넷에서 깊이 있게 논의되고 조정된 결과 '자활정책으로' 생산되는 성과를 낳고 있음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현실적인 운영과정에서 부딪히는 산적한 문제들의 해답은 자활 참가자들이 답을 갖고 있으므로, 신뢰 관계 속에서 파트너십 발휘로 해답을 찾아가는 기쁨들 누리는 2024년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법 제정 이전, 지난 2003년 10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여성쉼터지원사업 선정으로 말미암아 국내 최초 성매매피해여성쉼터를 설립한 자랑스런 '전국연대 쉼터네트워크'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 아마도, 입소자 지원 관련해서도 가장 많은 부침의 변화를 겪는 것 또한 '쉼터넷'이고 그 물리적 시설 또한 열악합니다. 7개 쉼터넷 중 5개소 쉼터가 그룹홈 운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밤낮 '꼬박' 안전한 의식주 생활 지원을 책임지는 그 무게 적지 않아 쉼터넷 활동가들에게 사업감사로서 늘 마음의 빚이 있는 듯합니다. 묵묵히 그 자리에서 '언니들'의 소소한 일상을 귀하게 나누고 관찰하며, 필요한 구조지원사업을 맞춤식으로 기획하고 실천해나가는 우직한 쉼터넷 활동가들의 보이지 않는 노고들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쉼터넷은 '장애여성 정책연구, 반려동물 돌봄지원 서비스, 퇴소 자립정착금 제도'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갔고, 마약 투약 피해 입소자 지원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 논의를 마련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내재적 편견과 낙인이 그득한 현실 속에서 날마다 스스로 성찰하지 않으면, 자칫 언니를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려운 근무환경인 만큼 쉼터넷 활동가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팁과 전략들 탐구를 쉼터네트워크 활동에서 '반복하여'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지원시설 특성상 자리를 비우기 어려움 때문인지, 2023년 분기별 정기회의(연간 4회)에 그쳤는데 24년에는 2~3회(연간 6~7회) 더 추가할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지난해 제안 드린바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네트워크 논의를 연 1회라도 기획하여 그룹홈 운영에 대한 독자적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개진하는 성과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3 전상넷은 '야심차게'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기획하고 총 9차 회의를 수행하는 미션을 완수했네요. 먼저, 2024년 법 제정 20주년 평가 토론회 준비를 위한 '상담소 운영실적 분석, 10년간 민·형사 사건(2013~22) 판례 모음, 법의 성과와 한계를 논의하고 관련 정책 수립 논의' 등 20주년 평가사업 틀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상넷에서 집적한 소중한 원자료가 참하게 분석되어, 24년 예정된 20주년 전국연대 정책토론회가 더욱 풍성하게 토론되고 논의되는 충만한 성과를 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착취 산업현장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다변화됨에 따라 상담소의 현장접근전략 또한 다각적 변화를 쫓아가는 중입니다. 상담소의 고유업무인 주·야간 온·오프라인 아웃리치 서비스 활동인 현장방문상담과 모니터링이 그 주요 역할을 하는 듯합니다. 여러 정황상 자칫 '위험'하고 '고된' 활동일 수 있음에도 동료들 간 신뢰와 상호의존으로, 법인 조직구성원의 지지와 공동협력으로, 11개 지역 전상넷 연대의 연결감으로 '22년째' 현방이 지속가능한 듯합니다. 이를 사전기획하고 숱한 절차상 준비들을 몸소 수행해준 전상넷 활동가들의 숨은 노고와 그 추진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상넷은 '광고죄 여성처벌'에 대응하는 사례연구를 공동분석함으로써 11월 처벌법 개정연대 토론회 발제 내용으로 잇는 성과를 냈습니다. 무엇보다 수년간 논의 과정을 번복해 오던 상담일지 취합 전산 시스템(DB 개발사업)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만든 결과 그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1세기 행정업무 환경변화를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판단으로, 활동가들의 업무 효율과 전국적 상담통계 산출의 표본 도출 등의 기능이 있는 만큼 집적된 정보관리 안전망에 대한 끊임없는 안전성 보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6개 단위 네트워크 사업의 민주적이고 안전한, 원활한 흐름의 책임은 모두 전

국연대 운영위원회에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6개 네트워크 모두 '각 네트워크 활동가 워크숍'을 기획한대로 '대면으로'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운영위는 12개 지역단체장, 뭉치 대표, 전국연대 공동대표와 정책팀장을 포함한 총 15명 운영위원과 정책자문위원과 사무국 활동가 참관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외로운' 리더의 투혼들! 멀리서나마 응원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연컨대 연대사업을-조직운영을 총괄하는 중책을 짊어진 리더로서, 늘 현장 속 사안과 사람(현장활동가)을 동시에 살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2023년은 운영위를 비롯한 6개 네트워크 모두가 '전국연대 창립 20주년·성매매방지법 제정 20주년'을 맞는 2024년에 대한 과중한 책임으로 적지 않은 압박감·부담감을 가진 것이 사업보고에서 느껴져 사업감사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평등 백래쉬'라는 당분간 멈춰서지 않을 듯한 이 광풍 속에서는 '사실은' 이것으로도 충분한데 말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수행하고 남은 과제들은 또다시 머리 맞대고 마음 내어 그다음을 도모하면 되니 '천천히, 지속적으로' 다시 처음처럼 뭉쳐가면 되니, 모두들! 그 부담들 중압감들, 조금들! 이 자리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가지요, 그렇게 가지요, 너와 나 함께 가지요!**
**성매매처벌법 개정 위해 그렇게 우린 걸어가지요.**

2023 전국연대 정책사업의 핵심사업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성매매여성 비범죄화를 향한 노력에서 나온 사업총평 중 '다양한 색을 가진 많은 단체들이 모인 연대체이기 때문에 합의된 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우려도 있었지만 끈질긴 토의와 숙고의 과정을 거쳐 전면개정안을 도출하고 토론회까지 개최할 수 있었다.'는 구절은 사업보고서를 읽는 내내 뇌리에서 복기 되는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전체회의부터 '집행단위회의-법개정연구&기획TF-행사기획팀-홍보팀-토론회팀-개정연대대국민활동팀-소책자제작팀'에 이르기까지 242개 성매매피해자지원단체와 여성·시민단체가 함께 한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걸어온 족적 '이대로, 역사입니다!' 하반기에는 여성가족부 예산 삭감 대응활동(12개 협의회 및 연대체, 568단체)으로 공동행동을 추진하는 동시에 2024년 총선 젠더의제 제출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전국연대의 주요한 정책사업의 한 줄기에 '전국연대 국제협력팀장'의 활동이 있습니다. 유엔여성지위위원회 참석으로 여성인권 전반에서 성매매가 논의되는 방식에 주목하고, 반성매매와 성노동 진영의 세션 참가로 그 흐름과 동향을 공유하는 실천은 이 시대에 매우 요긴한 국제운동방식으로 전국연대 반성매매운동의 향방을 가늠하는 위상을 높이는 감각으로 높이 평가됩니다. 이러한 토양 위에서 'Civil 20 India' 공식초청을 받고 참석한 인도 회의에서 한국의 성매매실태와 성매매처벌법 필요성을 요청한 전국연대 이하영 공동대표가 여성신문이 선정하는 차세대 여성

리더 '2024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상'을 받는 쾌거를 전국연대가 이뤄낸 듯합니다. 이하영 공동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전국연대 2023년 연대사업은 A4 22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 그 활동량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단체로서 활동 중인 전국연대는 정책사업으로 '성매매·성산업 확산을 막기 위한 법 개정 및 강력한 법 집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총선 젠더의제로 제출한바, 성매매여성이 처벌되는 현 상황을 뒤엎기 위한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출범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오는 3.8 세계여성의날 '어퍼' 대행진을 기점으로 4월 예정인 22대 국회의원선거 직전까지 성평등 젠더이슈에 정치의 응답을 촉구하는 투쟁이 이어질 것입니다. 현 윤석열 정부는 성폭력특별법에 '무고죄' 신설을 공약한, '명백한' 성평등 백래시 정부입니다. 전국 240개 여성·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이러한 시대적 역행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상 '형법상 강간죄 개정 검토'가 결정되었음에도, '비동의 강간죄'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무화시키고 법 개정을 방해하는 어찌 형언할 수 없는 이례적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2023년 최초로 전국연대를 포함 6개 단체가 연대체를 조직한 가칭 〈'벗방' 피해자 공동지원단〉은 온라인 성산업 접근이라는 오랜 숙원사업에 접근한 성과로 보입니다. 중첩되는 겹겹의 난해함 있으나, '성착취' 현장에 전문성을 지닌 국내단체들의 의기투합으로 브레인 스토밍으로 온라인 성산업 안에서 착취 상황에 놓인 BJ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연대단체들 서로 간 전문성을 학습하고 익히는 배움의 기회로 성찰의 기회로 작동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피해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벗방' BJ 산업이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렇게나마 접근할 수 있으니 '행운으로' 생각됩니다. '낯선' 지원에도 현장으로 내달리는 공동지원단에, 피해자 지원에 애쓴 보다 상담소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에 소재한 전국연대 상담소가 있는 것이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전국연대 부설기관 상담소 보다와 자활지원센터 해봄은 그 존재만으로도 전국연대에 든든한 '서울_빽'이자 네트워크요 파트너십인데, 2023년 한 해간 양대 기관이 서울 지역에서 그 주요한 역할들을 속속 수행하는 거대한 도전들과 추진력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덧붙여 24년 하월곡동 미아리 집결지 정비·폐쇄사업이 예정된 가운데, 집결지 기록사업과 주민협력사업을 시작으로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이 추진되는 '희망'을 가져보며 전국연대 '상담소-자활지원센터' 간 밀도 높은 네트워킹 사업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건, 올 24년 1월 31일부로 시작된 전국연대 온

라인 소식지 이름 “반성 레터”의 명명에 대한 것입니다. 즉 ‘반성’(反性)은 전국연대의 반성매매운동을 상징하는 ‘반성착취’ 맥락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척점에 있는 듯한 ‘성노동’을 지지하는 ‘친성’(親性)을 금방 떠올리게 합니다. 마치 ‘반성’(반성매매)과 ‘친성’(친성노동)을 고정시키고 ‘갈라치기’하는 이분법적 여운을 남기고 있으므로 이러한 맥락을 아우를 수 있는 적절한 소식지 명명에 대한 적극적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전국연대 회원 여러분!**

우리 모두 사업보고서 ‘라인_바이_라인’ 기록된 어느 하나의 활동도 결코, 가볍지 않았던 혹독한 2023년을 살아냈습니다. 우리 함께 아니라면 어찌 2023년 성평등 백래시 광풍에 맞설 수 있었을까요! 이 광풍에 휩쓸려 내 영혼마저 붕괴될 뻔한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이 세찬 바람 온몸으로 맞으며, 12개월 꽉꽉 눌러 담듯 숱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네트워킹하여 성과들을 생산하고 이후 대안으로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오롯이 직진하는’ 그대들에게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한 해간 너무나 애 드셨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는 스스로 돌봄과 양육이 병행되는 삶의 기술이 샘솟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상들이 이어지길 기원드립니다.

2024년 2월 14일

사업감사 정박은자 정박은자

# 2023년 회계감사

_이현숙

## 2023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회계감사 보고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대표 귀하

본 감사인은 비영리단체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의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준 아래의 결산증빙자료를 감사하였습니다.

◇ 감사내역
1. 일반회계 총계정원장
2. 일반회계 항목별 결산서
3. 총 결산서
4. 통장잔액증명서

◇ 감사의견
1. 상기 결산자료는 2023년 예·결산 상태와 현금흐름의 내용 및 통장내역 잔고의 매월별 금액과 결산기말 금액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비영리법인 회계처리기준에 근거하여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 계정별 잔고와 정산보고서, 통장잔액증명서를 비교한 결과 숫자와 내용의 오류가 없었음을 보고합니다.

◇ 권고사항
1. 콜라보 후원금 및 뭉치 일본연수 지원금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기 권고합니다.
2. 사무전화 명의가 전대표로 되어 있어 현 인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2024년 2월 8일

회계감사 이 현 숙 이현숙

# 2023년
# 사업보고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 2023년 사업 총괄 평가

2023년은 코로나 19 감염병의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전세계적인 기후위기, 경제 쇠퇴, 정치적 퇴보의 기류가 뚜렷해진 한 해였다. 정치의 퇴보는 시민사회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졌고 여성운동과 여성단체도 이 광풍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특히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쉬는 지속되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기조 아래,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무력하게 하려 시도하고, 여성폭력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성매매에 관한 정부 정책은 실종되고 성매매를 외면하고 성매매를 여성폭력으로 보지 않으려는 기조도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전국연대는 전국 곳곳에서 성매매여성의 인권 옹호 활동과 피해자 지원활동을 지속하며 더 단단하게 연대하고 뿌리내렸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연대 활동을 강화하며 성매매 현장의 의제를 정책과 운동으로 길어올리기 위해 부단히 애썼다.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여성운동단체와 연대하며 백래쉬에 함께 맞섰으며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 1. 전국연대 조직 강화

2023년에는 전국연대의 조직이 한층 강화되었다.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네트워크는 사업담당자들을 중심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공동으로 수행하여 정책을 만들고 제안하였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온상으로 지목된 엑스(구 트위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이슈를 주도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활동하는 회원단체 사무국 활동가들의 역량강화와 연대를 위해 사무국 네트워크를 새롭게 꾸렸다. 사무국 네트워크는 반성매매운동이 제도화된 피해자 지원체계를 넘어 운동과 변화를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 2. 네트워크 중심의 정책 분석

전국연대의 각 네트워크는 성매매방지법 및 전국연대의 20주년을 앞두고 성매매방지법의 성과와 한계 분석,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총괄 평가, 정책 제안이라는 과제가 있었다. 특히 상담소네트워크는 이를 위해 상담소 운영실적을 취합하고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였다. 또 현장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였는데 최근 악화되고 있는 성매매여성 처벌 실태, 특히 성매매광고·유인죄로 성매매여성을 처벌하는 사례를 취합하고 문제제기하였다. 쉼터 네트워크, 자활 네트워크도 현장의 변화를 파악하고 더 나은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한 고민을 지속하였다.

### 3. 당사자운동의 내실 강화와 연대의 확장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는 자조모임, 운영위원회, 정책워크숍 등을 통해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 Direct Donor Action의 기금을 통해 자조모임 지원사업을 진행하였고 자체 세미나, 워크숍, 홍보 사업 등을 진행하며 자조모임을 성장시켰다. 특히 2023년에는 제주 자조모임 '벵디'가 새롭게 결성되어 뭉치에 합류하는 성과가 있었다. 또 뭉치의 '무한발설' 책이 일본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고 뭉치가 직접 일본을 방문하여 도쿄와 오사카에서 북콘서트를 진행하였다. 도쿄 북콘서트의 경우 200여명이 참석하여 뭉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때 전국의 뭉치 회원 17명이 동행하여 일본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등화'와 교류, 일본 반성매매단체 방문, 성산업 밀집지역 방문, 북콘서트 참석하여 한국의 성매매경험당사자운동을 강화하고, 일본 단체들과의 뜨거운 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 4. 반성매매운동의 확장과 연대의 강화

전국연대는 2023년 다양한 대중사업을 진행했다. 먼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반성착취 여성주의 여름캠프, 반성착취 여성주의 간담회, 여러 시민과 함께 하는 민들레순례단을 진행하였다. 특히 여성주의 간담회는 사무국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전국 9개 지역에서 총 17개 모임 및 단체를 만나 우리의 운동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여성운동과 여성단체에 대한 공격에 맞서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맞섰다. 여성폭력 관련 예산 축소에 대응하여 기자회견, 연대활동, 정부 면담, 토론회에 함께 하였고 2024년 총선을 위해 개최된 토론회에 참석하여 성매매 관련 정책 제안을 하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강간죄개정연대, 정의기억연대네트워크에도 참여하여 여성폭력 의제에 공동대응하며 연대하였다.

### 5. 성매매여성 비범죄화를 향한 노력

전국연대는 2022년에 이어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성매매여성 처벌조항 삭제, 성구매 수요차단 공동행동"의 사무국으로서 성매매처벌법 개정운동을 가열차게 이어갔다. 성매매처벌법을 개정하기 위해 연대단체들과 쟁점을 확인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안을 도출하였다. 다양한 색을 가진 많은 단체들이 모인 연대체이기 때문에 합의된 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우려도 있었지만 끈질긴 토의와 숙고의 과정을 거쳐 전면개정안을 도출하고 토론회까지 개최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힘차게 달려온 2023년이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는 한해였다. 사무국이 다양한 연대활동 및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전국연대 본연의 조직사업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운영위원회의 정책 토의, 각 네트워크의 정책 생산, 활동가 역량강화, 성매매 관련 정책 대응과 생산에도 부족함이 있었다. 2024년에는 전국연대의 20년, 성매매방지법 20년을 맞아 외부적으로는 성매매방지법의 20년을 평가하고 정책을 제안해야 하며, 내부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물적 토대의 마련, 정책 생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 2023년 사업별 보고 및 평가① 조직사업

## 1. 전국연대 제20차 정기총회

가. 일시 : 2월 14일(화) 오후 1시 ~ 2월 15일(수) 오전 11시

나. 장소 : 고창선운산유스호스텔 대강당

다. 프로그램

| 1일차 | | |
|---|---|---|
| 시간 | 내용 | 담당 |
| 13:00~14:00 | 등록 | |
| 14:00~15:30 | 강의 1. 성평등추진체계 왜 필요한가? | 김은희_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부소장 |
| 16:00~17:00 | 강의 2. 반성매매 관점에서 성노동론 사유하기 | 신박진영_전국연대 정책팀장 |
| 17:00~18:00 | 분반 논의 | |
| 18:00~19:00 | 저녁식사 | |
| 19:00~19:45 | 분반 논의 발표 | |
| 20:00~21:30 | 소통과 연대의 밤 | |
| 2일차 | | |
| 8:00~9:00 | 숙소 정리 및 아침 식사 | |
| 9:00~9:20 | 회원 명부 등록 | |
| 9:20~10:00 | 회원단체 2022년 활동 보고 | |
| 10:00~11:30 | 정기총회 본회의 | |
| 11:30~12:00 | 폐회 | |

## 2. 운영위원회

구성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송경숙, 인권희망 강강술래 강혜정, 제주여성인권연대 송영심, 새움터 고미라, 수원여성인권돋음 정선영, 여성인권티움 손정아,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김란희,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김화자/김선례,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변정희,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김유순,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박현숙, 대구여성인권센터 장은희/최민혜,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짤/지음, 공동대표 이하영, 정책팀장 신박진영 (이상 15명)
참관 : 정미례 정책위원, 백조연/신지영 활동가

### 가. 제1차 운영위원회

1) 일시 : 2023년 3월 15일(수) 13:00~17:00
2) 장소 : 온라인 줌
3) 주요안건
- 지역상황 공유
- 사업별 보고
- 2023년 제20차 정기총회 평가
- 현안 논의
4) 주요결과
-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한국여성재단 사업 : 사업 중 쟁점해소토론회의 경우 성매매 여성 불처벌과 같이 익히 알고 있는 쟁점을 주제로 한 토론회라면 그대로 진행해도 되지만, 사업 전체 기조를 잡는 토론회라면 전국연대에서 논의 및 공유가 필요함.
- 제38회 한국여성대회 평가 : 오랜만의 대면 행사로 활동가들이 많은 힘을 얻었음. 젠더폭력 영역에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은 여러 발언과 구호로 언급되었으나, 성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아쉬웠음.
- 2023년 제20차 정기총회 평가 : 오랜만의 대면 총회로 여러 활동가를 만나 힘을 받을 수 있었고, 부설기관 보다와 해봄의 협력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었음. 강의와 분반토론의 경우 서로 연결성 없는 주제이고,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아쉬웠음. 향후에는 주제를 잡아 강의-분반 토론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시간 분배를 하기로 함. 지역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면 좋겠음.
- 사무국네트워크 워크숍 : 2차 운영위원회 회의까지 사무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워크숍 수요를 조사하기로 함.
- 20주년 TF : 각 단체에서 준비한 전국연대 20주년 사업 방향, TF 구성에 대한 계획안을 준비하고,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공유 및 논의하기로 함.

- 기타 : BJ 성착취 대응 - 전국연대에서 단독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어 보임.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관련 단체와 함께 논의하고, 공적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단위(경찰) 등에게 질문해야 함.

**나. 제1차 임시운영위원회 회의**

1) 일시 : 2023년 5월 11일(목) 17:00 ~ 18:00
2) 장소 : 온라인 줌
3) 주요안건
- 성매매처벌법 법률 개정안 초안 검토
4) 주요결과
- 성매매처벌법 법률 개정안 초안 검토
  · 성매매 용어를 성착취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사회적 현상을 의미하는 용어를 법적 용어로 사용하는 것의 적절성 및 설득력에 대한 의문이 있음.
  · 여성 불처벌이라는 목적이 법률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음.
  ·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연구&기획팀 초안에 대해 전국연대 입장을 전달하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더 논의해보기로 함.

**다.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1) 일시 : 2023년 5월 17일(수) 13:30 ~ 17:00
2) 장소 : 대전여성인권 티움
3) 주요안건
- 지역상황 공유
- 사업별 보고
- 뭉치 일본 방문에 따른 예산 변경의 건
- 아름다운재단 사업 변경
- 법인 사무국 워크숍
- 전국연대 20주년 TF
4) 주요결과
- 뭉치 일본 방문에 따른 예산 변경 : 일본 현지 일정 및 참여 인원 확대에 따라 사업 예산 증액을 요청함. DDA기금은 당사자 운동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변경하여 사용하기로 함.
- 아름다운재단 사업 변경 : 함께할 지역 단체와 함께 사전 회의를 진행하고, 사업 수행하기로 함.
- 법인 사무국 네트워크 : 6월 중 회의 진행하기로 함.
- 전국연대 20주년 및 성매매방지법 20주년 TF

· 정미례 정책위원을 준비위원장으로 두고 준비위원회를 꾸려 사업 기획 및 준비를 진행하기로 함. 준비위원회에서 기획안을 작성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공유 및 검토하고, 필요시 운영위에서 역할 분담하기로 함.
· 상담소, 자활, 쉼터에서 평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음. 향후 통합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함. 토론회에서 한국 사회 변화 속에 성매매방지법이 미친 영향, 고민 등에 대한 내용 정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집결지에 대한 논의도 정리가 필요함.
· 당사자와 활동가가 주체로서 하는 활동의 의미, 전국연대 정책 기조, 당사자 운동의 필요 등을 정리하며 힘을 주는 작업이 필요함.

- 기타 현안 논의 : 인신매매 피해자를 법적으로 지원하는데 지원 시스템이 부재함. 여가부 회의에서 시스템 부재에 대해 항의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음.

**라.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

1) 일시 : 2023년 6월 14일(수) 13:30 ~ 16:00
2) 장소 : 온라인 줌
3) 주요안건
- 지역상황 공유
- 사업별 보고
- 활동가 교육 1탄 평가
- 개정연대 제1차 내부간담회 평가
- 제22대 총선 젠더정책 제안
4) 주요결과
- 활동가교육 1탄 평가
· 온리팬즈는 미국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도 온라인 성매매가 심각한 문제임. 온라인 환경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음.
· 온리팬즈처럼 구조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방식으로 산업이 진행될텐데 착취와 자발의 이분법을 돌파하는 논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고 봄.
·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연구&기획팀 초안에 대해 전국연대 입장을 전달하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더 논의해보기로 함.
- 개정연대 제1차 내부간담회 평가
· ‘성착취’를 많이 쓰고 있으나,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 혼선이 생기는 것 같음. 전국연대 내부에서 정리와 논의가 필요함.
· 수요차단 또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됨. 차이와 경계해야 할 지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 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고민이나 ‘착취’ 의미 사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제22대 총선 젠더정책 제안 : 서면 검토 후 의견 주기로 함.

**마.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

1) 일시 : 2023년 7월 18일(화) 13:30 ~ 16:30

2) 장소 : 온라인 줌

3) 주요안건

- 지역상황 공유
- 사업별 보고
- 성매매처벌법 개정안 논의
- 전국연대 20주년 기념 사업
- 9월 성매매추방주간 행사 및 민들레순례단

4) 주요결과

- 성매매처벌법 개정안 논의
  - · 법률안 제목은 '성매수 및 알선 등 행위'로 가고, 조문에서 성매수 행위가 착취임을 명확히 하기로 함. 성구매를 범죄로 명확히 하는 게 성구매를 성착취임을 보여주는 것. 목적 부분에서 성착취가 광범위하지만 구매 및 알선이 가장 명확한 착취임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음.
  - · 두 법률을 비교 검토하고, 2안을 중심으로 목적 부분에서 법이 규제하고 싶은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조정하기로 함.
  - · 개정연대에서 법률안을 제출하고 국회 토론회를 통해 법률안을 알리는 것을 활동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안으로 가고, 성착취 용어를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 같음.
  - · 사회적 법익으로서 평등권이라는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함. 법의 목적 부분에 잘 설명되면 좋을 것 같음.
- 전국연대 20주년 기념사업
  - · 정미례 정책위원이 기획안을 만들고 공동대표 2인과 신박진영 정책팀장이 모여 전체 사업 가이드를 마련하기로 함.
  - · 책 발간 및 영상을 통한 아카이빙, 토론회, 2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으면 좋겠음.
  - · 활동 20년을 정리하는 책이 발간되었으면 함. 저자 및 목차가 정리되면 저자를 중심으로 편집위원회를 꾸리면 될 것 같음. (반성매매 운동에서 '뭉치'라는 중요한 자원이 있음이 담겼으면 좋겠음, 반성매매여성운동인권사 등)
  - · 성매매방지법 20주년 토론회를 하고, 토론회에서 각 네트워크별로 준비한 내용을 드러냈으면 좋겠음.
  - · 네트워크별로 준비하는 사업이 있는데 각자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음. 자활네트워크에서는 그동안의 기록을 모으고 설문 및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자료들이 책자에 수록되는 것인지, 토론회 발표로 들어가는 것인지 알지 못해 고민이 있음. 뭉치에서도 활동을 취합하기로 했지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야기되지 않아 고민이 있음. 전체적인 가이드가 필요함.
- 9월 성매매추방주간 행사 및 민들레순례단

| | |
|---|---|
| 전북 | 21일 군산 방문, 22일 전주 캠페인 및 문화제 진행 예정 |
| 창원 | 19일 ~ 20일 행사 진행 예정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논의하려고 함.) |
| 수원 | 1일 북콘서트, 18일 토론회 및 민순단 등 진행 예정 |

· 전국연대 손수건 예산으로 현수막을 제작 및 설치하고, 손수건은 지역단체에서 각자 부담하기로 함. (현수막에 지역 단체 문구 및 단체명 기입하기로 함.)
· 단체별로 전주 방문시, 정미례 정책위원 등에게 가이드 요청하기로 함.
· 작년의 경우 개정연대 전국행진으로 개복동 20주년을 함께 기념하지 못했음. 내년에는 성매매방지법 20주년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전체 모임을 기획해 보기로 함.
· 개정연대에서 9월 19일에 서울행사를 진행할 예정임. 지역에서도 함께했으면 함.
· 개정연대 토론회는 민들레순례단 전주나 다음 주로 예정하고 있음.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함.

**바. 제5차 운영위원회 회의**

1) 일시 : 2023년 8월 16일(수) 13:30 ~ 17:00
2) 장소 : 대구여성인권센터
3) 주요안건
- 지역상황 공유
- 사업별 보고
-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내부 토론회 평가 및 국회 토론회 논의
- 9월 성매매추방주간 행사 및 민들레순례단

**사. 제2차 임시운영위원회 회의**

1) 일시 : 2023년 9월 27일(수) 9:00 ~ 10:00
2) 장소 : 온라인 줌
3) 주요안건
- 2024년 정부 보조금 축소 등에 대한 대응 논의
4) 주요결과
- 2024년 정부 보조금 축소 등에 대한 대응 논의
· 예산 현안에 대한 시설 중심 대응과 정책 및 예산 방향성에 대한 정책 중심 대응을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성매매 쪽 여가부 면담 요청하여 여가부 입장을 들어볼 필요 있음. 상담소 및 구조지원비 예산 감액에 대한 질의 필요함
· 여성폭력계 공동대응 참여하고 정책적 대응 함께 하기로 함
· 정미례 정책위원 추가 의견 : 예산 축소는 피해자 지원 정책 전반의 축소로 갈 수밖에 없음. 언론, 국감, 장관 청문회 통해 정책 방향성 및 국가 책임에 대한 문제제기할 필

요 있음. 언론은 문제제기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함.

**아. 제6차 운영위원회 회의**

1) 일시 : 2023년 10월 18일(수) 13:00 ~ 16:30
2) 장소 : 대전시 사회서비스원
3) 주요안건
- 지역상황 공유
- 사업별 보고
- 한국여성재단 지원 사업
- 20주년 사업
4) 주요결과
- 한국여성재단 지원 사업
  · 생태계 조성 사업이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 확산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음. 대중사업을 더 고민해보기로 함
  · 다음주 월요일(23일)까지 아이디어를 고민해 운영위방에 공유하기로 함
- 20주년 사업 : 20주년 사업 준비를 각 네트워크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회의를 통해 함께 논의해가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음

**자. 제7차 운영위원회 회의**

1) 일시 : 2023년 11월 15일(수) 13:00 ~ 15:30
2) 장소 : 온라인 줌
3) 주요안건
- 지역상황 공유
- 사업별 보고
-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11월 국회 토론회 평가
-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2023년 활동 평가 및 향후 활동 방향 논의
- 여성가족부 예산 삭감 관련 대응
- 20주년 사업 준비
4) 주요결과
- 여성가족부 예산 삭감 관련 대응 : 여가부 질의 내용을 이하영 대표가 수정해 공유하기로 함
- 20주년 사업 준비 : 각 네트워크별 기획안을 준비해 총준위에서 논의하기로 함

**■ 운영위원회 2023년 사업평가**

- 지역별 활동 공유가 원활히 되고 있는지 고민이 든다. 사무국 활동이 늘어나다보니 사무국 활동 보고를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된 감이 있다. 회의 때 활동이나 정책을 고민하거나 논의할 시간이 부족함을 느낀다.
- 정책팀 해소 후 운영위에서 정책 논의를 함께 하기로 했으나 정책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정책 논의의 공백이 있다. 운영위에서 정책 세미나 등 정책 논의를 더 할 필요가 있다.
-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
- 조직적 고민이 더 필요하다. 운영위에서 비전과 연대 활동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더 필요한다 부족함이 있었다.
- 2024년 운영위는 정책 논의를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 분기별로 1회는 대면회의, 1회는 비대면 회의, 1회는 1박2일 워크숍으로 진행하기로 하자.

## 3. 네트워크 사업

### 가. 상담소네트워크

구성 : 김란희(광주 언니네상담소), 장은희/김하나(대구여성인권센터 힘내상담소), 손정아(여성인권티움 느티나무 상담소), 박현경(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이윤서(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상담소), 김수민(여성인권센터 보다), 정선영(수원여성인권돋음 오늘상담소), 이정은(인권희망 강강술래), 우정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현장상담센터), 송영심(제주여성인권연대 해냄상담소), 김유순(경남여성회 여성인권상담소) (총 11명)

#### 1) 정기회의

**가) 제1차 정기회의**

(1) 일시 : 2023년 2월 24일(금) 13:00 ~ 16:00

(2) 장소 :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3) 주요 안건

- 2023년 전국연대 상담소네트워크 사업 계획
  - · 2023년 전상넷 활동가 워크숍 (제주, 5월 30일-31일)
  - · 활동가 역량 강화 사업
  - · 성매매착취구조 들어내기
  - · 여성 성매매 광고죄 처벌 공동대응

라) 주요결과

- 2023년 전국연대 상담소네트워크 사업 계획
  - · 2023년 전상넷 활동가 워크숍 : 워크숍 전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차별·상담소별

활동가들의 고민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의 및 분반토론을 진행하기로 함.

· 활동가 역량 강화 사업 : 반성매매활동가 정체성 교육을 활동가 워크숍과 연동하여 진행하기로 함. 워크숍 사전 설문을 통해 활동가 요구도 수렴하여 이후 역량강화 교육 계획하기로 함.

· 성매매착취구조 들어내기 : 상담소네트워크 주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함. 각 상담소에서 시기 및 주제를 논의하고 차기 회의에서 공유 및 논의하기로 함.

· 여성의 성매매 광고죄 처벌 공동대응 : 최근 여성이 성매매 광고죄로 경찰에 입건된 사례가 있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성매매 광고업자들에 대한 수사는 없고, 여성만 성매매 광고죄로 처벌하려고 함. 각 상담소에서 지원한 사례를 취합 및 공유하기로 함. 사건 지원 시 경찰서장 면담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함.

- 올해 매월 회의 진행하기로 함. (1회 대면, 1회 줌 격월로)

**나) 제2차 정기회의**

(1) 일시 : 2023년 3월 16일(목) 10:00 ~ 12:00

(2) 장소 : 온라인 줌

(3) 주요안건

- 전상넷 활동가 워크숍
-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 평가 토론회

(4) 주요결과

- 전상넷 활동가 워크숍 : 워크숍 일정을 5월 말에서 6월 말로 변경하고, 세부 일정은 준비팀에 위임하기로 함.
-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 평가 토론회 :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 평가 토론회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TF팀을 구성해 준비하기로 함. 토론회 내용은 20주년 성과, 여성 삶의 변화, 착취구조 등을 중심으로 기획하기로 함.

**다) 제3차 정기회의**

(1) 일시 : 2023년 4월 19일(수) 13:00 ~ 16:00

(2) 장소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열린터 언니랑

(3) 주요안건

- 2023년 전상넷 활동가 워크숍
-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 평가 토론회
- 광고죄 여성처벌 대응 진행 보고 및 논의

(4) 주요결과

- 2023년 전상넷 활동가 워크숍
  · 일시 : 6월 28일 ~ 30일
  · 장소 : 제주

· 내용 : ‘반성매매운동을 하는 활동가의 자세’ 강의 및 주제 토론

-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 평가 토론회

· 지역별 실태조사 : 지역별 현장 실태조사가 필요할 경우,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고, 상담 유형분석의 변화와 운동 및 운동의 변화 지점에 초점을 두기로 함.

· 상담 운영 실적 통계 분석 : 상담통계로 어떤 내용을 드러낼 수 있을지 탐색해보기로 함. 각 지역별·상담소별 유의미한 판례를 보아 분석하기로 함. 전상넷에서 진행했던 공동고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추후 진행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 상담소 역할 : 질적 자료를 활용한 20주년 평가가 필요함.

· 평가 토론회 : 한편으로 20주년 토론회를 준비하고, 한편으로 네트워크 자체적으로 토론을 구체화시키는 자료를 만드는 방향으로 기획하기로 함.

- 광고죄 여성처벌 대응 진행 보고 및 논의 : 서울 보다 상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성매매 광고죄 관련하여 전국연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지원 및 활동을 함께하기로 함.

**라) 제4차 정기회의**

(1) 일시 : 2023년 5월 18일(목) 10:00 ~ 12:00

(2) 장소 : 온라인 줌

(3) 주요안건

- 2023년 전상넷 활동가 워크숍 논의
-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 평가를 위한 진행사항
-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활동가 인터뷰를 위한 기초설문조사 검토

(4) 주요결과

- 2023년 전상넷 활동가 워크숍 논의 : 소장들에게 조별토론 주제를 선정하여, 조별모임과 모든 행사를 참석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준비팀에서 확정하기로 함.
-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 평가를 위한 진행사항

· 실적 유실된 부분을 파악하고 업소 세부 형태 파악이 어려운 부분은 각 상담소가 이유 등을 메모하여 정리하기로 함.

· 판례 실적을 다 모아보되, 유의미한 판례에 대해서는 따로 표기-주요내용을 명시하기로 함. 중복 판례는 1차 수집 후 정리하고, 판례가 없어도 유의미한 내용은 기록해두기로 함.

· 사건번호나 판결문이 없더라도 주요 사건은 내용 정리하기로 함.

· 집결지 실적 취합을 위한 틀을 작성하여 공유하기로 함.

-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활동가 인터뷰를 위한 기초설문조사 검토

· 상담소 역할과 업무 등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위한 작업으로 시간을 갖고 진행하기로 함.

**마) 제5차 정기회의**

(1) 일시 : 2023년 6월 23일(금) 13:00 ~ 16:00
(2) 장소 : 온라인 줌
(3) 주요안건
- 2023년 전상넷 활동가 워크숍 논의
-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 평가를 위한 진행사항(상담운영실적, 정책적 개입의 환경변화)
(4) 주요결과
- 2023년 전상넷 활동가 워크숍 논의 : 활동가로서의 권리와 의무, 역할에 대해 정의하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고민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을 준비팀에서 논의하여 제안하기로 함.
-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 평가를 위한 진행사항(상담운영실적, 정책적 개입의 환경변화)
· 20년간 상담 운영실적 오류 부분 재검토 및 정리하기로 함.
· 정책적 개입의 환경변화는 각 상담소별로 제도영역, 주요사건, 집결지 폐쇄 등 하나 이상 정리하기로 함.
·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판례 취합하고 의미있는 사건은 메모 정리하기로 함.
· 상담 운영 실적과 정책적 개입의 환경 변화에 대해 차기 회의까지 정리 및 논의하기로 함.

**바) 제6차 정기회의**
(1) 일시 : 2023년 7월 20일(금) 10:00 ~ 12:00
(2) 장소 : 온라인 줌
(3) 주요안건
- 2023년 전상넷 활동가 워크숍 평가
- 성매매방지법 제정 20주년 평가를 위한 진행사항 점검
- 판례 분석 및 취합 논의
- 정책적 개입의 환경 변화
- 상담소 활동 보고
- 온라인 소통 매체 변경

**사) 제7차 정기회의**
(1) 일시 : 2023년 8월 25일(금) 13:00 ~ 16:00
(2) 장소 : 인천 희희낙락 상담소
(3) 주요안건
- 민·형사 판례 분석 및 정책 개임의 환경 변화 논의

- 상담일지 취합 전산 시스템 도입 논의

(4) 주요결과

- 민·형사 판례 분석 및 정책 개입의 환경 변화 논의
  · 현재 형사 530건, 민사 730건 정도 취합됐으며 보강 예정임. 판결문은 12월까지 단체별 pdf 취합하기로 함. 20주년을 맞아 올해까지 자료 정리해 1차 내부 평가하기로 함
  · 전북 우정희가 정책 변화 관련 공동 서식을 10월 중에 만들어 단체 방에 공유하기로 함
  · 수합한 지역별 주요한 정책적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추후 회의는 1박 2일로 진행하기로 함
- 상담일지 취합 전산 시스템 도입 논의
  · 서울 김수민이 전산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보고·설명 후 보완 사항 논의함
  · 추가 의견은 전국연대 상담소 네트워크 전체 방에 올리기로 하고, 프로그램 보완을 위한 상담일지·개별지원카드 서식을 서울 김수민이 수합하기로 함
  · 구축비용은 공모 사업 지원을 하고, 선정이 안 될 경우 단체별 분담하여 상환하기로 함

**아) 제8차 정기회의**

(1) 일시 : 2023년 10월 24일(화) ~ 25일(수)

(2) 장소 : 대전 장령산 휴양림

(3) 주요 안건

- 20년간 각 지역별 주요 활동 보고 및 논의
-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 평가 논의 및 업무 분장
- 상담일지 전산 시스템 구축 논의 및 시연

(4) 주요 결과

- 20년간 각 지역별 주요 활동 보고 및 논의
  · 법제정 초기, 상담소 개소 초기의 지역 상황을 살펴보고, 지역에서 상담소 활동으로 어떠한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었나? 지역변화를 이끌어 낸 부분도 들어다보면 좋을 것 같음.
  · 성매매환경, 성산업실태. 여성자활지원, 지원시스템의 양적질적 확대, 당사자조직, 사회적 인식, 활동과정에서의 한계와 어려움 등도 논의 해야 함.
  · 상담소 활동의 시기별 변화 지점과 원인 찾기. 법제정 초기와 비교하여 무엇이 변화했나, 이로 인해 상담소 역할에는 어떤 변화가 요구되는가?
  · 상담통계로 드러난 변화지점, 상담사례로 드러난 변화지점, 지원체계 확대 또는 축소로 드러난 변화지점, 여성인터뷰, 활동가인터뷰 진행하면서 살펴 볼 필요 있음
  · 각 지역 성매매현장의 변화, 성매매여성들이 처한 환경과 욕구의 변화, 현장활동가들의 변화, 활동현장 환경 변화 그래서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하는 고민이 듦.

· 전체 흐름 속에서 성매매현장도 많이 바뀌고, 여성들의 욕구도 바뀌고, 피해 상담소 활동가의 역할, 성격도 많이 바뀜. 우리 내부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의 10년을 구상해야 하지 않을까. 투트랙으로 하편은 자료를 모아 정리하고, 향후 10년을 고민하는 논의를 했으면 함.

-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 평가 논의 및 업무 분장

· 20년 평가의 큰 틀을 판결문과 상담실적 중심으로 한 내용을 1부로 하여, 성매매 실태와 피해 유형의 변화에 대한 함의 및 대응 방향을 살피고, 성매매피해상담소 변화와 확장의 기록을 2부로 해, 주요 사건 및 사업지원 영역의 변화를 살펴봄.

- 상담일지 전산 시스템 구축 논의 및 시연

· 전체 금액 2,500만원예상. 현재 모인 단체 18곳 정도. 예산 상 700만원이 부족해서 협상 중.

· 각 단체별 실무자를 선정하고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기로 함

· 시스템 사용 시연 함.

**자) 제9차 정기회의**

(1) 일시 : 2023년 11월 21일(화) ~ 22일(수)

(2) 장소 : 목포 게스트하우스

(3) 주요 안건

-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 평가 논의
- 상담일지 전산 시스템 구축 논의 및 시연

**2) 성매매피해상담소 상담DB 개발**

**가) 추진배경**

성매매피해상담소는 전산 상담 DB가 구축되지 않아 수기로 상담일지 작성, 대장 정리, 통계 산출 등을 하고 있어 활동가들의 업무는 매우 과중한 상황임. 전국 성매매피해상담소의 활동가들은 비효율적인 업무로 인해 업무 과중을 해소 하고 안정적인 상담 관련 서류를 관리하기 위해 공동체 IT사회적 협동조합과 협업하여 상담 DB개발 함.

**나) 참여 상담소**

(서울) 여성인권센터 보다, (광주) 언니네 상담소, (대구) 힘내 상담소, (대전) 느티나무 상담소, (목포)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부산) 살림 상담소, (인천) 강강술래, (수원) 오늘 상담소, (창원) 여성인권상담소, (제주) 해냄 상담소, (전북) 현장상담센터, (의정부) 두레방, (평택) 품 상담소, (서울) 소냐의 집, (청주) 늘봄 상담소, (포항) 새날 상담소, (서울) 이룸 상담소, (춘천) 길잡이의 집, (여수)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이상 19개 상담소)

**다) 추진 방법**

공동체IT사회적협동조합과 협업으로 상담DB개발

**라) 예산**

DB 개발비용 : 25,000,000원(1개 상담소 당 1,350,000원)

**마) 사업기간**

(1) 개발 기간 : 23년 8월~24년 6월

(2) 개통 시기 : 24년 1월 일부 개통, 24년 6월 개발 완료

**3) 상담소네트워크 워크숍, "고랑몰라, 펠롱펠롱 전상넷 봐사 알쥬"**

가) 일시 : 2023년 6월 29일(목) ~ 6월 30일(금)

나) 장소 : 제주 유스호스텔

다) 참여 인원 : 총 59명

라) 프로그램

| 일 시 | 시 간 | 내 용 |
|---|---|---|
| 06.29. | 13:00 | 집결 |
| | 13:00 ~ 13:30 | 각 단체 소개 |
| | 13:30 ~ 18:00 | -강의 (강사 정박은자)<br>〈반성매매운동을 하는 활동가의 자세 '우리는 왜 반성매매 활동을 하는가?'〉<br>-조별 토론 |
| | 18:00 ~ 19:00 | 저녁식사 |
| | 19:00 ~ 21:00 | 발표(강사 정박은자) |
| 06.30. | 08:30 ~ 09:30 | 조식 |
| | 10:00 ~ 12:00 | -명랑 보물찾기<br>-명랑 운동회 |
| | 12:00 | 해산 |

**■ 상담소네트워크 2023년 사업평가**

급변하는 성매매 현장의 지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소 네트워크 회의 진행 횟수를 기존 두 달에 한번에서 한 달에 한번으로 확대하였다. 수원 디스코 팡팡 사건, 여성 광고죄 처벌,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 지원 등 상담소 활동 공유와 판례 분석 등을 통해 성산업 변화의 추이를 공유하고 전국적 상황 파악과 피해자 지원의 지지와 힘이

되었다.

2024년 성매매 방지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성매매 피해 지원에 대한 상담 운영실적 분석, 민·형사 사건 판례 모음 등을 진행하고, 성매매 방지법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반성매매 운동의 지속가능함을 위한 정책 수립을 많이 고민하는 한 해였다. 고민과 논의를 통해 202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20주년 평가 사업틀을 마련하였다.

활동가의 역량강화와 연대를 위한 2023년 활동가 워크숍을 진행 하였다. 반성매매운동 활동가로서의 역할과 가치, 조직에서의 역할과 나의 역할에 대한 고민 등 사전 질문지를 받아 활동가들의 생각을 사전에 알아보고 강의 주제인 반성매매운동을 하는 활동가의 자세 '우리는 왜 반성매매 활동을 하는가?'에 녹아 낼 수 있어서 활동가들의 고민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되었다. 활동가들은 워크숍이 위로와 감동의 시간이자 채찍질의 시간이 되었고, 활동가-상담원의 딜레마에 대해 다시 한번 함께 고민하고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여성들이 만나는 첫 번째 기관인 상담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제별 토론이 다양한 점이 좋았다고 평가 하였다. 그러나 강의 내용에 비해 배정 시간이 부족한 아쉬움이 있어 다음 기회에 보충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활동의 고민을 각 상담소로만 국한하지 않고 전상넷 차원의 해결점 모색과 활동가들의 교류를 통해 실마리를 풀고자 했던 연대의 노력이 높게 평가된다.

상담 DB 추진 사업은 23년 뿐아니라 여러 차례 논의 되었다. 2016년 여성가족부차원의 상담DB 개발도 추진되었으나 현장 단체에서는 시스템이 피해자 개인정보의 안전성 보장이 안 되는 점 등을 문제제기하며 사실상 시스템 도입을 거부하였다. 상담소 네트워크 차원에서도 2021년에 논의하였으나 시스템의 안전성, 개발비용 등의 고민과 의견 차이로 결과를 도출하지 못 하였다.
2023년 상담 DB 개발 사업을 재논의하면서 여전히 피해자 정보의 안전성 보장과 개발 비용의 부담은 있으나 상담 DB가 외부 시스템과 연결되지 않은 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디지털 기반 업무 적응의 환경적 변화, 활동가들의 업무 부담 감소, 상담 통계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상담 DB 활용으로 활동가들의 업무 효율과 전국적 상담 통계 산출의 표본 등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다.

2023년 한 해 상담소 네트워크는 더욱 교묘해지는 성산업구조와 교활한 업자들의 수법, 여성들의 수많은 피해를 지원하면서 기존의 상담과 지원 체계에서는 해소 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현실적 고민과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하였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성과와 한계 그리고 우리의 과제와 변화에 대한 고민의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상담소 네트워크는 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성산업 지형의 변화를 민감하게 주시하여 민첩하게 해체하기 위한 활동과 전진을 계속 할 것이다.

**나. 쉼터네트워크**

구성 : 김희영(광주 푸른꿈터), 김초롱(부산살림), 김선례(광주 한울지기), 경희선/장은희(대구 단디이음), 윤하람(전북 민들레), 강혜정(인천 나무그늘), 강진영(제주 불턱), (총 7명)

**1) 제1차 정기회의**

가) 일시 : 2023년 2월 8일(수) 12:30 ~ 16:00

나) 장소 : 인천 나무그늘

다) 주요안건

- 현안 공유
- 장애여성 정책 연구사업
- 반려동물 돌봄 지원 서비스
- 퇴소 자립정착금 제도

라) 주요결과

- 현안 공유
  - · 개인화, 공동체 생활의 어려움 등 변화하는 시설 입소자 특성에 맞는 개별 프로그램 및 주거 공간 필요함.
  - · 입소자들을 위한 다양한 경험 당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음.
  - · 종사자 소진 방지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비폭력 대화 워크숍, 타시설 방문 등을 계획하고 있음.
- 장애여성 정책 연구사업
  - · 지역별 다양한 입소 사례 공유하고, 입소자 및 종사자 대상으로 장애 교육 등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 관련 기관 연계 및 자원 확보를 위한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 향후 지역별 성과를 공유하여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도출하기로 함.
- 반려동물 돌봄 지원 서비스 : 시설 입소시 반려동물 동반 입소 및 위탁 비용 지원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논의해보기로 함.
- 퇴소 자립정착금 제도 : 현재 제주와 광주에서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은 '입소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어 향후 타 지역에서 조례를 재정할 때는 조건을 최

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또한 조례보다 여가부 차원에서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운영지침 제안서에 퇴소자 자립정착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로 함.

**2) 제2차 정기회의**

가) 일시 : 2023년 5월 9일(화) 12:30 ~ 16:00

나) 장소 : 부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쉼터

다) 주요안건

- 입소자 관련 지역 상황 공유
- 퇴소 자립정착금 제도
- 쉼터 활동가 워크숍

라) 주요결과

- 입소자 관련 지역 상황 공유
  - · 지적 장애 및 경계성 장애를 지닌 입소자들이 성착취·성폭행 등 다양한 형사 사건과 연루되어 일반지원시설에서 보호의 한계가 있음. 원가족과 불화 및 타 시설 연계의 어려움이 있음.
  - · 외국인 여성이 입소할 경우 생계비 적용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현재 외국인등록증이 있거나 불법체류자인 경우 생계비 적용에 불가하고, 지자체에 따라 입소 보고가 가능한 지역과 불가한 지역이 있음. 시설에서 법률 및 의료지원, 자활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설 입소시 생계비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 · 성구매남에 의해 마약 중독 피해를 입은 경우, 현재 병원에서는 신고 의무가 폐지되어 신고 불가하다고 함. 향후 지역별로 관련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음.
  - · 마약 관련 '전국연대 쉼터 네트워크 운영방침' 제안 및 합의 : 입소 생활 중 마약 투약 시 우선적으로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고, 상황 따라 (행정입원 등) 입소자 안전을 위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음.
- 퇴소 자립정착금 제도
  - · 가폭, 성폭과 같은 자립정착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음. (제주는 퇴소 자립정착금 지원 중이며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을 제안할 예정임. 전북은 자립지원금 1순위 보장을 위해 여성폭력방지 조례 점검, 도 과장 면담, 주택보증금 지원제도 관련 작업을 하고 있고, '주거복지센터 정책 간담회'를 진행함. 부산은 전국 여지협 회의 때 관련 공동행동을 제안하기로 함.
  - · 각 지역별로 협의회 등 논의 후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로 함.
- 쉼터 활동가 워크숍 : 10월 중 워크숍을 개최하여 소진방지 및 심리치유프로그램, 숲 체험 등을 할 예정임.

**3) 제3차 정기회의**

가) 일시 : 2023년 7월 20일(목) 13:00 ~ 16:00
나) 장소 : 온라인 줌
다) 주요안건
- 지역별 상황 공유
- 퇴소 자립 정착금 제도 관련
- 2023년 쉼터 활동가 워크숍
- 20주년 성과 및 평가 관련
라) 주요결과
- 지역별 상황 공유
▹ 입소자
· 입소자 감소로 공동체 프로그램 진행 어려움 있음.
· 지적 및 경계선 장애를 가진 입소자 증가하면서 인권/민주주의 관련 교육 진행 예정.
· 그룹홈 일시 정원 증가 건으로 지자체 협의 중. 1인 1실 독립적인 공간으로 입소 욕구 높음. 아동여성지역연대 협의체에서 하반기에 주거 정책 관련 워크숍 진행예정
· 제주 6월 이사 완료. 8월 여가부 합동점검 예정
▹ 종사자
·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토론회 내부 스터디 진행 예정 (대구)
· 대구, 광주 푸른꿈터, 인천 활동가 워크숍 진행
- 퇴소 자립정착금 제도 관련
· 하반기 2024년 여가부 지침 의견 취합시, 퇴소 자립정착금 부분이 지침에 명시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의견 제출하기로 함.
- 2023년 전국연대 쉼터 활동가 워크숍
· 10월 19일(목)~20일(금) 제주도 예정.
· 1일차(모둠별 단합과 친교의 시간), 2일차(자유시간)
· 모둠별 시간 주제 관련 활동가들 의견 공유: 쉼터 생활 규칙, 입소자 일상생활지원 관ㄹ녀(위생 등), 공동체 프로그램 참여범위(필참 등), 건강한 스트레스 관리법, 차후 지역별 의견 더 보태기로 함.
· 다음 활동가 워크숍에서는 교육(이슈되고 있는 책 읽어보고 모둠별로 토론), 자기돌봄 및 긍정강화 관련 강의를 진행해보면 좋겠다는 의견 있었음.
- 성매매방지법, 전국연대 20주년 성과 및 평가 관련
· 성매매방지법 제정 이후 시설의 의미와 성과 관련 기획 필요
· 여가부 지침을 통해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개선된 부분 점검 등과 공간과 환경의 변화(입소자 개인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보면 좋겠음.
· 시설 설립 배경과 쉼터의 정체성, 탈시설화 기획토론회에서 언급한 시설의 부정적인 부분들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음.
· 지역별로 초안을 마련해보고, 4차 회의 때 다시 논의해보기로 함.
- 기타: 기관 연계시 구조지원사업비 사용 여부 공유함.

**4) 제4차 정기회의**

가) 일시 : 2023년 10월 19일(목) 10:00 ~ 13:00

나) 장소 : 제주도 용두암 캐빈

다) 주요안건 및 결과

- 2024년 간사 단체 : 광주 푸른꿈터
- 성매매방지법, 전국연대 20년 평가 관련
  - · 20년 동안의 주거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변화 과정 정리해 볼 필요 있음
  - · 치료회복프로그램 효과성 드러낼 수 있는 방법 고민 필요
  - · 시설 공간 부족에 대한 연구 필요 (LH임대주택 우선권, 외국 사례들 발굴 필요)
  - · 비입소 여성, 탈시설화에 대한 고민 필요함
  - · 입소자 감소 등 시설 운영 어려움과 관련한 질적 평가 필요함

**5) 전체 활동가 워크숍, "제주에서 킬링 말고 힐링"**

가) 일시 : 2023년 10월 19일(목) ~ 20일(금)

나) 장소 : 제주 일대

다) 프로그램

| 날짜 | 시 간 | 내용 | 비고 |
|---|---|---|---|
| 19일 (목) | | 점심 자체 | 제주공항에서 절물휴양림까지 약45분 소요 |
| | 13:00 | 절물자연휴양림 매표소 집결 | |
| | 13:20~15:00 | 절물휴양림 내 "장생이 숲길" 탐방 | |
| | 15:00~15:30 | 이동 | '오늘은 녹차한잔'으로 이동 |
| | 15:30~16:00 | 자유시간 | |
| | 16:00~16:30 | 녹차족욕 | |
| | 16:30~17:00 | 자유시간 | 오늘은 녹차한잔에서 '차 한잔의 여유'(선택사항) |
| | 17:00~18:20 | 제주시로 이동 | |
| | 18:20~19:20 | 석식 | |
| | 19:20~19:30 | 숙소로 이동 | |
| | 19:30~20:00 | 숙소도착 후 짐 정리 | (용두암케빈펜션) |
| | 20:00~21:00 | 모둠별 토론 | 토론주제: 쉼터생활규칙, 입소자 일상생활지원 |

| | | | |
|---|---|---|---|
| | | | 관련(위생부분 등), 공동체 프로그램 참여 범위, 건강한 스트레스 관리법 등 그 외 조에서 자유로운 토론주제 선정 가능 |
| | 21:00~ | 연대의 밤 | 소통의 밤 |
| 20일 (금) | 08:00~08:50 | 조식 | |
| | 08:50~09:00 | 숙소체크아웃 | |
| | 09:00~10:00 | 이동 | 너븐숭이4.3기념관으로 이동 |
| | 10:00~12:30 | 해설사와 함께하는 너븐숭이4.3기념관 및 북촌마을 투어 | 너븐숭이4.3기념관 |
| | 12:30~ | 마무리 후 해산 | |

**■ 쉼터네트워크 2023년 사업평가**

- 시설 입소자 지원과 관련하여 퇴소시 자립정착금, 반려동물 돌봄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지역별로 지역사회내에서 입소자 주거복지와 관련한 자원과 정보를 모색해보는 시간들을 가짐.
- 여가부 지침 의견 취합시, 퇴소 자립정착금부분이 지침에 명시 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의견 제출 하기로 함.
- 성매매 피해로 인한 마약중독 관련 입소자 지원 건으로 '전국연대 쉼터 네트워크 운영방침'을 제안, 합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입소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음.
- 22년부터 장애 여성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별로 고민하고 모아내었던 작업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적인 제안 등으로 연결되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 내년에라도 후속 논의로 이어지면 좋겠음.
- 1년에 한번 진행하는 워크숍은 활동가 서로 간의 어려움을 나누고, 공감과 위로, 연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음.

**다. 자활네트워크**

구성 : 이정연(광주 다힘), 최명순(대전 유쾌한공방), 최민혜(대구 생생이랑), 조명희(부산 숲), 한선영(인천 달빛공방), 김미선(전북여성자활지원센터), 한현진(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마소현(수원 모모이), 고미라(경기 평택 새움터), 김현선(경기 동두천 새움터), 이선미(서울 여성자활센터 해봄) (총 11명)

**1) 정기회의**

**가) 제1차 정기회의**

(1) 일시: 2023년 3월 2일(목) 15:00 ~ 17:00

(2) 장소: 온라인 줌

(3) 주요안건

-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 보수 관련 운영지침
- 공방 사업자 명의
- 공동작업장 참여 중 상해사고 지원

(4) 주요결과

-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 보수 운영지침 : 운영지침에는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가 체결 업체로부터 별도의 보수를 받는 경우 지원액에서 동 보수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하라고 명시되어 있음. 업체로부터 받는 보수는 시간당 지원단가 외 차액분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중복 지급이라 보기 어려움. 운영지침 변경 요청하기로 함.
- 공방 사업자 명의 : 여성가족부에서 공방 운영 형태를 정해준 바 없고 현장에 넘긴 실정임. 지자체나 여가부에 공방 운영 형태를 알리기로 함. 추후 법인 부설로 등록된 지역 공방 운영 상황을 공유하기로 함.
- 공동작업장 참여 중 상해사고 지원 : 상해사고 시 적립금에서 치료비를 부담함. 대인배상으로 이용할 경우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임이 드러나 이용에 불편함이 있고, 수술 등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작업장 이용을 못해 생계에 어려움이 가중 됨. 상해사고 시 작업장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해도 하루 5~7시간을 참여 시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함.

**나) 제2차 정기회의**

(1) 일시 : 2023년 4월 4일(화) 12:00 ~ 17:00

(2) 장소 : 인천 자활지원센터

(3) 주요안건

- 2023년 자활정책연구사업
- 다정방문사업

- 활동가워크숍
- 자활네트워크 대표자 워크숍

(4) 주요결과

- 2023년 자활정책연구사업 : 상반기에 운영실적에 맞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치 자활 이용 현황, 이용 변화를 살펴보기로 함. 하반기에는 2017년 자활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현재 이용자 대상으로 추가 진행하여 결과를 비교 분석해보기로 함.
- 다정방문사업 : 6월 말, 부산에서 진행하기로 함.
- 활동가워크숍 : 11월 대전, 광주, 대구 등 진행하기로 함.
- 자활네트워크 대표자 워크숍 : 5월 중 제주에서 진행하기로 함. 실적을 취합하여 분석하고 내부 자료로 만들기로 함.

**다) 제3차 정기회의 및 대표자 워크숍**

(1) 일시 : 2023년 5월 10일(수) ~ 5월 11일(목)

(2) 장소 :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3) 주요안건

- 2017~2022년 운영 실적 분석
- 자활지원센터 운영의 어려움 및 과제
- 이용자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홍보활동

(4) 주요결과

- 2017~2022년 운영 실적 분석 : 각 기관에서 준비한 실적을 토대로 자활지원조례 제정 및 시행 등 정책적 개입에 따른 특이점,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용자 수 및 지원 내용 변화, 공동작업장 참여자 연령 분포를 확인할 수 있음. 자활정책연구사업 TF에서 자료 분석 후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역에 요청하여 내용을 만들기로 함.
- 자활지원센터 운영의 어려움 및 과제
  - · 피해자지원시설로서 위기대응 및 안전문제(예. 이용자 간 갈등 및 폭력상황) : 안전한 시설운영을 위한 안전운영지침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활동가들의 위기대응 매뉴얼 및 훈련이 필요함.
  - · 시설 공간 문제 : 각 기관에서 건물 일부 공간을 임대하여 사용하면서 계약기간에 따른 잦은 이전 및 비용 문제, 높은 임대료로 인한 운영비 이용 부담, 동건물 내 타 업체나 주민으로부터의 민원 및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각 기관별마다 넓고 쾌적하면서 안전하게 운영가능한 시설공간 마련이 요구됨.
  - · 참여자지원사업 정체성의 모호함으로 인한 이용자 지원과정의 어려움 : 참여자지원사업은 급여가 아닌 지원금이지만 참여자들이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 그 해석이 달라 지원과정이 모호해짐. 여성가족부의 개입 및 정리가

요구 됨.

· 활동가 잦은 인사이동 : 조직운영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음. 자활지원센터 신규 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이용자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홍보활동 : 대구의 경우 대구 및 경북지역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자활지원센터 및 사업소개를 통해 이용자와 공동작업장 참여자를 발굴함. 전북은 상담소와 자활지원센터가 협업하여 '성매매피해자지원사업'을 주제로 리플릿을 제작하였고, 이는 향후 사업 안내 및 이용자 발굴을 위해 활용할 예정임.

**라) 제4차 정기회의**

(1) 일시 : 2023년 6월 15일(목) 10:30 ~ 12:00

(2) 장소 : 온라인 줌

(3) 주요안건

- 하반기 사업계획 논의
- 코로나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운영상황
- 수급자 작업장 이용

(4) 주요결과

- 하반기 사업계획 논의
  · 연구사업 설문조사(2017) 진행 (2017년에 진행한 설문조사와 유사한 질문으로 구성하여 결과를 비교분석하려고 함.)
  · 참여자 인터뷰 진행
  · 상담소 주요 사업에 따른 지원 사업 이용 현황 변화 파악
  · 다정방문사업 진행
  · 활동가 워크숍 진행 (11월, 대전)
- 코로나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운영상황
  · 6/1부터 격리기간이 7일에서 '5일 격리 권고'로 변경 됨.
  · 올해까지 5일 격리 유지하고 격리기간동안 1일 5시간 지원금 지급하기로 함.
- 수급자 작업장 이용
  · 수급권자가 공동작업장 이용시 지원금으로 인해 생계급여 탈락되거나, 수급권자 탈락할 수 있음. 또는 수급비 반환 문제 발생할 수 있음.
  · 구청에서 명확한 상담을 통해 자활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함.

**마) 제5차 정기회의**

(1) 일시 : 2023년 7월 26일(수) 12:00 ~ 16:30

(2) 장소 : 대전 자활지원센터

(3) 주요안건

- 운영 실적 분석
- 다정 방문
- 2023년 연구 사업
- 자활 활동가 워크숍

(4) 주요결과

- 2017년~2022년 운영실적 분석
  · 각 기관에서 준비한 실적을 토대로 자활지원조례 제정 및 시행 등 정책적 개입에 따른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 코로나 이전(2017년~2019년), 코로나 이후(2020년~2022년)의 이용자 수 및 지원의 내용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 일부 지역의 경우, 공동작업장 참여자의 연령들이 골고루 분포함을 알 수 있다. 20~50대까지 분포 됨. 특히, 중장년 여성들이 참여가 늘어나면서부터 호소하는 문제도 다양해졌다.
  · 일부 조사의 내용은 자료 분석에 유의미성을 찾기 어렵거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참여자지원사업의 중단사유의 경우의 각각의 중단사유를 기입하기엔 한계가 있다.
  · 본 조사의 경우, 운영실적을 토대로 진행하는 양적조사이기에 질적인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본 조사로는 자활지원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 정책적 개입이 자활지원센터 운영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

〈회의 결과〉
분석 자료를 자활정책연구사업 TF에서 분석 후 자료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역에 요청하여 내용을 만들어가기로 하다.

- 자활지원센터 운영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해결해야 하는 문제
  · 피해자지원시설로서의 위기대응 및 안전문제. 예를 들어 이용자 간 갈등에서 폭력상황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들의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때하기도 한다. 이에 안전한 시설운영을 위해 안전운영지침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활동가들의 위기대응 매뉴얼과 훈련이 필요하다.
  · 각 기관이 단독 건물을 사용하기 보다는 건물의 일부 공간을 임대하여 사용하다 보니, 계약기간에 따른 잦은 이전에 따른 비용 발생하고, 높은 임대료로 운영비에 하중을 주고 있다. 또한 동건물 내의 다른 업체 및 주민들로부터의 민원이나 갈등상황에 대한 조율도 수시로 진행된다. 각 기관마다 넓고 쾌적하면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설공간의 마련이 요구된다.
  · 참여자지원사업의 정체성의 모호함으로 이용자 지원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참여자지원사업은 급여가 아닌 지원금이지만 참여자들이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때 그 해석이 달라서 지원과정에서 모호해진다. 예를 들어,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사용시 공동작업장 참여 가능여부, 공동작업장 참여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 문제 등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없어 안내와 지원과정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 여성가족부의 개입 및 정리가 요구된다.

· 활동가의 잦은 인사이동이 조직운영에 안정성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때론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기도 한다. 자활지원센터 신규 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 이용자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홍보활동

· 대구센터의 경우, 대구 및 경북지역의 유관기관(여성폭력시설 중심)을 방문하여 자활지원센터 및 사업 소개를 통해 이용자 및 공동작업장 참여자를 발굴하였다.

· 전북센터의 경우, 이용시설은 상담소와 자활지원센터가 협업하여 '성매매피해자지원사업'이라는 주제로 리플릿을 제작하였고 이후 사업 안내 및 이용자 발굴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

- 기타 활동

· 제주자활지원센터 기관방문 및 라운딩 : 공동작업장 생산품 구매 등

· 제주아청센터 기관방문 및 라운딩 : 편의점 사업에 대한 안내 및 자활지원센터 사업과 접목에 대한 고민

· 힐링시간 : 애월 바다에서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

**바) 제6차 정기회의**

(1) 일시 : 2023년 8월 31일(목) 12:00

(2) 장소 : 대구 자활지원센터

(3) 주요안건

- 참여자 지원사업 운영 공유(8월 기준)
- 활동가 워크숍

(4) 주요결과

- 참여자 지원사업 운영 공유(8월 기준)
- 활동가 워크숍

· 11월 2일(목) ~ 3일(금), 대전KT 연수원

· 기획팀을 대구, 대전, 수원으로 정함. 그 외 강사비, 참가비 등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함

**사) 전체 활동가 워크숍, "반성매매, 자활지원 : 우리 모두의 운동으로"**

(1) 일시 : 2023년 11월 2일(목) ~ 3일(금)

(2) 장소 : 평산 아카데미

(3) 프로그램

| 일시 | 내용 | 준비물 |
|---|---|---|
| 13:00~14:00 | 전체 집결 및 인사 나눔 | 준비 : 대전, 대구 |

| 일시 | 내용 | 준비물 |
|---|---|---|
| (2시간) | | |
| 14:00~16:00<br>(2시간) | 강좌1) 성매매, 성노동이 될 수 없는 이유 | 사회 : 마소현 (수원 자활센터장)<br>강사 : 신박진영(전국연대 정책팀장) |
| 16:00~18:00<br>(2시간) | 강좌2) 반성매매운동의 백래시의 대응방법 | 진행 : 마소현 (수원 자활센터장)<br>강사 : 이하영(전국연대 공동대표) |
| 18:00~19:00<br>(1시간) | 저녁식사 | 평산아카데미 구내식당 |
| 19:00~20:30<br>(1시간30분) | 강좌3) 자활, 그 너머에/ 운영실적 분석 | 진행 : 최명순 (대전 자활지센터장)<br>강사 : 김미선(전북 자활센터장) |
| 20:30~22:20<br>(1시간 50분) | 소소한 뒷풀이 | 준비 : 대구 자활센터 |
| 23:00 | 취침 | 4인 1실 |
| 08:00~09:00<br>(1시간) | 아침식사 | 평산아카데미 구내식당 |
| 09:30~10:30<br>(1시간) | 공동체 프로그램<br>*아카데미 족구장 또는 잔디 사용 | 역할 : 대구 자활지원센터 |
| 10:30~11:00<br>(30분) | 동화사 이동 | 차량별 탑승 |
| 11:00~12:00<br>(1시간) | 동화사 일대 산책 | |
| 12:00~13:00<br>(1시간) | 동화사 인근 식사 | |
| 13:00 | 해산 | |

**아) 제7차 정기회의**

(1) 일시 : 2023년 12월 5일(화) 12:00 ~ 16:30

(2) 장소 : 대전 자활지원센터

(3) 주요안건

- 기관별 현황 공유
- 자활네트워크 활동가 워크숍 평가
- 운영지침 제안서 공유
- 2023년 사업 평가 및 2024 사업 계획 논의

**2) 자활네트워크 정책연구사업 TF회의**

**가) 제1차 회의**

(1) 일시 : 2023년 3월 29일(수) 12:00 ~ 16:00

(2) 장소 : 대전 자활지원센터

(3) 주요안건 및 결과

- 정책연구사업의 필요성 및 2023년 계획 논의(상반기: 자활지원센터 이용 및 지원 현황 분석(2017~2022), 하반기: 자활지원센터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2017 조사와 비교분석))

**나) 제2차 회의**

(1) 일시 : 2023년 8월 14일(월) 16:00~17:30

(2) 방식 : 온라인 화상회의

(3) 주요안건 및 결과

- 자활지원센터 이용 및 지원 현황분석(2017~2022) 진행상황 공유, 자활지원센터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함.

**3) 다정 방문**

가) 일시 : 2023년 6월 30일(금) 13:00~17:00

나) 장소 : 부산 자활지원센터

다) 참석 : 전국 자활네트워크 소속 10개소 자활지원센터 활동가

라) 내용 : 기관라운딩, 공방 체험프로그램 운영(캔들), 부산 자활지원센터 프로그램 '숲속학교' 소개 및 질의응답

**■ 자활네트워크 2023년 사업평가**

- 네트워크회의는 총 7차례(온라인 2회, 대면 5회) 진행되었다. 회의를 통해 공동사업 및 정책연구, 제안활동 등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었다. 또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도 나누었고, 자활지원센터가 아닌 유관기관의 연계요청에 대해서는 협업하여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
- 회의는 아니었지만 시급하게 논의할 사항이나 공동의 문제에 대한 대응과 정보교류 등을 위해 수시로 온라인 상에서 소통이 이루어졌다.
- 대표자워크숍은 자활지원 관련한 진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코로나 19로 중단되었던 활동가워크숍을 진행하였다. 그 사이 활동가들의 변화가 많이 있었고 반성매매운동, 특히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백래시와 관련하여 공부하는 활동가워크숍으로 진행하여 우리 활동의 의미를 다시고 되새기는 자리였다.
- 지난해에 이어, '다정방문사업(기관방문)'을 통해 기관을 방문 및 견학을 통해 타 기관의 우수사업을 배우고 활동가간 네트워크 활동이 시도되었다. 본 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았고 2024년에는 활동연차별 참여로 연 2회 진행하면서 소통과 연대, 교육의 장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전체 활동가워크숍은 2024년에는 쉬기로 하였다.

- 정책 및 연구사업을 2023년에는 자활정책 관련한 논의와 제안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일부 정책제안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의 긍정적 답변을 통해 실현되기도 하였는데, 특히 참여자지원금의 시간 단가 상승은 의미있는 변화였다. 하지만 참여자지원금 총 예산이 몇 년동안 동결되면서 한정된 예산상의 문제로 사실상 참여자 수 및 참여시간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에 참여자지원금의 총예산은 현실에 맞게 지원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사업을 통해 지난 6년간(2017년~2022년)의 지원현황을 분석하면서 전체적으로 각 기관마다 신규이용자들의 연계 및 이용이 줄어들고 있고 이는 전체적인 이용자 수의 감소로 연결됨이 확인되면서 향후 자활지원센터의 역할과 자활지원사업의 방향에 대한 점검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라. 아동청소년네트워크**

구성 : 광주센터 하랑, 대전센터 다락, 수원센터 모아, 인천센터 잇다, 전북센터 나우, 제주센터 반짝 (총 6개 단체)

**1) 정기회의**

**가) 제1차 정기회의**

(1) 일시 : 2023년 2월 16일(목) 12:00

(2) 장소 : 전북센터 교육실

(3) 주요안건

- 2023년 활동계획 공유
- 제주 워크숍 (4월 20-21일)
- 자료 공유

(4) 주요결과

- 2023년 활동계획 공유
  - · 법률 : 법률 지원시 보호자 고지 및 동의 절차에 대한 공동 문제제기 등을 진행하면 좋겠음.
  - · 사례 워크숍 : 중학생 사이에서 성착취를 피해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연해 있음. 사례 워크숍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 온라인 : 온라인 매개 성착취가 많기 때문에, 온라인 아웃리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함. 온라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담원 교육을 계획해보기로 함.
  - · 상담원의 트라우마 : 온라인 활동 시작 전 충분한 교육 과정이 필요하며, 상담원의 트라우마를 다룰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함.
  - · 공동 웹자보 및 영상 제작, 홍보 : 홍보 방식을 체계화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함. 릴레이 카드뉴스, 옥외광고, 업체 및 기관 등에 홍보를 계획해보기로 함.
  - · 공신력 확보 : 공신력 확보를 위해 여가부나 진흥원에 요청하여 홈페이지에 아청을 알릴 수 있는 안내 요청하기로 함.

· 사전·사후 질문지 구성 : 기존 실적틀로 드러낼 수 없는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질적 내용을 드러내는 질문지를 구상해보기로 함.

- 제주 워크숍 : 4월 중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함. 활동가 교육, 분반토론, 레크레이션 등을 기획하기로 함.
- 자료 공유 : 작년 활동을 통해 발견한 용어 자료취합 및 공유문서 만들기를 진행하기로 함.

**나) 활동가 워크숍**

(1) 일시 : 2023년 4월 20일(목) 15:00 ~ 4월 21일(금) 12:00

(2) 장소 : 제주 용두암캐빈

(3) 프로그램

| 일정 | | 내용 및 장소 |
|---|---|---|
| 20일 (목) | 14:00~15:00 | 집결 및 숙소 입실, 짐 정리, 방배정 |
| | 15:00~16:00(1시간) | 각 센터 현안공유 |
| | 16:00~18:00(2시간) | 효과적인 사이버아웃리치의 방법과 이해 |
| | 18:00~19:00(1시간) | 저녁식사 - 김희선두루치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어영길 19) |
| | 20:30~22:00(1.5시간) | 레크레이션 |
| | 22:00~ | 연대의 밤 |
| 21일 (금) | 9:00~11:00 | 숙소 정리 및 해산, 단체사진 |

- 사이버 아웃리치 신고의 한계, 방법의 다양화 논의
- 토의 안건에 대해 각 기관별로 논의 후 차기 네트워크 회의에서 공유하기로 함.

**다) 제2차 정기회의**

(1) 일시 : 2023년 6월 15일(목) 14:00 ~ 16:00

(2) 장소 : 대전 커먼즈필드

(3) 주요안건

- 아청센터 홍보
- 보호자 고지의무
- 성착취 인식 교육
- 2023년 활동 방향

(4) 주요결과

- 아청센터 홍보 : 아청센터 역할 및 공신력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

하지만, 전국연대 외 전국 센터를 제외하고 홍보가 어렵고 전국연대 아청넷에서 진행하기에는 예산의 한계가 있어 진흥원에 제안해보기로 함.

- 보호자 고지의무 : 연구자료를 토대로 고지로 인한 법률지원이 어려울 경우 근거를 토대로 경찰 측을 설득하면 될 것 같음.
  · 제주의 경우 지침이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N번방 이후 관련 법률이 새롭게 재정 및 개정되면서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수사관들이 많은 듯함. 현재 유관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연구 결과가 나오면 정리될 것 같음.
  · 광주의 경우 고지가 의무가 아닌 수사관 재량인 것으로 추측됨. 의무고지 안 된 건이 2건 있었음. 경찰이 오히려 보호자가 성매매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아이가 원하지 않으니 기관에서도 언급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사례가 있었음.
- 성착취 인식 교육 : 성착취에 대해 청소년들이 인식할 수 있는 교육 자료가 필요함에 공감하고 지역별 센터에서 좋은 교육 자료가 있을 경우 공유하기로 함.
  · 인천의 경우 내담자 중 '조건만남'이 위험한 것은 알지만 하고 싶다, 좋아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 고민 됨. 청소년 대상으로 성착취 관련 재인식할 수 있는 교육자료가 필요할 듯함.
  · 수원의 경우 성노동을 주장하는 청소년들이 있었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함.
- 2023년 활동 방향 : 각 센터 모두 트위터를 매개로 한 성착취 문제가 심각함을 확인하였음. 표현의 자유보다 미성년자 성착취 문제의 심각성이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주제로 대응을 계획하고 언론사 보도 요청을 진행하기로 함.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기로 함.
  · 전북에서는 9월 트위터 코리아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트위터 측에 심각성을 고민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볼 것을 제안함.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온라인 아웃리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계정을 삭제 당해 항의 공문을 보냈음. 트위터 자체에서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실무자가 거의 없어 답변도 없는 상황임. 트위터에서 알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규제되지 않고 있음.)
- 기타 : 아청법 개정안 관련하여 권인숙 의원실과 소통하고 있음. 민주당 의원이 여가위 간사를 맡아 이를 1순위로 다루겠다고 했으나, 예산이 문제임. 별도 기관을 설치하고 인력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여가부에서는 현재 3명으로 설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함. 3명으로 설치하는 것을 수용할지 아니면 거부해야 할지 지역별로 고민하고 있음.

**라) 제3차 정기회의**

(1) 일시 : 2023년 7월 28일(금) 14:00

(2) 장소 : 온라인 줌

(3) 주요안건

- 지역별 현황
- 트위터 기자회견
- 향후 계획

(4) 주요결과

- 지역별 현황 공유
  · 광주 : 디스코 팡팡 실태조사 – 연령대 다양, 환경 지저분하고 DJ 멘트 선정적. VIP, VVIP 단톡방 운영하고 이를 위해 센터 이용중인 청소년 중에도 성매매 유인된 사례가 있고 랜덤박스를 사게 하는 등 우회적인 갈취도 있음. 청소년이 자위영상 판매한 것을 경찰이 음란물유포죄로 피심. 선례될 수 있으므로 센터에서 강력 대응할 계획. 위클래스 상담교사 워크숍에 센터 안내하였는데 피해자 상담보다 가해자 교육 문의 많았음.
  · 인천 : 학교, 지자체 연계 증가, 부평 디스코 팡팡 생각보다 큼. 다른 지역 유명 DJ가 이동하여 팬덤도 같이 이동함. 강매, 자극적인 멘트, 개인사 질문.
  · 제주 :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태도와 수사 과정의 문제 때문에 민원 넣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공방 운영하고 있음.
  · 수원 : 디스코팡팡 피해자 26명으로 늘어남. 그러나 면접상담한 피해자는 3명. 가해자들이 편지 보내거나 결혼하자는 식의 그루밍 이어지고 있음. 전국공동대응 필요해 보임. 간담회는 경기도 지역 청소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성인이 어떻게 아이들을 착취하는지 양적조사, 피해자와 보호자 인터뷰 등 질적조사 진행하여 11월 말에서 12초로 계획하고 있음.
  · 대전 : 청소년 법률지원 많지 않지만 경찰에서 연계되거나 통지 명단 사례 있었고, 보호자 심리상담 필요한 사례 있음. 그냥공방에서 시급 올리면서 예산 부족 발생.
  · 전북 : 보호자 교육(상담)에 고민이 있어 관련 매뉴얼, 교육자료 필요함. 진흥원에 문의하였고 의견 반영되어 하반기 종사자 교육으로 기획될 듯함. 디스코팡팡 청소년 유관기관과 합동 아웃리치 계획하였으나 우천으로 취소됨. 지자체 아동복지과 간담회 기획하고 있음.
- 트위터 코리아 기자회견
  · 폐쇄적, 소통창구 없음.
  ·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지역에서 공감함. 전국연대 아청네트워크가 제안서를 작성하여 구체화하기로 함.
  · 제안 내용 : 신고 카테고리 보강(성매매 관련 신고 항목), 본인이 게시했더라도 성착취물 삭제 기준 상향, 필터링 강화, 규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체계 마련, 키워드 차단, 연령확인 기능, 차단 기능
  · 외국인 미성년자 성착취 대응 사례 찾아보기
  · 기자회견의 목적과 취지가 구체적이어야 함. 제안서를 여가부, 방통위 등 제출 범위 논의해야함.
  · 기타 공동행동이나 향후 목표 : 미국 본사에 의견서 제출해보자, 대화의 장을 열자

**마) 제4차 정기회의**

(1) 일시 : 2023년 8월 4일(금) 15:00 ~ 15:40

(2) 장소 : 온라인 줌

(3) 주요안건

- 트위터 코리아 기자회견

(4) 주요결과

- 트위터 코리아 기자회견
  - · 9월 19일 오전 11시로 확정
  - · 연대 제안서 : 대전에서 작성하고 이하영, 손정아 공동대표 피드백, 전북 전은솔 제안서 작성 때 함께 하기로 함.
  - · TF 꾸리는 단계에서 연대요청하면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기자회견 준비는 아청넷에서. 발언, 참여, 연명을 연대 제안서 작성하여 기관별 메일 발송, 단톡방에 공유하기로 함. 발언자 섭외는 개별 연락 취하기로 함.
  - · 퍼포먼스는 8월 서울 회의 때 구상하기로 함.
- 디스코 팡팡
  - · 수원 : 며칠 전 디팡 총책 잡혔음에도 영등포에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함. 청소년들의 안전한 놀이공간이 마련되기 위한 시도조례 재정 등의 요구를 담은 공동성명서 등을 준비하여 공동 대응을 하면 어떨까 고민이 있음. 현재 성명서를 포함한 보도자료는 한 번 배포된 상태이며 실태조사 전국적으로 자료 취합하고 있는 상태임.
  - · 대전 : 디팡 내 성착취나 각종 범죄 노출은 2013년에 인지함. 초등생 포함한 십대들의 놀이공간으로 디팡 운영 남성들이 가장 취약해보이는 아이들을 캐치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피해가 속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됨. 그때부터 아웃리치하며 주변 환경을 살펴봄. 당시 가정 밖 아이들이 많아 취약성을 이용한 남자아이들이 많았음. 고소는 안한다고 하여 사건이 되지는 않았지만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했음. 지역 사회 내 청소년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목소리 내었으며 경찰에 실태를 알리고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기를 요청함. 지역사회가 주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냄.
  - · 대전 : 실태조사 내용을 모아서 어떤 자료를 만들고 그것을 라인 sns 등을 활용해서 심각성 알려내는 것 하나와 전북이 청소년단체 협력해서 실태조사 기획하듯이 지역 청소년단체에 알려내는 것이 필요함. 다른 청소년기관들에서도 경험들이 쏟아져 나올 것임. 경찰, 특히 관할 구 경찰서에 주기적으로 순찰 등을 통해 방문하도록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함. 간담회 주관하여 지역 청소년단체와 경찰, 지자체 공무원 불러서 지역별로 간담회 하는 것도 의미있을 듯함.
  - · 전북 : 청소년네트워크 실태조사는 무산되었지만 유해환경감시단위원이 전북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교 측에 전달하여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나갔음. 지역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접촉해보는 것도 의미있을 듯함.
  - · 수원에서 취합한 전국 실태조사 내용은 문건으로 정리하기로 함. 이를 토대로 아청넷 내에서 SNS를 통해 같이 알려내는 활동을 할 수 있을 듯함. 지역별로는 청소년네트워

크, 경찰, 교육청, 유해환경감시단 등과 접촉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이슈를 알려내는 활동을 해보기로 함.

**바) 제5차 정기회의**

(1) 일시 : 2023년 8월 17일(목) 13:30

(2) 장소 : 워트코트 역삼점 룸1

(3) 주요안건 및 결과

- 엑스(구.트위터) 코리아 기자회견
- 디스코 팡팡 공동 대응의 건
  - · 전국 공동 대응 방법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해 유관기관 등에도 요청해 SNS 동시 게시 추진하기로 함

**사) 제6차 정기회의**

(1) 일시 : 2023년 10월 19일(목) 13:00 ~ 16:00

(2) 장소 : 수원여성인권돋음 부설 아청센터 모아

(3) 주요안건 및 결과

- 엑스(구. 트위터) 코리아 앞 기자회견 평가
  - · 성과: 기자회견 참석자 100명 넘었고 아청넷이 주체적으로 액션을 한 것에 의의가 있음. 처음 활동에 참석하는 활동가도 있어 좋은 기회가 되었음. 다시함께에서 기자회견을 보고 은어와 해시태그를 수집한 자료를 전달받고 싶다고 연락이 옴. 방송통신위원회랑 논의할 때 추가 필터링할 수 있게 추진하고 함. 이정문 의원과 엑스 코리아에 의견서 제출한 것에 대한 성과
  - · 아쉬운 점: 국정감사 때 질의를 하였으면 하여 이정문 의원과 논의 테이블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진전 없었음. 추후 라운드테이블이 있으면 참석하거나 내용을 공유받고 싶음을 전달함. 엑스 코리아에서 논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였으나 본사에서 막음. 더 많은 자료를 축척하지 못한 아쉬움.
  - ·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점이 있음.
- 지역별 현황(이슈) 공유
  - · 대전: 특별감사가 있어 행정서류를 PDF로 보낼 예정, 랜덤으로 기관을 정해 4일동안 감사 예정. 유관기관과 경찰 등 아청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기관 홍보 예정, 가정과 학교 안 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중3~고1인 이용자 연령이 많음.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동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음. 이에 대한 재해석과 성착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안을 함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음. 중앙센터 대표자 회의 때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할 예정임.
  - · 광주: 11/23(목)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 생활 및 실태조사 토론회 개최 예정.
  - · 전북: 성착취예방 교육에서 우리가 제일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임. 초등학교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음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상담 준비가 필요해보임. 그리고 보호자, 경계선

지능을 가진 청소년 등 대상에 따라 교육 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인천: 통지서 명단은 1~2건씩 들어오고 있음.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처벌개념으로 성교육 의뢰가 많이 들어옴. 학교와 아청의 입장 차가 있에 대해 이야기함.

· 경기: 아청사업을 올해로 종료하고자함. 실적과 이용자에 따라 존폐위기에 있는 상황에 구조지원사업에 힘을 실어줘야할 시기일 것으로 보임. 또한 경기도에서는 타 기관에 위탁할 예정으로 보임. 수원역 디스코팡팡이 재영업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

**아) 제7차 정기회의**

(1) 일시 : 2023년 12월 14일(목) 12:30 ~ 16:00

(2) 장소 : 대전 아청센터

(3) 주요안건 및 결과

- 지역별 현안 공유
- 2023년 사업 평가 및 2024년 사업 계획

**2) 엑스(트위터) 코리아 규탄 기자회견**

가) 일시 : 2023년 9월 19일(화) 11:00

나) 장소 : 엑스(트위터) 코리아 앞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다) 주최·주관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아동•청소년지원센터네트워크

**■ 아청네트워크 2023년 사업평가**

- 올해 처음으로 격월 오프라인 회의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트위터 코리아 기자회견까지 기획, 진행 할 수 있었음. 24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격월 오프라인 회의 진행하기로 함.
- 아청넷 자체 워크숍에 대하여 활동가들의 피드백이 좋았음. 24년에도 전국연대 아청센터 활동가들이 다같이 모일 수 있는 워크숍 진행하기로 함.
- 24년에는 아청센터 활동가에 맞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월별, 지역별 법률이나 프로그램 등 주제를 가지고 한 꼭지씩 맡아서 참여 원하는 아청센터 활동가들에게 열어놓고 진행하기로 함.

**마.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구성 : 짤/지음(운영위원장), 진(정책팀장), MK(예그리나), 무무(하쿠나마타타), 바라(키싱구라미), 백치(나린아띠), 예서(뱅디), 저씨(보따리), 소리(별하)

협력단 : 신박진영, 변정희

**1) 뭉치 운영위/정책팀 통합회의**

**가) 뭉치 1차 통합회의**

(1) 일시 : 2023년 3월 17일(금) 13:30 ~ 18:00

(2) 장소 : 대전 여성인권티움 교육실

(3) 주요안건

- 운영위 역량강화 세미나 및 워크숍
- 정책팀 사업
- 자활참여자 대상 성매매재인식 프로그램
- 해외 당사자 네트워크
- 전국연대 20주년 사업
- 운영위·정책팀 통합운영

(4) 주요결과

- 운영위 역량강화 세미나 : 정기 세미나를 통해 전국 자조모임 운영위원장으로서 조직운동에 대한 이해 및 조직 운영 리더십을 점검하고, 뭉치 운영위원으로서 반성착취 현장에 당사자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자 함.
- 정책팀 사업 : 상반기 정책세미나, 역량강화아카데미, 국제네트워크 사업 정리, 홍보사업을 진행하기로 함. 홍보의 경우 자조모임에서 성매매 여성 불처벌 이유에 대한 글을 작성 및 게시하기로 함.
- 자활참여자 대상 성매매재인식 프로그램 : 운영위원회에서 전담하기로 함.
- 해외 당사자 네트워크
  - · 일본 북콘서트 및 출판기념회 : 7월 일본에 방문하여 북토크 및 내부간담회, 등화·콜라보 버스카페 방문하기로 함. 8월 중 온라인 출판기념 행사 진행하기로 함.
  - · 24년 스위스 CEDAW 회의 : 24년 회의 참석 의사 전달함.
- 전국연대 20주년 사업
  - · 아카이브 : 상반기 각 지역 자조모임 자료를 찾아서 정리하기로 함.
  - · 행진 : ‘움직이는 희망, 뭉치’ 버스 운영, 아카이브 행진, 캠페인, 처벌법 개정 촉구 등 아이디어를 공유함.
  - · 운영위·정책팀 통합운영 : 20주년 준비를 위해 격월로 함께 회의 진행하기로 함.

**나) 뭉치 2차 통합회의**

(1) 일시 : 2023년 5월 26일(목) 13:00
(2) 장소 : 대전 사회혁신센터 작은 이야기방1
(3) 주요안건
- 하반기 사업 논의 및 역할 분담
(4) 주요결과
- 하반기 사업 논의 및 역할 분담
· 현 운영위원장 개인 사정으로 2024년 전국연대 총회까지 지음이 운영위원장 업무 대행하기로 함.
· 2023년은 운영위회의와 정책팀회의를 통합 운영하기로 함.
· 성매매경험재인식 프로그램은 제주에서 6월 2일 진행할 예정임. (무무, MK)
· 뭉치 워크숍은 포항에서 10월 말 진행할 예정임.
· 국제 연대사업으로 7월 중 뭉치와 전국연대 21인이 일본 방문할 예정임. 일본 북콘서트 전시 방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6월 중순 출발 전 일본가는 활동가들의 텔레그램방을 만들어 소통 예정임.
· 성매매방지법 20주년 '뭉치' 자료 취합 및 정리를 위해 자조모임별 연혁을 정리하기로 함.

**다) 뭉치 3차 통합회의**

(1) 일시 : 2023년 7월 24일(월) 19:30 ~ 22:00
(2) 장소 : 온라인 줌
(3) 주요안건 및 결과
- 일본 출장 평가
- 10월 전체 워크숍
· 장소 : 대전
· 주제 : 다시 돌아가는 뭉치
· 의견 : 20주년 기념 내용을 어떤 것을 할지, 워크숍에서 논의하면 어떨지? 자기 경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였으면 좋겠음. 주제를 잡아서 이야기하였는데, 일본과 연결하여 우리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음. 과거에 했던 경험나누기를 지금 운영위들이 해본 적이 없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 싸운 이야기, 호스트바, 지나고 보니 이제야 웃을 수 있는 이야기 등
- 20주년 아카이브
· 8월 회의 때 20주년 아카이브 자료 모아서 회의하기로 하였음.
· 지역 자조모임 + 뭉치꺼 다 모아보고자 함.
· 성명서, 총회자료, 글 쓴 거 등 기록되어있는 거면 무조건 모으기로 함.
· 연대기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총회자료집 기준으로 볼 수 있음.
· 8월 회의 때 총회 자료집 내용을 다 작성해오기로 함. 연대기로 작성하려고 함.
· 목록화 엑셀 파일 만들어서 기재해보기로 함. 서식은 MK가 구글독스로 작성하기로 함.
- 정책팀

· 카드뉴스 일자별 게시 예정. 노블언니 후기글 카드뉴스 제작하여 게시 예정.
· 일자 나눠서 게시,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게시

**라) 뭉치 4차 통합회의**

(1) 일시 : 2023년 9월 14일(목) 13:00 ~ 16:00
(2) 장소 : 대구여성인권센터 교육실
(3) 주요 안건 및 결과
- 뭉치 워크숍
· 10월 26일(목) ~ 28일(토), 장소 미정
- 성매매방지법 20주년, 뭉치 활동 정리 및 아카이브
· 자조모임 자료는 현재 드라이브 축정 중이며,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쓰기로 함
· 뭉치 자료는 지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정리하기로 함. 그 외 총회 자료집을 참고해 연도별 정리를 해야 함
- 기타
· 탈시설 관련한 세미나 제안을 함

**마) 뭉치 5차 통합회의**

(1) 일시 : 2023년 12월 7일(목) 19:00 ~ 20:30
(2) 장소 : 온라인 줌
(3) 주요 안건 및 결과
- 뭉치 워크숍 평가
- 아키이빙 자료 취합 목록 확인
- 2024년 뭉치 운영위원장 논의

**2) 뭉치 전체 워크숍**

가) 일시 : 2023년 10월 26일(목) ~ 28(토)
나) 장소 : 공주 해피투게더 펜션
다) 프로그램

| 일시 | 내용 | 역할분담/비고 |
|---|---|---|
| 14:00 | 장소 도착 및 세팅<br>(세미나실, 방배정) | 준비 : 별하, 예그리나<br>12월의 왈츠 010-7525-0030<br>충남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2로62 |
| 15:00 | 인사 및 자조모임 소개 | 진행 : 예그리나 |
| 16:00 | [강의1] 우리는 성매매라는 경험을 왜 기록하고 기억하는가 | 강의 : 변정희 |
| 18:00 | 저녁식사 | 내고향 묵집 041-857-4884 |

| 일시 | 내용 | 역할분담/비고 |
|---|---|---|
| | | 충남 공주시 반포면 길만길9 |
| 19:00 | [토론1] 조별 토론 | 4개조 주제(변정희) |
| 21:00 | 조별 발표(지역별 조나눔 확인) | 진행 : 보따리 |
| 08:00 ~ 10:00 | 아침 식사 및 산책 | 개별 : 라면, 누룽지, 어묵탕 |
| 10:00 ~ 12:30 | 공동체 프로그램 동학사 이동 및 함께 걷기 | 진행 : 하쿠나마타타 |
| 12:30 | 점심식사(차량별 이동 2분) | 예약 : 별하<br>신미가 짬뽕 042-822-9171<br>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289-12 |
| 13:30 ~ 15:00 | 영상상영 및 토론3] 연극 영상 상영[그물] 및 이야기 나눔 | 진행 : 나린아띠 |
| 15:00 ~ 17:00 | [토론2] 실타래를 던져라- “나의 경험은 나의 경험은” | 진행 : 키싱구라미 |
| 15:00 ~ 18:00 | [강의2] 뭉치 역사자료 공유 | 진행 : 예그리나 |
| 18:00 ~ | 저녁식사(픽업서비스 5분) | 예약 : 별하<br>바베큐7892 042-823-7892<br>충남 공주시 반포면 사봉길78 |
| 19:00 | [토론4] 우리는 무엇을 기록하고 싶은가 | 진행 : 나린아띠 |
| 20:00 | 뒷풀이 | 진행 : 보따리 |
| 08:00 ~ 10:00 | 아침식사 | 개별 : 라면, 누룽지 등 |
| 10:00 ~ 12:00 | 게임(얼굴그리기, 서로의 이야기 담기), 산책 | 진행 : 하쿠나마타타 |
| 12:00 | 점심식사 | 예약 : 별하<br>십전갈비탕 042-822-0712<br>충남 공주시 반포면 계룡대로1391 |

### 3) 역량 강화

**가) 아카데미 〈뭉치, 더 세미나(The Seminar), 뭉치 더 세지나(The Stronger)〉**

(1) 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월 24일(수), 6월 20일(화), 8월 28일(월), 10월

16일(월) 19:00/ 11월 17일(금)
(2) 방식 : 온라인 화상회의/ 제주일대
(3) 내용 :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발제 및 토론/ 책거리

**나) 세미나 〈여러 빛이 만나면, 또 다른 우리가 된다〉**
(1) 일시 : 2023년 6월 8일(목)~ 6월 9일(금)
(2) 장소 : 완주 곁앤결
(3) 내용 : 수지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팀빌딩(강사: 마지송)

**다) 2차 세미나**
(1) 일시 : 2023년 5월 26일(금) 15:00~18:30
(2) 장소 : 대전 사회혁신센터 작은이야기방1
(3) 내용 : 국가별 성매매정책(강사: 신박진영), 일본 성착취 현장의 어제와 오늘(토비타 신지, 요시와라, 가부키쵸, 아키하바라)(강사: 변정희)

**4) 연대사업**
**가) 당사자 운동 활성화 전체활동가 교육**
(1) 일시 : 2023년 3월 30일(목) 13:00~16:00
(2) 장소 : 제주여성인권연대 교육실
(3) 강사 : 짤, 변정희
(4) 대상 : 제주여성인권연대 활동가 전원
(5) 내용 : 여성운동과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당사자 운동의 의미와 지속적 활동, 성매매경험당사자 운동

**나) 성매매경험재인식 프로그램**
(1) 일시 : 2023년 6월 2일(금)
(2) 장소 :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3) 강사 : 엠케이, 진
(4) 대상 : 자활지원센터 참여자
(5) 내용 : 성매매, 성착취, 경험 '뭉치'는 왜 말하는가

**다) 성매매경험재인식 프로그램 '우리가 걷는 길이 역사가 된다'**
(1) 일시 : 2023년 11월 8일(수) 14:00~17:00
(2) 장소 : 대구 자활지원센터 생생이랑
(3) 참석 : 노블, 바라

(4) 대상 : 자활지원센터 참여자
(5) 내용 : 일본 [무한발설] 북콘서트 및 성매매집결지 탐방을 통해 본 뭉치 활동

**라)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와 함께 하는 여성인권여행 토크**
(1) 일시 : 2023년 11월 17일(금)
(2) 장소 : 제주 소통협력센터
(3) 참석 : 백치, 소리, 저씨, 변정희(총 4명)
(4) 대상 : 제주 여성폭력피해자 지원단체, 회원 등
(5) 내용 : 한국과 일본의 여성인권현실과 대안 토크

**5) 국제연대사업**
**가) 뭉치 일본 워크숍**
(1) 일시 : 2023년 7월 7일(금) ~ 7월 12일(수)
(2) 장소 : 일본 도쿄, 오사카
(3) 프로그램
- 북 콘서트 : 7/8(토) 13:30~17:00 도쿄 북콘서트, 7/10(월) 오사카 북콘서트
- 내부간담회 : 7/9(일) 11:30~15:00 비공개 간담회, 7/9(일) 16:00 콜라보 미팅
- 인터뷰 : 7/8(토) 10:30 도쿄 언론사 인터뷰, 7/9(일) 10:30 일본 언론사 인터뷰
- 집결지 탐방 : 7/9(일) 18:00 가부키쵸 탐방, 7/11(화) 13:00 한일역사관, 토비타신지, 요릿집 탐방

(4) 결과
- 김부자, 오노자와, 유카 선생님이 함께하였음. 콜라보, 등화, 연구자 간담회를 진행하였음.
- 도쿄와 오사카에서 북콘서트를 진행했음. 참여자 50여명이 평가지를 올려주었고, 뭉치 발설자뿐만 아니라 지역 뭉치 회원들도 함께 방문한 것에 감동받았다는 반응이 많았음. 도쿄의 경우 200여명이 참여하였음. 2019년 방문과 비교했을 때, 그때보다 참여자 연령대가 다양해졌음을 느낌(20대 여성, 남성, 기자들 등). 당사자들의 발설에 놀라워하는 반응이었음. 뭉치에서 일본 사람들이 성착취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콜라보/등화 당사자가 발언하며 시너지 효과를 가짐. 오사카에서는 100여 명이 참여함. 일정 상 도쿄에서 오사카로 이동한 날 북콘서트를 진행하였고, 순차통역으로 진행되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음. 오사카 북콘서트에 아쉬움이 남지만 일본에서 당사자들이 발설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음.

- 신주쿠를 방문했을 때 아청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나 청소년 만남에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지 고민이 들었고, 오사카는 한국과 유사하다고 느낌.
- 지역별로 뭉치에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함. 전국연대 차원에서는 뭉치 경험을 전달하는 방법을 고민하기로 함.
- 향후 내용을 정리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하고자 함.
- 7월 24일, 평가회의를 진행하기로 함.

라) 기타

- 7월 13일, 개정연대 내부토론회에 뭉치 바라가 토론문을 작성하였음.

**6) 기타**

**가) 한겨레 사설 칼럼 기고**

(1) 일자 : 2023년 1월 25일(수)
(2) 제목 : [6411의 목소리] 나는 성매매경험당사자다
(3) 링크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76951.html

**나) 〈그것이 알고 싶다〉 인터뷰**

(1) 일시 : 2023년 5월 19일(금) 11:00~12:30/ 5월 26일(금) 18:30
(2)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2/ 대전 사회혁신센터
(3) 참석 : 엠케이, 지음/ 예서
(4) 내용 : 2001년 실종 사건 관련 인터뷰

**다) 한국일보 [김지은의 '삶도' 시즌2 : 실패연대기] 인터뷰**

(1) 일자 : 6월 16일(금)
(2) 제목 : 성매매에서 벗어나고 내 우주가 바뀌었다
(3) 링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1315050004637

**■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2023년 사업평가**

- 2023년 뭉치 운영위원회에 큰 변화가 있었으나 운영위원과 정책팀이 결속력 있게 활동을 전개하여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한 한해가 되었다.
- 역량강화를 위한 뭉치 아카데미를 진행하여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즐거움을 느끼며, 운동의 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다. 또한 운영위원과 정책팀 팀워크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연대감을 높일 수 있었다.

- 뭉치 워크숍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시간을 가지며, 감동과 기쁨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당사자의 경험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나누며, 뭉치 운동의 필요성을 체감하였다.
- 국제네트워크 사업은 DDA기금을 활용하여 많은 뭉치 회원들이 일본을 방문해 성착취 현장을 탐방할 수 있었다. 일본의 성매매경험당사자들과의 간담회는 국경을 넘어 공감과 위로가 되었으며, 당사자들 간의 교류의 절실함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 뭉치 [무한발설]이 일본어로 번역되어 출간한 큰 성과가 있는 한해였다. 일본의 연구진과 반성매매단체 활동가, 언론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어떻게 성매매현장을 변화시켜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확장하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도쿄와 오사카에서 진행된 북콘서트는 수백여명의 참석자들과 밀도 있게 진행되어 한국과 일본의 성착취 현장에 대해 알리고, 법과 정책의 중요성, 당사자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주었다.

**바. 사무국네트워크**

구성 : 전국연대 사무국(이하영, 신지영), 수원여성인권돋음(마소현, 이혜련), 인권희망 강강술래(박소진), 여성인권티움(채선인),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최유진),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송수연), 대구여성인권센터(권영아),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김지영, 이지영), 제주여성인권연대(송영심, 강진영),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임승희)

**1) 제1차 정기회의**

가) 일시 : 2023년 6월 8일(목) 10:00 ~ 11:30

나) 장소 : 온라인 줌

다) 주요안건

- 여성주의 간담회
- 사무국네트워크 워크숍

라) 주요결과

- 여성주의 간담회 : 제2차 사무국네트워크 회의에서 각 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간담회 기획을 공유하기로 함. 각 단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7월~8월에 사업을 진행하고 어려울 경우 10월까지 진행하기로 함. 11월에 평가 회의를 갖기로 함.
- 참여지역 : 부산, 대구, 목포, 광주, 제주, 대전, 수원, 인천, 서울 (총 9개 지역)
- 사무국네트워크 워크숍 : 8월 2일~3일, 1박 2일로 부산에서 사무국네트워크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함. 각 단체의 사무국 구성·업무·역할·2023년 계획을 소개하고, 활동 과정에서의 고충·각 지역별로 잘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기로 함. 사무국 네트워크 방향 및 계획을 세우기로 함.
- 여성주의 간담회 차후 회의: 6월 27일 (화) 10시, 온라인

**2) 제2차 정기회의**

가) 일시 : 2023년 6월 27일(화) 10:00 ~ 11:30
나) 장소 : 온라인 줌
다) 주요안건
- 여성주의 간담회
- 사무국네트워크 워크숍

라) 주요결과
- 여성주의 간담회 : 각 지역별로 기존 단체와 만남을 계획하고 있음. 사업 목표가 네트워킹 및 연대, 새로운 여성주의 모임 발굴 및 만남이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음. 현 상황에서 기존 단체와 연대를 강화한다는 욕구가 있다면 그대로 추진해도 좋지만, 그게 아닌 경우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을 시도하는 게 좋을 것 같음. 7월 중순에 각 단체별로 기존 계획대로 진행할 것인지, 수정할 것인지 결정 상황 공유하기로 함(수정할 경우 수정 기획안 공유).
- 사무국네트워크 워크숍 : 8월 2일 ~ 8월 3일, 부산에서 사무국 네트워크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함.

**3) 사무국네트워크 워크숍**

가) 일시 : 2023년 8월 2일(수) ~ 8월 3일 (목)
나) 장소 : 부산 살림, 천마산 에코하우스
다) 프로그램

| 1일차 | | 2일차 | |
|---|---|---|---|
| 시간 | 내용 | 시간 | 내용 |
| 13:00~14:30<br>(15분 휴식) | 인사<br>각 사무국 및 사무국<br>2023년 활동 소개 | 8:00~9:00 | 아침식사 |
| 14:45~15:30<br>(15분 휴식) | 사무국 활동 및 활동가란?<br>(부산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br>이윤서) | 9:30~10:30 | 완월동 걷기 |

| 1일차 | | 2일차 | |
|---|---|---|---|
| 시간 | 내용 | 시간 | 내용 |
| 15:45~17:00 | 모둠 토론 (5인 1팀)<br>1) 내가 생각하는 사무국 활동/활동가<br>2) 사무국네트워크를 통해 하고 싶은 활동 (운영 방향)<br>3) 2023년 사무국네트워크 활동 계획 | 10:30~12:30 | 송도해수욕장 |
| 17:00~18:45 | 저녁식사 | | 해산 |
| 19:00~20:00 | 1) 모둠토의 결과 공유<br>2) 사무국 네트워크의 운영 방향 및 2023년 활동계획 수립 | | |
| 20:00~ | 연대의 밤 | | |

**4) 제3차 정기회의**

가) 일시 : 2023년 11월 9일(목) 12:00 ~ 16:00

나) 장소 : 대전여성인권티움

다) 주요안건

- 여성주의 간담회 결과 공유 및 평가
- 성매매추방주간 활동 공유

**4) 제4차 정기회의**

가) 일시 : 2023년 12월 20일(수) 9:30 ~ 11:00

나) 장소 : 온라인 줌

다) 주요안건

- 2023년 사업 평가
- 2024년 사업 계획 논의

라) 주요결과

- 2024년 사업 계획 논의
  - · 정기회의 : 분기별 1회(3월 워크숍, 6월 온라인, 10월 대면, 12월 온라인)
  - · 각 지역별로 사무국 업무 분담 등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3월 워크숍 때 구체적으로 2024년 사업 계획을 논의하기로 함
  - · 1월 말까지 각 지역별로 한 해 동안 활용 가능한 슬로건을 고민해서 공유하기로 함
  - · 간사단체는 3월 워크숍에서 정하기로 함

■ **사무국 네트워크 2023년 사업평가**

- 사무국 활동가들을 만나며 사무국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음. 또 사무국 활동가들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서로 공감하는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네트워크였음. 나아가 사무국의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음.
- 여성주의 간담회를 함께 진행하며 지역내 여성주의 모임의 기반이 점점 좁아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서로의 연결과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었음.
- 지역별 사무국 운영 현황과 방식을 알게 되면서 현재의 사무국 운영방식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음.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사무국의 역할 및 효율적인 운영 방식의 변화를 모색하면 좋겠음. 또한 사무국 활동가이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 논의 구조를 가지면 좋겠음.

# 2023년 사업별 보고 및 평가② 정책사업

## 1.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구성 :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11개 단체_경원사회복지회, 나누리회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동두천 성폭력상담소, 두레방, 두레방외국인여성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WITHUS, 성매매피해자일반지원시설 희망터,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햇살사회복지회, 헤아림),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6개 단체_나린아띠, 든솔, 보따리, 예그리나, 키싱구라미, 하쿠나마타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14개 단체_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새움터, 수원여성인권돋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 티움,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여성인권센터 보다, 여성자활센터 해봄), 여성지원시설전국협의회(30개 단체_경남범숙의집, 구세군샐리홈, 구세군정다운집, 나루, 나자렛가정공동체, 누리봄, 다시봄, 로뎀의집, 마들렌의집, 마인하우스, 부산여성의집, 살림쉼터,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소망의집, 수지의집, 신나는 디딤터, 씨밀레, 씨튼해바라기의집, 여신, 여울여성희망센터, 우리들쉼자리, 우리청소녀쉼자리, 유프라시아의 집, 평화의샘, 한국여성의집, 해뜨는집, 해바라기 쉼자리, 헤아림, 휴먼케어센터, 희망터), 현장상담센터 협의회(11개 단체_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부설 춘천길잡이의집,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김해성인권지원센터 어울림, 마산YWCA 부설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에이레네 상담소, 에코젠더 부설 여성인권센터 쉬고,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새날지기,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32개 상담소), 다시함께상담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십대여성인권센터, 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 젠더교육플랫폼 효재,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경남여성회, 탁틴내일, 부산여성회 사하가정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언니들의병원놀이,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전주여성의전화, 여성의당, 여성의당 성착취금지법 입법본부, 한국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전북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포항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대전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장애인지역공동체 (242개 성매매피해자지원단체 및 여성·시민단체)

## 가. 전체회의

### 1) 제5차 회의

가) 일시 : 2023년 1월 19일 10:00 ~ 12:00

나) 장소 : 온라인 줌

다) 참석 : 수원돋음 마소현, 대구여성인권지원센터 최민혜, 부산살림 이윤서, 포항여성회 김정희, 강강술래 박소진,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정영란,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품 강선화, 탁티내일 김세은, 여성연합 구지혜(다른), 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 윤진자, 춘천 길잡이의집 라태랑, 제주여성인권연대 석희진, 다시함께센터 오승윤, 다시함께 이우진,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혜진, 한국여성노동자회 레나,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최승희, 대전여민회성폭력상담소다힘 소영, 한국성폭력상담소 오매,뭉치 짤, 대구여성인권센터 김하나, 에이레네 김다희, 두레방 페페, 한사성 이태희

라) 주요안건 및 결과

- 2022년 개정연대 사업 보고 : 22년 많은 활동을 한 것에 대해 격려하며, 향후 활동에서는 개정연대 전체 단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과 함께 고민하고 연대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함
- 2023년 개정연대 사업 계획 공유 : 사업 계획에 대해 보완이 필요함. 상반기 활동에 몰려 있어 사업 수행이 가능한 일정인지에 대한 검토(예. 쟁점 토론회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을지), 법률안과 설명회, 쟁점 토론회 등 각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함.
- 기타 : 상반기/하반기 각 1회 회의를 진행하고(총 2회), 필요시 임시회의를 진행하기로 함. 월 1회 진행되는 집행 단위 회의록은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함. 전체단위 중 집행단위에 참여 가능한 단위는 함께하기로 함.

## 나. 집행단위

### 1) 제4차 집행단위 회의

가) 일시 : 2023년 2월 8일(수) 10:00 ~ 12:00

나) 장소 : 온라인 줌

다) 참석 : 최민혜(대구), 짤(뭉치), 라태랑(현장상담센터협의회), 임연희(위드어스), 김효정(여성인권상담소), 이하영(전국연대), 백조연(전국연대)

라) 주요안건 및 결과

- 2023년 활동계획
  - · 법률안 초안 작성 시, 공유하고 내부 검토 과정을 거치기로 함.
  - · 한국여성재단 심사 결과 발표가 나온 후(2.28.), 3월 초 대면 회의를 통해 2023년 활동 계획을 조정, 구체화, 역할 분담을 하기로 함.

**2) 제5차 집행단위 회의**

가) 일시 : 2023년 3월 9일(수) 13:30 ~ 15:30

나) 장소 : 여성인권센터 보다

다) 참석 : 김은진(김해 어울림), 김효정(소냐의집), 나나(이룸), 라태랑(춘천 길잡이의집), 말이/임연희(위드어스), 석희진(제주), 이윤서(부산 살림), 이하영/백조연(전국연대), 우정희(전북), 짤(뭉치), 최민혜(대구), 김다희/오선민(에이레네)

라) 주요안건 및 결과

- (공유 사항)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에서 집행단위 결합하였음.
- 2023년 활동 계획 검토 및 수립 : 3월~10월까지 ①성매매처벌법 개정 법률안 작성·내부 간담회·설명회, ②쟁점해소토론회, ③대정부/대국회 활동, ④대국민 활동을 진행하기로 함.
- 역할 분담 : 아래와 같이 사업별로 팀을 구성하였음. 각 팀별로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향후 집행단위 회의에서 공유하기로 함.

| | 사업명 (시기) | 담당 |
|---|---|---|
| 1 | 성매매처벌법 개정 법률안 작성/내부 간담회/설명회 (3월-6월)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성착취대응팀, 사무국 |
| 2 | 쟁점해소토론회<br>(4월-5월, 7월, 9월) | 사무국, 이룸, 쏘냐의집, 대구여성인권지원센터 |
| 3 | 대정부/대국회 활동<br>(10월, 11월) | 한소리회 (서울 및 지역 정부 국회 면담 추진 관련 소통, 자료 취합 및 정리) |
| 4 | 공동행동<br>(9월 19일, 서울) | 서지협, 보다, 쏘냐, 이룸, 에이레네, 다시함께에 참여요청 (공동행동 기획 및 구상, 실무) |
| | 빠띠 캠페인(1만명 서명운동, 인증샷, 메일 발송) | 부산, 김해, 창원(현상협) 확인 필요. (캠페인 내용 구성, 진행 현황 파악 등) |
| | 온라인 캠페인 (유튜브 및 sns) | 2022 홍보팀 3인 + 부산 1인, 미디토리, 대전 1인 |
| | 소책자 기획 및 제작 | 전북, 뭉치, 위드어스, 길잡이의집<br>(기획안 작성 후 집행단위에서 공유 및 확정) |

**3) 제6차 집행단위 회의**

가) 일시 : 2023년 5월 4일(목) 13:30

나) 장소 : 대구여성인권센터

다) 참석 : 김은진(김해 어울림), 김효정(소냐의집), 혜진(이룸), 라태랑(춘천 길잡이의집), 말이/임연희/망추(위드어스), 석희진(제주), 이윤서(부산 살림), 이하영/백조연(전국연대), 우정희(전북), 최민혜(대구), 조은호(민변)

라) 주요안건 및 결과

- 개정연대 연구&기획 TF팀 성매매처벌법 법률 개정안 검토

· 각 단위에서 법률안 검토 후 5월 11일(목)까지 검토 및 수정 의견 취합하여 연구&기

획TF팀에 전달하기로 함('성착취' 개념 사용의 적절성-성착취로 규정했을 때 포착하지 못하는 지점은 없는지-과 처벌 수준의 적절성-형량 수준, 조항-벌칙 간 위계-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함.

· 기관별로 법률안 초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정리하여 연구&기획 TF팀과 현장 단체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함 : 법률안 설명회(6월 초)에서 '연구&기획 TF팀 설명 – 초안에 대한 현장 단체 의견 – 논의 및 수정 방향 도출'을 진행하기로 함. 이와 더불어 '성착취' 개념의 법률적·여성학적 측면을 논의하는 발표도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함. 이를 통해 내부적으로 '성착취' 개념을 조율하고 명확히 하기로 함.

- 홍보팀 유튜브 광고 영상 제작 및 송출의 건

· 유튜브를 통한 광고 송출을 시도해보고, 안 될 경우 페이스북과 인스타에서 광고 송출하기로 함. 유튜브 광고 송출 규정을 확인하고, 코리아에 공문을 보내는 등 협조 요청을 하는 접촉이 필요함.

· 홍보팀에서 광고 기획안을 마련하여 집행단위에 공유 및 논의 후 영상을 제작하기로 함.

- 소책자팀 소책자 제작 및 배포의 건

· 소책자 목표 및 독자 대상을 명확히하고, 이에 따라 내용 및 시기를 구체화해야 함 : 1) 토론회를 통해 생산된 자료를 바탕으로 소책자를 제작해 정책입안자와 면담 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할 근거 자료로 제시하기로 함, 2) 일반 대중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간단한 자료를 제작하기로 함. 소책자팀에서 구체적으로 내용 및 시기 등을 논의하여 공유하기로 함.

- 기타

· 카드뉴스 게시 전에 집행단위에서 공유 및 검토하기로 함.

· 개정연대에서 카드뉴스 게시글을 업로드하면 각 기관에서 공유하기로 함.

· 대국민활동팀과 홍보팀 활동이 겹치는 범위가 있어, 홍보팀으로 함께 논의 및 활동하기로 함. 홍보팀에서 국회의원 면담을 비롯해 필요한 활동(팩스 총공, 면담 일정, 1인 시위 등)을 논의하기로 함.

**4) 제7차 집행단위 회의**

가) 일시 : 2023년 6월 12일(월) 15:00 ~ 17:00

나) 장소 : 온라인 줌

다) 참석 : 라태랑(춘천 길잡이의집), 임연희/조민주/말이(위드어스), 혜진(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김효정(소냐의집), 우정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이하영/백조연(전국연대)

라) 주요안건 및 결과

- 광고 영상 제작의 건 : 홍보팀에서 1안(성매매처벌법 개정 슬로건 위주 숏폼 영상)과 2안(성매매처벌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영상) 중 광고

에 적절한 안으로 영상을 제작하기로 함.

- 제1차 내부간담회 평가
  · ‘성착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향후 이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과제가 남았다고 봄.
  · ‘성착취’ 용어 관련하여 논의를 펼쳐놓기는 했으나, 어떻게 잘 수렴할 수 있을지, 수렴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음. 개정연대는 처벌법개정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두고 조직하였고 활동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성착취’ 개념을 논의하기에 적절한 틀이 맞는지 의문임.
  · 성매매 관련 쟁점을 이슈 파이팅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법 제정 20년에 맞춰 법률안 제출 등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건 중요하다고 봄. 지나치게 용어 사용 등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함.
- 법률안 설명회 및 내부 토론회 예산 사용의 건 : 한국여성재단 프로젝트에서 개정 법률안 설명회와 내부토론회를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통합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이로 인해 기존 프로젝트 예산에서 ‘영상송출’과 ‘문자통역’ 비용이 추가되었음. 추가 비용 중 ‘문자통역’은 개정연대 사업비로 지출하기로 함.
- 소책자 제작의 건 : 홍보팀에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홍보 자료를 제작 및 배포하고 있으므로, 소책자는 국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만들기로 함. 소책자팀에서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형태로 내용을 묶을 것인지 방향을 잡고 집행단위에 공유하기로 함.

**5) 제8차 집행단위 회의**

가) 일시 : 2023년 7월 19일(수) 14:00 ~ 15:40

나) 장소 : 온라인 줌

다) 참석 : 김은진(김해 어울림), 손정아(대전여성인권티움), 우정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말이/임연희/조민주(위드어스), 김효정(소냐의집), 이하영/백조연(전국연대), 라태랑(춘천 길잡이의집), 혜진(이룸)

라) 주요안건 및 결과
- 온라인 캠페인
  ·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릴레이 인증샷 캠페인 : 홍보팀에 인증샷 슬로건 등 마련을 요구하기로 함.
  · 광고 송출 : 미디토리에서 기획안 보내면 집행단위에서 기획안 함께 검토하기로 함.
- 9월 공동행동 계획
  · 전체단위 및 여성폭력피해지원단에체 연대 발언이나 부스 운영 등을 요청하여 참여 독려하기로 함.
  · 축하공연 : 두레방 쉼터 공연, 햇살사회복지회 공연

· 부스운영 : 지역별 자활센터 물품이 다양하게 때문에 부스를 다양하게 꾸리고, 다른 단체들의 참여도 요청했으면 함.
· 부스 운영할 경우 보신각 외 다른 장소를 대관했으면 함. 보신각은 이동 인구가 없어 시민 참여 유도가 어려웠음.
· 프로그램 중 광고 영상 상영이 진행되었으면 함.

- 개정연대 토론회 평가

· 현장에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아쉬웠으나, 기대보다 내용이 알차게 구성되었음. 토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함.
· 1안과 2안이 어떻게 정립되어야 할지 고민하는 계기가 됨. 이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어떻게 고민을 풀어가야 할지 고민되었음.
· 첫 번째 간담회보다 정리된 느낌이었음. 법률에 대한 내부적인 토론 시간이 더 충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음.
· 법률안에 대한 토론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 더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함.
· 법률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을 수 있었음. 법률안 나오기까지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 하나의 안으로 개정안을 발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지점에 초점을 맞추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실질적인 법익의 이익에 대해 주목해야 하는지, 알리는 과정에서 성매매 관련 낙인과 혐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함.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음.
· 1차 내부 간담회에서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풀어놓았다면, 2차 토론회에서는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하는 자리였던 것 같음. 보호법익, 용어, 개정안 방향에 대해 정리된 것 같았음.

- 법률개정안 방향

· 집행단위 각 단체에서 7월까지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더 정리하여 공유해주기로 함.
· 법률팀에 각 단위 의견을 전달하여 2안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함.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안을 도출하고,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가면 좋겠음. 개정연대에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9월 토론회, 법사위 검토 등 향후에도 검토를 지속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함.
· 성매매 여성 불처벌 법안으로 아쉬움이 있으나, 2안으로 정리되는 것에 동의함. 국회 토론회를 하고 내년 해산 전까지 발의를 촉구하면 다음 과제가 도출될 것이라고 봄.
· 성매매 피해 여성 관련하여, 1안에서는 성착취범죄피해자, 2안에서는 성적 거래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음. 성매매 여성에 대한 표현을 최대한 하지 않고 법의 목적을 명확히하는 게 취지였으나, 피해자 규정 없이 보호법 성립이 가능한지 논의해봐야 함.
· 성매매의 착취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것과 현실적인 법의 효력을 위해 타인의 성을 '거래'하는 등의 표현으로 수정한 것 사이에 어긋나는 지점이 발생한 것 같음. 법안의 현실적 측면으로 인해 놓치는 지점이 있어 보임. 사회적 통념에 맞서 분명히 표현해야 할 부분은 표현해야 함, 법 취지나 목적을 잘 드러내야 각 조항의 구성을 설득할 수 있음.

- 9월 대정부 대국회 활동 계획
  · 지역 단체 중심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요청 : 면담요청서 작성, 면담자 리스트 작성 등
  · 국회 법사위 및 여성가족위원회 등 국회의원 면담 요청 : 대표단 (담당 : 한소리회-임연희, 라태랑, 이하영)
  · 8월에는 토론회 공동주최할 국회의원 섭외, 10월에 지역별로 국회의원 면담 진행해야 함. 8월 중 일정 계획해보기로 함.

**6) 제9차 집행단위 회의**

가) 일시 : 2023년 9월 1일(금) 9:00 ~ 11:30

나) 장소 : 온라인 줌

다) 참석 : 이하영(전국연대), 손정아(대전여성인권티움), 라태랑(춘천 길잡이의집), 김은진(김해 어울림), 임연희(위드어스), 우정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김효정(소냐의집), 혜진(이룸), 최민혜(대구), 석희진(제주)

라) 주요안건 및 결과
- 광고영상 수정 의견
- 릴레이 인증샷
- 9월 공동행동
- 소책자
  · 소책자 제작 방향에 대해 소책자팀의 고민이 있었음. 정리를 하다보니 활동자료집처럼 되고 있고 이미 홍보팀에서 제작한 카드뉴스와 겹치는 내용이 많음. 카드뉴스가 정리가 잘 되어 있음.
  · 현재 편집한 내용 살리되, 카드뉴스 순서 수정. 23년 국회토론회와 공동행동 내용까지 담아서 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 그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보이도록 편집하자.
  · 토론회 이후 소책자가 나와야하기 때문에 11월말 인쇄 목표.
  · 디자이너 붙여서 전체적으로 편집 다시하기. 카드뉴스도 재편집.
- 토론회

**7) 제10차 집행단위 회의**

가) 일시 : 2023년 10월 17일(화) 10:00 ~ 11:30

나) 장소 : 온라인 줌

다) 참석 : 전국연대(이하영, 손정아, 신지영, 최민혜, 우정희), 현장상담센터협의회(라태랑, 김은진), 한소리회(임연희, 말이), 위드어스(조민주)

라) 주요안건 및 결과
- 9월 캠페인 사업 보고 및 평가
  · 1만명 서명 운동: 9월 캠페인 중 받은 오프라인 서명 10월까지 입력하기로 함. 하반기

캠페인 남은 지역은 추가 서명을 받고, 서명 운동은 올해 말에 마무리를 하기로 함
· 인증샷 릴레이 챌린지: 지목 형식에 대해 지목을 하기 전 시작하기 어려웠다는 평가와 연대 기관에도 참여를 권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평가를 공유함. 이 후 비슷한 사업을 할 경우 이러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식을 고민하기로 함
· 영상 광고: 최종 광고 성과를 확인해 공유하기로 함

- 9/19 공동행동 보고 및 평가

ⓐ 집회 피드백
-챌린지 영상을 통해 퇴직한 선배 등 다양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음
-챌린지가 지목이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많이 참여함
-이소선 합창단 공연이 매우 좋았고 운동이 확산되는 느낌이었음
-다양한 기관의 활동가가 참여해 좋았음
-소리를 지르고 구호를 외치면서 해소되는 느낌이었음
-프로그램이 좀 길었던 것 같음
-행사 참여자가 즉석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면 좋겠음
ⓑ 행진 피드백
-구호의 혼선이 있었음. 릴레이 식으로 하면 전달하기가 더 좋을 것 같음
-여러 구호를 하는 대신 2-3개 간단한 것을 준비해 쉽게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음
-중간 중간 노래를 틀면서 춤추고 행진하고 구호하는 진행도 좋겠음
-행진을 통해 여러 사람이 모였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 좋았음
-행진 노래가 신나고 좋았음. 박수 박자 맞추는 것이 힘들었음.
ⓒ 기타
-부스 아기자기해서 좋았음
-자활 부스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음
-장소가 아쉬웠음
-영상물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음
-전체 기획 구성이 좋았음
-일반 참여자 배려가 부족했음. 특히 드레스코드 미리 공유해주길.
ⓓ 종합적인 감상
함께 모이는 전국 단위 행사라 뜻깊었다 / 전국에서 다함께 모여 좋았다 / 일년에 한번씩 이렇게 전국적인 단위가 만나면 좋겠다 / 힘들 때 함께 하는 동료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연대감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 / 일년에 한 번 이렇게 공동행동으로 모이니까 굉장히 의미가 깊고 좋았다

- 11/6 국회 토론회

· 업무 분장의 경우 사무국이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하기로 함

- 소책자

· 사무국까지 함께해 마무리하기로 함. 11월 8일 서울에서 진행하고, 숙소/식비는 여성재단 또는 개정연대 예산으로 지출하기로 함

- 기타

· 전체 회의 진행해야 함. 집행단위 전체 사업평가 및 향후 일정 논의 후 12월 중순에 진행하기로 함

**8) 제11차 집행단위 회의**

가) 일시: 2023년 12월 12일(화) 12:00 ~ 16:00

나) 장소 : 성남 위드어스

다) 참석 : 전국연대(이하영, 신지영, 우정희), 현장상담센터협의회(김은진, 김효정), 한소리회(임연희, 권학순, 조민주), 이룸(혜진)

라) 주요안건

- 2023년 사업 평가
- 2024년 사업 계획 논의
  · 3/22 법 제정 20주년 맞이 국회 기자회견 진행하기로 함. 이에 대한 실무는 집행팀에서 준비하기로 함.
  · 개정연대를 해체하지는 않고, 공동의 슬로건을 중심으로 느슨한 연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논의함. 이에 대해서는 대표단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함
- 전체 활동가 회의 일정
  · 2월 1일 또는 2월 2일에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함

**다. 성매매처벌법개정 연구&기획 TF(법률팀)**

**1) 제1차 회의**

가) 일시 : 2023년 3월 24일(금) 9:00 ~ 12:00

나) 장소 : 법무법인 원

다) 참석 : 원민경, 이정희, 조윤희, 조은호, 이하영

라) 주요안건 및 결과

- 성매매처벌법 개정안 검토 및 논의

**2) 제2차 회의**

가) 일시 : 2023년 3월 31일(금) 09:00 ~ 12:00

나) 장소 : 법무법인 원

다) 참석 : 원민경, 이정희, 조윤희, 조은호, 이하영, 정미례

라) 주요내용

- 성매매처벌법 개정안 검토 및 논의

**3) 제3차 회의**

가) 일시 : 2023년 4월 14일(금) 09:30 ~ 12:00

나) 장소 : 법무법인 원
다) 참석 : 원민경, 이정희, 조은호, 이하영, 정미례
라) 주요내용
- 성매매처벌법 개정안 검토 및 논의

**4) 제4차 회의**
가) 일시 : 2023년 5월 12일(금) 15:00 ~ 18:00
나) 장소 : 법무법인 원
다) 참석 : 원민경, 이정희, 조은호, 이하영, 정미례
라) 주요내용
- 현장단체 성매매처벌법 개정안 검토 의견 취합 및 논의

**5) 제5차 회의**
가) 일시 : 2023년 6월 19일(금) 14:00 ~ 17:30
나) 장소 : 법무법인 원
다) 참석 : 원민경, 이정희, 조은호, 이하영, 정미례, 장임다혜, 백조연
라) 주요내용 및 결과
- 성매매처벌법 개정안 수정방향 : 성매매처벌법으로 인해 처벌되어야 할 행위자가 간과되고 있고, 성매매여성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에 대해 명확히 문제제기하는 방향이 되어야 함. 성매매를 성착취 개념으로 전환하는 안(1안)과 더불어, 성매매/성착취 개념이 아니라 구매와 알선을 포함하는 '타인(다른 사람)의 성을 거래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두는 안(2안)을 준비하기로 함.

**6) 제6차 회의**
가) 일시 : 2023년 7월 13일(목) 17:30 ~ 19:00
나) 장소 : 여성미래센터 인근 식당
다) 참석 : 원민경, 이정희, 조은호, 조정민, 정미례, 이하영
라) 주요내용 및 결과
- 토론회 내용 기반으로 개정법안 방향 정리 : 개정연대 단위들에서 내부 평가 후 의견 전달하기로 함. 전면 개정안으로 가고 조은호 변호사가 남은 내용 정리하기로 함.

## 라. 행사기획팀

### 1) 공동행동 준비팀

가) 일시 : 2023년 7월 12일(수) 9:00 ~ 10:00

나) 장소 : 온라인 줌

다) 참석 : 이선미, 권효은(해봄), 박소진(강강술래), 이혜련(돋음), 김다희(에이레네), 이하영(사무국)

라) 주요안건 및 결과

- 행사 장소 선정 : 서울 행사 진행되는 9월에 각종 지자체 행사로 공간 대여가 어려울 수 있어 보신각/청계광장, 여의도 광장, 마로니에 공원 장소 신고 및 신청해보기로 함.
- 행사 내용 : 전체 컨셉 및 슬로건은 향후 정하기로 함. 부스 운영(자활 물품 판매나 전체 단위 캠페인 진행)-개회 인사(대표단)-축하공연-발언문 낭독-퍼포먼스 후 행진-선언문 낭독 및 마무리하기로 함.

## 마. 홍보팀

### 1) 정기회의

#### 가) 제1차 정기회의

(1) 일시 : 2023년 4월 5일(수) 13:00 ~ 14:00

(2) 장소 : 온라인 줌

(3) 참석 : 여성자활센터 해봄 권효은, 제주여성인권연대 석희진, 에이레네 김다희, 대전여성인권 티움 박예솔,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이지영

(4) 주요안건 및 결과

- 2023년 계획 : 월 2회, 격주로 노르딕모델, 2022년 개정연대 활동, 1만명 서명운동, 개정촉구 운동 등 캠페인 관련 홍보물, 2023년 토론회 및 행사 홍보물을 게시하기로 함.
- 유튜브 광고 영상 계획 : 미디토리와 영상 형식, 분량, 유튜브 광고방식 등을 논의하기로 함.

#### 나) 제2차 정기회의

(1) 일시 : 2023년 5월 24일(수) 16:00 ~ 17:00

(2) 장소 : 온라인 줌

(3) 참석 : 여성자활센터 해봄 권효은, 제주여성인권연대 석희진, 에이레네 김다희,

대전여성인권 티움 박예솔, 제주여성인권연대 석희진, 에이레네 김다희, 대전여성인권 티움 박예솔, 미디토리 김은민, 정유진

(4) 주요안건 및 결과

- 활동내용 및 계획, 역할, 집행단위 회의 내용 공유
- 광고 영상 제작
  - · 제작 : 전문업체가 아닌 유튜브 전국연대 계정으로 광고 진행하기로 함. 유튜브 광고 송출이 안 될 경우, 전국연대 계정에 영상 게시하고 개정연대 sns를 활용해 광고하기로 함. (총 예산 300만원, 7월 ~ 8월 영상 검토 후 9월 광고 송출 계획)
  - · 내용 : 대중을 대상으로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압축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그래픽 요소가 들어간 텍스트 위주 영상 제작으로 생각하고 있음. 미디토리와 5분 분량의 영상 제작이 가능한지 논의해보고, 안 될 경우 최대 30초 분량의 영상제작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3차 정기회의**

(1) 일시 : 2023년 8월 1일(화) 18:00 ~ 19:00

(2) 장소 : 온라인 줌

(3) 참석 : 여성자활센터 해봄 권효은, 제주여성인권연대 석희진, 에이레네 김다희,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이하영

(4) 주요안건

- 1만명 서명 운동
  - · 현재 상황 : 4,800명 서명 완료
  - · 담당 : 석희진
  - · 기간 : 8~9월 진행
  - · 계획 : 8월 둘째 주부터 1만명 서명운동 홍보물 게시, 주 1회 게시하여 서명운동 독려
-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릴레이 인증샷
  - · 담당 : 권효은
  - · 기간 : 9월 1일부터 2주간 진행
  - · 매체

  -SNS 페이스북 중심으로 하며, 인스타그램, 트위터에서도 동시 진행.

  -인스타그램 스토리 등 일회성은 참여할 수 없으며, 게시글로만 가능.

  -SNS 하지 않는 사람 참여를 위해 개정연대 이메일로 개정촉구 문구 작성+들고 있는 등의 사진을 보내주면 개정연대 SNS에 게시

  · 방식

  -한 명이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문구 작성, 들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고 3명을 지목하여 릴레이 챌린지 지속

  -총 10명 선정하여 10,000원 편의점 쿠폰 지급 : 랜덤 5명, 선정 5명으로 구성, 행사기간 중간에 발표 1번, 끝나고 발표 1번으로 구성

-선정된 사람에게는 이메일 또는 SNS 메시지, 댓글을 통해 개별 연락 예정.
· 준비사항
-챌린지 작성 문구 3가지 : 8/9까지 취합
-챌린지 안내 홍보물
-문구 작성할 배경 이미지
-쿠폰 지급 선정 결과 홍보물 2개
- 유튜브 광고 송출
· 담당 : 이지영(미디토리 소통), 김다희(홍보물 제작)
· 기간 : 8월 중 제작, 9월 송출
· 역할
1) 이지영 : 8월 2일(수)까지 기획안 확정해서 연락 필요
2) 김다희 : 9월 내 광고 송출하고 있음을 알리는 홍보물 제작
· 절차 : 8/1 홍보팀 기획안 수정 → 8/2 집행단위 검토, 수정사항 반영 → 8/2 미디토리 수정 -기획안 전달
· 기획안 수정 사항 : 2안으로 하되 문구 수정

## 2) 미디토리 회의

### 가) 1차 회의

(1) 일시 : 2023년 5월 24일(수) 17:00 ~ 17:30
(2) 장소 : 온라인 줌
(3) 참석 : 미디토리 정유진, 이지영(살림), 이하영(사무국)
(4) 주요안건 및 결과
- 광고 영상 제작
· 기획안 (1안)

| | |
|---|---|
| 주제 | 성매매처벌법 개정하자는 슬로건 위주 숏폼 영상 |
| 영상길이 | 30초~1분 이내 |
| 제작 방식 | 텍스트 위주, 그래픽 영상 |
| 광고 방식 | 유튜브 숏츠, SNS 릴스 등 짧은 광고 |
| 내용 | 성매매처벌법 개정!, 성착취 없는 성평등 세상으로,<br>더 이상 단 한 명의 여성도, 성착취 피해가 없도록! 등의 슬로건 게시<br>성매매처벌법 개정하여야 하는 이유 간단하게 슬로건 형식으로 게시 |
| 자료 |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카드뉴스, 발족식 선언문 및 발언문, 기자회견 발언문 등 |

· 기획안 (2안)

| | |
|---|---|
| 주제 | 성매매처벌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끌어내는 영상 |
| 영상길이 | 3분 이내 |

| | |
|---|---|
| 제작 방식 | 1안) 여성활동가 인터뷰, 피해 사례 활용<br>2안) 이미지와 텍스트 활용 |
| 광고 방식 | 전국연대 유튜브 게시<br>유튜브 숏츠나 SNS 광고로 통해 유튜브 영상 시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댓글로 대국민 활동 홍보 |
| 내용 | 유튜브 댓글 등 성매매처벌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영상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현실에 대한 사례로 성구매자들의 실태를 알리고 성매매처벌법 및 개정 이유 설명<br>- 반대 의견 예시 : 자발적으로 성매매한 거 아니냐?, 왜 남성만 처벌받냐 같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등 |
| 제안이유 | 미디토리 장유진 선생님은 작년 활동가 인터뷰하면서 성구매자들의 실태와 피해여성들의 현실을 알게 되었고 성매매처벌법개정 활동에 함께 뜻을 모으게 됨. 현재 성매매 관련 컨텐츠는 여성 중심의 서사로 진행되는 게 많음. 이번 영상으로 통해 성구매자들에게 집중하여 시선을 옮기고 싶다고 함. 인터뷰는 어렵다면 텍스트로 사례 활용이 필요함. |

· 예산 : 현재 영상 제작 예산은 1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3분 영상을 제작할 경우, 추가 발생 예산은 미디토리에서 무료로 지원하기로 함. 전국연대 사회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하여 프로젝트 담당자와 소통 필요함.

· 제작 기간

| 일정 | 내용 |
|---|---|
| 6월 | - 집행단위 회의에서 영상 내용 확정<br>- 집행단위 회의 결과 미디토리 공유<br>- 미디토리와 사업 주체와 계약 진행 |
| 7월~8월 | - 영상 검토, 수정<br>- 영상제작 완료 |
| 9월 | - 영상 게시 및 광고 진행 |

**나) 2차 회의**

(1) 일시 : 2023년 6월 20일(화) 10:00 ~ 11:00

(2) 장소 : 온라인 줌

(3) 참석 : 정유진(미디토리), 이지영(살림), 이하영, 백조연(사무국)

(4) 주요안건 및 결과

- 광고 영상 제작: 성매매 합법화 국가와 노르딕모델 국가 등을 설명하여 보편적 인권과 성평등으로 성매매처벌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기로 함.

### 3) 카드뉴스 게시

가) 2022년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활동 살펴보기 –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발족식 - 일시 : 2023년 5월 12일
나) 2022년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활동 살펴보기 – 성매매처벌법개정촉구 전국행진 - 일시 : 2023년 6월 5일

## 바. 토론회팀

### 1) 제1차 토론회팀 회의

가) 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9:30 ~ 12:00
나) 장소 : 온라인 줌
다) 참석 : 이하영, 백조연(사무국), 신박진영(전국연대 정책팀), 최민혜(대구), 김효정(소냐의 집), 혜진(이룸), 김태정(두레방)
라) 주요안건 및 결과
- 토론회 방향 설정 및 계획 수립
· 방향 및 형식 : 법률안 및 관련 쟁점과 별개로, 여성 불처벌을 외부적으로 설득시켜나갈 전략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로 함. 1차 내부 간담회를 통해 용어, 용어의 배경, 정의 등을 비롯한 여러 고민을 정리하고, 2차 내부 토론회에서 정리된 내용을 검토, 3차 공개 토론회에서 논의를 공유하기로 함.
· 제1차 내부 간담회 : 여성 처벌의 현실을 정리하고, '수요 차단'(산업규제, 구매자 처벌 등)에 대한 쟁점을 논의하기로 함.

· 일시 : 5월 19일(금) 오후 3시 ~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3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
· 사회 : 신박진영
· 발제 :
① 상담소 사례 유형 정리와 법률지원의 어려움 (김효정,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② 광고죄 처벌 사례 등 (김수민, 여성인권센터 보다
③ 성산업 규제 전략 (김주희, 덕성여자대학교)
④ 수요 차단에 대한 고민들 (이룸,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참여인원 (30명 규모) : 사회자 및 발제자 5명, 토론회팀 4인(이하영, 백조연, 혜진, 최민혜-발제/사회 제외), 협의회별 3인(전국연대, 여지협, 한소리회, 현상협, 뭉치), 다시함께 1인, 이룸 불처벌팀(황유나 등), 기타 추천인 약간명.

**2) 제2차 토론회팀 회의**

가) 일시 : 2023.5.30.(화) 9:30 ~ 12:00

나) 장소 : 온라인 줌

다) 참석 : 이하영, 백조연(사무국), 신박진영(전국연대 정책팀), 최민혜(대구), 김효정(소냐의 집), 혜진(이룸), 김태정(두레방)

라) 주요안건 및 결과

- 제1차 내부간담회 평가
  - · 법률안과 별개로 외부에 성매매처벌법 필요성을 설득할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나, 질의응답 시간에 법률안에 대한 논의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었음. 법률안 내용과 현장에서 경험하는 현실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음.
  - · 향후 토론회에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제2차 내부토론회 계획 : 법률안 설명회와 내부토론회를 함께 진행하기로 함. 1부 법률안 설명회에서 법률 개정안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고, 2부에서 성매매처벌법 실태와 고민들을 공유하기로 함.

## 사. 개정연대 대국민 활동팀

**1) 제1차 정기회의**

가) 일시 : 2023년 4월 27일(목) 14:00 ~ 16:00

나) 장소 : 부산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상담소 회의실

다) 참석 : 이윤서(살림), 김은진(어울림), 라태랑(춘천길잡이의 집)

라) 주요안건 및 결과

- 빠띠 일만명 서명운동 : 개정연대 집행단위 연대체에 서명 참여 요청 공문 공유하고, 각 연대체에서 지역 유관 기관에 공문 발송하여 참여 독려하기로 함. 서명 완료는 8월 말을 목표로 함.
- 인스타 홍보 : 처벌법 개정을 지지하는 기본 문구를 정하여, 영상이나 사진으로 인증샷을 촬영해 sns에 올리기로 함.
- 국회의원 제출 건 : 8월 말까지 완료한 서명 명단을 출력하여, 개정연대에서 각 지역 시 의원 등에게 공문을 발송하기로 함. 믹스(빠띠)에서 서명하기를 촉구하기로 변경해 의원들에게 촉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가능하면 국회의원에게 온라인 촉구를 진행하기로 함.
- 이후 활동은 홍보건은 홍보팀에서 행사건은 집행단위와 결합하여 진행하기로 함.

### 아. 소책자 제작팀

**1) 제1차 기획회의**

가) 일시 : 2023년 5월 23일(화) 10:00 ~ 12:00

나) 장소 : 온라인 줌

다) 참석 : 우정희(전북), 말이, 임연희(위드어스), 라태랑(길잡이의 집)

라) 주요안건 및 결과

- 소책자 제작 목적 및 배포대상 : 소책자는 성매매처벌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회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두고 있음.
- 내용구성 및 목차 : 성매매처벌법 개정 취지 – 활동 내용 – 1만명 서명운동 – 성매매처벌법 개정방향 – 성매매처벌법 피해 사례 – 해외사례(노르딕 모델 효과) - 성매매처벌법 개정안 설명 – 개정 효과성
- 자료정리 및 취합 : 개정연대 기존활동과 해외 사례 등 자료를 취합하여 내용을 파악하고, 소책자 제작 목적에 맞게 편집 및 내용 구성하기로 함.
- 역할분담

**2) 제작 회의**

가) 일시 : 2023년 11월 8일(수) ~ 9일(목)

나) 장소 : 서울유스호스텔

다) 참석 : 우정희(전북), 김은진(어울림), 말이, 임연희, 조민주(위드어스), 이하영, 신지영(사무국)

다) 주요안건 및 결과

- 목차 확정, 업무 분장하여 내용 정리

## 3. 2023년 개정연대 활동

### 가. 1만명 서명운동

1) 달성률 : 62%, 6,211명 서명

2) 홍보 : 개정연대 SNS에 5회 안내

### 나. 인증샷 릴레이 챌린지

1) 기간 : 2023. 9. 6 ~ 9. 17

2) 게시 SNS : 개정연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3) 결과 : 1680명 도달, 130명 참여 (단체 참여가 많았음)
4) 예산 : 광고비 8만원(여성재단), 기프티콘 10만원(개정연대)

## 다. 영상 광고

1) 제작업체 : 미디토리
2) 게시일 : 2023. 9. 13
3) 게시대 : 개정연대 SNS, 전국연대 유투브
4) 시청수 : 20,164회 (2023. 10. 16 기준)
5) 예산 : 제작비 110만원(여성재단), 유투브 광고비 200만원 (여성재단)

## 라. “성착취 카르텔 해체, 이제는 성평등 모델” 공동 행동

1) 일시 : 2023년 9월 19일 12:00~17:00
2) 장소 : 서울 보신각 앞
3) 주관 :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
4) 프로그램
사회자 : 신지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무국), 정민형(여성인권센터 보다)

<table>
<tr><th>시간</th><th>순서</th><th>내용</th><th>담당</th><th>준비</th></tr>
<tr><td>12:00 – 14:00 ( 2 시간)</td><td>사전 행사</td><td><table><tr><th>부스 내용</th><th>담당</th></tr><tr><td>인스타, 페이스북 판넬 인증샷</td><td>에이레네</td></tr><tr><td>성매매처벌법 개정촉구 챌린지 인증샷</td><td>십대여성인권센터</td></tr><tr><td>시민과 함께하는 게임 2종</td><td>강북 늘푸른교육센터</td></tr><tr><td>안내 부스</td><td>소냐의 집</td></tr><tr><td>성매매처벌법 개정촉구 서명 부스</td><td>서울 다시함께상담센터</td></tr></table></td><td></td><td></td></tr>
<tr><td>14:00</td><td>집결 및 준비</td><td></td><td>전체 총괄</td><td></td></tr>
<tr><td>14:05 (5분)</td><td>사회자 인사</td><td></td><td>사회</td><td>- 화면: 사회자 소개</td></tr>
<tr><td>14:10 (5분)</td><td>여는 발언</td><td>개정연대 대표단 인사(임연희/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상임대표)</td><td>사회</td><td>- 화면: 발언자 소개</td></tr>
<tr><td>14:17 (7분)</td><td>발언1</td><td>자활 참여자 대독(이지은, 이혜련, 김유현/수원여성인권 돋음 활동가)</td><td>사회</td><td>- 화면: 발언자 소개<br>- 총 3명 발언</td></tr>
</table>

| 시간 | 순서 | 내용 | 담당 | 준비 |
|---|---|---|---|---|
| 14:20<br>(3분) | 구호 | | 사회 | - 구호 연습 |
| 14:30<br>(10분) | 공연1 | 축하 공연(수원여성인권 돋움) | 사회 | - 화면: 무대 소개 |
| 14:35<br>(5분) | 발언2 |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발언 대독(김보민/여성인권센터 보다) | 사회 | - 화면: 발언 소개 |
| 14:45<br>(10분) | 연대 영상 | 해외 반성매매 활동가 연대 영상<br>1)모드 올리비에 (프랑스 전 하원의원, 노르딕모델 제안하고 2016년 통과시킨 주역)<br>2)니토 유메노(콜라보 대표, 일본에서 성착취 피해 청소년을 지원하는 단체 설립/운영중 | 사회 | - 영상 |
| 14:50<br>(5분) | 구호 | | 사회 | |
| 15:00<br>(10분) | 발언3 | 연대 발언(조이스/두레방) | 사회 | - 화면: 발언 소개 |
| 15:10<br>(10분) | 영상 | sns챌린지 영상 | 사회 | - 영상 |
| 15:30<br>(20분) | 공연2 | 합창(이소선 합창단) (3곡) | 사회 | - 화면: 무대 소개 |
| 15:45<br>(15분) | 공연3 | 가지요 율동(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br>(2번) | 사회 | - 화면: 무대 소개<br>- 무대 소개 후 전북팀이 진행 |
| 15:55<br>(10분) | 퍼포먼스 | 다시함께 상담센터 | 사회 | - 구호 확인 |
| 16:00<br>(5분) | 행진 대오 출발 | 앞 줄부터 4명씩 이동 안내<br>(보신각 〉 을지로입구역 〉 시청앞 〉 일민미술관 〉 보신각) | 사회 | - 화면: 행진 루트<br>- 풍물패 공연 |
| 행진 (16:00-17:00)<br>풍물패 여는 공연 〉 행진 〉 풍물패 닫는 공연 | | | | |
| 17:00 | 행진 대오 도착 | 대오 환영 | 사회 | - 풍물패 공연 |
| 17:05<br>(5분) | 구호 | | 사회 | |

| 시간 | 순서 | 내용 | 담당 | 준비 |
|---|---|---|---|---|
| 17:10 (5분) | 결의문 낭독 |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 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 |
| 17:15 ~ | 퍼포먼스 | 각자 자리에서 손수건 던지기 | 사회 | - 벅차는 음악 BGM.. |
| | 정리 | 뒷정리 안내 | 사회 | |

5) 결산

가) 무대 및 음향 : 5,000,000원 (여성재단)

나) 현수막, 손피켓, 부스천막, 기타 준비물품 1,008,800 (여성재단)

다) 공연비 : 2,500,000원 (이소선 합창단/풍물패 장품 - 개정연대/서울시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

라) '가지요' 녹음비 160,000 (개정연대)

마) 합계 : 8,668,800원

6) 결과 :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활동가 등 시민 500여명 참여

## 마. 개정연대 제1차 내부 간담회

1) 일시 : 2023년 5월 19일(금) 15:00

2)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3

3) 참석 : 이하영, 백조연(사무국), 정미례, 손정아, 최민혜, 엠케이(전국연대), 조은호, 조윤희(법률팀), 장임다혜, 백소윤, 황유나(이룸 불처벌팀), 오승윤(다시함께)

4) 내용

-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성매매지원기관 법률지원 사례연구 보고 (김효정, 여성인권상담소소냐의집)
- '성매매 광고· 유인죄' 적용의 문제와 현장의 어려움 (김수민, 여성인권센터 보다)
- 성착취 범죄? 충분히 토론되었는가 (김주희, 덕성여자대학교)
- 성매매여성 불처벌 의제 확산을 위하여 - 수요차단 전략에 대한 고민들 (혜진, 반성매매인권센터 이룸)

### 바. 개정연대 제2차 토론회 〈성매매처벌법 개정의 필요성 및 개정 방안〉

1) 일시 : 2023년 7월 13일(목) 14:00 ~ 17:00
2) 장소 : 여성미래센터 지하1층 교육장, 온라인 줌
3) 내용

- 1부 : 성매매처벌법 개정안 제안 및 검토
· 사회 : 이하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발제 : 조은호(개정연대 연구&기획 TF팀)
· 토론 : 장임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정민(부산지방법원, 현대사회와성범죄 연구회), 원민경(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착취대응팀)
- 2부.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성매매여성 처벌 실태와 고민
· 사회 : 김태정(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발제 : 김효정(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 토론 : 우정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바리(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혜진(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사.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안) 토론회 〈이제는 성평등 모델〉

1) 일시 : 2023년 11월 6일(월) 14시 ~ 17시
2)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전국연대 유튜브
3) 주최 및 주관 :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국회의원 김영배, 신현영, 장혜영,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4) 내용

- 일시 : 2023년 11월 6일 (월) 오후 2시-5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주관 : 국회의원 김영배, 국회의원 신현영,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 순서
· 사회 :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발제 1 :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활동과 법 개정의 방향성
  - 이하영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 2 : 성매매처벌법전면 개정(안)의 개정목적과 개정방향, 주요 내용
  - 조은호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성착취대응팀 변호사
· 토론 1. 장임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2. 조정민 (부산지방법원 판사, 현대사회와성범죄연구회)
· 토론 3.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토론 4.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책자문위원)
· 질의응답

5) 결과
- 현장 20명 참석, 유튜브 125명 시청
-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 토론 참석하지 않음. 여가부, 경찰청 실무자 현장 참석

## 2. 여성가족부 예산 삭감 대응 활동

### 가. 정기회의

**1) 1차 회의**

가) 일시 : 2023년 10월 17일 09:00~10:00
나) 장소 : 온라인 줌
다) 참석 : 전국연대, 한여전, 한성폭, 민우회, 한사성, 장공감
라) 주요 안건 및 결과
- 여가부 예산 축소 대응 논의 : 10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기로 함

**2) 추가 회의**

가) 1103 준비팀 회의
- 참여 : 한사성, 한성폭, 한여전, 민우회, 장공감, 전성협
- 현재 디성특화프로그램 하고 있는 상담소들(전주성폭력상담소, 대전여민회, 광주여성민우회), 디성특화통합상담소 신청서(기준 부합안되더라도) 일단 형식 갖춰서 제출한다.
- 지자체별 추진 과정 자세히 수집
- 여가부에서 지자체로 내려온 내정기관문서 공식루트 통해 확보(의원실 통해, 어렵다면 정보공개청구)
- 대중에게 공개할만한 정보 확보되면 알리면서 싸운다.

나) 1108 준비팀 회의
- 참여 : 한사성, 한성폭, 한여전, 민우회, 장공감, 전성협
- 이 팀의 활동 목표와 성격 모호, 분명히 해야 할 필요 있음. 공동행동 지속 될 수 있을지, 동력 무엇일지 고민됨. 이 팀만의 독자적인 대응한다면 무엇에 초점을 맞출지, 예산 싸움 지더라도 여성운동은 무엇을 기록하고 남길지 고민.

## 나. 활동

### 1) 기자회견

가) 일시 : 2023년 10월 30일(월) 11:00 ~ 12:00

나) 장소 : 국회의사당 본관 앞

다) 제목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기자회견

라) 공동주최(추가중)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12개 협의회 및 연대체, 568단체) 및 시민사회연대단체(모집중), 국회의원 권인숙, 신현영, 양경숙, 이동주, 정춘숙, 장혜영, 용혜인, 강성희,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이재정 위원장), 정의당 여성위원회

마) 내용

-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 소개 : 한국여성의전화
- 현장단체 발언1_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경기남부권역대표 조미영 ((사)안양ywca가정폭력상담소장)
- 현장단체 발언2_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권지현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소장)
- 현장단체 발언3_전국사이버성폭력피해지원네트워크 이은주 ((사)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다힘' 디지털성범죄 상담팀장)
- 국회의원 발언(권인숙, 이재정, 정춘숙, 신현영,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장혜영(정의당), 용혜인(기본소득당), 강성희(진보당) 의원)
- 현장단체 발언4_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칼리
- 현장단체 발언5_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 고경임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 현장단체 발언6_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바) 전국연대 역할 : 기자회견 준비 및 퍼포먼스 진행

### 2)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 간담회

가) 일시 : 2023년 10월 30일(월) 13:30 ~ 15:00

나) 장소 :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다) 참석 : 국회의원 권인숙, 신현영, 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가정폭력쉼터협의회, 이주여성인권센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양이원영, 용혜인 의원실 보좌관)

라) 내용
- 1만 시민 서명문 전달
- 여성폭력 대응 예산 삭감 현황 공유, 이로 인해 발생할 현장의 어려움
- 예결위 대응 방법 등 논의

**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을 막기 위한 1만 시민 선언**

가) 일시 : 2023년 10월 25일(수) ~ 10월 30일(월)
나) 참여 : 개인 7,254명, 연명단체 242개, 공동행동 569개 단체

**4) 예결위 대응 활동**

가) 서면질의문 전달(2023. 11. 10.)
-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전사넷, 한사성)
- 성인권교육 운영 (전여상보협)
- 가정폭력 예방 홍보 (여가연, 한여전)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여가연, 한여전)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여가연, 보호시설협의회, 한여전)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의료비 등 (여가연, 한여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5) 젠더기반 여성폭력 총선 정책 제안 토론회**

가) 일시 : 2023년 12월 19일(화) 10:00
나) 장소 : 이룸센터 교육실1(온·오프라인)
다) 공동주최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라) 내용

○ 사회 이소희 (한국여성민우회)
1. 기조발제
정부의 여성폭력방지 정책 추진의 기조 변화와
2023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의 지형 _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2. 젠더 기반 여성폭력 분야별 정책 발표
1) 성매매 분야: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2) 이주여성 분야: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3) 장애여성 분야: 변은희 (장애여성공감)
4) 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 분야: 최유연 (한국여성의전화)

5) 성폭력 분야: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6) 디지털 성폭력 분야: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3. 토론
정의당_박지아 젠더폭력대응센터장
기본소득당_노서영 여성위원장
진보당_이기원 여성-엄마당 집행위원장

## 3. 기타 정책활동

### 1) 총선 젠더의제 제출

- 제출처: 한국여성단체연합 / 〈제22대 국회에 요구한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총선젠더정책 발표 토론회〉 (2023. 9. 7.)

성매매·성산업 확산을 막기 위한 법 개정 및 강력한 법 집행

1) 현황 및 문제점

○ 성매매는 성별불평등한 구조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이자 범죄이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문제의 핵심을 성을 알선하는 행위 및 성을 사는 행위에 있다고 보아 제정되었다. 더불어 성매매 문제 해결은 이를 조장·묵인·방치해온 국가의 책무이므로 「성매매피해자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를 지원해왔다.

○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착취구조의 핵심으로 알선업자들을 지목하고 업주, 건물주, 소개업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업주, 건물주들이 처벌되고 불법이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되는 성과가 있었다.[1] 또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법망을 피해 새로운 방식으로 성매매를 광고, 알선하는 '성매매알선사이트'에 대해서도 강력히 수사하여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사이트가 폐쇄되는 성과가 있었다.[2] "성매매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법 집행이 사라질 것 같지 않던 성매매집결지의 폐쇄를 이끌어내기도 했다.[3]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처벌법의 법 집행은 이벤트성 행사에 머무르고 있으며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낮다. 성매매처벌법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벌금 또는 집행유예 처분의 낮은 처벌을 받고 있다.[4][5] 성매수 행위 역시 거의 처벌되지 않는데,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혹여 "재수가 없어 단속에 걸린다" 하더라도 '존스쿨' 16시간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성매매 알선업자들은 성매매알선사이트 개설,[6] 오픈채팅 등 다양한 플랫폼 이용, 성매수자 DB구축[7] 등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 성산업을 확장

해 나가고 있다.

○ 변화되고 확장되는 성매매 업소에는 더욱 취약하고 열악한 여성들을 유입시키고 있다. 외국인 여성들은 전통적인 방식의 E6-2비자로 입국하여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무비자 또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성매매 업소로 유입되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으며 최근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8] 또 최근에는 선불금 및 채무를 빌미로 한 성매매 강요뿐만 아니라 성매매 강요의 과정에 불법촬영과 협박이 수반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 이런 상황임에도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성매매여성을 '행위자'로 처벌하고 있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외국인 여성의 경우, 절대 다수가 단속을 통해 '성매매 행위자'로 입건되어 일방적으로 추방된다. 성매매 피해자, 그리고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을 기회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발생한 채무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남게 된다. 한국인 여성의 경우에도 '행위자' 처벌은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성매매 행위자 처벌은 성매매여성에게 '낙인'에 다름 아니다. 성매매 피해를 호소하고 탈성매매를 하려 하여도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행위자'로 처벌되는 현실 때문에 탈성매매는 더욱 어려워진다.

2) 정책과제

○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현실화해야 함.

- 현재 존스쿨 교육 조건의 기소유예는 성매수자에게 처벌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임. 성매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현실화하여 성매수자가 성매수를 단념하게끔 하도록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성매매 알선 차단 및 성산업 축소를 위한 법 집행력 강화

- 성산업은 거대한 돈이 흐르는 시장이자 조직적 범죄임. 경찰의 어느 한 부서가 단속하고 처벌할 수 없음. 사이버 범죄부터 자본 흐름과 몰수 추징, 업소 단속, 성매수자 처벌, 피해자 보호까지 유기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사기관 내 성매매수사전담반이 필요함.

- 성매매 알선 범죄는 처벌 형량에 비해 큰 돈을 벌기 때문에 알선업자들이 법을 겁내지 않고 범죄를 반복한다는 특징이 있음. 그럼에도 벌금이나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처벌로 그침. 불법이익에 대해서는 전액 몰수추징하고 범죄 행위에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함.

○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면 비범죄화 필요

- 현재의 면책특권방식으로 피해를 입증해야만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닌 성매매여성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해야 함.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되어야만 성매매 착취구조 해체와 성산업 축소라는 '성매매방지법' (처벌법과 보호법)의 제정 취지가 실현 가능함.

---

1) "경찰, 범죄수익 4389억원 몰수... 성매매 장소로 쓰인 180억 건물 포함" (한겨레, 2023. 2. 2)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8006.html

## 2) 2023 국정감사 질의

**1. 성매매•성착취 피해자가 처벌되는 현황의 문제점**

- 정부 부처 : 경찰청, 법무부(검찰)

▹ 현황 : 현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여성을 성매매피해자와 성매매행위자로 구분하여 '성매매 강요'를 입증하지 못한 성매매여성은 성매매행위자로 처벌합니다. 성매매피해자 규정이 법이 있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실제 법의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성매매여성들은 성매매 과정에서 성구매자나 업주에 의한 폭력, 불법촬영, 강간을 당하여도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성매매행위자'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의 사례연구에 따르면,[9] 전국 성매매피해지원기관 36개 상담소 및 일반지원시설에서 성매매피해자로 지원을 하려 하였지만 성매매행위자로 인지되어 피의심을 요구받았거나 행위자로 처벌 받았거나, 행위자 처벌 우려로 지원을 포기한 경우는 전체 사례 85건 중 72건으로 85%에 달했습니다. 이 때문에 성매매여성의 피해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게 되고, 이를 악용하여 성매매 착취는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질문 : ① 2020-2022년 최근 3년간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행위자로 처벌되는 건수 (경찰청- 입건수/ 검찰- 처분수)

② 2020-2022년 최근 3년간 성매매피해자 통계 (경찰청)

③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은 각국가에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매매여성을 처벌하지 않도록 법정책 채택을 촉구하고 있음. 한국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국임.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은?

▹ 현황 : 현재 수사기관은 성매매여성을 '성매매행위자'로 처벌하는 것에서 나아가 성매매 광고•유인죄로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매매 행위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매매여성이 채팅을

---

2)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사이트 '밤의 전쟁' 폐쇄" (대전일보, 2019. 7. 9)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7808

3)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는 어떻게 60년만에 폐쇄될 수 있었나" (여성신문, 2022. 1. 13)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341

4)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업자 형량, 75%가 벌금·집행유예" (한국일보, 2019. 10. 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9241722354018

5) "1200명에게 성매매 알선한 마사지 업주 집행유예"(대전일보, 2023. 2. 7)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7121,
"성매매 7600회 알선 4억 챙긴 20대 포주... 법행인정+초범=집유"(머니투데이, 2023. 3. 28)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32809454720661

6) "다시 등장한 성매매알선사이트(상), '밤의 전쟁' 폐쇄 1년도 안돼 재개설" (전북일보, 2020. 4. 7)
https://www.jjan.kr/article/20200407707088

7) "성매수자 DB 8만건, 이미 800명 입건... '두 팔 걷어붙인 경찰'" (경인일보, 2021. 12. 3)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1203010000495

8) "오피스텔서 외국인 여성 상대 성매매 알선한 일당 7명 검거"(뉴스핌, 2023. 5. 25)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525000152
"외국인 여성 감금하고 성매매 강요한 일당 검거" (제주일보, 2023. 4. 10)
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1989
"외국인 여성 고용 불법 성매매 일당 구속... 범죄수익 4억원 몰수" (경기신문, 2022. 5. 24)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03003

주고 받거나 sns에 게시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성매매 광고•유인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을 제정할 당시 성매매 광고•유인죄는 성매매알선업자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조항으로서 '성매매행위자'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수사기관이 성매매 단속을 쉽게 하기 위해 성구매자나 알선자를 단속, 처벌하기 보다는 채팅으로 성매매여성을 함정수사하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더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법의 불균형입니다. 단속을 손쉽게 하기 위해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광고, 유인죄 적용과 함정단속을 멈춰야 합니다.

▹ 질문 : ① 성매매 알선, 광고죄를 이용하여 단속, 처벌되는 여성들의 현황과 처벌 수위
② 이 조항을 적용하여 여성을 처벌하는 근거와 대책은?

**2. 아동청소년 성착취 대응 현황과 문제점 (여성가족부, 경찰청)**

▹ 현황 : 2020년「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으로 '성매매 대상 아동청소년'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전국 17개소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 질문 : ① 2020-2022년 아동청소년지원센터 경찰 통보 건수
② 2020-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범 수사, 처벌 현황
③ 신고포상금 제도 이용 현황

▹ 현황 : 최근 전국 디스코팡팡 업체가 조직적으로 아동, 청소년들에게 매상강요하고 성매매 알선, 성폭행 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10] 기사에 따르면 이 조직은 전국 11개 매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외상 입장권을 강매하고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시켰다고 합니다. 전국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가 전국 23개 디스코팡팡을 실태조사한 결과 스킨쉽 43%, 성적 발언 56%, 강매 26%, 이벤트 52%가 있다고 조사되었으나 디스코 팡팡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질문 : ①디스코 팡팡 사례 수사 진행 상황 (경찰청)
②피해자 지원 현황 및 지원 대책
③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 현황 : 엑스(트위터)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국연대는 9월 19일 엑스(구 트위터) 코리아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중 65%가 엑스에서 발생하였음에도 플랫폼 기업의 관리, 감독 책임을 외면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엑스에 △성착취 게시물 및 계정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행위에 대한 무관용 정책 실행 △성매매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 신고항목 정비 △현장 단체 의견 청취 소통창구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11]

▹ 질문 : ①SNS 플랫폼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대응 현황과 대응 방안
②정부의 플랫폼 기업 관리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대책 방안

**3. 최근 성매매 관련 사건 대응**

▹ 현황 : 최근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던 여성들이 성매매업소에 속아 성폭행을 당하고 성매매업소에 강제 취업되는 피해사례가 기사화되었습니다.[12]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알바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는 버젓이 광고를 올리고 무고한 여성들을 성매매업소로 유인하고 있습니다.[13] 구직을 위해 개인정보를 올려두면 성매매업소에서 무차별적으로 연락을 하여 성매매 할 것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성매매 업소로 유인, 성폭행, 취업 사기 등이 횡행합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및 규제가 필요합니다.

▹ 질문 : ①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성매매 알선, 강요로 처벌한 현황

②구인구직 사이트의 악용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대응책

▹ 현황 : 마사지 업소는 변형 성매매업소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유흥주점이 집합제한 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되면서 마사지 업소들이 법과 방역의 사각지대에서 우후죽순 들어난 상황입니다. 또 마사지 업소는 태국 마사지, 중국 마사지 등의 이름으로 외국인 여성들이 불법으로 유입되어 성매매를 강요받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인신매매 피해의 경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실태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 질문 : ①2020-2022년 최근 3년간 마사지 업소 단속 현황 자료 (경찰청)

②마사지 업소 증가 상황에 대한 지역별 현황 자료 요청

③마사지 업소의 불법 성매매영업에 대한 정부 대책

**4.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

▹ 현황 : 2021년 제정된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이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한국은 미국무부가 매년 시행하는 전세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022년부터 2등급 국가로 분류되어 인신매매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인신매매피해자를 식별하고 지원하는 법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법을 제정할 때 인신매매 처벌법 부재가 계속 지적되었지만 법은 처벌 조항을 누락한 채 보호법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보호법도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과 맞물려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고 표류중인 상황입니다.

▹ 질문 : ①코로나 이후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창구로 이용되는 E6-2 비자로 입국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E6-2 비자로 입국하는 여성수 및 정부 대책

②최근 관광비자 또는 무비자로 마사지 업소로 유입되어 성매매 강요 당하는 인신매매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태파악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음. 이에 대한 정부 대책

③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제정 이후 식별된 인신매매피해자 현황, 인신매매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여부 및 운영계획, 인신매매피해자 식별지표 활용 방안 및 보완책

---

9)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제2차 내부토론회〉 중 사례연구 보고 (2023. 7. 13)

10) https://m.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308031059001#c2b
경향신문 (2023. 8. 3) "강간, 성매매 가용, 마약 ... 청소년 상대 범죄 소굴된 '디스코 팡팡' 업주 구속 영장"

11)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539
여성신문 (2023. 9. 19) "아동 성착취물 온상 '엑스' ... 표현의 자유 내세워 문제 방관"

## 4. 국제연대 활동

### 1) 유엔여성지위위원회 (CSW) 참석

가) 일시 : 2023년 3월 6일 - 17일

나) 장소 : 뉴욕시 국제연합 본부 부근

다) 참여자 : 조안창혜(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국제협력팀장)

라) 목적

- 여성인권 논의 전반에서 성매매가 논의되는 방식 이해
- 반성매매 및 성노동 관련 단체의 행사 참여 정도 및 토론 내용 파악

마) 참여 내용

- 성산업 관련 세션이 집중되어 있던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다양한 NGO에서 주최하는 행사 총 14개 세션 참여
  - · 성매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세션 총 10개 (요약 내용 첨부)
  - · 여성폭력 관련 세션 4개 (성폭력, 가정폭력, 온라인에서의 여성폭력)
- 여성연합 사무처장과 만남
  - · 국제연합 행사에서 여성폭력 및 성매매가 다루어지는 방향 논의
  - · 전국연대 주도의 행사 참여 가능성 타진
- 성산업 관련 참여 세션 개요

① 성노동 입장

· 디지털 시대 성노동자 인권 실태 및 개선 방안(당사자 중심)

· 인터넷 플랫폼에서 성노동자 인권 실태 및 개선 방안(당사자 중심)

· 디지털 시대 성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문제(당사자 중심)

· 성노동 개념 창립자 캐롤 리(Carol Leigh) 추모제(당사자 중심)

② 반성매매 관련 세션

· 영국 포르노그라피 규제 관련 법안

· 농촌 지역 성산업의 착취 및 인신매매(당사자 중심)

③ 기타 세션(입장 불명확함)

· 인터넷 상의 성매매 목적 아동 인신매매 피해(당사자 중심)

· 불법촬영물 문제 및 대응방안

·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개선 방안 사례발표

- 전반적 특징

① 성노동 세션

---

12) https://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90618295990667
부산일보 (2023. 9. 6) “여성 수십명, ‘알바 면접 갔다가 성매매 제안, 나도 당했다’”

13) http://daejeonpress.co.kr/m/view.php?idx=53453
대전인터넷신문 (2023. 2. 15) “알바천국, 알바몬 성매매업소 구인, 구직 광고 버젓이...”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04228
kbs뉴스 (2023. 2. 13) “[현장K] ”일당 50만원“ 알바 공고, 찾아가 봤더니...”

·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온라인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
· 사회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달라지는 정보통신기술 접근성에 집중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성노동 기회에의 불평등 해소 제안
· 정보통신기술 발전 역사에서 성노동이 갖는 중요성을 부각하고 이후 혁신과정에 기여를 한 성노동자를 배척하는 플랫폼 및 법안이 갖는 문제점 비판
· 성노동을 정상적 근로의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는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 하나 성노동과 인신매매의 경계나 포주가 성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음
· 대부분 당사자 세션들이 유색인종 여성, 트랜스 여성 및 아프리카 출신 당사자 활동가들이 발언의 중심에 서도록 함
· 토론 내용의 전문성과 깊이보다는 국제행사에서 성노동 행사를 안정적으로 여러 개 여는 것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임
· 시각자료(요약물/슬라이드)나 발제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캐롤 리 추모제를 제외한 모든 세션에서 성매매법의 중요성 강조

② 반성매매 세션
· 성산업 자체가 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기반이 되는 다양한 불평등 문제는 논의하지 않음
· 대부분 당사자들이 미국 내 유색인종과 아시아 및 아프리카 출신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음
· 성산업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인신매매를 구분하지 않음(예: 인신매매 문제의 사례로 등장하는 스트립 댄서나 인터넷에서 성적인 사진을 보냈다가 협박당한 경험 등이 등장)
· 성산업에서의 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및 기술/정책적 아이디어 논의 부족
· 당사자 경험 증언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어떤 착취가 어떻게 문제적으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내용과 맥락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세션 없음

③ 기타 세션
· 성매매 및 성산업 전반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음
· 인터넷에서의 성폭력과 인신매매의 차이 및 교차점 관련 정의 부재
· 세계차원의 정치경제적 불평등 문제보다 개인들의 지식 부족으로 인한 피해와 여러 국가의 피해 사례가 갖는 유사성에 주목
· 인터넷 상에서 겪은 피해를 개인적인 문제로 묘사

### 2) CIVIL 20 India 참석

가) 일시 : 4월 21일 ~ 24일
나) 장소 : 인도 부바네스와르
다) 참석자 : 이하영
라) 내용 : 2023년 10월 인도에서 열릴 G20에 제출할 시민사회 아젠더를 도출하기 위한 회의 진행. C20의 공식초청을 받아 회의 참석하여 한국 성매매 실태 및 성매매처벌법 필요성 요청함.

**3) Direct Donor Action (FRONT LINE WOMEN'S FUND, FWF로 명칭 변경)**

- 전국연대와 뭉치 활동 소개, 뭉치 책 소개와 영문 번역 가능성 타진

* 일본 콜라보에서 후원 요청하여 11월 27일 DDA와 미팅 진행

**4)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

- 일정변경 : 2023년 10월 예정이었던 CEDAW 회의가 2024년 5월로 연기됨.

# 2023년 사업별 보고 및 평가③ 교육사업

## 1. 전국연대 활동가 교육

### 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 교육 1탄

1) 일시 : 2023년 5월 31일(화) 10:00 ~ 11:30

2) 장소 : 온라인 줌

3) 제목·강사 : 성산업의 주류화 : 온리팬즈(Only fans)의 성장과 함의 / 조안창혜(전국연대 국제협력팀장)

4) 강의 소개 : 성적 상품화가 기업가 정신을 만날 때 성산업은 어떤 모습을 띄게 될까? 전통적인 성매매가 아닌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성적 교환이 소셜미디어를 만났을 때 성적 노동(sexual labor)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본 강의는 코로나 판데믹을 기점으로 크게 성장한 온라인 성 시장 중 특히 온리팬즈(OnlyFans) 플랫폼에 집중하여, 아마추어 컨텐츠 제작자들이 어떻게 부업과 창업의 영역으로 들어온 성산업을 마주하는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플랫폼의 구조, 이윤 창출방식, 그리고 성인컨텐츠 제작/판매자로서 하는 일의 내용을 소개하고 과거 성산업에서 논의되던 여성의 경험과 비교해 본다. 강의를 통해 성적 자기상품화가 비/자발성 및 성적 동의에 대해 갖는 함의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

# 2023년 사업별 보고 및 평가④ 연대사업

## 1. 한국여성단체연합

구성 : 〈지부〉 경기여성단체연합(이정아 상임대표), 경남여성단체연합(윤소영 상임대표),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임수정 상임대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남은주 상임대표), 대전여성단체연합(김미정 상임대표), 부산여성단체연합(석영미 대표), 전북여성단체연합(박영숙 상임대표) / 7개 지부

〈회원단체〉 경남여성회(이경옥 회장), 기독여민회(여혜숙 회장), 대구여성회(김예민 대표), 대전여민회(조경임 대표), 부산성폭력상담소(이재희 소장), 새움터(고미라 공동대표), 수원여성회(김희경 상임대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하영 공동대표), 젠더교육플랫폼효재(로리주희 이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황연주 사무국장), 울산여성회(강정희 회장), 제주여민회(이양신 상임대표), 제주여성인권연대(송영심 대표), 평화를만드는여성회(김정수 상임대표), 포항여성회(김정희 회장),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김여진 대표),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김희경 상임대표), 한국성폭력상담소(김혜정 소장), 한국여성노동자회(배진경 대표), 한국여성민우회(최진협 상임대표), 한국여성연구소(정영훈 소장), 한국여성의전화(송란희 상임대표), 한국여성장애인연합(문애준 공동대표), 한국여신학자협의회(강현미 공동대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허오영숙 상임대표), 한국한부모연합(장희정 대표), 함께하는주부모임(박순옥 공동대표) / 27개 단체

〈준회원단체〉 세종여성(정종미 대표), 인천여성회(손보경 회장) / 2개 단체

*위원회 및 본부 여성정치세력화 전략본부장(이정아 경기여성연합 상임대표), 의제/운동 전략본부장(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연합운동조직강화위원장(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여성연합〉 김민문정 상임대표, 김윤자 공동대표, 양이현경 공동대표, 조영숙 국제연대센터장, 오경진 사무처장

### 가. 제37차 정기총회

#### 1) 제37차 정기총회

가) 일시 : 2022년 1월 10일(화) 14:00 ~ 2023년 1월 11일(수) 12:00

나) 장소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

다) 주요안건

- 2022년 사업·결산보고 및 승인
- 정관 개정
- 제14대 공동대표 및 신규 임원 선출
- 2023년 사업계획안·예산안 보고 및 승인
- 대의원 선출

## 나. 전체대표자회의

### 1) 제1차 전체대표자회의

가) 일시 : 2023년 2월 7일(화) 13:30

나) 장소 : 온라인 줌

다) 주요안건

- 제38회 한국여성대회 성평등 디딤돌·걸림돌 선정
- 제38회 한국여성대회 제34회 여성운동상 추천

라) 주요결과

- 제38회 한국여성대회 성평등 디딤돌·걸림돌 선정 : 성평등 디딤돌상에는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한 전국여성노동조합 상록CC분회 캐디 노동자, 청주 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특별상은 임보라 목사로 확정함.
- 제38회 한국여성대회 제34회 여성운동상 추천 : SPC그룹 파리바게뜨의 반인권, 반노동 행태에 저항한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인단,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변호인단으로 확정함.

### 2) 제2차 전체대표자회의

가) 일시 : 2023년 2월 17일(금) 10:00

나) 장소 : 온라인 줌

다) 주요안건 및 결과

- 제38회 한국여성대회 재정 계획의 건
- 제38회 한국여성대회 참가자 조직 방안

라) 주요결과

- 제38회 한국여성대회 재정 계획의 건 : 재정 계획을 검토한 결과 최소 1,700만원의  추가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여성연합 7개 지부 27개 회원단체가 38여성대회를 함께 만드는 주체로서 3가지 모금 형태(개인 모금, 네이버 해피빈 모금, 조직위원회 분담금)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기로 함.

### 3) 제3차 전체대표자회의

가) 일시 : 2023년 5월 25일(목) 13:30

나) 장소 :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다) 주요안건

- 제38회 한국여성대회 평가
- 2024 총선대응 활동

라) 주요결과

- 제38회 한국여성대회 평가
  - · 참가자 모두 만족하고 여성운동과 연대에 대한 힘을 받아갈 수 있었고, 다양한 부스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내용 및 추후 행사 기획 과정 등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얻을 수 있었음.
  - · 당일 보신각에서 진행된 2023여성노동자대회와 3.8여성대회가 상호 연계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음.
  - · 3.8여성대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행사로, 개인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정부, 국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함. 향후 3.8여성대회에서 정치인/정당 역할과 더불어 누구와 함께 3.8여성대회를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함. 또한 새로운 장으로 3.8여성대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등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함.
  - · 다채로운 발언 내용이 좋았고, 사전 행진 구호나 연대 발언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은 좋았으나, 당일 행사에서 여러 의제들이 비교적 덜 부각되어 아쉬웠음.
- 2024 총선대응 활동 : 성평등 정치의 퇴행을 막고 여성 유권자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구체적 목표와 활동 계획을 마련하기로 함. 각 단체에서 효과적인 총선 대응 활동에 대해 논의한 후 차기 전체대표자회의에서 공유하기로 함.

### 4) 제4차 전체대표자회의

가) 일시 : 2023년 8월 23일(수) 13:30

나) 장소 :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다) 주요안건

- 제22대 총선 대응 계획
- 여성가족부 강화 방안 세부논의

라) 주요결과

- 제22대 총선 대응 계획 : 메인 타이틀은 사무처에 위임하고, 오늘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사무처에서 재논의해보기로 함 / 총선 대응 활동을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하기로 하고, 여성행진은 3월 8일 즈음에 진행하며 구체적인 시기는 최근 몇 년간 한국여성대회가 전국 집중으로 치러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함 /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기조 등에 대해서는 9월 초 별도 논의를 위한 회의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여기에서 논의된 활동 계획

(안)을 추후 공유하기로 함. 별도 논의를 위한 회의를 진행할 때, 회의 참가 단체는 총선 대응 활동에 대한 명칭, 활동을 위해 담당자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논의해오기로 함

**5) 제5차 전체대표자회의**

가) 일시 : 2023년 11월 2일(목) 13:30
나) 장소 :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다) 주요안건
- 지부/회원단체 및 여성연합 주요 활동 공유
- 준회원 가입 승인 결과 공유(세종여성)
- 2024년 정부 여성/청소년 분야 예산 축소 폐지 관련 논의
- 2024년 제38차 정기총회 개최 관련

라) 주요결과
- 2024년 제38차 정기총회 개최 관련
- 일정 : 2024년 1월 16일(화), 1월 17일(수) / 본회의 1월 17일(수)
- 총회 진행방식 : 1박 2일 또는 무박 2일, 온·오프라인 병행 등은 총회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
- 기타 : 총회 일정 및 총회 진행방식은 총회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위임

**다. 제38회 한국여성대회**

**1) 준비 회의**

**가) 제1차 회의**

(1) 일시 : 2023년 1월 5일(목) 10:00 ~ 12:00
(2) 장소 : 온라인 줌
(3) 참석 : 강산(경기여성단체연합), 김동은(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형선(전북여성단체연합), 남지은(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박지수/정슬아(한국여성민우회), 백조연(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이효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임민경(한국여성노동자회), 오경진/김수희/김미란(한국여성단체연합)
(4) 주요안건
- 2023년 3.8 여성대회 컨셉

(5) 주요결과
- 2023년 3.8 여성대회 컨셉 : 여성가족부 폐지, 백래쉬 등 현 상황에 대한 분노를 담되, 긍정적 지향을 드러낼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함.

**나) 제2차 회의**

(1) 일시 : 2023년 1월 19일(목) 14:00 ~ 16:00

(2) 장소 : 온라인 줌

(3) 참석 : 강산(경기여성단체연합), 김동은(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형선(전북여성단체연합), 남지은(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박지수/정슬아(한국여성민우회), 백조연(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파랑(제주여민회), 임민경(한국여성노동자회), 장수진/김수희/김미란(한국여성단체연합)

(4) 주요안건

- 여성대회 슬로건
- 여성대회 프로그램

(5) 주요결과

- 여성대회 슬로건 :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퇴행의 시대를 넘는 거센 연대의 파도'로 확정함.
- 여성대회 프로그램 : 파도를 활용한 의상, 퍼포먼스 등을 기획하기로 함.

**다) 제3차 회의**

(1) 일시 : 2023년 2월 2일(목) 10:30 ~ 12:00

(2) 장소 : 온라인 줌

(3) 참석 : 김동은(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형선(전북여성단체연합), 남지은(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박지수/정슬아(한국여성민우회), 백조연(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이효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파랑(제주여민회), 임민경(한국여성노동자회), 오경진/장수진/김수희/김미란(한국여성단체연합)

(4) 주요안건

- 핵심메시지
- 프로그램
- 홍보 및 조직

(5) 주요결과

- 핵심메시지 : 핵심메시지는 각 주제별 구체적인 영역들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구호로 구체적인 법 개정과 정책과제 등을 포함하여 정리하기로 함.
- 프로그램
  - · 사전 프로그램 : 다양한 사람들이 여성대회에 참여하여 즐길 수 있도록 버스킹, 공연 등으로 구성된 사전 프로그램을 배치하기로 함.
  - · 전시 : 역대 여성대회 슬로건, 단체별 캠페인 자료나 굿즈 등을 전시할 수 있는 구역을 기획하기로 함.
- 홍보 및 조직

· 온라인 캠페인 : 챌린지 영상을 만들어 여성대회를 홍보하기로 함.
· 언론사 기고 : 여성의 날과 여성의제를 연결짓는 내용의 기고글을 작성 및 게시하기로 함.

**라) 제4차 회의**

(1) 일시 : 2023년 2월 10일(금) 13:00 ~ 15:00
(2) 장소 : 온라인 줌
(3) 참석 : 강산(경기여성단체연합), 김동은(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형선(전북여성단체연합), 남지은(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박지수/정슬아(한국여성민우회), 권효은/백조연(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이효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파랑(제주여민회), 임민경(한국여성노동자회), 오경진/김미란(한국여성단체연합)
(4) 주요안건
- 준비 상황 공유
- 역할분담
(5) 주요결과
- 역할분담
· 사전무대 홍보, 모집, 진행 :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
· 전시존 기획, 모집, 진행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민우회
· 3.8 챌린지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제주여민회, 한국성폭력상담소
· 온·오프라인 홍보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학내 네트워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다국어 포스터 번역, 이주여성 커뮤니티), 준비팀(전체)
· 언론사 기고 : 한국여성단체연합

**마) 제5차 회의**

(1) 일시 : 2023년 2월 16일(목) 13:00 ~ 15:00
(2) 장소 : 온라인 줌
(3) 참석 : 강산(경기여성단체연합), 김동은(한국성폭력상담소), 남지은(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박지수/정슬아(한국여성민우회), 권효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이효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파랑(제주여민회), 임민경(한국여성노동자회), 오경진/김수희/김미란(한국여성단체연합)
(4) 주요안건
- 준비 상황 공유
- 퍼포먼스
(5) 주요결과
- 퍼포먼스 : 구성대로 진행하고 세부 기획하여 참가자들에게 안내하기로 함.

**바) 제6차 회의**

(1) 일시 : 2023년 2월 23일(목) 10:30 ~ 12:00

(2) 장소 : 온라인 줌

(3) 참석 : 강산(경기여성단체연합), 김동은(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형선(전북여성단체연합), 남지은(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박지수/정슬아(한국여성민우회), 백조연/권효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이효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파랑(제주여민회), 임민경(한국여성노동자회), 오경진/김수희/김미란/장수진(한국여성단체연합)

(4) 주요안건

- 준비 상황 공유

**2) 2023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8회 한국여성대회**

가) 일시 : 2023년 3월 4일(토) 12:00 ~ 17:00

나) 장소 : 서울광장

다) 프로그램

| 시간 | 제목 | 프로그램 |
|---|---|---|
| 12:00~17:00 | 시민난장 | 시민참여 부스 운영<br>기획 전시 |
| 13:30~14:30 | 오픈스테이지<br>페미난장 | 여성주의 공연자 버스킹 |
| 14:30~15:30 | 변화의물결을만들어온우리 | 성평등 디딤돌, 특별상, 올해의 여성운동상 시상, 연대발언, 연대 공연 |
| 15:30~16:30 | 거리행진 | 거리행진 |
| 16:30~17:30 | 마무리 | 함께하는 몸짓 |

**라. 정치세력화전략본부**

구성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수원여성회, 한국여성민우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백조연/신지영), 경남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제주여민회, 경기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1) 워크숍**

**가) 1차 워크숍**

(1) 일시 : 2023년 3월 24일(금) 14:00 ~ 17:00

(2) 장소 :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3) 주요안건

- 여성정치세력화 운동 역사 정리 및 향후 방향과 과제
- 여성연합 외부 여성정치세력화 운동 정리
- 지역에서의 여성정치세력화

(4) 주요결과

- 여성정치세력화 운동 역사 정리 및 향후 방향과 과제 : 더 많은, 다양한 여성들을 정치세력화 하는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음. 정치네트워킹이 대중과의 접점을 만들고 여성단체 출신 정치인과의 관계정립과 역할분배가 가능한 공간이 되었으면 함.
- 여성연합 외부 여성정치세력화 운동 정리 : 제도정치 안에서 여성 페미니스트 정치가 가시화되고 있음. 한편으로 실제 견고한 양당구조 정치에서 페미니스트 여성 정치인의 진입이 어려움. 지속 가능한 여성 정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구체적이고 단단한 페미니스트 프로젝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지역에서의 여성정치세력화 : 지역의 여성정치세력화는 지역 특성에 따라 세력화 양상이 다르게 작동함. 중앙 정치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각 지역에서의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이 중요해짐. 지역 특성을 공유하고, 이를 고려한 정치전략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음.

**나) 2차 워크숍**

(1)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13:00~17:00

(2) 장소 : 영등포 노동자조합 지원센터 3층

(3) 프로그램

| 프로그램 | 내용 | 시간 |
|---|---|---|
| 소개 | 워크숍 일정 안내 및 소개 | 13:00~13:10(10분) |
| 발제_1부 | 1. 여성연합의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역사와 정치를 둘러싼 현재 지형(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br>2. 여성연합 외부의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의 흐름들(이효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활동가) | 13:10~14:20(70분) |
| 휴식 | | 14:20~14:30(10분) |
| 모둠토론 | 모둠토론 주제<br>1) 내가 생각하는 정치세력화하면 떠오르는 단어, 이미지<br>2) 각자가 생각하는 페미니즘 정치의 장면(인물, 사례, 순간 등) | 14:30~15:20 (50분) |
| 휴식 | | 15:20~15:30(10분) |

| 프로그램 | 내용 | 시간 |
|---|---|---|
| 발제_2 | 지역 여성정치세력화 사례 ※ 각 사례당 발표 시간 10~15분 이내<br>1. 경기여성단체연합(이정아 상임대표)<br>2. 경남여성단체연합(서은경 사무국장) | 15:30~15:55(25분) |
| 모둠토론 | 모둠토론 주제<br>1) 내가 하고 싶은 페미니즘 정치를 상상해본다면?(함께하고 싶은 사람?)<br>2)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 15:55~16:25(30분) |
| 휴식 | | 16:25~16:30(5분) |
| 발표 | 모둠토론 내용 공유 | 16:30~17:00(30분) |

### 2) 정기회의

#### 가) 제1차 정기회의

(1) 일시 : 2023년 4월 27일(목) 14:00 ~ 16:00

(2) 장소 : 온라인 줌

(3) 주요안건

- 전체 활동가 워크숍 기획

(4) 주요결과

- 전체 활동가 워크숍 기획
  - · 워크숍 목표는 여성정치세력화에 관한 공동의 감각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하고 향후 정치세력화 운동의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워크숍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본부에서 마련하기로 함.
  - · 주제는 내부워크숍 발제 내용 및 선거제도개혁 논의와 총선 지형 등 현재 정세에 대한 발제, 각 지역별 사례나 경험 발표와 핵심 키워드 중심 토론을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함.
  - · 여성연합 사무국에서 워크숍 기획 초안을 마련하여 초안을 토대로 사무국에서 논의 후 전체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함.

#### 나) 제2차 정기회의

(1) 일시 : 2023년 6월 9일(금) 16:30~ 18:00

(2) 장소 : 온라인 줌

(3) 주요내용

- 전체 워크숍 기획안 공유 및 검토

(4) 주요결과

- 전체 워크숍 기획안 공유 및 검토 : 여성연합 정치세력화 운동의 역사와 현재 지형 짚기와 지역 여성정치세력화 사례를 주제로 발제 및 모둠토론을 진행할 예정임.

**다) 전체 워크숍 준비 회의**

(1) 일시 : 2023년 7월 10일(월) 10:30 ~ 11:00

(2) 장소 : 온라인 줌

(3) 주요내용

- 워크숍 프로그램 및 이끔이 역할 공유

**라) 제3차 정기회의**

(1) 일시 : 2023년 7월 25일(화) 16:30 ~ 18:00

(2) 장소 : 온라인 줌

(3) 주요내용

- 워크숍 주요 내용정리
- 여성정치세력화와 페미니즘 정치의 방향에 대한 주요 내용

| |
|---|
| 키워드 : 다양성 / 민주주의(차이) / 구체적 언어<br>진출 / (동수) / 기존 정치(규범)에 대한 도전<br>연결 / 확장 / 광장(가시화) / 과정 |

- 여성정치세력화
  · 양적 질적 모두 더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지만 양적 세력화에 대한 회의와 '세력화'라는 권력과 페미니즘의 관계에대한 질문도 나옴. 기존 정치나 문법에 흡수되지 않는 세력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양적인 세력화를 말할 때 혐오도 세력화가 가능하고 현재 지형에서 우연적으로 모이는 여성들(세력화)을 동력으로 운동하는 것이 가능한지
- 페미니즘 정치
  · 양당체제 안에서 페미니즘 정치가 가능한가?
  · 페미니즘 정치가 기존 정치에 활용되지 않는 방향
  · 다양성(주체와 의제)/민주주의 가치를 담보하는 방향
  · 페미니즘 정치의 목적에 대한 확인
- 실천 전략 방향
  · 제도 정치 진출 및 페미니즘 정치 확장을 위한 교육 혹은 논의 구조의 필요성(여기에는 제도 정치에 욕망이 있는 여성, 정치에 관심 있는 여성, 기존 정치인 등 다양한 주체와의 관계 맺기가 포함)

· 여성 시민들과 경험을 정치 정치화하는 다양한 실천(말하기 공간, 광장, 네트워킹, 토론 등)

**마) 제4차 정기회의**

(1) 일시 : 2023년 9월 5일(화) 10:30 ~ 12:00

(2) 장소 :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3) 주요내용

- 혁신안 내용 및 정치본부 활동 경과
- 정치네트워킹원칙(가안) 논의

· 정치 네트워킹 원칙의 필요성과 배경, 목적, 방향과 적용범위 등에 대해 본부 구성원의 의견을 확인함. 혁신위가 제안한 정치 네트워킹 원칙은 여성운동 출신 정치인(외부)에게 요구하는 원칙이 주요 내용이나, 우선적으로는 여성운동 내부에서 활동가들이 가져야 할 원칙과 책무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차기 회의에서 혁신안을 기초로 활동가 책무성을 위한 내부 네트워킹 원칙을 거칠게라도 정리해보기로 함

· 또한 차기회의에서는 여성정치세력화의 공유지를 만들기 위한 페미니스트 정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마. 의제운동전략본부**

구성 : 수원여성회, 대구여성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젠더교육플랫폼효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제주여민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이선미),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1) 제1차 회의**

가) 일시 : 2023년 3월 16일(목) 13:30 ~ 16:00

나) 장소 : 여성미래센터 소통홀

다) 주요안건

- 회차별 본부 논의 진행 계획
- 토론 주제 제안 및 전체 토론
- 조별 토론

라) 주요결과

- 회차별 본부 논의 진행 계획 : 1차 회의에서 주제 토론을 진행하고, 이에 대해 각 단체 내부에서 공유 및 논의하여 2차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발표하기로 함. 하반기에 라운드테이블 등 환류 방안을 기획해보기로 함.
- 토론 주제 제안 및 전체 토론 : 여성운동이 총집결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정체 분석 및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여성운동 내부의 다양한 고민들

을 어떻게 함께 가져가고,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

- 조별 토론
  · 현재 여성운동의 의미와 한계 : 여성 간 차이에 집중하고 다양한 방식의 입장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연대를 모색해보는 게 필요함. 또한 여성운동 안의 관습을 깨고 창의적인 시도를 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함.
  · 무엇을 할 것인가 상상하기 : 2000년대 초반 이후 운동의제가 다양화되면서 운동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데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운동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고민이 됨. 이와 더불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조직들의 지속가능성과 활동가로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있음.

**바. 여성연합 총선대응활동 기획단**

구성 : 기독여민회(민아름 총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신지영 활동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황연주 사무국장), 한국여성민우회(최희연 공동대표, 류형림 성평등복지팀장, 채윤진 활동가), 여성연합 - 양이현경 공동대표, 오경진 사무처장, 김현수 정책국장, 임선희 조직국장 / 총 5개 단체

**1) 정기회의**

**가) 제1차 여성연합 총선대응활동 기획단 회의**

(1) 일시 : 2023년 10월 10일(화) 13:00 ~ 15:00

(2) 장소 : 여성미래센터 1층 청산홀

(3) 안건

- 각 단체별 총선대응활동 계획 공유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폭력 분야 활동 단체들과 세부 정책제안서 마련 및 제안 활동 진행 예정
  · 여세연: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연대체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활동 등 총선 관련 활동 고민과 실천 이어가고 있음.
- 여성연합 총선대응활동 논의

1) 사업명/기조

(1) 사업명 : 기획단 안은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로 하고, 추후 기획단 참여단체, (가칭)지역별 '어퍼'에 참여할 지부, 회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기로 하다. 본 안대로 사업의 주 제목은 간명하게 하되, 필요시 활동마다의 특성에 따라 부제를 활용하기로 하다.

〈논의 내용〉

- 기존 제안 안인〈선거하는 여성들, '어퍼'〉의 경우 '선거하는'이라는 표현이 선거에 출마하

거나 선거운동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오인될 수 있음.

- ‘유권자’라는 표현은 선거에서의 권리에만 한정된 의미로 읽혀 지난 대선 당시 꾸린 ‘2022 페미니스트 주권자 행동’을 참고하여 ‘주권자’라는 더 확장된 표현을 사용하면 좋겠음.

- 이 활동이 ‘2024 총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제목이면 좋겠음.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성 지우기’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지워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여성’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면 좋겠음.

2) 세부활동계획 관련

(1) [활동1] ‘안티페미니즘’에 맞서는 목소리 확산하기

- 어퍼의 전국 활동 및 계획, 현안 대응, 총선 젠더 정책 등의 대중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홍보 방식과 전략을 논의하다. 카드뉴스, 짧은 동영상(릴스), 유튜브 방송, 언론사 등과 연계한 선거특집 팟캐스트, 뉴스레터 등을 내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방법 및 전략 : 릴스는 가볍게 많은 양의 컨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스토리가 있어야 함, 온라인 사용자들이 실어나르기 좋은 컨텐츠 제작 필요, 오픈채팅방을 개설한다면 사전규칙을 만들고 소통이 아닌 홍보채널로 이용하면 확장성 있음 등

(2) [활동2] 지역별 ‘어퍼’로 전국을 ‘어퍼’

- 지역별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약속문(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지역별 활동에 특정 정당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하여 자칫 ‘어퍼’ 활동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처럼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모임 운영 단체가 이에 대응하고 지양하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모임 구성원 간의 약속문(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기로 함. 이 가이드라인에는 모든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배제, 혐오에 반대하고 평등을 지향한다는 점 등을 포함하기로 함.

(3) [활동3] 성평등 실현은 국가의 책무! 우리의 요구로 국회를 ‘어퍼’!

- 총선젠더정책 확산 활동이 단체 중심을 넘어 대중 확산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중을 타겟으로 한 컨텐츠가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잘 이어나가야 함.

(4) [활동4] ‘어퍼’ 행진, 전국의 ‘어퍼’가 모인다! 정치가 응답하라!

- 3.8 여성대회와 같은 날 여성대회 이후 ‘어퍼’ 행진을 개최하는 것과 여성대회와 분리하여 개최 하는 것 대해 지역 참여, 최대한 많은 주권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고려하여 날짜를 확정할 필요 있음.

(5) 기타

- 예산 : 현재까지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상태이고, 여성연합에서 해피빈 모금함을 개설할 예정임.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규모가 확정되면 예산마련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함.

3) 역할분담 등

- 기획단은 기획팀, 홍보팀, 조직팀으로 구성하기로 하다. (우선은 기획팀, 홍보팀을 먼저 꾸려 진행하고, 어퍼 행진 등을 위한 조직팀은 추후 가동하기로 하다.)

  * 기획팀 : 현안 모니터링 및 대응(성명서, 기자회견 등)

  * 홍보팀 : 어퍼 활동 전반(지역 어퍼 활동 포함), 현안 및 총선 젠더 정책 홍보, 전반 홍보

  * 조직팀 : 지역 어퍼 소통 및 내년 3월 어퍼 행진 조직 등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기획팀, 기독여민회는 홍보팀에서 활동하기로 하고, 다른 기획단 단체들은 10/20(금)까지 단체별 논의 텔방에 공유하기로 하다.

**나) 제2차 여성연합 총선대응활동 기획단 회의**

(1) 일시 : 2023년 10월 25일(수) 10:00 ~ 12:00

(2) 장소 : 여성미래센터 1층 청산홀

(3) 안건

-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출발, 시작 및 활동 전반

① 참여단위 모집

· 대선 주권자행동 때 규모있게 참여단위 모집했던 것을 참고하여 젠더 이슈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참여단위 모집(한 달 가량 모집하고 해당 기간 동안 기획단은 활동 세부계획 논의).

② 출범 기자회견/공동선언 등 진행

· 참여단위 모집 후 11월말, 12월 초에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이나 공동선언 등 진행. 총선에서 젠더, 성평등 이슈를 공론화하기 위해 전국에서 힘을 모은다는 취지로 활동계획 등 발표.

· 출범 시점을 확정할 필요 있음(전체대표자회의 등에서 논의).

· 대중참여를 고려하여 선언문 형식일 경우 그에 동의하는 시민 개인 연명방식 등 필요(이전에 개인 서명 방식을 진행했을 때 제대로 조직하지 않으면 오히려 수가 적어보이는 문제 등을 고려해 방식은 추후 논의 필요함.)

③ 참여단체, 활동, 문의처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SNS계정 마련

· 대선 주권자행동 때는 참여하고 있는 단체, 활동 등을 한곳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캠페이너스 홈페이지를 운영했음. 이를 참고해 페이지, SNS계정 등 마련 필요함.

④ 지부, 회원단체 총선 활동계획 참고 필요

· 지부, 회원단체들이 총선 활동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확인하고 이후 홍보 전략, 대응 등 기획 필요.

⑤ 총선이 중요한 시점임을 환기시키는 대중 메시지/구호 확산 필요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든 분야에 퇴행이 일어나고 있어 대중의 관심이 각 이슈에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총선이 지금 당장의 일로 체감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총선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총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대중 메시지/구호 확산이 필요함.

**다) 제3차 여성연합 총선대응활동 기획단 회의**

(1) 일시 : 2023년 11월 16일(목) 13:00 ~ 15:00

(2) 장소 : 여성미래센터 1층 청산홀

(3) 안건

-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참여 단체 모집

① 모집기간 및 방식

· 11/20(월)~12/4(월), 구글 설문 링크 통해 모집

· 여성연합 지부, 회원단체 등 여성운동단체 중심으로 적극 조직, 그 외 시민사회는 각종 연대체 텔방 등 통해 제안(※추후 어퍼 행진 앞두고 2차 모집 진행시 시민사회 적극 조직)

② 모집 안내 내용

· '어퍼' 활동 취지, 활동 계획 요약, 출범 기자회견 안내, 참여단체 역할 안내

· 참여단체 역할 : ① 각 단체 총선 관련 활동을 '어퍼' 이름으로 진행 또는 지역별 '어퍼' 모임 진행, ② '어퍼' 활동 각 단체 홍보채널을 통한 홍보, ③ 3월 '어퍼 행진' 조직 및 참여

· 정당 참여 관련 원칙 : 총선 과정 및 제22대 국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촉구 대상에는 정당 또한 포함되므로 정당은 주권자 조직과는 위치성이 다르게 이해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당 및 정당 내 조직, 모임 등은 '어퍼' 참여(주최) 단체로는 받지 않기로 함(해당 원칙을 모집 링크에 명시). 다만 어퍼 행진 등에 당일 참여는 가능함.

③ 관련 실무 역할분담 및 일정

- 출범 기자회견

① 일시와 장소

·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2023년 12월 12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② 참석 규모

· 최소 50명 이상(서울지역 단체 중심으로 조직)

③ 프로그램 : 차기 회의에서 세부 논의

· 발언(어퍼 활동 취지 및 계획 발표 등)

· 선언문 낭독

· 퍼포먼스

④ 관련 실무 역할분담 및 일정 : 그 외 역할분담 및 세부 일정은 차기 회의에서 논의

- 개인 '어퍼' 참여자 모집 관련(안)

① 모집기간 및 방식

· 12월 12일(화) 출범기자회견 당일~총선까지(지역별 모임 신청 문항은 지역별 모집 일

정 확인 후 삭제), 그 외 지역별 모임은 위 시작일정 전후로 자유롭게 모집 가능
· 구글 설문 링크 통해 모집
· 개인 어퍼 모집 웹자보 홍보
② 모집 안내 내용
· ‘어퍼’ 활동 취지, 활동 계획 요약, 지역별 ‘어퍼’ 계획 및 모임 주관단체(사무실 주소 포함), 개인 참여 역할, 카카오톡 ‘어퍼’ 채널, 어퍼 웹페이지 안내
· 개인 ‘어퍼’ 역할 : ① ‘어퍼’ 공동선언에 개인연명(출범선언문에 연명 추가 방식), ② 개인의 다짐 밝히기, ③ 3월 ‘어퍼 행진’ 참여, ④ 가능한 경우 지역별 모임 등 참여, ⑤ ‘어퍼’ 소식 받아보기(메일, 카카오톡 ‘어퍼’ 채널, 웹페이지 등)
③ 관련 실무 역할분담 및 일정 : 세부 일정 추후 논의
- ‘어퍼’ 웹페이지 관련
① 웹페이지 내용
- 어퍼 활동 취지 및 계획 소개
- 어퍼 참여단체 소개
- 공동선언문 게시 및 업데이트(개인 연명 현황 포함)
- 개인 참여자의 다짐/한마디 보여주기 : 포스트잇 방식 등 이미지로 보이도록 구현
- 활동 아카이빙
② 플랫폼
③ 역할분담 및 일정
- ‘어퍼’ 메인이미지 컬러, 컨셉 등
- 기획단 내 현안대응/홍보 역할분담: 현안대응, 홍보 관련해 주기와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맡는 방식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임. 세부 안은 여성연합 사무처가 안을 마련해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

**라) 제4차 여성연합 총선대응활동 기획단 회의**

(1) 일시 : 2023년 11월 29일(수) 10:00
(2) 장소 : 여성미래센터 1층 청산홀
(3) 안건
- 참여 단체 모집 현황 공유: 현재 22개 단체 모집. 추가 조직을 위해 참여 독려하기로 함.
- 출범 기자회견
① 제목(안)
·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출범 기자회견
② 일시와 장소
· 2023년 12월 12일(화) 오전 11시 / 국회 앞
③ 프로그램(※사회 : 여연)
· 어퍼 활동 취지 및 계획 발표 등 : 사회자

· 발언
- 여세연 황연주 사무국장 : 정치지형, 여성정치대표성, 선거에서 여성주권자의 역할의 필요성 등
- 출범기자회견 참석하는 수도권 외 지역 단체(여연 섭외요청) : 지역에서의 정치 상황, 지역 '어퍼' 활동, 지역+전국에서 여성주권자의 행동 필요 강조
- 서페대연(여연 섭외요청) :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호명되는 '20대 여성'이 원하는 정치와 국회, 대학 내 여성주의 조직 폐지 등 여성/페미니스트들이 처한 상황 등
-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여연 섭외요청) : 중년여성, 돌봄노동자, 비정규직이라는 다층적 상황에 놓인 여성들에게 필요한 정치와 국회
· 출범선언문 낭독(2~3인) : 추후 참석현황 확인 후 섭외(여연)
· 퍼포먼스
④ 관련 실무 및 역할분담
- 개인 '어퍼' 참여자 모집 관련
① 개요
· 모집기간 : 12월 12일(화) 출범기자회견 당일~2024년 4월 10일 총선 당일
② 카카오톡 채널 개설 관련
③ 웹페이지 제작 관련
④ 웹자보 초안 공유 및 논의
⑤ 추후 필요 실무

**마) 제5차 여성연합 총선대응활동 기획단 회의**

(1) 일시 : 2023년 12월 8일(금) 10:00
(2) 장소 : 온라인 줌
(3) 안건
- 출범 기자회견 실무 점검
- 개인 '어퍼' 참여자 모집 관련
① 개요
· 모집기간 : 12월 12일(화) 출범기자회견 당일~2024년 4월 10일 총선 당일
② 카카오톡 채널 개설 관련
· 여성연합 채널 개설 완료 http://pf.kakao.com/_xjxnzXG
③ 웹페이지 제작 관련
④ 웹자보 확정
⑤ 추후 필요 실무
- 총선 젠더정책 핵심과제 질의서 각 정당 발송 관련[14)]
· 현재 원내 정당 중심으로 질의 : 국힘,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한국의희

14) 제21대 총선에 요구하는 주요 젠더과제와 정당 공개질의 답변결과 http://women21.or.kr/politics/16039

망

· 기존 제안 : 12/18(월) 발송, 1/3(수)까지 답변 요청(여연), 발표는 1/8(월)주 이후 - 보도자료 배포(여연), 답변결과 가공 및 홍보(기획단 추후 논의)

→ 연말까지 국회 일정 등으로 정당에서 답변하기 어려울 수 있을 듯함. 이에 각 정당 동향파악 후 발송-답변 일정은 추후 확정하기로 함.

**바) 제6차 여성연합 총선대응활동 기획단 회의**

(1) 일시 : 2023년 12월 19일(화) 10:00

(2) 장소 : 여성미래센터 1층 청산홀

(3) 안건

- '어퍼' 단체 모집 현황: 146개 단체, '어퍼' 개인 참여자 모집 현황: 53명
- 개인 '어퍼' 참여자 모집 관련
- 기획단 역할분담

※'어퍼' 활동 계획 개요

[활동1] '안티페미니즘'에 맞서는 목소리 확산하기
- 현안대응 활동(성명서, 기자회견, 그 외 다양한 방식의 현안대응 활동)

[활동2] 지역별 '어퍼'로 전국을 '어퍼'
- 지역별 활동 진행(피켓 인증샷, 지역별 선언문 배포, 개별 활동 등)
- 기획단에서 취합 및 홍보

[활동3] 성평등 실현은 국가의 책무! 우리의 요구로 국회를 '어퍼'
- 총선젠더정책 각 정당 공약 반영 및 대중 확산 활동

[활동4] '어퍼' 대행진, 전국의 '어퍼'가 모인다! 정치가 응답하라!
- 2024년 3월 8일(금) 세계여성의 날 당일, 서울(장소 추후 확정)

① 현안대응 활동

· 각 단체 담당 기간 및 주기

- 2023년 12월 25일 주~2024년 4월 22일 주(총 18주)
- 2주씩 담당, 총 9회

· 담당단체 역할

- 총선 관련 현안 모니터링 → 기획단 공유, 대응 논의 제안
- 필요시 성명서 작성 및 홍보(카드뉴스, 릴스 등 짧은 영상 활용 등)
- 2주간 있었던 총선 관련 현안을 대중에게 알리는 컨텐츠 제작 및 배포(뉴닉 참고, 카드뉴스 방식 등) → 카드뉴스 1장에 1개의 이슈를 담아 총 5~6개 이슈 넣기로 함. 텍스트는 각 단위 스티비(뉴스레터 플랫폼) 활용해 링크 만들어서 모두가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기로 함.

· 역할분담

- 역할분담 단체 : 여연, 민우회, 여세연(제안), 전국연대+여연(제안)

② 개인 어퍼 참여자 조직을 위한 모집 홍보

· 출범기자회견 발언문 워딩, 발언자 사진 활용 카드뉴스(개인 어퍼들의 얼굴 드러나는 방식의 홍보)

· 어퍼 참여단체, 셀럽 등에게 내가 어퍼에 참여하는 이유, 주권자로서 나의 다짐 등 간단한 워딩과 사진을 받아 홍보

③ 홍보

· 기본 홍보틀 마련

· 지역별, 단체별 어퍼 활동 홍보

· 역할분담

- 총선 젠더정책 핵심과제 질의서 각 정당 발송 관련[15)]

· 현재 원내 정당 중심으로 질의

· 12/18 주 발송, 1/17(수)까지 한 달 정도로 기간 길게 잡아 답변 요청(여연)

· 발표는 1/22 주 이후 : 보도자료 배포(여연), 답변결과 가공 및 홍보(기획단 추후 논의)

### 사. 정부 예산 삭감 대응 활동

#### 1) 성평등 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행진 및 기자회견

가) 일시 : 2023년 11월 21일(화) 10:00 ~ 12:00

나) 장소 : 광흥창역 ~ 국회의사당 본관 앞

## 2.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구성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셰도우핀즈,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 가. 정기회의

#### 1) 제44차 회의

가) 일시 : 2023년 3월 10일(금) 14:00 ~ 17:00

나) 장소 : 온라인 줌

---

15) 제21대 총선에 요구하는 주요 젠더과제와 정당 공개질의 답변결과 http://women21.or.kr/politics/16039

다) 주요안건

- 2022년 강간죄개정연대 행사 ‘지금, 세계인권으로 ‘강간죄’ 읽기’ 평가
- 2023년 과제 제안

라) 주요결과

- 2022년 강간죄개정연대 행사 평가 : 참여자들과 자료를 읽고, 활동가 및 전문가와 함께 질문을 공유하고 의미를 해석하여 좋은 시간이었음.
- 2023년 과제 제안
  · 상반기에 각 여성인권 영역별 실태를 드러내며 강간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기로 함.
  · 이후 21대 국회 압박, 22대 총선 대응 준비, 대시민 활동을 모색·추진하기로 함.
  · 법무부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FAQ 자료는 신속하게 제작하기로 함.
  · 2023년 분담금 요청하기로 함.

**2) 제45차 회의**

가) 일시 : 2023년 3월 29일(수) 14:00 ~ 16:00

나) 장소 : 온라인 줌

다) 주요안건

- 2023년 상반기 활동 논의
  · 강간죄 개정 FAQ 자료 생산
  · 릴레이 리포트

라) 주요결과

- 2023년 상반기 활동 논의
  · 강간죄 개정 FAQ 자료 생산 : 강간죄 개정 관련하여 예상되는 질문을 정하고 전문가들의 답변을 수록한 자료집을 제작하기로 함.
  · 릴레이 리포트 : 강간죄 개정 관련 사례·통계·문제개념 및 분석·비판, 시민 사례, 강간죄 개정을 위해 필요한 변화 등에 관한 리포트를 릴레이로 작성하고, 보도자료와 메일링 등을 통해 배포하기로 함.

**3) 제46차 회의**

가) 일시 : 2023년 4월 26일(수) 10:00 ~ 12:00

나) 장소 : 온라인 줌

다) 주요안건

- 강간죄 개정 FAQ 자료 생산
- 릴레이 리포트
- 비동의 강간죄 입법 전략

라) 주요결과

- 강간죄 개정 FAQ 자료 생산 : 강간죄개정연대에서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재구성하고 전문가에게 감수 요청하고자 함. 향후 카드뉴스로 제작 및 배포하고자 함.
- 릴레이 리포트 : 단체나 피해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질적 자료를 만들고, 설문조사를 통해 양적 자료를 구성하고자 함. 이를 통해 대부분의 여성들이 폭행 협박 없는 비동의 성관계를 이미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처벌되지 않은 성범죄가 만연함을 보여주고자 함.
- 비동의 강간죄 입법 전략 : 국회 대응 활동(법사위 공청회, 콜21 동의 의원과 협력 및 22대 국회 입법 의원 발굴), 전문가 간담회, 캠페인('비동의 강간죄 입법 이후' 시뮬레이션, 상담소 현장 사건 공론화, 대중캠페인, 다양한 단위 입장 표명) 등을 계획하기로 함.

**3) 제47차 회의**

가) 일시 : 2023년 5월 25일(목) 10:00 ~ 12:00

나) 장소 : 온라인 줌

다) 주요안건

- 릴레이리포트 언론 연재
- 내가 쓰는 이야기 '성폭력인데 성폭력이 아니라구요?'
- 원치 않는 설문조사
- 기자회견 '우리가 아는 문제, 우리가 바꾸는 내일 – 형법 297조 강간죄를 개정하라!'
- 릴레이 카드뉴스(판례)
- 실무 간담회

라) 주요결과

- 릴레이리포트 언론 연재 : 〈일다〉에서 연재 제안 메일 보내왔음. 일다에 연재하고, 원고료는 강간죄개정연대에서 받기로 함.
- 내가 쓰는 이야기 '성폭력인데 성폭력이 아니라구요?' : 친족성폭력생존자, 준강간사건 공대위 피해자 등 필자를 섭외하고 진행 상황 논의하기로 함.
- 원치 않는 설문조사 : 5/25일 기준 240명 설문 참여함. 각 단체에서 진행하는 온오프라인 행사에서 홍보하기로 함. (6/21일까지 참여 인원 2,000명 목표)
- 기자회견 '우리가 아는 문제, 우리가 바꾸는 내일 – 형법 297조 강간죄를 개정하라!' : 강간죄 개정 발의 의원과 함께 국회본관에서 진행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음. 개정연대에서 만드는 내용의 안정적인 공유를 위해 기자회견과 별도의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획팀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안을 만들기로 함.

- 릴레이 카드뉴스(판례) : 2020년 ~ 2022년 폭행협박의 판단이 다른 판례들을 정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카드뉴스 제작하기로 함. 한성폭과 전국연대에서 역할 분담하여 진행하기로 함.
- 실무 간담회 :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여 법원, 경찰, 검찰 등 실제 조직 내에서 입법 관련 쟁점이 무엇인지, 강간죄 개정이 되었을 때 문제점이나 고민 지점이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여 쟁점을 도출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함.

**4) 제48차 회의**

가) 일시 : 2023년 6월 23일(금) 10:00 ~ 11:30

나) 장소 : 온라인 줌

다) 주요안건

- 국회 대응 액션 일정
- 기자회견 기획안 검토
- 토론회 기획안 검토

라) 주요결과

- 국회 대응 액션 일정 : 7월 25일 진행하기로 함.
- 기자회견 기획안 검토
- 토론회 기획안 검토

**나. '강간죄'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발간**

- 릴레이 리포트 : 각 지원현장의 반성폭력 운동 경험에 기반한 문제의식과 주요 쟁점을 담아,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릴레이리포트를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에서 연재하기로 함(https://www.ildaro.com/).
  - · 1탄 : 술이나 약물이 있었던, 원치 않은 성관계 (5/11)
  - · 2탄 : 위력에 의한, 원치 않은 성관계 (5/18)
  - · 3탄 : 성매매라고 불린, 원치 않은 성관계 (5/25)
  - · 4탄 : 청소년으로 겪은, 원치 않은 성관계 (6/1)
  - · 5탄 : 장애여성, 동의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6/8)
  - · 6탄 :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그 수단은 폭행·협박이 아니다. (6/29)
  - · 7탄 : 부부간 성관계는 언제든 동의된 것이다? : 숨겨진 범죄, 아내 강간 (6/29)

**다. '원치 않는' 설문 조사**

- 설문 링크 : bit.ly/rape_law_survey

**라. 성폭력 피해 생존자 수기, 성폭력인데 성폭력이 아니라고요? 발간**

- '폭행 협박'이 없는 성폭력을 겪은 피해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해자는 면

죄부를 받고 피해자는 보호 받지 못하는 현행 법의 현실을 말하고자 함.

· 1편 : 그날 일어났던 일의 이름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6/20)
· 2편 : 가족이라는 신뢰 관계를 이용한 친족 성폭력 (6/28)

**마. '비동의 강간죄', 사회적 합의는 끝났다! 기자회견**

1) 일시 : 2023년 7월 25일(화) 11시
2) 장소 : 국회 본관 앞
3) 공동주최 :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및 여성시민
4) 내용

○ 제목
'비동의 강간죄', 사회적 합의는 끝났다! -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하라!

○ 개요
1. 일시: 7/25(화) 오전 11시
2. 장소: 국회 본관 앞 계단
3. 주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221개 단체), 권인숙 의원실, 그 외 의원실(이탄희 등 접촉 중)
4. 참석자 수: 100명~150명
5. 프로그램 (사회: 한국여성의전화)
○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 소개 (최나눔 한국여성의전화)
○ 발언
1) 용혜인 국회의원
2) 권지현 전성협 공동대표
3) 정희진 탁틴내일
4) 김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5)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대위 피해생존자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바.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 토론회**

1) 일시 : 7/25(화) 13:30
2)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3) 내용

- 사회 :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 국회의원 인사말

- 발제1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현실 톺아보기 (나무 장애여성공감)
- 토론1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발제2 강간죄 개정 반대에 대한 법적 검토 (이겨환 변호사)
- 토론2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발제3 강간죄 개정과제의 현재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 토론3 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과장)

4) 결과 : 참석자 80-100명

## 3. (가)'벗방' 피해자 공동지원단

구성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 가. 정기회의

#### 1) 제1차 회의

가) 일시 : 2023년 4월 4일(화) 19:00 ~ 21:00

나) 장소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회의실

다) 주요안건

- 단체별 상황 공유
- 피해지원
- 공동대응

라) 주요결과

- 단체별 상황 공유
  - · 전국연대 : BJ산업을 성착취 산업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음. 사건 대응과 피해 지원을 함께해야 할 것 같음. 개인 사건이 아닌, 산업적 문제로서 접근하고, 플랫폼에 문제제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 · 한성폭 : 유튜브 채널로 공론화된 사례는 영상 유포협박과 약물에 의한 준강제추행이 있어보임. 성폭력, 성착취로 접근해야 할 것 같음. 전형적인 디지털 성폭력과 다른 사안이라 개별 지원보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함.
  - · 한사성 : 피디수첩에서 취재를 위해 한사성에 연락하여 피해자 인터뷰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벗방 산업 관련 자료 제공, 단체 인터뷰를 요청했음.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 됨.
- 피해지원 : 초기 상담은 전국연대와 한성폭, 이룸에서 분담하기로 함.
  - · 벗방 산업 전반에 대해 대응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음. 개별 사건에서 출발해 어떤 특성과 양상이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지금까지 벗방은 피해지원 사각지대였음. 현행법상 성매매나 성폭력이 없을 경우 지원이 어려움. 기존 피해 상담사례를 취합하고, 피해지원을 하면서 벗방 문제가 사각지대에 있음을 드러내서 문제제기하면 좋겠다고 봄.
· 벗방 또는 성착취라는 용어가 상담을 통해 당사자의 발화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했으면 함. 외부에서 명명하기보다, 당사자들과 함께 이 경험이 어떤 경험인지 해석했으면 좋겠음.

- 공동대응
· (가)'벗방'피해자공동지원단으로 공대위 준비모임을 진행하고자 함, 단체별 SNS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피해지원 안내문을 배포하고 ○○과 피디수첩에 연락해 해당 안내문을 공유하고 피해자 연계를 요청하기로 함.
· 한사성, 한성폭, 전국연대, 이룸에서 사건에 대한 이해 및 접근, 공동대응 목표에 대해 정리하고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함.

**2) 제2차 회의**

가) 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15:00 ~ 18:00
나) 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다) 주요안건
- 단체별 상황 공유
- 각 단체 입장 공유 및 향후 방향 논의
라) 주요결과
- 단체별 상황 공유
· 한사성 : 피디수첩과 1차 인터뷰를 진행하여 벗방과 웹하드카르텔 연결성, 벗방과 포르노사이트 연결성, 삭제지원 과정과 체계, 산업구조와 문화구조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동지원단을 소개하였음.
· 피해지원 : 피해지원 요청이 접수되어 한성폭과 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보다에서 지원하기로 함.
- 각 단체 입장 공유 및 향후 방향 논의 : 피해 사례를 지원하며 담론을 만들고, 모니터링, 과거 음란TF관련 자료 등을 정리하는 활동을 해보기로 함.
· 한사성 :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방송을 하거나, 방송 게스트로 참여했다는 지점을 빌미로 이들의 경험을 피해로 보지 않는 사회적 시선이 있음. 피해자와 피해경험과 이후 과정들을 해석하며, 무엇이 피해·폭력·착취인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갈 필요가 있음. 한편으로, 벗방 산업이 연예계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음. 벗방산업이 없어진다고 해도 다른 형태로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사건들을 기존의 폭력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음. 피해자와 함께하면서, 구조를 짚는 균형이 필요함. 향후 사례지원, 모니터링, 여성단체 내부 담론 형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전국연대 : '벗방' 산업구조, '일'의 성격, 소비문화는 성착취와 매우 유사함. 여러 젠더폭력이 중첩되어 발생하지만, 벗방 생산 및 소비 구조의 특성으로 기존의 성폭력과

성매매 관련 법적 개념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음. 따라서 벗방 생산 및 소비 구조를 더욱더 면밀히 파악하고 가시화할 필요가 있음.

· 한성폭 : 유튜브로 공론화된 사례의 경우 성폭력적 상황이 명백히 확인되고, 다른 피해자들도 유사한 조건일 것이라 추측 됨. 라이브방송플랫폼이나 개별방송들도 조직적인 구조가 있어 보임, 그러나 무엇이 벗방인가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하여, 향후 지원단에서 '벗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어떤 용어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향후 피해 여성에 대한 공동지원, 피해 유형 구조화와 법적·정책적 공백에 대해 정부에 요구하는 활동이 가능해보임.

· 이룸 : 벗방 산업 내 BJ를 향한 폭력, 불공정 계약, 성폭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이는 온라인 성산업(기술 매개 여성의 신체 이미지가 성적 대상이 되고 거래 가능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이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이 남성들의 놀이가 되고, 이를 이용하여 자본이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성산업) 으로 해석됨. 불공정 계약과 성폭행 등이 성산업 내에서의 업주로부터의 폭행을 비롯한 권력관계의 문제와 동일선상에서 해석됨. 공동지원단에서 피해를 지원하고, 한편으로 온라인 성산업으로서의 벗방 산업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담론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3) 제3차 회의

가) 일시 : 2023년 5월 2일(화) 10:00 ~ 12:00

나) 장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다) 주요안건

- 한국여성민우회 합류
- 피해지원 상황 공유
- 피디수첩 방송 시청
- 향후 활동

라) 주요결과

- 한국여성민우회 합류 :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상담소에서 피해지원을 함께하기로 함.
- 피해지원 상황 공유 : 한성폭의 경우 게스트방송 피해자에게 삭제지원을 안내하고 의료기관을 연계해줌. 타 단체에는 피해 접수된 사례 없음.
- 피디수첩 방송 시청 : '벗방' 문제를 젠더위계폭력으로 다루지 않았고, 젠더폭력이 아닌 '성적 사기'에 초점을 맞춰 일부 사례만 선별하여 재현하였음. (가) '벗방'피해자공동지원단 단체 중 성매매피해지원기관(전국연대, 이룸)의 연락처를 누락함.
- 향후 활동

· 피디수첩 방송 관련하여, 공동지원단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외부 논평을 배포하기로 함.

· 각 단체에서 모니터링과 실태 파악을 위한 활동을 기획해보고, 향후 회의에서 공유 및

역할 분담을 진행하기로 함.

**4) 제4차 회의**

가) 일시 : 2023년 5월 11일(목) 10:00 ~ 11:00

나) 장소: 온라인 줌

다) 주요안건

- 피디수첩 방송 관련 논평(공동성명) 검토

라) 주요결과

- 피디수첩 방송 관련 논평(공동성명) 검토 : 논평에서 피디수첩 방송 내용의 한계는 간단히 짚고, '벗방'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설명하는 방향으로 논조를 수정했으면 함.

**5) 제5차 회의**

가) 일시 : 2023년 6월 9일(금) 10:00

나) 장소: 한국여성민우회 지하 1층 회의실

다) 주요안건

- 홍보/언론 등 현황 공유
- 각 단체 피해자 지원 현황 공유
- '벗방'피해자공동지원단 활동 목표 설정

라) 주요결과

- 각 단체 피해자 지원 현황 공유 : '벗방' 영상의 경우 경찰 신고가 우선되어야만 삭제지원이 가능하여 피해 대응이 늦어질 수 있음. 디성센터는 영상 발견 건수나 삭제 건수를 공유하는 정도에 그쳐, 피해자의 해결 방안 모색에 제한적인 자료를 제공함.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벗방'피해자공동지원단 활동 목표 설정 : 공동지원단 활동 목적이 분명해야 향후 담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음. 향후 회의에서 각 단체별로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개선책), 고민과 문제제기하고 싶은 지점, 활동 가능한 여건 등을 파악하여 공유하기로 함.

## 4. 정의기억연대 네트워크 연대활동

**1) 제1595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주관**

가) 일시 : 2023년 5월 10일(수) 12:00~13:00

나) 장소 :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

다) 주최 : 정의기억연대, 주관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라) 내용

- 여는 노래 〈바위처럼〉
- 주관단체 및 사회자 소개 여는 말 (권효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
- 주관단체 대표 인사말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 주간보고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특별발언 (이용수 여성인권운동가)
- 연대발언 : 박세희 대학생 역사동아리연합 대표, 이담비 평화나비 네트워크 서울대표, 박승배평화나비 네트워크 숭실나비,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 최은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사무처장
- 성명서 낭독 (이선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
- 공연 〈처음처럼〉

**2)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를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가) 일시 : 2023년 7월 6일(목) 11:30~12:30

나) 장소 : 국회 정문 앞

**3)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나비 문화제**

가) 일시 : 2023년 8월 13일(일) 13:30~18:30

나) 장소 : 청계천 광장

다) 내용 :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1만명 서명운동, 자활센터 해봄 공방물품 전시 및 판매

## 5. 2024년 젠더 기반 여성폭력 정책 제안 활동 연대체

### 가. 임시 회의

가) 일시 : 2023년 9월 27일(수) 12:00

나) 장소 : 온라인 줌

다) 주요 안건 및 결과

- 2024년 정부 보조금 축소 등에 대한 대응 논의
  - · 원칙적인 입장에서 일방적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여,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 대응을 논의하기로 함

### 나. 제1차 젠더 기반 여성폭력 근절 총선 대응활동 회의

가) 일시 : 2023년 10월 10일(화) 17:00

나) 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다) 참여 : 한성폭, 한여전, 전국연대, 한사성, 이주여성인권센터, 전성협, 장공감

다) 주요안건 및 결과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예산 및 인력 감축 관련 대응
  - ·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을 기조로 공동 대응하기로 함
  - · 10월 17일(화) 9:00 온라인 대표자 회의, 10월 30일(월) 11:00 국회 본관 앞 기자회견 준비하기로 함. 이에 따라 각 단위별 역할을 배분함
- 젠더 기반 여성폭력 근절 총선 대응활동
  - · 여성폭력 지형에서 필요한 정책을 모아 이슈파이팅을 하자는 의견, 여연 중심으로 공약을 추린 것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제시됨

# 2023년 사업별 보고 및 평가⑤ 프로젝트 사업

## 1.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가. 사업 제목 : 여성주의, 반성착취 현장과 만나다
나. 사업 기간 : 2023. 3. 1~ 2023. 11. 30
다. 사업 비용 : 20,000,000원
라. 사업 내용

**1) 反-性-착취 여성주의 간담회: 전국연대 회원단체들과 협업하여 전국 뉴페미들과의 연결 시도!**

**가) 서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사무국)**

- 일시: 8월 9일
- 간담회 단체: 성북청년시민회
- 내용: 부설 상담소가 있는 성북구에서 여성주의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단체를 만남. 지역 안에서 성매매 문제 및 향후 협업 내용을 함께 나눔. 간담회 후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걷기 진행.

* 비고: 전국연대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2개 청년단체에 간담회를 제안하였으나 성매매에 대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간담회를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였음.

**나) 부산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 일시: 8월 30일,
- 간담회 단체: 채널PNU, 노동인권연대, 칠성사이다
- 내용: “배달의 살림”이라는 컨셉으로 3인 이상 모임에서 간담회를 신청하면 찾아가는 간담회 진행.
- 평가내용: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성매매방지에 대한 또 다른 접근을 듣는 시간이 되어 뜻깊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방법론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사회 깊숙이 자리 잡은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사례나 증언 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내용 전달이 더욱 풍성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듣기 힘든 현장의 목소리가 닿는 시간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대구 ((사)대구여성인권센터)**

- 일시: 5월 22일, 7월 28일, 8월 7일, 11월 17일
- 간담회 단체: 여성주의모임 '공방', 지고지탐XX, 불일치(불편한 일상을 치우자 남성모임), 대구 지역 비판언론 '표출지대'
- 내용: 대구지역 반성매매운동 소개, 간담회 단체 소개, 성매매 관련한 고민 나눔

**라) 인천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 일시: 8월 22일
- 간담회 단체: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 내용: 각 단체 소개, 간담회 취지 설명, 네트워크 구축 공감대 확인

**마) 대전 ((사)여성인권티움)**

- 일시: 7월 24일
- 간담회 단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내용: 지역 반성매매 활동공유, 지역내 연대 내용 토의

**바) 광주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 일시: 8월 26일, 9월 9일
- 간담회 단체: 광주여성독서모임 '도그이어'
- 내용: 각 단체 소개, 반성매매도서 및 영화 보고 토론, 성매매 관련 질의응답

**사) 목포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 일시: 11월 27일, 12월 15일, 12월 22일
- 간담회 단체: 성평등액션 목포협의체,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목포시내버스공공성강화범시민대책위원회
- 내용: 지역의 반성매매 활동 공유, 지역의 성매매문제 해결을위한 연대의 라운드 테이블 논의

**아) 수원 ((사)수원여성인권돋음)**

- 일시: 9월 13일
- 간담회 단체: 등대지기
- 내용: 간담회 취지설명, 각 단체 활동 소개, 수원지역 성산업 실태조사 공동진행, 발표

**자) 제주 ((사)제주여성인권연대)**

- 일시: 8월 29일, 8월 31일
- 간담회 단체: 제주여성영화제팀, SING강사단
- 내용: 간담회 취지 설명, 각 단체 활동 소개, 활동 협업 논의, 성매매 관련 영화 시청 후 논의, 성매매처벌법 개정 이슈 홍보

**2) 反-性-착취 여성주의 캠프: 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대의 장 마련!**

가) 장소: 도봉숲속마을

나) 일정: 2023년 8월 23일(목) ~ 26일(토) (3박 4일)

다) 규모: 12명

라) 진행인력: 3명

마) 프로그램

<table>
<tr><th colspan="2">23일(수)</th><th colspan="2">24일(목)</th><th colspan="2">25일(금)</th><th colspan="2">26일(토)</th></tr>
<tr><td></td><td></td><td>9:30~11:30</td><td>강의 2. 성매매 해체하기 (최민혜)</td><td>9:30~11:30</td><td>여성자활센터 소개(공방)</td><td rowspan="2">9:30~11:30</td><td rowspan="2">평가&소감 나누기</td></tr>
<tr><td>12:30~13:00</td><td>등록</td><td>11:30~13:00</td><td>점심식사</td><td>11:30~13:00</td><td>점심식사</td></tr>
<tr><td>13:00~13:30</td><td>오리엔테이션</td><td rowspan="2">13:30~15:30</td><td rowspan="2">강의 2. 성매매, 강제와 자발 넘어서기 (최민혜)</td><td rowspan="2">13:00~15:30</td><td rowspan="2">워크숍 2. 성+평등한 일상 만들기 (한국여성민우회)</td><td rowspan="6"></td><td rowspan="6"></td></tr>
<tr><td>13:30~15:30</td><td>워크숍 1. 나의 페미니즘 입문기 (진행-몽자)</td></tr>
<tr><td>16:00~18:00</td><td>강의 1. 페미니즘 (엄혜진)</td><td>16:00~17:30</td><td>현장방문활동 사전활동</td><td>16:00~18:00</td><td>강의 3. 남성성 (황금명륜)</td></tr>
<tr><td>18:00~19:00</td><td>저녁식사</td><td>18:00~19:00</td><td>저녁식사</td><td>18:00~19:00</td><td>저녁식사(도시락)</td></tr>
<tr><td>19:00~21:00</td><td>여성주의 영화 관람, 토의</td><td>19:00~20:30</td><td>현장방문활동(여성인권센터 보다)</td><td>19:00~21:00</td><td>쉬자!</td></tr>
</table>

**3) 민들레순례단: 1박 2일 성매매 현장으로 떠나는 순례단**

가) 장소: 전주 선미촌, 군산 일대

나) 일정: 9월 21일-22일

다) 규모: 15명

라) 진행인력: 5명

마) 프로그램

| | 1일차(21일) | 2일차(22일) |
|---|---|---|
| 내용 | 서울 출발<br>전주 선미촌 및 성평등 전주 방문<br>저녁 프로그램 진행 | 군산 임피승화원 방문<br>군산 대명동/개복동 순례<br>군산 아메리카타운 방문<br>평가모임<br>서울 복귀 |

## 2.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가. 사업 제목 : 성매매여성 처벌 조항 삭제, 가자 성평등 모델!

나. 사업 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10월 31일(총 8개월)

다. 사업 비용 : 총 1,800만원

라. 사업 내용

- 성매매처벌법 개정안 초안 작성
- 성매매처벌법 쟁점 토론회
- 성매매처벌법 개정안 발의 및 의결을 위한 활동
- 성매매처벌법 개정안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 소책자 제작 및 발간

마. 사업 결과

- 성매매처벌법 개정안 작성 및 토론회 진행
- 온/오프라인 활동 전개
- 소책자 제작 및 발간

# 2023년 사업별 보고 및 평가⑥ 홍보사업

## 1. 논평·성명서·기자회견문

| 일시 | 유형 | 제목 |
|---|---|---|
| 1/19 | 성명서 | 대구 지역 성매매 피해 사건에 대한 전국연대 입장문 |
| 1/27 | 공동성명 | 양성평등기본계획 승인하고 뒤집은 법무부, 국제협약 권고대로 비동의 강간죄 이행하라! |
| 1/31 | 성명서 | 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21주기 성명서 : 우리는 달라진 세상을 원한다. 성매매 수요차단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을 멈춰라 |
| 2/8 | 성명서 | 안마시술소의 불법성매매 카르텔 해체하라! |
| 2/21 | 공동성명 | 법무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지 말라 : 법무부의 성폭력 법률 개정 과제에 대한 악착같은 '모두 반대' 규탄한다 |
| 3/7 | 연대성명서 |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을 훼손하고 성차별적 이중구조를 고착하는 주당 69시간 개악안을 철회하라! |
| 3/22 | 논평 | 성착취 피해자가 아동학대 가해자로, 이 비극은 누구의 책임인가 |
| 3/23 | 공동성명 | '벗방'피해자의 용기를 지지하며 정부는 '벗방' 산업을 철저히 조사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
| 3/23 | 공동성명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는 일본 콜라보를 지지하며 버스 카페 운영 중단을 결정한 도쿄도를 규탄한다 |
| 3/30 | 공동성명 | 법무부는 성범죄 무고 수사 골몰하지 말고, 성폭력 수사부터 제대로 하라 |
| 3/30 | 공동성명 | 성평등과 여성인권 빠진 민주화운동, 민주주의는 없다 - 박원순 전 서울시장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 이장 소식에 부쳐 |
| 4/20 | 공동입장문 | 한국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을 반대하는 여성·시민단체 입장문 |
| 5/16 | 기자회견 |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1년 기자회견 - 시민이 지켜낸 여성가족부, 걸림돌 장관은 빠지고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 |
| 5/18 | 공동성명 | '벗방', 성차별적 사회 구조의 문제이다 - 4월 25일 PD수첩 "위험한 초대장, 게스트 방송의 함정" 방송을 보며 ('벗방'피해자공동지원단) |
| 6/13 | 공동성명 | 한국 정부, 비동의강간죄 반대한다고 국제기구에 답변? 정부는 성평등 퇴행 백래시를 멈추고, 성폭력 법적 체계 개선에 나서라! (강간죄개정을 위한연대회의) |
| 7/25 | 기자회견 |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형법 297조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하라! |
| 7/27 | 공동성명 |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는 퇴행이다! 행정안전부의 성평등 정책 퇴행 시도 규탄한다! |
| 9/5 | 공동성명 | 서울시 일본군'위안부' 기억의 터 기습철거 강행 규탄 성명서 |

| 일시 | 유형 | 제목 |
|---|---|---|
| 9/19 | 기자회견 |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온상인 엑스(트위터)코리아는 성착취 피해를 더 이상 묵인하지 말라 |
| 10/30 | 기자회견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기자회견 |
| 12/6 | 기자회견 | 성북구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 폐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
| 12/12 | 기자회견 | 2024 총선! 여성주권자 행동 '어퍼' 출범 기자회견 |

## 2. 뉴스레터

**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2월 소식 : 23년 2월 28일 발행**

1) 주요내용 : 제20차 정기총회, 연대 활동 소식 등
2) 전체 수신인 : 238명 / 열람 : 85명(35.7%)

**나. 제38회 한국여성대회 홍보 : 23년 3월 2일 발행**

1) 주요내용 : 제38회 한국여성대회 전국연대 부스 홍보
2) 전체 수신인 : 238명 / 열람 : 86명(36.1%)

**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3월 소식 : 23년 3월 30일 발행**

1) 주요내용 : 연간 활동보고서, 연대 활동 소식, 부설 기관 활동 등
2) 전체 수신인 : 239명 / 열람 : 76명(31.8%)

**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4월 소식 : 23년 5월 2일 발행**

1) 주요내용 : '벗방' 피해자 공동지원단 출범, Civil 20 참석, 연대 활동 소식 등
2) 전체 수신인 : 240명 / 열람 : 77명(32.1%)

**마.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5월 소식 : 23년 6월 9일 발행**

1) 주요내용 : 활동가 교육 1탄, CSW 참석, 연대 활동 소식 등
2) 전체 수신인 : 238명 / 열람 : 81명(34.0%)

**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6월 소식 : 23년 7월 4일 발행**

1) 주요내용 : 전국연대 사무국 네트워크 결성, C20 코리아 이벤트, 연대 활동 소식 등
2) 전체 수신인 : 238명 / 열람 : 85명(35.7%)

**사.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7월 소식 : 23년 8월 1일 발행**

1) 주요내용 : 개정연대 활동, 뭉치 일본 탐방, 연대 활동 소식 등

2) 전체 수신인 : 240명 / 열람 : 77명(32.1%)

**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8·9월 소식 : 23년 9월 27일 발행**

1) 주요내용 : 9월 전국 일정, 개정연대 활동, 반성착취 여성주의 여름캠프, 민들레순례단 후기 등

2) 전체 수신인 : 238명 / 열람 : 85명(35.7%)

**자. 2024년은 반성착취해용 : 23년 12월 29일 발행**

1) 주요내용 : 신년 인사

2) 전체 수신인 : 191명 / 열람 : 88명(46.1%)

# 2023년 사업별 보고 및 평가⑦ 재정사업

## 1. 정기후원회원

### 가. 정기후원회원

1) CMS 후원
: 청구 140건 / 완납 124(3,250,000원) (2023년 12월 기준)

2) 계좌이체 후원
: 3명(개인) / 월 평균 300,000원

3) 후원사업
: 신규 후원에게 가입 감사 선물 발송, 뉴스레터 발행 등

### 나. 기타후원

1) DDA 후원
2) 에레또 후원

# 2023년 사업별 보고 및 평가⑧ 부설기관

## Ⅰ. 부설기관 보다

### 1. 상담소 상담

가. 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나. 상담실적

(단위: 건, 중복없음)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계 |
|---|---|---|---|---|---|---|---|---|---|---|---|---|---|
| 상담 총계 | 77 | 165 | 202 | 143 | 158 | 109 | 133 | 122 | 140 | 134 | 166 | 136 | 1,685 |
| 상담 인원 | 25 | 31 | 35 | 26 | 36 | 24 | 23 | 25 | 27 | 31 | 31 | 29 | 130 |
| 신규 인원 | 7 | 11 | 9 | 3 | 5 | 9 | 2 | 7 | 4 | 5 | 1 | 1 | 29 |

다. 상담유형별 분류

(단위:건/중복체크있음)

| 계 | 채무 | 안전. 폭행 미행 | 법률. 조사 소송 | 생계. 빈곤 취업 | 의료. 질병 건강 | 정보 제공. 자원 연계 | 가족 관련 | 거주 관련 | 학교. 친구 학업 | 심리 정서 | 디지털 성매매 | 그루밍 | 기타 |
|---|---|---|---|---|---|---|---|---|---|---|---|---|---|
| 3,098 | 258 | 79 | 787 | 165 | 381 | 165 | 97 | 115 | 59 | 936 | 49 | 1 | 6 |

· 기타: 성폭력 6건

라. 지원내용별 분류

(단위:건/중복체크있음)

| 계 | 사회적자원연계 | | | | | | 의료지원 | 직업훈련 | 프로그램 | 법률지원현황 | | | | | | | | | | |
|---|---|---|---|---|---|---|---|---|---|---|---|---|---|---|---|---|---|---|---|---|
| | 지원시설 | 상담소 | 자활지원센터 | 전문상담기관 | 직훈직업알선기관 | 기타 | | | | 현장긴급구조 | | | 수사의뢰 | 수사지원 | 수사동행 | 소송지원 | 소년보호재판 | 법률지원상담 | 보호관찰지원 | 기타 |
| | | | | | | | | | | 여성직접 | 경찰등연계 | 불발건 | | | | | | | | |
| 650 | 3 | 16 | 9 | 2 | 0 | 4 | 154 | 147 | 0 | 6 | 0 | 0 | 5 | 66 | 17 | 84 | 0 | 110 | 0 | 27 |

· 사회적자원연계 기타: 사회적자원연계(4)

· 법률지원현황 기타: 재판동행(20), 신용회복위원회 방문(6)

마. 법률지원 중 수사지원·소송지원 내용

(단위:건/중복체크있음)

| 계 | 민사 | | | | | | | 형사 | | | | | | | | | 행정 | | 가사 | | | 기타 |
|---|---|---|---|---|---|---|---|---|---|---|---|---|---|---|---|---|---|---|---|---|---|---|
| | 손해배상 | 채무부존재 | 청구이의 | 개인파산면책 | 부당이익 | 대여금 | 기타 | 성매매 | 사기 | 성폭행/상해 | 주거침입 | 명예훼손 | 협박 | 아청법 | 디지털성범죄 | 기타 | 체류및퇴거 | 기타 | 이혼 | 입양등가족 | 기타 | 기타 |
| 150 | 0 | 0 | 0 | 46 | 0 | 9 | 6 | 39 | 16 | 4 | 0 | 0 | 1 | 12 | 0 | 17 | 0 | 0 | 0 | 0 | 0 | 0 |

· 민사 기타(6): 채권압류,추심명령(4), 압류해제(2)

· 형사 기타(17): 무고(1), 채권추심법(5), 직업안정법(1), 식품위생법(10)

바. 의료지원

(단위/건)

| 월 | 구분 / 계 | 인원 | 정신과 | 산부인과 | 내과 | 치과 | 외과 | 피부과 | 안과/이비인후과 | 건강검진 | 한방 | 기타 |
|---|---|---|---|---|---|---|---|---|---|---|---|---|
| 계 | 154 | 65 | 60 | 14 | 13 | 28 | 4 | 0 | 1 | 0 | 0 | 34 |

· 기타 : 심리상담 34건

## 사. 치료회복프로그램

(단위: 건/명)

| 연번 | 프로그램명 | 진행(건) | 인원(명) | 내 용 |
|---|---|---|---|---|
| 1 | 보다톡톡 | 27 | 17 | 탈성매매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내담자가 당면하는 일상 속의 여러 어려운 상황의 변화들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해소한다. |
| 2 | 타요타요 | 9 | 6 |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를 대중교통 이용법 안내하고 함께 이용해본다 |
| 3 | 개인 심리상담 | 61 | 13 |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가 과거의 경험을 재해석할 수 있는 치료 기회를 마련한다. |
| 4 | 나는야 예비활동가 | 1 | 1 | 다양한 캠페인 참여를 통해 내담자가 꿈꾸는 반성매매 활동가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
| 5 | 몸은 기억한다 | 2 | 1 | 우울이나 불안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하여 운동 치료를 통해 정서 회복을 도모한다. |
| 6 | 미술치료 | 11 | 1 |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가 미술 작업으로써 과거의 경험을 재해석할 수 있는 치료 기회를 마련한다. |
| 7 | 미래의 영수증 | 8 | 6 | 빈곤으로 인해 상담 지속이 어렵거나, 입원 등의 이유로 자립 생활이 곤란한 내담자에게 자원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볼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기술을 훈련한다. |
| 8 | 예감좋은날 | 1 | 1 | 가족과 단절된 상담소 내담자들이 축하나 기념할 상황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는 지지체계로써 상담소가 협력한다. |
| 9 | 쑥!쑥!공부방 | 13 | 2 | 개인별 수준에 맞는 학업을 위해서 자원활동가와 1:1 학습을 진행하여 기초학습 또는 검정고시 등 준비한다. |
| 계 | | 133 | 48 | (실인원 : 27명) |

## 2. 현장 상담

가. 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나. 상담실적

(단위: 건, 중복없음)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계 |
|---|---|---|---|---|---|---|---|---|---|---|---|---|---|
| 상담 총계 | 22 | 47 | 61 | 95 | 82 | 39 | 193 | 48 | 34 | 32 | 77 | 168 | 898 |
| 상담 인원 | 8 | 14 | 12 | 19 | 21 | 8 | 17 | 12 | 11 | 10 | 13 | 24 | 72 |
| 신규 인원 | 2 | 1 | 0 | 1 | 0 | 1 | 3 | 2 | 1 | 2 | 2 | 7 | 41 |

다. 상담유형별 분류

(단위:건/중복체크있음)

| 계 | 채무 | 안전. 폭행 미행 | 법률. 조사 소송 | 생계. 빈곤 취업 | 의료. 질병 건강 | 정보 제공. 자원 연계 | 가족 관련 | 거주 관련 | 학교. 친구 학업 | 심리 정서 | 디지털 성매매 | 그루밍 | 기타 |
|---|---|---|---|---|---|---|---|---|---|---|---|---|---|
| 2,462 | 155 | 211 | 328 | 190 | 442 | 105 | 114 | 232 | 5 | 645 | 0 | 0 | 35 |

· 기타: (35)

라. 지원내용별 분류

(단위:건/중복체크있음)

| 계 | 사회적자원연계 | | | | | | 의료 지원 | 직업 훈련 | 프로 그램 | 법률지원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현장긴급 구조 | | | | | | | | | | |
| | 지원 시설 | 상담 소 | 자활 지원 센터 | 전문 상담 기관 | 직훈 직업 알선 기관 | 기타 | | | | 여성 직접 | 경찰 등 연계 | 불발 건 | 수사 의뢰 | 수사 지원 | 수사 동행 | 소송 지원 | 소년 보호 재판 | 법률 지원 상담 | 보호 관찰 지원 | 기타 |
| 361 | 0 | 0 | 1 | 0 | 1 | 0 | 82 | 11 | 23 | 2 | 0 | 0 | 3 | 7 | 3 | 19 | 0 | 209 | 0 | 0 |

· 사회적자원연계 기타: 사회적자원연계(4)

· 법률지원현황 기타: 재판동행(20), 신용회복위원회 방문(6)

마. 법률지원 중 수사지원·소송지원 내용

(단위:건, 중복체크 있음)

| 계 | 민사 | | | | | | | 형사 | | | | | | | | | 행정 | | 가사 | | | 기타 |
|---|---|---|---|---|---|---|---|---|---|---|---|---|---|---|---|---|---|---|---|---|---|---|
| | 손해배상 | 채무부존재 | 청구이의 | 개인파산면책 | 부당이익 | 대여금 | 기타 | 성매매 | 사기 | 성폭행/상해 | 주거침입 | 명예훼손 | 협박 | 아청법 | 디지털성범죄 | 기타 | 체류및퇴거 | 기타 | 이혼 | 입양등가족 | 기타 | 기타 |
| 21 | 0 | 1 | 3 | 7 | 1 | 0 | 0 | 6 | 0 | 0 | 0 | 0 | 0 | 0 | 0 | 9 | 0 | 0 | 0 | 0 | 0 | 0 |

· 민사 기타(6): 채권압류,추심명령(4), 압류해제(2)

· 형사 기타(17): 무고(1), 채권추심법(5), 직업안정법(1), 식품위생법(10)

바. 의료지원

(단위/건)

| 월 | 구분 / 계 | 인원 | 정신과 | 산부인과 | 내과 | 치과 | 외과 | 피부과 | 안과/이비인후과 | 건강검진 | 한방 | 기타 |
|---|---|---|---|---|---|---|---|---|---|---|---|---|
| 계 | 82 | 42 | 11 | 10 | 2 | 50 | 8 | 0 | 1 | 0 | 0 | 0 |

※ 기타 : 심리상담 34건

사. 예비교육프로그램

(단위: 건/명)

| 연번 | 프로그램명 | 진행(건) | 인원(명) | 내 용 |
|---|---|---|---|---|
| 1 | 나야 나 | 8 | 4 | 내담자의 생일과 같은 중요한 이벤트를 같이 챙김으로써 내담자와의 상담관계를 더욱 발전시킨다. |
| 2 | 타요타요 | 19 | 14 | 오랜 기간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에 노출된 여성들에게 대중교통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대중교통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 3 | 보다톡톡 | 14 | 8 | 탈성매매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내담자가 당면하는 일상 속의 여러 어려운 상황의 변화들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해소한다. |
| 계 | | 41 | 41 | (실인원 : 21) |

아. 열린터프로그램

| 연번 | 프로그램명 | 진행(건) | 인원(명) | 내 용 |
|---|---|---|---|---|
| 1 | 쑥!쑥! 공부방 | 2 | 1 | 한글을 습득하지 못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에게 한글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눈높이라는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원활하게 한글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2 |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 3 | 87 | 성매매집결지 내 이동상담소를 개설하고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의 접근성을 높이로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일회성 만남에서 지속적인 관계로 이어져 탈성매매 매개 역할이 되도록 한다. |
| 3 | 인터뷰 | 0 | 0 | 집결지 여성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성매매집결지 내 성매매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착취 구조를 기록한다. 참여자들이 인터뷰를 함으로써 내적치유와 자신의 자존감을 높인다. |
| 4 | 도서 대여 | 1 | 1 | 도서대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시적으로 열린터 방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열린터 방문 참여자들이 읽고 싶은 책을 구매하고 대여하여 심리, 정서적 회복을 돕는다 |
| 계 | | 7 | 89 | (실인원 : 89명) |

**자. 직업훈련지원**

| 연번 | 지원과정(건) | 지원(건) | 인원(명) | 직업훈련수당(명) |
|---|---|---|---|---|
| 1 | 속눈썹 연장술 | 2 | 2 | 1 |
| 2 | 메이크업 | 1 | 1 | 0 |
| 3 | 한식조리사 | 2 | 2 | 0 |
| 4 | 가죽공예 | 2 | 2 | 0 |
| 5 | 홈패션 | 1 | 1 | 0 |
| 합계 | (실인원: 1명) | 8 | 8 | 1 |

## 3. 현장방문상담

가. 산업형 현장방문상담

| 연번 | 일 시 | 장 소 | 참가 인원 | 만난 여성수 | 방문 업소 | 배포물품 (개수) |
|---|---|---|---|---|---|---|
| 1 | 2023.01.26.(목) 19:00~21:30 | 수유 7번 출구 | 9 | 19 | 63 | 헤어밴트, 라이터, 소식지 (270개) |
| 2 | 2023.02.09.(목) 19:00~21:00 | 삼양로 성북 | 3 | 9 | 27 | 멀티케이블, 라이터, 소식지 (10개) |
| 3 | 2023.02.23.(목) 19:00~20:30 | 삼양로 강북 | 4 | 8 | 9 | 멀티케이블, 라이터, 소식지 (6개) |
| 4 | 2023.03.16.(목) 19:00~21:30 | 수유 먹자골목 | 6 | 18 | 47 | 카드지갑, 데오드란트, 라이터, 소식지 (148개) |
| 5 | 2023.03.30.(목) 19:00~21:00 | 온라인 모니터링(외국인) | 3 | - | - | - |
| 6 | 2023.04.10.(월) 13:00~15:00 | 수유 갈래길 | 4 | - | - | 수유D구역 맵핑 |
| 7 | 2023.04.20.(목) 19:30~21:00 | 수유(외국인) | 5 | 4 | 18 | 데오드란트, 라이터, 소식지 (48개) |
| 8 | 2023.05.25.(목) 19:30~21:00 | 수유(외국인) | 6 | 3 | 15 | 멀티케이블, 라이터, 소식지 (41개) |
| 9 | 2023.06.01.(목) 19:00~20:00 | 삼양로 강북 | 3 | | | 멀티케이블, 라이터, 소식지 (10개) |
| 10 | 2023.06.13.(화) 20:30~21:30 | 수유 | 32 | 38 | 160 | 거울, 부채, 멀티케이블, 라이터, 소식지 (250개) |
| 11 | 2023.06.22.(목) 19:30~21:30 | 의정부(외국인) | 6 | 5 | 11 | 데오드란트. 멀티케이블, 라이터, 소식지 (22개) |
| 12 | 2023.07.06.(목) 19:30~21:00 | 온라인 모니터링 | 2 | - | - | - |
| 13 | 2023.07.20.(목) 19:30~22:00 | 수유 | 6 | 7 | 36 | 데오도란트, 라이터, 소식지 (136개) |
| 14 | 2023.07.27.(목) 16:00~17:00 | 온라인 모니터링 | 2 | - | - | - |
| 15 | 2023.08.18.(목) 19:30~20:30 | 삼양로 성북 | 3 | 6 | 27 | 접이식 부채, 라이터, 소식지 (9개) |
| 16 | 2023.08.24.(목) 19:00~22:00 | 수유 | 16 | 27 | 82 | 접이식 부채, 라이터, 소식지 (310개) |
| 17 | 2023.09.26.(목) 19:00~21:00 | 삼양로 성북,강북 | 3 | 12 | 21 | 머리끈, 라이터, 소식지 (41개) |

| 연번 | 일 시 | 장 소 | 참가 인원 | 만난 여성수 | 방문 업소 | 배포물품 (개수) |
|---|---|---|---|---|---|---|
| 18 | 2023.10.12.(목) 19:00~22:00 | 수유 | 8 | 10 | 43 | 떡, 라이터, 소식지 (132개) |
| 19 | 2023.11.02.(목) 19:00~21:00 | 온라인 모니터링 | 2 | - | - | - |
| 20 | 2023.11.16.(목) 19:00~21:30 | 수유 | 7 | 10 | 41 | 핸드크림, 라이터, 소식지 (150개) |
| 21 | 2023.11.23.(목) 19:00~20:00 | 삼양로 성북 | 3 | 5 | 9 | 안마봉, 라이터, 소식지 (12개) |
| 22 | 2023.12.07.(목) 18:30~19:30 | 삼양로 강북 | 2 | 4 | 7 | 안마봉, 라이터, 소식지 (8개) |
| 23 | 2023.12.14.(목) 19:00~21:30 | 수유(외국인) | 6 | 3 | 13 | 니트장갑, 라이터, 소식지, 언어별 인신매매방지안내 리플렛 (25개) |
| 24 | 2023.12.21.(목) 18:00~20:00 | 온라인 모니터링 | 2 | - | - | - |

나. 집결지 현장방문상담

| 구분 | 일 시 | 구분 | 참가 인원 | 만난 여성수 | 업소 수 | 배포물품 |
|---|---|---|---|---|---|---|
| 1 | 2023.01.19.(목) 19:00~21:00 | 야간 | 8 | 48 | 11 | 케이블, 다이어리, 라이터, 소식지세트(320) |
| 2 | 2023.02.09.(목) 10:00~12:00 | 주간 | 5 | 5 | 16 | 손거울, 라이터, 소식지세트(110) |
| 3 | 2023.02.23.(목) 19:00~21:00 | 야간 | 8 | 15 | 51 | 손거울, 라이터, 소식지세트(320) |
| 4 | 2023.03.16. 19:00~21:00 | 야간 | 8 | 16 | 53 | 머리끈, 라이터, 소식지세트(311) |
| 5 | 2023.03.30.(목) 19:00~21:00 | 야간 | 8 | 17 | 64 | 인견때타올, 라이터, 소식지세트(320) |
| 6 | 2023.04.06.(목) 10:00~12:00 | 주간 | 4 | 15 | 15 | 머리끈, 라이터, 소식지세트(107) |
| 7 | 2023.04.13.(목) 19:00~21:00 | 야간 | 6 | 8 | 48 | 귀이개, 라이터, 소식지세트(320) |
| 8 | 2023.04.20.(목) 19:00~21:00 | 야간 | 7 | 17 | 54 | 약통, 라이터, 소식지세트(320) |
| 9 | 2023.05.04.(목) 19:30~22:00 | 야간 | 6 | 12 | 53 | 시리얼바, 라이터, 소식지세트(320) |
| 10 | 2023.05.18. 19:00~21:00 | 야간 | 5 | 11 | 52 | 수면안대, 라이터, 소식지세트(320) |

| 구분 | 일 시 | 구분 | 참가 인원 | 만난 여성수 | 업소 수 | 배포물품 |
|---|---|---|---|---|---|---|
| 11 | 2023.06.01.(목) 08:30~10:30 | 주간 | 3 | 3 | 16 | 귀이개, 라이터, 소식지세트(100) |
| 12 | 2023.06.15.(목) 19:00~21:00 | 야간 | 5 | 32 | 56 | 립밤, 라이터,소식지세트(320) |
| 13 | 2023.06.22.(목) 19:00~21:00 | 야간 | 6 | 13 | 67 | 양말, 라이터, 소식지세트(320) |
| 14 | 2023.07.06.(목) 19:00~21:30 | 야간 | 6 | 5 | 57 | 등긁개.라이터.소식지세트(320) |
| 15 | 2023.07.20.(목) 19:00~22:00 | 야간 | 7 | 12 | 49 | 접이식부채,라이터,소식지세트(320) |
| 16 | 2023.08.17.(목) 19:00~21:30 | 야간 | 7 | 25 | 52 | 방수파우치,라이터,소식지세트(320) |
| 17 | 2023.08.24.(목) 10:00~12:00 | 주간 | 3 | 6 | - | 데오드란트,라이터,소식지세트(100) |
| 18 | 2023.09.13.(수) 10:00~12:00 | 주간 | 3 | 9 | 25 | 약통.라이터,소식지세트(123) |
| 19 | 2023.09.26.(화) 10:00~12:00 | 주간 | 5 | 8 | - | 추석떡세트,라이터,소식지(120) |
| 20 | 023.09.26.(화) 19:00~21:00 | 야간 | 8 | 26 | 71 | 추석떡세트,라이터,소식지(220) |
| 21 | 2023.10.12(목) 10:00~12:00 | 야간 | 3 | 3 | - | 핸드크림,라이터,소식지(120) |
| 22 | 2023.10.19(목) 19:00~21:00 | 야간 | 7 | 25 | 55 | 딸기장바구니,라이터,소식지(409) |
| 23 | 2023.11.02(목) 19:00~21:00 | 야간 | 6 | 28 | - | 수면양말,라이터,소식지(320) |
| 24 | 2023.11.16(목) 19:00~21:00 | 야간 | 7 | 16 | 62 | 뜨개키링,라이터,소식지(347) |
| 25 | 2023.12.07(목) 10:00~12:00 | 야간 | 3 | 3 | - | 수면양말,라이터,소식지(115) |
| 26 | 2023.12.21(목) 10:00~12:00 | 야간 | 3 | - | - | 에코퍼목도리,핸드폰거치대,보온물주머니,라이터,소식지(140) |

## 4. 캠페인 홍보사업

| 구 분 | 내 용 |
|---|---|
| 온라인 홍보 | 반성매매 활동 및 주요이슈 카드뉴스제작·배포 |
| 2022 뭉치「무한발설」북콘서트 in 서울 | 뭉치 무한발설 북 콘서트 진행 |

| 구 분 | 내 용 |
|---|---|
| 홍보물 배포 |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 대상 홍보 물품 배포. 라이터 200개 홍보리플렛180개 미아리경험 책1부, 나비자리 그 후 책1부 배포 |
| 캠페인 |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br>9.23 성매매 추방주간 캠페인: 성매매여성 불처벌, 성매매불처법 개정 촉구 공동행동<br>세계여성폭력추방구간 캠페인 |
|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 삭제를 위한 |
| 성매매인식개선 및 홍보 | “성구매, 권리가 아닌 폭력입니다.” 및 보다상담소 지원내용 성매매집결지 인근 게시 |

## 5. 외부기관 네트워크

| 구분 | 회의명 | 참 여 | 내 용 |
|---|---|---|---|
| 서울시 성매매피해자 여성지원협의회 | 대표자 회의 | 이하영 | 정기회의, 실무자 소모임논의 등 |
| | 실무자 네트워크 | 조세진 | 소속단체 소개 및 네트워킹 |
| 전국연대 | 전국연대운영위 | 이하영 | |
| | 전상넷 회의 | 김수민 | 지역현안 공유, 유흥접객원 조항삭제 후속 작업, 온라인 반성매매 활동 등 |
| | 전상넷 활동가 워크숍 | 김보민, 방석윤, 김수민, 성미래, 이하영, | |
| 서울시 성매매상담소 네트워크 | | 김수민 | 서울청 생활질서계 면담(성매매여성 처벌 조사방향 변경 요구), 각 상담소 현안 공유, 성매매여성 광고죄 처벌 논의 등 |
|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 성매매처벌법개정 연대 | 이하영 |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기자회견, 도론회, 전국행진 등 |
| | 중앙1366 | 보다활동가 7명 | 기관에 대한 소개 및 지원기간의 이해, 이후 협력방안 논의,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 걷기 |
| |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 | |
| | 평택여성인권상담센터 품 | | |

| 구분 | 회의명 | 참 여 | 내 용 |
|---|---|---|---|
| 기타 | 동북권NPO센터 젠더워킹그룹 회의 | 김수민 | 세계여성폭력추방구간 캠페인 논의 및 진행, 안전한 동북5구만들기 토론회, 캠페인, 교육 등 |
| | 여성단체연합 2030활동가 모임 | 최윤희 | 소속단체 소개, 네트워킹 |
| | 홍콩중문대 | 보다활동가 7인 | 기관소개, 하월곡동성매매집결 걷기 |
| | 강남복지재단 | 정미경 | 사회복지지원 논의 |
| | ‘벗방’ 피해자 공동지원원단 | 김보민, 김수민, 이하영 | 게스트방송 피해자공동지원 팀꾸리기, 공동지원단 논평, PD수첩 방송대응 등 |

## 6. 활동가 역량강화

### 가. 소진방지 및 역량강화

| 구분 | 교육명 | 내 용 |
|---|---|---|
| 자체교육활동 | 신입활동가 워크숍 | 성매매 구조 및 지원체계의 이해, 우리는 왜 반성매매운동을 하는가?, 인사노무 등 |
| | 보다 세미나 | 성매매관련 사예분석을 통한 피해자식별 기준제시 |
| | 출발! 법률속으로 | 법률지원의 이해: 형사지원 |
| | 법정필수교육 및 보수교육 | 인권교육(차별금지법), 개인정보보호 교육, 직장내 괴롭힘 교육, 장애에 대한 이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퇴직연금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 | 성매매방지상담원교육 | 참여: 김보민, 방석윤<br>성매매방지 신입상담원 온라인 교육 및 실습 |
| 기획강의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2023년 활동가 교육1탄 | 강사: 조안창혜<br>성산업주류화-온니팬즈의 성장과 함의 |
| | 일본군 ‘위안부’ 운동의 역사 | 강사 : 장소정(정의기억연대)<br>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성착취 문제 운동의 역사 및 계승 |

| 구분 | 교육명 | 내 용 |
|---|---|---|
| 외부강의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종사자를 위한 행정·회계·재무 Level up! | 참여: 최윤희<br>각종 기안/보고서 작성의 필요성 및 작성법, 재무·회계의 개념,규칙, 예산과 결산 및 집행 |
| | 전국사이버성폭력 토론회 | 참여: 정민형<br>전국사이버성폭력의 현황 및 당면한 어려움, 향후 지원에 필요한 사항 공유사항 안내 |
| | 복지현장 어떻게 사람을 키울 것인가? | 참여: 이하영, 김수민<br>재무회계규칙 및 관련법령 해설, 예산(추가경정예산) 및 결산 작성요령과 절차, 수입과 지출 실무, 후원금(품) 관리의 법적 근거와 실무, 물품 관리, 지도점검 팁과 주요 지적사례 |
| 워크숍 | 보다 상·하반기 워크숍 | -상반기 사업평가 초안 및 하반기 상담소 사업 논의<br>-하반기 워크숍 : 상담을 잘하고 싶어요.<br>강사 : 임인구<br>내용 : 내담자와 잘 만나는 방법, 나를 돌아보고 내담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방법 |
| 소진방지 | 보다 문화의 날 | 소진방지 및 성매매집결지 전시참여(경기파주, 강원도 원주, 서울시 영등포) |
| | 활동가 활력 활동 : 소모임 | 전체활동가 소모임활동 |
| | 활동가 생일파티 | 월별 진행 |

## 나. 외부전문가 사례회의

| 연 번 | 협력기관 | 내 용 |
|---|---|---|
| 1 | 정박은자 | 〈알 듯 말 듯 내담자 지원!! 그것이 알고 싶다〉 알 듯 말 듯 헷갈리는 내담자 마음을 이해하고 활동가 지원의 큰 맥락을 이해한다. 법률지원 시 내담자 지원의 영역을 이해하고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 2 | 여성자활센터 해봄 | 내담자 지원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통합사례회의 진행하였음. 내담자의 현 상황과 상태에 대해 논의하고 이후 협력부분 결정 |

■ **여성인권센터 보다 2023년 사업평가**

① 우리의 2023년은 “눈이 부셨다!”
올해 보다의 키워드는 활동가들의 의기투합, 좌충우돌, 전심전력이었다. 보다는 서로의 성장을 목표로 서로 힘을 모으고 좌충우돌하며 최선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돌아보니 어느덧 2024년이 다가왔고 우리의 2023년은 ‘눈이 부시게 빛났다.’는 것이 첫 번째 평가였다.

② 지역주민(자원활동가)과 함께한 현장방문상담
신입활동가 최00은 “서울이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자원 활동가들이 꾸준히 현방에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았다. 활동가들만이 성매매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 역시 함께 고민하고 있음에 대한 감사함이 있다.”고 평가했다. 지속적으로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시민들과 어떻게 더 잘 반성매매운동을 함께 해야할지 고민이 남는다.

③ 활동가 역량강화
‘출발! 법률속으로!!’는 활동가들이 내담자의 입장으로 사건과 기타 지원을 해보는 교육이었다. 교육을 통해 활동가들은 내담자 입장이 되어 전화 상담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고소장과 진술서를 함께 작성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상담소에 첫 전화 한 통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진술서 작성이 왜 어려운지, 상담원들의 언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느꼈고, 상담원들이 자신감을 더욱 갖는 계기가 되었다.

④ 다양한 지원활동 시도
무학인 내담자를 위해 한글공부 지원, 검정고시를 원하는 내담자를 위해 자원활동가와 일대 일 과외 프로그램 진행, 질병이 있는 내담자를 위해 운동프로그램 진행, 주거지원을 위해 지역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지원 등 기존 구조지원의 한계를 넘어 내담자 욕구에 맞춰 다양한 지원을 고민하고 발굴하는 한 해였다.

## Ⅱ. 부설기관 해봄

### 1. 상담 활동 보고

상담내용 : 고충상담(일자리제공사업을 참여하면서 발생한 고충), 지속상담 (심리정서, 자활이용 및 진로, 경제, 일자리, 건강 및 의료, 법률, 주거, 성매매, 대인관계, 기타 등)

| 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
| 실인원(신규) | 18(1) | 21(1) | 22(1) | 22(1) | 23(2) | 21(0) |
| 건수 | 51 | 80 | 87 | 83 | 105 | 121 |
| **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실인원(신규) | 24(3) | 25(5) | 26(1) | 27(3) | 24(1) | 23(2) |
| 건수 | 115 | 129 | 124 | 139 | 134 | 99 |
| 2023년 해봄을 이용한 실 인원은 47명이고 (신규 25명) 상담 검수는 총 1,267건임. | | | | | | |

### 2. 일자리참여자지원사업 운영 보고

| 월 | 일자리참여자지원사업 | | | | |
|---|---|---|---|---|---|
| | 공동작업장 | | 인턴쉽 | | 총합 |
| | 참여인원 | 평균 참여시간 | 참여인원 | 평균 참여시간 | 참여인원 |
| 1월 | 12 | 103 | 4 | 120 | 16 |
| 2월 | 15 | 98 | 3 | 130 | 18 |
| 3월 | 12 | 92 | 4 | 102 | 16 |
| 4월 | 11 | 92 | 3 | 124 | 14 |
| 5월 | 13 | 90 | 5 | 102 | 18 |
| 6월 | 10 | 88 | 6 | 107 | 16 |
| 7월 | 11 | 97 | 7 | 96 | 18 |
| 8월 | 14 | 128 | 7 | 102 | 21 |
| 9월 | 14 | 116 | 7 | 105 | 21 |
| 10월 | 14 | 116 | 7 | 80 | 21 |
| 11월 | 13 | 124 | 6 | 110 | 19 |
| 12월 | 12 | 97 | 6 | 113 | 18 |

## 3. 공동작업장 공방물품 판매를 위한 전문성 강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내부 기술 교육

| 구분 | 연번 | 프로그램명 | 회기 수 | 참여인원 |
|---|---|---|---|---|
| 전문성강화 | 1 | 손뜨개 | 3 | 29 |
| | 2 | 양말목공예 | 1 | 11 |
| | 3 | 바느질 | 4 | 31 |
| | 4 | 한복방향제 | 3 | 29 |
| | 5 | 비즈공예 | 1 | 6 |
| | 6 | 서양자수 | 1 | 12 |
| | 7 | 재봉틀 | 3 | 29 |
| | 8 | 매듭공예 | 1 | 11 |
| 역량강화 | 1 | 기초 영어 | 31 | 272 |
| | 2 | 컴퓨터 (한글,엑셀,파워포인트) | 35 | 286 |
| 총 10개 프로그램 운영 : 총 83회기, 총 716명 참여 | | | | |

## 4. 자활비전 교육

| 연번 | 프로그램명 | 회기 수 | 참여인원 |
|---|---|---|---|
| 1 | 진로 프로그램 '신규 이용자 교육'<br>(타로카드, 집단상담) | 7 | 36 |
| 2 | 진로 프로그램 '나를 찾아줘'<br>(사주, 가치 찾기, 이력서 작성, 모의면접) | 17 | 129 |
| 3 | 인권교육 '칼럼읽기'<br>(정치경제, 사회, 인문학 등) | 38 | 366 |
| 4 | 인권교육 '전문강사 섭외를 통한 인권교육'<br>(노동권, 비폭력대화) | 7 | 91 |
| 5 | 돌봄양성교육과정<br>(상호돌봄 강의, 물품정리수납 강의) | 16 | 127 |
| 6 | 성매매재인식교육<br>(동료상담 교육, 민들레순례단, 자조모임) | 8 | 64 |
| 총 6개 프로그램 운영 : 총 93회기, 총 813명 참여 | | | |

## 5. 사회통합 교육

| 연번 | 프로그램명 | 회기 수 | 참여인원 |
|---|---|---|---|
| 1 | 공동체향상<br>(농활체험 2박 3일, 힐링 프로그램 1박 2일) | 5 | 36 |
| 2 | 마음의 창<br>(영화, 미술관, 뮤지컬 관람, 고궁체험) | 5 | 51 |
| 3 | 몸튼튼 마음튼튼<br>(성북천 걷기, 서울 나들이, 마음챙김 명상) | 84 | 663 |
| 4 | 오! 해피데이<br>(생일파티) | 9 | 86 |
| 5 | 냉장고야 내 건강을 부탁해<br>(설, 추석 명절 음식 만들기, 김장) | 11 | 109 |
| 6 | 해봄의 밤<br>(2023년 해봄 공방 평가 나눔) | 1 | 14 |
| 총 6개 프로그램 운영 : 총 115회기, 총 959명 참여 | | | |

## 6. 직업훈련 및 진학과정

| 구분 | 연번 | 프로그램명 | 회기 수 | 참여인원 |
|---|---|---|---|---|
| 직업<br>훈련 | 1 | 컴퓨터 : 모스 | 9 | 1 |
| | 2 | 컴퓨터 : 컴퓨터 활용능력 | 12 | 1 |
| | 3 | 피부미용교육과정 | 11 | 1 |
| 진학<br>과정 | 4 | 대검 검정고시 | 25 | 1 |
| | 5 | 대검 검정고시 | 31 | 1 |
| 총 4명 지원, 대검 검정고시 합격 1명 | | | | |

## 7. 여성자활센터 조직·교육·홍보 활동

### 가. 조직 활동

1) 매주 화요일 오전 해봄 주간회의

2) 매월 첫째주 월요일 전 직원 월례회의, 내부운영위 회의

3) 분기별 1회 시설운영위 회의 : 윤애경(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대표), 윤혜연(구로삶터지역자활센터 대표), 이시정(법무법인 미소 이시정 변호사), 최민순(예술치유연구소 앨리스와 토끼 대표), 황경란 (충북여성재단 연구위원), 이하영(법인대표), 이

선미(여성자활센터 센터장) (참관: 윤영호 사무국장)
4) 연 1회 : 상·하반기 평가회의

**나. 교육 활동**

1) 조직 비전 점검 및 종사자 역량강화
- 23.08.19. 조직진단 및 리더십 역량강화 워크숍
- 23.08.28. 조직 비전 설계를 위한 워크숍
2) 반성매매활동가로서의 성장
- 23.02.14.~15.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소속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 23.11.02.~03. 전국연대 소속 종사자 아카데미 교육 ‘ 자활넷’
- 분기별 1회 책 나눔 : 돌봄과 인권, 불처벌, 페이드 포 외
3) 상담원 전문성 강화
- 23.08.29. 수지에니어그램으로 본 각 상담원의 강점과 취약점
- 23.12.19. 트라우마 상담의 이해와 개입 방법
- 23.12.20. 여성주의상담의 개념과 사례 접근 전략 논의
- 23.12.26. 전문가 슈퍼비전
- 23.12.27. 상담원 대리외상 해소를 위한 집단 상담
4) 실무역량강화
- 23.10.12.~13. 나라장터 입찰 업무, 예산수립 및 결산서 작성
5) 상담원 소진 예방 프로그램
- 23.03.27. 하늘공원 산책
- 23.06.16. 수원 융건릉 산책, 수원 미술관 관람
- 23.10.26. 북한산 둘레길 산책
6) 자활센터 홍보활동
- 매월 1회 성북구 하월곡동 아웃리치 참석
- 매월 1회 산업형 아웃리치 참석
- 성매매예방캠페인 : 3.8 여성대회, 9.23 서울행사,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행사 기획 등

## 8. 네트워크

1) 매월 1회 전국 자활네트워크 회의 참석
2) 매월 1회 서울시 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 회의 참석
3) 매월 1회 서울시 성매매피해여성지원협의회 실무자 교육 및 워크숍 참석
4) 매월 1회 동북권 젠더네트워크 회의 참석
5) 그 외 다수 회의 참석

■ **여성자활센터 해봄 2023년 사업평가**

**1. 상담사업 “지원의 한계를 두기보다 삶의 지원자로 다가서기”**

관계적 돌봄과 사회적 자원이 부재한 이용자들에게 ‘자활’은 매일 마주하는 과제처럼 여겨질 것으로 예상됨.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당찬 포부를 보인 이용자가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무력감을 호소하기도 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던 이용자가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우울의 늪에 빠져들기도 함. 이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겪는 삶의 무게로 보임. 해봄의 상담은 이용자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지 않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곁에 머물면서 함께 상의하고 돌보는 지지자로 다가서고자 함.

**2. 공방 운영 “공동체성에 대한 체득”**

성매매피해자라는 특성상, 여러 피해가 복합적으로 존재(장애, 가정폭력, 학교폭력)하며, 이른 나이부터 업소 생활을 하며 사회생활을 배웠거나,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생활해온 이용자들이 많음. 그러한 이유로 건강한 관계에 대한 상(狀)이 부재함. 이것은 공방이라는 공간 내에서 처음으로 "건강"한 관계를 배우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 됨. 실제로 여러 프로그램에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학습이나 참여비를 받는 일뿐 아니라, 새로운 관계 맺음을 통한 자기 회복과 치유임이 드러나기도 하였음. 새로이 관계에 대한 상을 만들어 가는 공간인 만큼, 여러모로 이들을 관찰하며 적절히 북돋고, "함께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배울 수 있게 하는 활동이 필요하겠음. 월례회의나 반상회를 통해 공적 말하기에 대해 배우고, 자기표현을 적절하게 하며 상대의 의견을 수용하기도 하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3. 내부기술교육 “공방에 활력을 주는 배움”**

항상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공방에 월에 1~2회 운영되는 수공예 기술교육은, 이용자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됨. 평소에 해보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내용의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참여 욕구를 높이고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었음. 그리고 영어를 읽고 쓰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높았던 이용자들이 영어와 컴퓨터를 배우면서 “막연히 어렵다고만 느꼈는데 재밌다.”라며 자신감을 회복한 것이 높이 평가할만한 점임..

**4. 자활비전교육 “나와 세상을 알아가는 시간”**

2023년에는 신설된 자활비전교육 프로그램이 많았음. 신규 이용자들 대상으로 타로를 매개로 한 집단 상담을 운영하고, 진로 프로그램 일환으로 사주를 통해 자신의 강점

을 발견하고 가치를 찾아본 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모의 면접을 진행함. 이를 기반으로 향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음. 그리고 지역사회 내 상호돌봄을 실천하기 위하여 돌봄양성교육과정을 진행하였고, 칼럼읽기와 인권교육을 통해 내적 지혜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짐. 9월 한 달 간은 매주 성매매방지법의 역사적 의의와 성매매여성 불처벌의 필요성 등 반성매매 운동의 논의를 심도 있게 나누었고, 마지막 주에는 민들레순례단 기행을 참여하며 우리의 존재가 반성매매 운동의 증인임을 생생하게 몸으로 체득한 시간이었음.

**5. 사회통합프로그램 "어린 시절 부재한 기억을 채우다."**

어린 시절 여러 사유로 체험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해봄에 와서 체험하고 채워간다는 의견이 있었음. 가정의 형편으로 김장을 해볼 수 없었으나, 해봄에서 모두 함께 김장하는 체험을 하였다든지, MT를 못 가봤는데, 해봄에서 함께 공동체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꼭 학창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든지, 하다못해 생일을 챙겨주는 것도 감동이었다는 의견이 있었음. 어린 시절 해보지 못한 것을 해봄에 와서 채워봄으로, 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한 이용자도 있었음.

**6. 직업훈련 및 진학교육 "고되고 어렵지만 뿌듯한 길"**

올해 해봄은 직업훈련 2명, 진학교육 2명으로 총 4명을 지원하였고 이 중 1명은 대검검정고시에 합격하였고 1명은 현재까지 직업훈련지원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음. 직업훈련 및 진학교육의 경우 장시간에 걸쳐 자격증 취득을 위한 많은 노력과 열정이 필요한 과정임. 공부에만 전념할 수 없는 여건이었지만 틈틈이 공부를 일상화하는 이용자의 애씀 덕분에 2023년 해봄은 처음으로 자격증 취득자를 배출한 한 해임.

**7. 조직사업 "해봄이라는 사랑스러운 공간을 섬세하게 다듬어 가는 과정"**

매주 화요일 정기 회의를 통해 해봄의 사업을 공유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짐. 매월 전 직원 월례회의를 통해 각 단위별 사업보고를 공유하며 성매매 여성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통합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반성매매 활동가로 성장하기 위한 학습을 함께 진행하였음.

**8. 직원역량강화 "서로를 신뢰하며 건강하게 활동하기 위한 전략"**

2023년은 조직비전논의를 위한 리더 및 실무자 교육, 수지에니어그램을 통한 상담가로서의 성찰, 성매매자활지원센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활넷 워크숍 참석, 성매매 피해여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여성주의 상담의 필요성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함. 직원역량강화교육은 학습자의 위치에서 강의를 듣는 것 뿐만 아니

라 동료들과 자신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성장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임.

**9. 연대사업 “지역사회 내 상호돌봄을 실천하는 해봄으로서의 자리매김”**

서지협, 동북권젠더그룹, 자활넷 회의를 통해 해봄의 업무를 알리고 지역 사회내에서 반성매매운동단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음. 2023년은 지역의 풀뿌리 단체와 함께 할 수 있는 반성매매운동의 의제를 고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실천적 전략들을 고민한 한해였음.

2023년은 해봄 공방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 한해였음. 공방 이용자들과 매월 1회 월례 회의와 반상회를 운영하며 공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갈등 상황을 공적 담론으로 발전시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시도한 한 해였음. 해봄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이용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멘토-멘티가 되어 신규 이용자에게 기술을 전수하고, 새로운 물품을 개발하는 등의 자체적으로 공방을 운영하는 단계에 이름.

해봄은 일자리참여자지원사업을 졸업할 이용자들을 위한 영어와 컴퓨터 교실,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활에 걸림돌이 될만한 요소를 최소화 하고 스스로 자활을 설계하여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직접 작성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면접을 본 뒤 인턴십 업체에 취업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 등을 통해 사회 진입에 대한 두려움을 낮출 수 있었음. 그리고 지역 내 상호돌봄의 주체로 성장하기 위하여 돌봄양성교육과정과 농촌 체험 일손 돕기 등을 시도했으나 기관의 특성상 사업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불가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음. 2024년에는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은 세심하게 활동은 과감하게 할 예정임.

# 2023년
# 결산보고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전국연대 제21차 정기총회

# 2023년 결산 보고 및 승인

## 1. 일반 회계

2023.12.31. 기준

### ■ 수입부

(단위: 원)

| 과목 | 2023수입예산 | 2023수입결산 | 비고 |
|---|---|---|---|
| **1. 이월금** | **87,875,481** | **87,875,481** | |
| 전년이월금 | 87,875,481 | 87,875,481 | |
| 전월이월금 | - | - | |
| **2. 후원금** | **55,000,000** | **67,788,490** | |
| 정기후원금 | 40,000,000 | 35,537,250 | |
| 비정기후원금 | 15,000,000 | 32,251,240 | DDA 18,115,240원 |
| **3. 회비** | **24,000,000** | **22,600,000** | |
| **4. 사업수입** | **6,500,000** | **6,970,000** | |
| **5. 기타수입** | **80,000** | **2,929,970** | 아름다운재단 인건비 2,480,000원 |
| **6. 프로젝트** | **38,000,000** | **38,000,000** | |
| **수입 합계** | **123,580,000** | **138,288,460** | |
| **수입 총합(이월금 포함)** | **211,455,481** | **226,163,941** | |

## ■ 지출부

(단위: 원)

| 과목 | | 2023지출예산 | 2023지출결산 | 비고 |
|---|---|---|---|---|
| 인건비 | **1.인건비** | **45,669,076** | **41,988,128** | |
| | 급여 | 29,981,756 | 26,676,522 | |
| | 소득세/4대보험 | 3,023,960 | 2,811,825 | 기타소득 45,100원 |
| | 퇴직적립금 | 5,463,360 | 5,299,781 | |
| | 직책보조비 | 7,200,000 | 7,200,000 | |
| 사무비 | **2.업무추진비** | **2,300,000** | **1,056,050** | |
| | 여비교통비 | 2,000,000 | 1,032,050 | |
| | 회의비 | 300,000 | 24,000 | |
| | **3.운영비** | **3,900,000** | **2,262,856** | |
| | 수용비및수수료 | 1,700,000 | 2,122,716 | CMS수수료, 줌, 디자인툴 등 |
| | 임차료 | 2,000,000 | - | 2024년 지출 예정 |
| | 공공요금 | 200,000 | 140,140 | |
| 사업비 | **4.정책사업** | **8,800,000** | **40,933,400** | 뭉치일본연수등 |
| | **5.조직사업** | **26,500,000** | **13,811,860** | 뭉치기금사업등 |
| | **6.교육사업** | **1,400,000** | **200,000** | 활동가워크숍 |
| | **7.홍보사업** | **2,850,000** | **1,478,810** | 연간보고서 |
| | **8.연대사업** | **11,113,005** | **6,079,705** | 분담금, 개정연대 |
| | **9.연구사업** | **-** | **-** | |
| 프로젝트 | **10.아름다운재단** | **20,000,000** | **20,000,000** | |
| | **11.한국여성재단** | **18,000,000** | **18,000,000** | |
| 전출금 | **12.부설기관** | **19,920,000** | **19,920,000** | |
| 기타 | **13.기타** | **5,572,772** | **1,227,120** | |
| 지출 총합 | | **166,024,853** | **166,957,929** | |
| 잔액 | | | **59,206,012** | (-408,181원) |

※ 23년 8월 26일에 오지출된 8월 4대 보험료 408,181원을 24년 1월 30일 예수금 통장에서 국민 운영비 계좌로 이체하여 결산 잔액과 통장 잔액을 맞춤.

## 2. 특별 회계 -발전 기금

2023.12.31. 기준

| 미래기금 | ₩20,896,731 |
|---|---|

## 3. 일반 회계 잔액

2023.12.31. 기준

| 운영비 | (국민) 032901-04-239152 | ₩13,033,149 |
|---|---|---|
| 국제사업(dda) | (우리)1005-802-944790 | ₩42,165,872 |
| 개정연대 | (우리)1005-403-682389 | ₩3,598,810 |
| 차년도 이월금 | ₩58,797,831 | |

## 4. 부설기관 2023년도 결산

2023.12.31. 기준

### 가. 부설기관 보다 2023년도 결산안

(단위: 원)

| Ⅰ. 보다 2023년도 수입부 | | | | |
|---|---|---|---|---|
| 과목 | | | | 2023수입총액 |
| 보조금 | 상담소 | 구조지원사업비 | 구조지원사업비 | 50,000,000 |
| | | 운영비 | 인건비 | 236,685,000 |
| | | | 운영비 | 14,860,000 |
| | | | 사업비 | 6,905,000 |
| | 합계 | | | 308,450,000 |
| | 현장지원사업 | 운영비 | 인건비 | 83,634,000 |
| | | | 운영비 | 17,000,000 |
| | | 사업비 | 개별지원사업비 | 42,000,000 |
| | | | 사업비 | 22,000,000 |
| | 합계 | | | 164,634,000 |
| | 기능보강사업비 | 기능보강사업비 | 자산취득비 | 1,000,000 |
| | 합계 | | | 1,000,000 |
| | 잡수입 | 이자 | 이자 | 85,299 |
| | 합계 | | | 85,299 |
| 법인 | 법인 전입금 | 사무비 | 운영비 | 4,800,000 |

| Ⅰ. 보다 2023년도 수입부 | | | | |
|---|---|---|---|---|
| 과목 | | | | 2023수입총액 |
| | 차입금 | 차입금 | 차입금 | 4,000,000 |
| | 이월금 | 전년도이월금 | 전년도 이월금 | 1,073,185 |
| | 잡수입 | 이자 | 이자 | 1,433 |
| | 합계 | | | 9,874,618 |
| 기타 | 기타운영비 | 기타운영비 | 운영비 | 1,009,123 |
| | 합계 | | | 1,009,123 |
| 수입 총합 | | | | 485,053,040 |

(단위: 원)

| Ⅱ. 보다 2023년도 지출부 | | | | |
|---|---|---|---|---|
| 과목 | | | | 2023지출총액 |
| 보조금 | 상담소 | 구조지원사업비 | 구조지원사업비 | 49,275,404 |
| | | 운영비 | 인건비 | 217,810,804 |
| | | | 운영비 | 14,859,061 |
| | | | 사업비 | 6,904,850 |
| | 합계 | | | 288,850,119 |
| | 현장지원사업 | 운영비 | 인건비 | 77,624,308 |
| | | | 운영비 | 16,998,136 |
| | | 사업비 | 개별지원사업비 | 42,000,000 |
| | | | 사업비 | 21,977,500 |
| | 합계 | | | 158,599,944 |
| | 기능보강사업비 | 기능보강사업비 | 자산취득비 | 1,000,000 |
| | 합계 | | | 1,000,000 |
| | 보조금 반납 | 이자 | 이자 | 85,299 |
| | | 보조금 반납 | 반납금 | 25,633,937 |
| | 합계 | | | 25,719,236 |
| 법인 | 법인 전입금 | 사무비 | 운영비 | 4,483,147 |
| | 차입금 | 차입금 | 차입금 반환 | 4,000,000 |
| | 기타 | 예비비 | 예비비 | 1,391,471 |
| | 합계 | | | 9,874,618 |
| 기타 | 기타운영비 | 기타운영비 | 운영비 | 1,009,123 |
| | 합계 | | | 1,009,123 |
| 지출 총합 | | | | 485,053,040 |

## 나. 부설기관 해봄 2023년도 결산안

(단위: 원)

| Ⅰ. 해봄 2023년도 수입부 | | |
|---|---|---|
| 과목 | | 2023수입총액 |
| 1. 사업수입 | 사업수입 | 4,323,025 |
| 2. 보조금수입 | 보조금수입 | 585,792,000 |
| 3. 차입금 | 차입금 | - |
| 4. 전입금 | 전입금 | 15,120,000 |
| 5. 이월금 | 이월금 | 75,414,683 |
| 6. 잡수입 | 잡수입 | 92,361 |
| 수입 총합 | | 680,742,069 |

(단위: 원)

| Ⅱ. 해봄 2023년도 지출부 | | |
|---|---|---|
| 과목 | | 2023지출총액 |
| 1. 사무비 | 인건비 | 263,623,000 |
| | 업무추진비 | - |
| | 운영비 | 43,197,500 |
| 2. 재산조정비 | 시설비 | 3,960,000 |
| 3. 사업비 | 사업비 | 266,300,000 |
| | 수익금사업비 | 2,937,030 |
| 4. 부채상환금 | 부채상환금 | - |
| 5. 잡지출 | 잡지출 | 0 |
| 6. 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 및 기타 | 100,724,539 |
| 지출 총합 | | 680,742,069 |

# 임원선출

# 임원 선출

## ■ 2024년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신규임원 선출(안)

| 구분 | 이름 | 직책 | 임기 | 비고 |
|---|---|---|---|---|
| 공동대표 | 손정아 | 여성인권 티움 대표 | 2024.1-2026.1 | 연임 |
| 공동대표 | 이하영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소장 | 2024.1-2026.1 | 연임 |
| 사업감사 | 정박은자 | (전)대구여성인권센터 부설 상담소 힘내 부소장 | 2024.1-2025.1 | 연임 |
| 회계감사 | 김한기령 | 대구여성인권센터 이사 | 2024.1-2025.1 | 신규 |

## ※ 참고자료 1 : 신규 감사 후보자 주요 약력

**■ 김한기령 회계감사 후보자**

현) (사)대구여성인권센터 이사

경력) (사)대구여성인권센터 대표
자활지원센터 생생이랑 소장
대구여성인권센터 근무

# 2024년
# 사업계획보고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 2024년 사업 방향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20년, 성매매방지법 20년을 맞이하는 2024년은 지난 20년의 정책 및 운동의 공과를 냉철하게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중요한 해이다. 이를 위해 전국연대는 2024년도에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다.

**1. 성매매방지법 20년을 평가하고 대안적인 정책과 운동방향을 제시한다.**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성매매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전환을 하였다. 지난 20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럼에도 견고한 성매매 제도와 여성 성착취 문화가 존재한다. 올해에는 성매매방지법 20년을 맞아, 20주년 기념사업 및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난 20년의 성과와 변화, 한계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향후 변화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네트워크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와 현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연속 토론회를 준비할 것이다.

**2. 조직 내실화, 네트워크 강화,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한다.**

반성매매운동은 지난 20년간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재정의하고 성매매 여성의 인권 옹호와 피해지원, 성매매 착취 구조 해체, 성매매 근절을 위해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고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성매매가 일상이 된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획기적인 변화였다. 이것은 전국의 열혈 활동가가 있었기 덕분에 가능한 변화였다. 전국연대는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활동가 워크숍, 네트워크 사업, 운영위원회의 정책워크숍 등을 진행할 것이다.

**3.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적극 매진한다.**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를 위한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은 반성매매운동의 가장 당면한 과제 중 하나이다. 전국연대는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활동을 이어가면서 법 개정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총선 이후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등 만나 법 개정을 제안하고 이들을 압박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여기에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참석 등 국제 활동도 포함된다.

**4. 성매매경험당사자 운동을 지지하고 강화한다.**

반성매매운동은 성매매 현장의 경험이 정책이 되고 경험당사자의 목소리와 주장이 운동으로 이어졌다. 2024년에도 FrontLine Women's Fund(FWF, 구 DDA)의 지원으로 뭉치 자조모임 지원사업을 지속하고 정책 워크숍, 교육사업을 지속할 것이

다. 나아가 성매매방지법 20년 기념 사업으로 당사자운동의 관점에서 본 성매매 정책과 운동을 분석하고 과제를 제언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려 한다.

**5. 지구화된 성착취 문제에 대응하고 인신매매 문제에 대응한다.**

성매매 현장은 이미 더 취약한 여성들로 재편되고 있고 그 중심엔 이주여성들이 있다. 그러나 아직 피해자지원체계는 이주여성에게 가닿지 못하고 있다. 현실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인신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전국연대는 지구화된 성착취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인신매매방지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고 정책 개입을 하려 한다.

**6. 다양한 연대활동 및 백래쉬 공동 대응함으로써 여성주의에 기반한 여성연대를 강화한다.**

여성운동은 시작부터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선언이자 '자매애는 강력하다'는 기치로 시작된 연대운동이었다. 전국연대는 다양한 여성 의제 및 백래쉬에 대해 연대 활동을 강화하여 여성운동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데 기여하려 한다. 이는 반성매매운동의 뿌리를 단단히 하고 저변을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 2024년 사업별 계획① 조직사업

## 1. 사업목표

현장과 여성의 경험에 뿌리를 둔 반성매매운동, 민주적인 전국연대를 위해 운영위원회와 네트워크의 역할을 공고히 한다. 반성매매 정책과 의제가 현장에서 도출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정책 역량을 강화한다. 사무국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운영구조를 만든다.

## 2. 사업계획

### 가. 운영위원회

구성(회원단체 대표) : 이정은(인권희망 강강술래), 고미라(새움터), 김란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김유순(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김선례(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울지기), 박현숙(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이윤서(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손정아(여성인권티움), 송경숙(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송영심(제주여성인권연대), 최민혜(대구여성인권센터), 정선영(수원여성인권돋음), 이하영(여성인권센터 보다), 지음(뭉치 운영위원장), 신박진영(정책팀장)/ 참관(정미례 정책위원)

1) 운영방법
- 월 1회 정기 운영위원회 및 비정기 임시회의(분기별로 1회 대면회의, 1회 온라인 회의, 1회 1박2일 정책워크숍 진행)

2) 내용
- 회원단체 현안 공유 및 사업보고
- 사무국 사업보고 및 안건 논의
- 안건 심의·의결
- 정책 워크숍 및 논의

3) 특별사업
- 일본 성매매 현장 탐방 및 일본 반성매매운동 진영과의 네트워크 구축
  · 일정 : 2024년 4월 17일(수)~20일(토) (3박 4일)
  · 장소 : 일본 도쿄 일대
  · 내용 : 일본 성산업 밀집지역 방문, 콜라보 및 반성매매단체 방문, 일본 반성매매단체 또는 연구자들과의 교류회(또는 토론회)

· 예산 : 통역비 80만원, 공동경비 120만원 총 200만원을 운영비에서 지출. 나머지 경비는 각자 부담하기로 함.

## 나. 사무국

1) 정기회의 : 격주 1회
2) 주요사업
- 회원단체와의 소통과 연대 강화 : 운영위원회, 네트워크 실무 지원
- 회원단체 활동가 역량강화 : 활동가 아카데미, 워크숍 진행
- 연대사업 :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의기억연대 네트워크, 젠더폭력 의제 총선대응팀, 강간죄개정연대 등 참여
- 정책사업 : 정책 모니터링, 이슈 대응 활동,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사무국
- 후원회원 관리 : CMS 및 후원회원 관리
- 홍보사업 : 카드뉴스 발행, 뉴스레터 발간, 홈페이지 관리, 캠페인 등
- 법인 활동가 워크숍 : 전국연대 사무국 및 법인 사무국 활동가 역량강화 및 소진 방지를 위한 워크숍을 통해(연 1회, 1박 2일), 여성운동 이해, 사무국 활동가 역할, 소진 예방, 활동력 강화 전략 공유 등 프로그램 진행

## 다. 네트워크

### 1) 상담소네트워크

구성: 김란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언니네), 김수민(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지원센터 보다), 김수현(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김유순(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김하나(대구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힘내), 박현경(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손정아(여성인권티움 부설 여성인권지원상담소 느티나무), 우정희(전북여성인권지원세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 이정은(인권희망 강강술래 부설 희희낙낙), 이윤서(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설 살림), 정선영(수원여성인권돋움 부설 오늘)

가) 간사단체 : 김수민(여성인권센터 보다)
나) 운영방법 : 격월 1회 정기회의, 연 1회 활동가 워크숍
다) 내용
- 회원 상담소 현안 공유 및 사업보고
- 성매매방지법 20년 분석·평가 및 현장 변화 분석
  · 주제 :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 성매매피해상담소 20년’ 성매매 실태 및 피해 유형의 변화 추이와 상담지원사업 변화·확장의 기록

· 내용
- 성매매 실태 및 피해 유형의 변화추이; 2013년~2023년 판결문과 상담 실적을 중심으로
- 상담지원사업 변화·확장의 기록; 주요 사건 및 사업지원 영역의 변화를 중심으로
· 일자 : 2024년 9월 4일(수)
- 상담소 네트워크 활동가 워크숍
· 일자 : 6월 13일(목) ~ 14일(금)
· 내용: '성매매방지법 20년, 성매매피해 상담소 20년' 정책 워크숍
- 정책 세미나
· 1차 정책 세미나
- 일 자 : 3월 26일(화)-27일(수)
- 내 용 : 1차 운영실적과 상담소 주요 연혁 및 사건 정리 및 분석
· 2차 정책 세미나
- 일 자 : 5월 28일(화)
- 내 용 : 판결문과 인터뷰 분석
· 3차 정책 세미나
- 일 자 : 11월 21일(목) ~ 22일(금)
- 내 용 : 피해유형 분석 ; 긴급구조, 인신매매 등 성매매피해 지원의 유형 변화와 현황/긴급구조, 인신매매에 대한 해석 등 현장 활동 대한 새로운 정의 필요하고 현장을 읽어내는 방법론에 대한 검토 등
- 온라인 활동가 교육
· 방법 및 내용 : 온라인/활동가 수요조사 실시, 청소년 의료지원을 위한 산부인과 의사 초빙해 (성)교육 등 고민 중

**2) 쉼터네트워크**

구성 : 김희영(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푸른꿈터), 장은희(대구여성인권센터 부설 단디이음), 김초롱(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부설 살림쉼터), 강혜정(인권희망 강강술래 부설 나무그늘), 윤하람(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민들레), 강진영(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여성의 쉼터 불턱), 김선례(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가) 간사단체 : 김희영(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푸른꿈터)
나) 운영방법 : 분기별 1회 정기회의, 연 1회 활동가 워크숍
다) 내용
- 2024년 정기적인 회의와 20주년 관련 회의 진행 예정
- 성매매방지법 제정 20주년 기념 사업
·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의 형성과정, 역사와 기능
· 현재 쉼터 시스템의 고민점과 앞으로의 방향성 제시

- 활동가 워크숍

### 3) 자활네트워크

구성 : 김현선(동두천 새움터), 고미라(평택 새움터), 곽은희(인천 달빛공방 자활지원센터), 김미선(전북 여성자활지원센터 Doing), 김지영(부산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설 자활지원센터 숲), 경희선(대구 생생이랑), 최명순(대전 여성자활지원센터 유쾌한공방), 한현진(제주 여성자활지원센터), 이정연(광주 여성자활지원센터 다힘), 마소현(수원여성인권돋음 부설 자활지원센터 모모이), 이선미(서울 여성자활지원센터 해봄)

가) 간사단체 : 최명순(대전 여성자활지원센터 유쾌한공방)
나) 운영방법
- 매월 1회(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다) 내용
- 대표자 워크숍 : 연간 1회
- 자활지원 분석 간담회 : 2월
- 성매매방지법시행 20주년 : 9월
- 다정방문 : 연간 2회

### 4) 아청네트워크

구성 : 남궁미(광주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하랑), 채선인(대전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다락), 이윤희(인천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잇다), 전은솔(전북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나우), 정한나(제주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반짝)

가) 간사단체 : 남궁미(광주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하랑)
나) 운영방법 : 격월에 1회 운영

| 일정 | 2월 2일 | 4월 12일 | 6월 13~14일 | 8월 9일 | 10월 11일 | 12월 13일 |
|---|---|---|---|---|---|---|
| 내용 | 회의 | 법률P.G | 워크숍 | P.G(미정) | P.G(미정) | 평가회의 |
| 장소 | 광주 | 대전 | 2월 논의 | 미정 | 미정 | 미정 |

다) 내용
- 아청센터 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일시 : 2024년 4월 ~ 10월 (3회 진행)
  · 내용 : 법률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지역별 주제를 통해 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

- 전국연대 아청 네트워크 워크숍 진행
  · 일시 : 6월 13일~14일
  · 내용 : 소통과 연대, 정책 논의 및 소진방지

**5)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

구성 : 운영위원회-지음(운영위원장, 예그리나), 무무(하쿠나마타타), 바라(키싱구라미), 백치(나린아띠), 소리(별하), 엠케이(예그리나), 예서(벵디), 저씨(보따리) / 정책팀-짤, 지음 / 자문단-신박진영(전국연대 정책팀장), 변정희(뭉치 외부정책자문위원)

가) 사업목표

- 지역자조모임 활성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당사자 운동의 내실을 다진다. 또한 자조모임 준비 지역과의 간담회를 통해 당사자운동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
- 운영위원 및 회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여 당사자활동에 대한 고민을 상시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자조모임간의 연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 뭉치 당사자운동 18년이 되는 해로 성매매방지법 시행 후 당사자운동의 활동과 의미 등에 대한 기록집을 발간하여 국내외 활동가 및 시민들과의 만남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성매매방지법이 당사자에게 미친 영향을 돌아보고, 앞으로 반성매매운동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지난 5년간 진행한 국제네트워크 사업을 정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조직사업

- 운영위원회의 : 매월 1회
- 역량강화 세미나 : 연 2회
- 역량강화 아카데미 : 월 1회
- 전체 워크숍 : 연 1회( 5월)
-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

다) 정책사업

- 정책팀회의 : 필요시
- 정책 세미나 : 연 2회
- 뭉치 발화 : 상시
- 성매매방지법 시행 20주년 기념사업 : 9월

라) 연대사업

-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사업 : 상시

- 국제네트워크 사업(2020년~2023년 기록정리)

**6) 사무국네트워크**

구성 : 송수연(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권영아(대구여성인권센터), 임승희(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이혜련(수원여성인권돋음), 이지영(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채선인(여성인권티움), 박소진(인권희망 강강술래), 강진영(제주여성인권연대), 이하영·신지영(전국연대 사무국)

가) 간사단체 : 3월 회의에서 논의 예정

나) 운영방법

- 분기별 1회 : 3월(대면), 6월(줌), 10월(대면), 12월(줌)
- 추후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대면 회의를 잡기로 함

다) 내용

- 각 지역별로 사무국 업무 분담 등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3월 회의 때 구체적으로 2024년 사업 계획을 논의하기로 함

# 2024년 사업별 계획② 정책사업

## 1. 사업목표

성매매 착취구조 해체,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당면한 '성매매' 문제 해결과 대응을 위해 정책 논의를 진행하고, 전국연대 사업으로 외화한다. 특별히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전국연대 20년,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을 맞아 성매매방지법의 성과와 한계를 냉철하게 평가하고 성매매 현장의 변화 분석, 성매매피해자지원체계도 점검, 평가한다. 또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위해 개정연대 활동을 지속함과 동시에 법개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내외 활동을 통해 한국 정부와 사회를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 2. 사업계획

### 가. 정책워크숍

1) 목표
- 운영위원들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논의를 통해 반성매매 운동과 정책을 도출하고 추진한다.

2) 내용 : 분기별 1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책 논의를 진행

### 나. 20주년 기념 사업

1) 목표
- 전국연대 20년 및 성매매방지법 20년을 평가하고 향후 비전 설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2) 내용

가) 홍보사업
- 연중 캠페인: 1년 슬로건을 정해서 홍보 캠페인 진행, 홍보 영상 제작, 굿즈 제작 등

나) 성매매방지법 20년의 성과와 한계 평가하는 연속 토론회 개최
- 일시 : 9월 중
- 장소 : 온오프라인 병행
- 내용 : 성매매방지법 20년 분석/평가, 현장 변화 분석, 피해자지원체계 평가 및

분석, 반성매매운동 평가 및 방향 점검, 성매매경험당사자운동 평가 등

다) 전국연대 20주년 기념식

- 일시 : 9월 중
- 장소 : 미정
- 내용 : 미정

라) 민들레순례단

- 일시 : 9월 중
- 장소 : 군산 일대
- 내용 : 회원단체 집중 캠페인 및 행사 진행

마) 기록사업

- 내용 : 전국연대 20년의 활동을 정리할 수 있는 기록집 발간. 예를 들면 지금까지의 연도별 성명서 정리하여 사건과 활동내용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책자 발간.

3) 방법 : 총회 후 추진TF를 결성하여 전체적인 로드맵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진행하려 함.

**다. 성매매처벌법 개정운동**

1) 목표

- 성매매처벌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여론 형성을 통해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담론 확산

2) 내용

가) 성매매처벌법 제정 20년,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3월 22일
- 장소 : 국회의사당 앞
- 주최/주관 :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나) 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 촉구 슬로건 캠페인

- 기간 : 연중
- 내용 : 공통 슬로건을 뽑아 연중 상시 캠페인 진행, 다양한 채널, 방법으로 슬로건 활용.

다)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촉구 공동행동

- 일시 : 2024년 9월 21일(토)
- 장소 : 서울 보신각 앞
- 내용 : 법 개정 촉구 집회 및 거리 행진

라) 소책자 배포

- 기간 : 연중

- 내용 :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을 담은 소책자(2023년 제작)을 온오프라인의 배포하여 운동의 저변을 확장

**라. 국제연대사업**

1) 운영위원회 일본 연수
- 목적 : 운영위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연대를 강화하기 위함
- 일시 : 4월 중
- 장소 : 일본 도쿄 일대
- 참석자 : 운영위원

2)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가) 성매매 관련 보고서 제출
- 목적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성매매/인신매매 특별보고서를 위해 한국 성매매 실태와 문제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여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도록 함
- 일시 : 2024년 1월 31일 제출함

나) CEDAW 한국 정부 심의 대응 활동
- 일시 : 5월 중
- 장소 : 스위스 제네바
- 참석자 : 안창혜, 이하영, 뭉치 1인

3) 국제연대 사업 기록/정리
- 목적 : 2018년, 2019년 진행된 유럽 국가 연수를 정리하여 정책 제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기간 : 2월 ~ 8월
- 내용 : 자원활동가 활용하여 자료 정리 및 책자 발간 (PDF자료)

# 2024년 사업별 계획③ 교육사업

## 1. 사업목표

성매매 및 여성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연대 활동가 교육을 실시한다.

## 2. 사업계획

### 가. 활동가 워크숍

1) 일시 : 연 1회 (비정기)
2) 방법 : 온라인 줌 강의
3) 대상 : 전국연대 활동가
4) 내용 : 현안 중심 강의 및 교육

# 2024년 사업별 계획④ 연대사업

## 1. 사업목표

시민사회와 여성운동 안에서의 '반성착취' 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연대 활동, 정책 발굴 활동,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활동을 강화한다.

## 2. 사업계획

### 가. 한국여성단체연합

1) 내용 : 대표자회의, 정치세력화전략본부, 의제운동전략본부 참여, 현안 공동대응 활동

### 나.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1) 내용 : 집행단위 참여하여 법 개정 활동 참여

### 다. 정의기억연대 네트워크

1) 취지 : 정의기억연대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연대하는 단체 네트워크 구성

### 라. 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여성연대(준비위원회)

1) 취지

- '한국 내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한국 정부가 전국의 기지촌을 조성하였고 미군 위안부 제도를 운영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조장한 국가 책임이 규명되었고 미군 위안부들이 국가폭력 피해자임이 인정됨. 그러나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는 미군 위안부들이 수십 년 동안 겪어야 했던 인신매매, 국가와 군대에 의한 성 착취, 미군 범죄, 감금, 폭력 등의 사실이 모두 밝혀지지 않음. 특히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미군 위안부 제도를 운영한 미 군대와 미군 범죄 피해에 대한 규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함. 이에 미군 위안부들은 대법원 판결이 끝난 직후 여성과 아동들에게 저지른 미국과 미군대의 범죄 행위를 명확히 밝히고 다시는 이 땅에 미군 위안부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미 군대 손해배상청

구소송'과 '군 주둔지역 성 착취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마지막 생의 과제로 삼고 활동을 결의함. 그러나 평균 연령이 70대 중반 이상인 고령의 미군위안부들에게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고, 새움터만으로는 이 두 가지 과제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어 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연대 모임 결성을 제안함.

2) 내용

가) 미 군대 손해배상청구소송[16]

- 목적
  · 미 군대와 미군 범죄의 진상을 규명한다.
  · 미 군대와 미군 불법행위의 결과로서 미군 위안부들이 겪은 고통을 알린다.
  · 미 군대와 미국 정부의 사죄와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 보상을 받는다.
- 미 군대와 미군 범죄의 내용
  · 미군의 성 학대와 기지촌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 및 여성 인신매매
  ·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학대 및 인신매매 관련 범죄 및 동반 범죄
  · 미 군대의 범죄
  - 강제 성병검진 및 치료
  - 미군 범죄 조사의무 위반
  - 미군 부대 내 성매매 조장 및 알선
  - 미군 훈련장 내 성매매 조장 및 알선
  - 기지촌 성매매 조장 및 알선
  -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과 제공, 공개
  - 강제 교육
- 진행상황 요약 보고
  · 미군범죄 피해 증언 및 증거 자료 수집
  · 한국 내 소송 관련 민변 연대 제안(이정희 변호사 면담)
  - 미 군대 및 미군 범죄 요약, 미군 위안부 피해 진술 등 자료 제출
  · 미국 내 소송 관련 네트워크 구성 제안

나) 「군 주둔지역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17]

- 목적 : 군대에 의해 자행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 폭력, 성 착취, 인신매매 등을 조사하고, 국가의 책임을 규명하며, 가해자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생존자를 보호·지원하여 범죄를 예방한다.
- 주요 내용
  · 한반도의 모든 군 주둔지역 및 한국군 파병지 성 착취를 규율하는 법률
  · 과거와 현재의 피해를 조사하고 미래의 피해를 예방하는 법률
  · 군인 또는 군대에 고용돼 근무하는 사인, 공무원, 공무를 위탁받는 사인 등 모두 적용

16) 김현선, 미 군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배경과 쟁점, 2023, 새움터
17) 신영숙, 군 주둔지역 성 착취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하여, 2023, 새움터

하여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율하는 법률

·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로 국가 피해가 입증된 내용을 포함하여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미군 위안부들이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률

·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피해자 및 국내외 거주 외국인 피해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률

다) 진행상황 요약 보고

- ‘군 주둔지역 성 착취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새움터 법률안 마련
- ‘군 주둔지역 성 착취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위원회 [18]결성
- 특별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 및 연구자 자문 진행 중.

## 마. 기타 연대활동 참여

18) 새움터 특별법 제정위원회 : 2023년 1월, 기지촌 여성 활동가 5인과 비 기지촌여성 활동가 5인으로 구성하여 법안에 대해 기지촌 여성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법안 수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2024년 사업별 계획⑤ 홍보사업

## 1. 사업목표

전국연대 활동 홍보를 통해 반성착취 담론을 확산하고 연대 범위를 확대한다.

## 2. 사업계획

### 가. 홈페이지 관리 및 개선

### 나. 뉴스레터 발행

1) 발송 대상 : 후원 회원 및 뉴스레터 구독 신청자
2) 발송 주기 : 매달 1회

### 다. 상시적 카드뉴스 발간

### 라. 월별 활동 영어 번역본 업로드

1) 목표
 - 전국연대 활동을 국제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연대 저변 확대
2) 내용
 - 자원활동가 1인이 월 1회 활동소식 번역, 전국연대 영문 게시판에 업로드

# 2024년 사업별 계획⑥ 재정사업

## 1. 사업목표

후원회원 확대 및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확보하여 전국연대 활동의 안정화를 꾀한다.

## 2. 사업계획

### 가. 후원회원 관리 및 확대

# 2024년 사업별 계획⑦ 부설기관

## Ⅰ. 부설기관 보다

### 1. 사업방향

**가. 변화하는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 '미아리' 변화를 관찰·기록**

1) 성매매집결지 전시 진행
2)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을 인터뷰 기록 진행
3) 성매매집결지 실태조사

**나. 성매매경험 여성들의 탈성매매 이후 자원마련을 위한 기반 마련**

1) 지역사회 성매매집결지 논의 및 토론의 장 마련
2) 성매매집결지 내 이동상담소 설치
3) 자활지원조례 시행 및 예산 마련
4) 사회복지지원체계 내 통합시스템 마련(긴급생계비, 주거지원 등)하여 탈성매매를 위한 자원 마련

**다.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활동가 역량강화**

1) '활동 시 내가 어디서 힘을 받는지', '동료는 지금 어떠한지' 자기집중과 타인 이해를 통한 상담원 역량강화
2) 자체교육인 '내담자 되어보기' 통한 내담자의 법률지원의 전 과정 학습
3) 전문가를 통한 외부교육 진행으로 체계적인 지원활동 마련

**라. 성매매특별법 제정 20주년 및 수요차단을 위한 기반마련**

1) 성매매방지법 제정 20주년 토론회 진행
2) 서울시 상담소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성매매피의심 등 성매매여성 법적 처벌에 적극대응
3) 성매매방지법 제정 후 20년, 성매매 실태 및 피해 유형의 변화와 추이를 기록하고 상담지원 사업을 변화하고 확장

### 마. 업무효율화를 위한 시스템개발 등

1) 상담관련 행정시스템(상담DB) 장착 및 업무 효율화
2) 상담소 내 불필요한 회의 등 시스템을 개선 및 행정업무 최소화

## 2. 사업계획

### 가. 상담소 내 회의

1) 상담 : 온·오프라인 상담, 홈페이지 상담, 카카오채널 홍보
2) 주간회의 : 매주(월) 10:00~11:30(총 52회)
3) 연간사업평가회의 및 사업계획회의 : 상·하반기 총 2회
4) 보다 시설운영위원회 : 분기별 1회(총 4회)
5) 주간 사례회의 : 필요 시(월) 10:30~11:30(총 12회)
6) 통합 사례회의 : 격주(월) 13:00~17:00(총 20회)
7) 외부전문가 사례회의 : 연 1회(필요 시 추가: 상담방법, 법률, 정신장애, 마약 등)

### 나. 상담지원

1) 구조지원사업(목표 대상인원: 132여명)

| 구분 | 사업명 | 진행내용 |
|---|---|---|
| 1 | 법률지원 | - 민 · 형사상 법률지원, 탈성매매 장애요인 채무 문제 등 해결 |
| 2 | 의료지원 | - 당면한 질병 및 상해지원, 건강검진 실시<br>- 성매매피해여성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권유 |
| 3 | 치료회복 프로그램 | - 성매매피해여성의 심리적 치유와 사회 복귀를 위한 심리상담, 문화체험, 자원활용 연습, 명절체험 등 |

2) 현장지원사업(목표 대상인원: 300여명)

| 구분 | 사업명 | 진행내용 |
|---|---|---|
| 1 | 법률지원 | - 민 · 형사상 법률지원, 탈성매매 장애요인 채무 문제 등 해결 |
| 2 | 의료지원 | - 질병 및 상해지원, 건강검진 실시<br>- 성매매피해여성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

| 구분 | 사업명 | 진행내용 |
|---|---|---|
| 3 | 직업<br>훈련지원 | - 해봄 프로그램 적극 활용<br>- 예비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응 훈련 향상<br>- 고용센터, 일자리플러스 센터 등 자활연계기관 이용 및 내담자 맞춤형 자활 정보 제공 |
| | 직업훈련수당 | - 직업훈련지원을 위한 독려 및 교통비 등 지원 |
| 4 | 예비<br>프로그램 | - 오랜 기간 성매매 노출로 인한 사회적 경험 지원 및 새로운 정보습득, 학습지원 등<br>- 프로그램명: 주인공은 나야 나!, 타요타요, 보다톡톡, 직업을 찾아서 |
| 5 | 열린터<br>프로그램 | -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 내 여성들과 라포관계를 형성하고 실태를 파악하고 기록 등<br>- 프로그램명: 보다 톡톡, 타요타요, 나들이를 떠나요, 쑥! 쑥! 공부방, 난 열심히 살았어, 안전쉼터(언니들의 사랑방), 도서 대여 프로그램 |

3) 현장방문상담(산업형)
- 맥양집 밀집지역 : 성북구 삼양로 2회, 노원구 상계동 2회
- 유흥업소 밀집지역1 : 강북구 수유역 인근 연 9회, 노원구 노원 2회
- 유흥업소 밀집지역2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 1회
- 온라인 현장방문상담 : 연 10회

4) 현장방문상담(성매매 집결지)
- 현장방문상담 : 연 24회, 주·야간으로 진행
- 라운딩 : 현장의 변화를 수시로 체크하기 위해 수시 현장방문
-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 TF팀 구성

5)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 기록관리
- 집결지 내 현장 상담소 설치
- 성매매경험 여성 인터뷰
- 작은 전시회 주최
- 성매매집결지 폐쇄과정 주민협력사업
- 이용자 지원을 위한 지원확대 기반 마련
- 미아리텍사스 성매매집결지 책발간(25년)
- 성매매집결지 내 조형물 설치(25년)

6) 홍보·캠페인

- 온라인 홍보·캠페인
  - · 목표 : SNS를 통한 상담 연결 활성화, 온라인 활동으로 개인 및 단체들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 홍보 활동
  - · 홍보 매체 : 인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운영
- 대중 캠페인 : 3.8 세계 여성대회, 7월 세계 여성주간, 9.23 성매매추방주간, 11월 세계 여성 폭력추방 구간
-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 대상 홍보 활동

7) 활동가 역량강화 활동

- 역량강화
  - · 지원 시 필요한 상담원의 역할과 자세 외 법률학습, 마약의 이해, 판결문 분석, 집결지 방문, 보수교육 등을 통해 반성매매 전문가로 성장한다.
  - · 교육명 : 출발! 법률속으로!, 마약에 대한 이해, 판결문 분석, 상·하반기 워크숍, 보다 활동의 날, 활동가 보수교육, 성매매방지상담원교육(1명), 상호협력 슈퍼비전(1명), 상호협력 슈퍼비전
- 소진방지
  - · 교육명 : 활동가 활력활동, 활동가 지지응원, 기타(외부네트워크 등)
  - · 내 용 : 전제활동가 소모임, 생일챙김, 서지협네트워크등
- 안전
  - · 교육명 : 소방안전교육
  - · 내 용 : 직접체험 1회, 내부 진행 1회
- 의무교육
  - · 교육명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인권교육, 개인정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교육,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예방교육, 퇴직연금교육

8) 기타

- 자원 활동가 관리
  - · 성매매집결지 아웃리치를 통해 반성매매 활동과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
- 연대사업
  -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성인권센터 ‘보다’, 광주 ‘언니네’,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대구 ‘힘내’, 목포 ‘디딤’, 수원 ‘오늘’, 인천 ‘강강술래’, 부산 ‘살림’, 대전 ‘느티나무’,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상담소, 제주 ‘해냄’(총 11곳)
  - · 서울시성매매피해지원협의회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씨튼해바라기의 집, 우리들의쉼자리, 유프라시아의집, 평의의 샘, 나자렛성가정공동체, 마인하우스,, 한국여성의집, 휴먼케어센터, 막달레나 공동체, 다시함께상담센터, 여성인권상담고소냐의집, 십대여성인권

센터, 여성인권지원상담소에이레네, 성매매피해지원상담소이룸, 자활지원센터 넝쿨,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Na-Mu, 강북늘푸른교육센터(총 18곳)

· 동북권여성단체네트워크: 강북여성주의 '문', 강북늘푸른센터, 노원여성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도봉구성평등활동센터, 나를돌봄서로돌봄 '봄봄', 여성자활센터 '해봄', 여성인권센터 '보다',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총 10곳)

## Ⅱ. 부설기관 해봄

·

### 1. 2024년 해봄 사업 비전

**가. 이용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인턴십 업체 발굴 및 지역 내 다양한 사회복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1) 공동작업장 이용기간 1년이 넘은 이용자들에게 인턴십 제도를 활용한 일경험을 제공하여 사회 재진입의 두려움을 낮춘다.

2)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의 업체를 지역 내에서 발굴하여 협약 체결한다.

**나. 여성자활센터 해봄만의 상담 모델을 개발한다.**

1) 여성폭력 피해자이자 사회취약계층인 해봄 이용자들에게 적합한 상담 방법의 개발을 위해 여성주의 상담과 자활상담(ISP)에 대해 공부한다.

2) 상담 전문가들과의 정기적인 상담 수퍼 비전 회의를 통해 해봄만의 상담 초기 모델을 만든다.

### 2. 2024년 해봄 중점 사업

**핵심목표 1. 일과 삶의 돌보는 태도를 배우는 공동작업장 운영**

| 공동작업장 운영 | |
|---|---|
| 필요성 | 이용자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방 내 평등한 돌봄이 실천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구축함. |
| 목표 | 1. 공방 참여에 따른 단계적 목표성취와 전문성 향상<br>2. 전문인으로서의 사회 진출 기반 확대<br>3.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상호존중과 공동체성 함양 |
| 세부계 | 1. 공동작업장 운영<br>- 시기 : 2024. 01.~12.<br>- 내용 |

| 공동작업장 운영 | |
|---|---|
| 획 | * 공방 주력상품 기술 습득 및 제작 / 상시<br>(주력상품: 머리끈, 홈패션, 손뜨개, 양말목-안마봉, 방석 등)<br>* 상품개발을 위한 내부기술교육 운영 / 연 6회 이상<br>* 이용자의 적성과 속도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상시<br>*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한 시장조사 / 필요시<br>- 방법<br>* 공방 일정표: 각 사업추진 일정에 맞게 매월 논의 후 작성 (아래와 같음) |

| 15(월) | 16(화) | 17(수) | 18(목) | 19(금) |
|---|---|---|---|---|
| 선택주제 | 칼럼: 몽자 | 영어교실: 몽자 | 칼럼: 몽자 | 조별활동 |
| 조별 활동 | 한땀한땀, 뜨개: 몽자, 하랑 | 양말목: 하랑 | 청소/ 컴퓨터 교실: 하랑 | 미싱: 몽자 |
| 22(월) | 23(화) | 24(수) | 25(목) | 26(금) |
| 선택주제 | 자기계발 | 영어교실: 몽자 | 조별활동 | **선택주제** |
| 미싱<br>**몽자☺** | 문화의날<br>**지혜☺** | 냉장고야 내건강을부탁해<br>**선미☺** | 컴퓨터 교실:<br>**예솔☺**<br>**반상회: 하랑☺** | 마음챙김:<br>**영호☺** |

* 프로그램 운영 - 담당자 지정: 프로그램 운영은 각 담당자가 수업 진행
* 공방 회의: 공방운영에 평가 및 욕구를 조사하여 의견 수렴
(월례회의, 반상회, 상·하반기 평가회의 진행)
* 신규 이용자 수공예 교육: 신규 이용자를 위한 수공예 교육을 진행
* 조별활동: 이용자들의 자치성 향상 및 상품개발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조별활동 운영
* 상품개발을 위한 시장조사: 상품개발을 위한 시장조사 및 체험 활동을 통한 생활형 기술 습득

2. 상품개발사업
- 시기 : 상시 운영
- 내용 : 시장성 있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 진행
- 방법
* 유튜브 등의 콘텐츠를 이용하여 새로운 상품 상시 개발
* 디자인 개발을 위한 시장조사

3. 플리마켓 참여
- 시기 : 연중 4회 이상 (봄, 가을)
- 내용 : 공방 물품 판매, 수익금 관리

4. 정기회의 / 상·하반기 평가회의
- 시기: 월 2회 (월례회의, 반상회) / 연 2회 (상·하반기 평가회의)
- 내용

| 공동작업장 운영 | |
|---|---|
| | * 공동체 안에서 결속력을 높이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존중을 배움<br>* 공방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상품개발 및 소속감 향상<br>* 공방운영에 따라 안건을 논의하여 의견을 신속하게 조율하고 갈등 해결<br>* 연 2회 상·하반기 평가를 통해 작업장의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진행<br>- 방법<br>* 매월 첫째 주는 월례회의, 필요시 셋째 주 반상회 진행.<br>* 안건 수렴: 의견을 수시로 접수하여 회의 시 안건으로 논의 후 결정<br>* 회의록 작성: 매월 작업장의 운영 평가 및 안건을 논의 후 회의록을 남긴다<br>* 상·하반기 평가지 수렴 및 평가 회의: 연 2회 상·하반기 평가를 통한 프로그램 개선 및 결과에 대한 합의 공유<br>5. 공방 사업 담당자 주간회의<br>- 시기 : 격주 1회 진행<br>- 참석자 : 공방 사업 담당자<br>- 내용<br>* 작업장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업 담당자 회의 진행<br>* 공방 일정 조율 및 업무 분담<br>- 방법<br>* 월 1회 이상, 공방운영회의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진행 후 회의록 작성<br>* 주중 휴가 및 행사 일정 공유<br>* 상품 주문 및 수업 재료 구매, 재고 파악 등 |

## 핵심목표 2. 배움을 통한 동기부여

| 꾸준한 학습을 통한 전문성 향상 교육 | |
|---|---|
| 필요성 | 일상적으로 생활 및 취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을 진행하여 취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배움을 통해 자활 의지를 고취 시킴. |
| 목표 | 1.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습득<br>2. 배움을 통한 동기부여 및 자신감 고취 |
| 세부계획 | 1. 영어교실<br>- 시기 : 2024. 01.~12.<br>- 내용<br>* 외부 강사 섭외를 통한 주 1회 영어교실 운영<br>* 영어교실 수업이 어려운 이용자를 대상으로 복습 시간 운영<br>* 영어 입간판 읽기, 영어 동요 및 동화책 등 다양한 교수법 활용<br>2. 컴퓨터 교실<br>- 시기 : 2024. 01.~12.<br>- 내용 |

| 꾸준한 학습을 통한 전문성 향상 교육 | |
|---|---|
| | * 외부 강사 섭외를 통한 주 1회 컴퓨터 교실 운영<br>*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구글 설문지 등 제작<br>* 공방에서 만든 상품을 촬영하고 포스터로 직접 만들어보기, 메뉴판 작성 등<br>* 컴퓨터 자격증 취득 반 개설 예정<br>3. 소잉 디자이너 과정<br>- 시기: 2024.04.01.~06..30(2급 과정) / 07.01 ~09.30. (1급 과정)<br>- 내용<br>* 소잉 디자이너 협회 강사를 섭외하여 소잉 디자이너 교육과정 진행<br>* 상반기 소잉 디자이너 2급 운영, 하반기 소잉 디자이너 1급 운영<br>* 소잉 디자이너 자격증 취득 후 소잉 디자이너 협회와 인턴십 체결 예정<br>4. 수공예품 제작 과정<br>- 시기 : 2024.02.~04.<br>- 내용<br>* 공동작업장 신규 상품개발을 위한 교육 진행<br>* 상품개발 및 기획, 상품성 있는 물품 제작을 위한 공정 과정 배우기 |

## 핵심목표 3.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힘

| 해봄만의 상담 모델 개발 | |
|---|---|
| 필요성 | 해봄 이용자의 자활 과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함. |
| 목표 | 1. 이용자의 자활을 방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제거하기 위한 전략 수립<br>2. 자기 돌봄을 생활화하여 신체적·심리적 안정감 회복<br>3. 상담원은 방문자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조력자로서 지지하기 |
| 세부계획 | 1. 상담지원<br>- 시기 : 2024. 01.~12.<br>- 내용<br>* 도란도란 : 담당 상담원과 내담자 매월 정기적 상담 진행 (1회 이상)<br>* 면담진행 : 공방 3개월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및 자활 동기 파악<br>* 사후관리 : 공방 종결 후, 최소 6개월간 상담 진행<br>2. 상담사례회의 및 상담원 전문성 강화<br>- 시기 : 2024. 01.~12.<br>- 내용<br>* 해봄 상담 만족도 욕구 조사 진행 (구글 설문지)<br>*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습 : 트라우마, 여성주의 상담개론<br>* 자활 상담 구조화 모델 학습 : 여성주의 상담, ISP, BIP<br>* 전문가 슈퍼비전 Ⅰ :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슈퍼비전 진행<br>* 전문가 슈피비전 Ⅱ : 공방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을 중심으로 논의 |

| 해봄만의 상담 모델 개발 | |
|---|---|
| | * 외부 기관 방문 : 성북주거복지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

## 핵심목표 4. 나를 아는 것의 중요함

| 자활 비전 프로그램 운영 | |
|---|---|
| 필요성 | 나의 가치와 강점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여 자활의 초석을 마련함 |
| 목표 | 1.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진로를 탐색함<br>2. 경제활동 준비를 위해 여성 노동실태를 알아보고 노동자의 권리를 배움<br>3. 성매매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넘어 자신의 경험을 재해석하는 힘 기르기 |
| 세부계획 | 1. 자활비전교육<br>- 시기 : 2024.04.~10<br>- 내용<br>* 흥미와 가치 탐색, 수지 애니어그램, 나의 강점찾기 등 프로그램 운영<br>* 직업선호도 검사, 성격유형검사 진행<br>* 다양한 직업 체험 : 베이킹, 요양보호사 등<br>* 직업박람회 참여 등<br>2. 인권교육<br>- 시기 : 2024.01.01.~12.31<br>- 내용<br>* 칼럼 읽기 : 칼럼 필사, 강독 진행, 마음에 와닿는 구절 나누기 등<br>* 인권 교육 : 노동의 권리와 여성 노동자의 실상, 비폭력 대화, 돌봄 강의 등<br>3. 성매매재인식교육<br>- 시기 : 2024.09.<br>- 내용 : 군산 대명동 개복동 화채참사 지역 방문 |

## 핵심목표 5. 상호돌봄을 통한 공동체 의식 향상

| 사회 통합 프로그램 운영 | |
|---|---|
| 필요성 | 공방 내 이용자간의 안정적인 관계망을 확장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방 내 돌봄 자원이 사회적 돌봄으로 확장하도록 기여함. |
| 목표 | 1. 1박 2일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이용자 간 친밀감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향상함<br>2. 체력 향상, 스트레스 관리, 재무관리를 통한 개인의 돌봄 역량 강화<br>3. 원가족과 함께 지내지 못한 이용자들과 생일 축하와 명절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고 서로의 지지체계를 확인함. |
| 세부 | 1. 공동체 향상 프로그램<br>- 시기 : 2024.09. /12. (연 2회) |

| 사회 통합 프로그램 운영 | |
|---|---|
| 계획 | - 내용<br>* 군산 화재 참삭 지역 방문 및 문화 체험 (1박 2일)<br>* 해봄 연말 활동보고 및 활동 영상 시청, 시상식 진행<br>2. 몸튼튼 마음튼튼 재무튼튼<br>- 시기 : 2024. 01.~12.<br>- 내용<br>* 몸튼튼 : 성북천 걷기, 안해 본 운동 (볼링, 포켓볼 등)<br>* 마음튼튼 : 벚꽃길 걷기, 마음챙김 강의<br>* 재무튼튼 : 재무관리 강의 및 맞춤형 재무상담<br>3. 냉장고야 내 건강을 부탁해<br>- 시기 : 2024.02(설날), 09.(추석). 11.(김장)<br>- 내용<br>* 설 명절 음식 만들기 : 윷놀이, 공동식사, 전 부치기<br>* 추석 명절 음식 만들기 : 보드게임, 공동식사, 전 부치기<br>* 김장 체험<br>4. 문화 나들이<br>- 시기 : 2024.03월~12월 (연 4회)<br>- 내용 : 무료 관람 (전시회 등), 유료 관람 : 뮤지컬, 영화, 연극 등<br>5. 오 해피데이<br>- 시기 : 2024.01월~12월 (연 12회)<br>- 내용 : 매월 생일자를 대상으로 생일 축하 파티 진행 |

## 핵심목표 6. 무엇이든지 해봄!

| 인턴십 프로그램 | |
|---|---|
| 필요성 | 이용자의 선호와 적성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여 해당 업체의 근무 경력 및 경험 쌓기 |
| 목표 | 1.이용자가 경력단절로 인한 두려움을 실제 근무를 통해 해소하여 자신감을 얻음<br>2.적극적인 인턴십 업체 발굴과 이용자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인턴십 업체 |
| 세부계획 | 1.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br>- 시기 : 2024. 01.~12.<br>- 내용<br>* 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업체 발굴<br>* 자활이용기간 연장 심사를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직종 및 지역 선정<br>* 이용자가 희망하는 업종과 지역에 맞는 인턴십 업체 발굴 후 계약 체결<br>* 매주 1회 고충 상담 (월 1회 면접상담) |

## 핵심목표 7. 무엇이든지 시도해봄!

| 진학 및 직업훈련 교육 과정 | |
|---|---|
| 필요성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구조에서 자활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학 및 직업훈련을 지원함 |
| 목표 | 1. 자활의 구체적 목표를 기반으로 한 진학 및 직업훈련기술교육을 지원함.<br>2. 이용자가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학력 인증 및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격려함. |
| 세부계획 | 1. 진학 및 직업훈련기술교육 지원<br>- 시기 : 2024. 01.~12.<br>- 내용<br>* 개별상담 후 이용자의 자활 목표를 기반으로 한 진학 및 직업훈련기술교육 지원<br>* 학원 등록 후 매월 상담을 통해 학습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점검하고 교육과정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기 |

# 2024년
# 예산보고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전국연대 제21차 정기총회

# 2024년 예산(안) 보고 및 승인

## 1. 일반 회계

### ■ 수입부

(단위: 원)

| 과목 | 2024수입예산 | 비고 |
|---|---|---|
| **1. 이월금** | **58,797,831** | |
| 전년이월금 | 58,797,831 | |
| 전월이월금 | - | |
| **2. 후원금** | **75,000,000** | |
| 정기후원금 | 40,000,000 | CMS |
| 비정기후원금 | 35,000,000 | FWF 18,000,000원 |
| **3. 회비** | **25,400,000** | |
| **4. 사업수입** | **5,000,000** | |
| **5. 기타수입** | - | |
| **6. 프로젝트** | - | |
| **수입 합계** | **105,400,000** | |
| **수입 총합(이월금포함)** | **164,197,831** | |

## ■ 지출부

(단위: 원)

| 과목 | 2024지출예산 | | 비 고 |
|---|---|---|---|
| 인건비 | **1. 인건비** | **44,863,136** | |
| | 급여 | 30,281,488 | 상근활동가 1인 |
| | 사회보험부담금 | 2,948,448 | 기관분 |
| | 퇴직적립금 | 6,433,200 | 상근활동가+대표 |
| | 명절수당 | 400,000 | |
| | 직책보조비 | 4,800,000 | 정책팀장-운영비<br>국제팀장-FWF |
| 사무비 | **2. 업무추진비** | **1,800,000** | |
| | 여비교통비 | 1,500,000 | |
| | 회의비 | 300,000 | |
| | **3. 운영비** | **5,700,000** | |
| | 수용비및수수료 | 1,500,000 | |
| | 임차료 | 4,000,000 | 2023년 임차료 포함 |
| | 공공요금 | 200,000 | |
| 사업비 | **4. 정책사업** | **22,150,000** | 정책회의 75만<br>운영위일본연수200만<br>20주년기념식300만<br>연속토론회400만<br>민순단300만<br>CEDAW참석840만<br>유럽연수정리100만 |
| | **5. 조직사업** | **16,800,000** | 총회 500만<br>운영위50만<br>뭉치1,000만<br>사무국네트워크30만<br>미래센터공간개선100만 |
| | **6. 교육사업** | **200,000** | 활동가워크숍 |
| | **7. 홍보사업** | **1,200,000** | 리플렛 제작 |
| | **8. 연대사업** | **5,700,000** | 분담금/개정연대 |
| | **9. 프로젝트** | **-** | |
| **전출금** | **10. 부설기관** | **20,920,000** | 보다 530만<br>해봄1562만 |
| **기타** | **11. 기타** | **-** | 예비비 |
| **지출 총합** | | **119,333,136** | |
| **수입 총합-지출 총합(예상 잔액)** | | **44,864,695** | |

| Frontline Women's Fund(FWF) 기금 사업 | |
|---|---|
| 국제팀장직책수당 | ₩2,400,000 |
| CEDAW 회의참석 | ₩8,400,000 |
| 유럽연수자료정리 | ₩1,000,000 |
| 뭉치사업 | ₩10,000,000 |
| 20주년기념식 /연속토론회 | ₩7,000,000 |
| 합계 | **₩28,800,000** |

## 2. 특별 회계 -발전 기금

| | |
|---|---|
| 미래기금 | ₩20,896,731 |

## 3. 일반 회계 잔액(24.12.31. 예상 잔액)

| | | |
|---|---|---|
| 운영비 | (국민) 032901-04-239152 | ₩13,578,823 |
| 국제사업(FWF) | (우리)1005-802-944790 | ₩31,285,872 |
| 개정연대 | (우리)1005-403-682389 | ₩0 |
| 차년도 이월금 | **₩44,864,695** | |

## 4. 부설기관 2024년도 예산안

### 가. 부설기관 보다 2024년도 예산안

(단위: 원)

| Ⅰ. 보다 2024년도 수입부 | | | | |
|---|---|---|---|---|
| 과목 | | | | 2024수입예산 |
| 보조금 | 상담소 | 구조지원사업비 | 구조지원사업비 | 50,000,000 |
| | | 운영비 | 인건비 | 251,715,000 |
| | | | 운영비 | 14,060,000 |
| | | | 사업비 | 6,905,000 |
| | 합계 | | | **322,680,000** |
| | 현장지원사업 | 운영비 | 인건비 | 86,326,000 |
| | | | 운영비 | 22,555,000 |
| | | 사업비 | 개별지원사업비 | 42,000,000 |
| | | | 사업비 | 22,347,000 |
| | 합계 | | | **173,228,000** |

| Ⅰ. 보다 2024년도 수입부 | | | | |
|---|---|---|---|---|
| 과목 | | | | 2024수입예산 |
| | 기능보강사업비 | 기능보강사업비 | 자산취득비 | 4,136,000 |
| | 합계 | | | 4,136,000 |
| | 잡수입 | 이자 | 이자 | 60,859 |
| | 합계 | | | 60,859 |
| 법인 | 법인 전입금 | 사무비 | 운영비 | 4,800,000 |
| | 차입금 | 차입금 | 차입금 | 2,000,000 |
| | 이월금 | 전년도이월금 | 전년도 이월금 | 1,391,471 |
| | 잡수입 | 이자 | 이자 | 815 |
| | 합계 | | | 8,192,286 |
| 수입 총합 | | | | 508,297,145 |

(단위: 원)

| Ⅱ. 보다 2024년도 지출부 | | | | |
|---|---|---|---|---|
| 과목 | | | | 2023지출예산 |
| 보조금 | 상담소 | 구조지원사업비 | 구조지원사업비 | 50,000,000 |
| | | 운영비 | 인건비 | 251,715,000 |
| | | | 운영비 | 14,060,000 |
| | | | 사업비 | 6,905,000 |
| | 합계 | | | 322,680,000 |
| | 현장지원사업 | 운영비 | 인건비 | 86,326,000 |
| | | | 운영비 | 22,555,000 |
| | | 사업비 | 개별지원사업비 | 42,000,000 |
| | | | 사업비 | 22,347,000 |
| | 합계 | | | 173,228,000 |
| | 기능보강사업비 | 기능보강사업비 | 자산취득비 | 4,136,000 |
| | 합계 | | | 4,136,000 |
| | 이자 반환 | 이자 | 이자 | 60,859 |
| | 합계 | | | 60,859 |
| 법인 | 법인 전입금 | 사무비 | 운영비 | 6,192,286 |
| | 차입금 | 차입금 | 차입금 반환 | 2,000,000 |
| | 합계 | | | 8,192,286 |
| 지출 총합 | | | | 508,297,145 |

## 나. 부설기관 해봄 2024년도 예산안

(단위: 원)

| Ⅰ. 해봄 2024년도 수입부 | | | |
|---|---|---|---|
| 과목 | | 2024수입예산 | 비고 |
| 1. 사업수입 | 사업수입 | 6,000,000 | |
| 2. 보조금수입 | 보조금수입 | 576,194,000 | |
| 3. 차입금 | 차입금 | 1,000,000 | |
| 4. 전입금 | 전입금 | 15,120,000 | |
| 5. 이월금 | 이월금 | 34,000,000 | |
| 6. 잡수입 | 잡수입 | 180,000 | |
| 수입 총합 | | 632,494,000 | |

(단위: 원)

| Ⅱ. 해봄 2024년도 지출부 | | | |
|---|---|---|---|
| 과목 | | 2024지출예산 | 비고 |
| 1. 사무비 | 인건비 | 282,618,000 | |
| | 업무추진비 | 690,000 | |
| | 운영비 | 42,706,000 | |
| 2. 재산조정비 | 시설비 | 0 | |
| 3. 사업비 | 사업비 | 265,300,000 | |
| | 수익사업비 | 6,000,000 | |
| 4. 부채상환금 | 부채상환금 | 1,000,000 | |
| 5. 잡지출 | 잡지출 | 50,000 | |
| 6. 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 및 기타 | 34,130,000 | |
| 지출 총합 | | 632,494,000 | |

# 제21차 정기총회 별첨 자료

1. 성명서 및 논평/기자회견문

2. 정관

3. 회원단체 주소록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 성명서 및 논평/기자회견문

[성명서]

**단순 성매매란 없다!**
**여성에게 "왜 성매매 당했나" 묻지 말고,**
**성매매 가능하게 하는 사회에 책임을 물어라!**

"낮에는 애 보고 밤엔 성매매… 옛 동료 강제 결혼까지 시켜 노예처럼 부린 부부"(한국일보, 2023. 01. 16.)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 기사에 따르면, 피해여성은 40대 선배부부와 이들이 강제 결혼시킨 남편에게 3년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당하며 노예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한다. 후속보도(한국일보 2023. 01. 18)에서는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좀더 자세하게 가해자들이 한 가혹행위를 알 수 있었고, 피해자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바라는 것이라고 하였다.

성매매 피해를 지원해온 현장단체에서 이런 사건들은 그리 낯설지 않다. 이런 사건을 지원할 때마다 가장 고역스러운 것은 많은 사람들은 피해자가 어리거나, 장애가 있는, 소위 말하는 특별히 취약한 조건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성매수자가 피해여성의 몸에 있는 상처를 보고 신고를 하였다고 한다. 피해자 몸에 난 상처가 아니었다면 과연 누가 그 여성의 피해를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 만약 단속에 걸려 경찰이 이 여성을 만났다면 그녀가 입은 피해를 알아차렸을까? 이같은 피해가 지속되기 전 최초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만약 이 여성이 도움을 요청하였다면 우리 사회는 그녀의 말을 믿어주었을까? 지금도 경악할만한 성매매 강요와 성착취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는 피해자를 피해자와 피해자 아닌 자를 구분하고, 성매매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심지어 오히려 피해자를 낙인찍고 비난하면서 성매수자와 알선업자에게는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사건이 경악스러운가? 소위 말하는 '단순 성매매'란 없다. 이번 사건이 가능했던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가스라이팅 때문이라고 한다. 많은 성매매는 가스라이팅을 근간으로 한다. 알선업자가 피해자에게 가하는 가스라이팅 이전에 우리 사회 전체의 가스라이팅이 있다. 청소년에게까지 아무런 가책 없이 성매수하는 무수한 어른들과 이들이 지불하는 '돈'이 만드는 거대한 불법이윤은 가난하고 취약한 여성들을 "공주로 대접"해준다고, "쉽게 돈 벌게" 해준다고, "가족처럼 대우해준다"고, "당장 필요한 숙식과 돈"을 약속하며 거대한 성매매 시스템으로 유인한다. 이 시스템은 함정에 빠진 피해자를 때로는 가해의 공모자로 만들고, 이 함정에서 벗어나려 할 때 이 사회가 어떻게 응징하는지 보여주고 협박하고 통제한다.

「성매매방지법」이 이루고자 한 목표는 국가가 성매매를 방지하는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실행해 나가며, 성매매여성이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지·지원하는 것이었

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매매 수요차단이었다. 그러나 법의 목적과는 상반되게 수사기관들은 성매매여성을 범죄자 취급하고, 성매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성매매 알선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피해자의 삶과 존엄을 철저히 짓밟은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은 강력히 처벌되어야 한다. 3년간 피해자의 성을 착취한 2000명의 성매수자도 철저히 수사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피해를 호소하지 못하는 무수한 피해자들이 있고 피해를 피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수많은 성매매여성이 있다. 얼마나 끔찍한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자에게 묻고, 피해자가 증명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 성매매가 있었다는 사실이 바로 피해의 증거이다. 성매매여성은 성매매가 만드는 여성억압과 차별에 의한 구조적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고, 여성들이 자신의 피해를 당당히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피해를 고발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업주와 성매수자, 경찰에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협박을 받고, 처벌의 위험을 감수할 때에야 알선자와 성매수자를 고발할 수 있는 지금의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 지금도 계속되는 이러한 피해를 끝내기 위해서는 짧은 분노로 끝나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요청한 것처럼 또다시 피해자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 이는 성매매 알선과 강요, 성매수에 대한 강력한 차단 정책, 그리고 성매매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방지법의 개정이다.

성매매 강요하고 노예처럼 부린 가해자,
성매매 알선과 강요를 가능하게 한 2000명의 성매수자,
성매매가 가능한 사회를 만든 우리 모두가 이번 사건의 책임자다!
성매매 강요한 가해자, 성매수자 철저히 수사하여 강력 처벌하라!
성매매 수요차단 대책 마련하고,
성매매여성 처벌하는 성매매방지법 개정하라!

2023년 1월 19일
대구여성인권센터,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현장상담센터협의회

**[공동성명]**

**양성평등기본계획 승인하고 뒤집은 법무부,**
**국제협약 권고대로 비동의강간죄 이행하라**

법무부가 2023년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을 반대했다. "법무부는 소위 '비동의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며 반대 취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은 당일인 1월 26일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 바 있다. 법무부장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와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이다. 장관이 위원으로 소속된 위원회에서 의결한 계획을 법무부가 나서서 당일 반대하고 부정한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성평등 국가책무를 담고 범 부처의 책무를 체계화한 법인데 법무부는 이를 무시하고 나선 것인가?

같은 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을 말하면서 “여가부 폐지 명분이 증명됐다”고 발언했다. 법에 근거한 법치를 부인하면서 여당 국회의원이 부처 폐지를 다시 선동한 것이다. 오만과 권한남용이 법치를 넘고 있다. 이게 국가가 맞는가? 성평등을 책무로 하고 있는 국가인가? ‘여성가족부 폐지’ 선동 때와 똑같이 여성가족부는 여가부도 추진계획 없다고 9시간만에 번복했다.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은 피해자 중심 제도적 기반 구축 파트에 다섯 과제를 담았다. 형법 32장 제목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개정 검토, 형법 제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 검토, 성폭력처벌법에 피해자 과거 성이력 증거채택 금지조항 신설 검토, 성폭력처벌법상 온라인 성폭력 관련 조항 개정검토, 온라인상 성적괴롭힘과 메타버스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처벌 신설 검토다. 이는 모두 성폭력 피해를 심화하고 해결을 지연하는 현실을 기반으로, 오랫동안 문제분석과 대안논의, 연구가 있어온 절박한 의제다.

비동의강간죄는 20대 국회 시기, 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발의하여 5개 정당 10개 국회의원실이 대표발의했던 법안이다. 1953년 제정된 형법 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폭행 또는 협박’은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여야 성립되고 있다. 강간죄의 최협의설은 사실상 강간죄를 피해자의 저항유무를 심문하는 죄이게 해왔고, 이에 대한 비판은 오래된 법적 상식이다. 법원은 2005년 경부터 폭행협박 판단기준 완화를 판례로 실행해왔고, 2010년대 중후반 국회도 입법논의를 해왔다.

한국이 비준하고 있는 국제규약도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한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2006년 제2차, 2017년 제3·4·5차에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 제7차, 2018년 제8차 최종견해에서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여부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고, 배우자 강간을 범죄화할 것을 권고했다. 2021년 유엔인권이사회는 강간에 관한 입법모델(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국가는 강간 정의의 핵심에 동의 없음이 포함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민들의 삶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개탄스럽다. 성평등한 삶, 가족, 관계, 폭력으로부터의 자유와 안전, 성과 재생산의 평등한 실현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 정부는 지극한 방해물이 아닐 수 없다. 비동의강간죄는 일상권력과 성폭력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가 가고 있는 체계다. 한국만 퇴행하자는 선동을 멈추라. 법무부는 법부터 준수하라, 여성가족부는 범 부처의 성평등 책무를 이끌고 조율하라. 성평등 책무가 법치고 국가다.

2023년 1월 27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셰도우핀즈,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탁틴내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사)광주여성의의전화 부설 한울지기,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사)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사)수원여성의전화, 새움터, (사)인

권희망 '강강술래',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사)여성인권티움,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새움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한국여성상담센터,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사)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부설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사)경남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사)국제문화교육진흥원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사)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사)부산여성의전화성 · 가정폭력상담소, (사)생명과마음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사)생명의전화울산지부부설남구통합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전주성폭력상담소, (사)시흥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울산성가족상담소부설울산성폭력상담소, (사)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사)진해여성의전화부설진해성폭력상담소, (사)한마음부설한마음상담소, (사)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가정폭력 · 성폭력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북인권지원센터 부설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고양여성민우회부설고양성폭력상담소, 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김포성폭력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꿈터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천가족성통합상담센터,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동해가정폭력 · 성폭력상담소,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로뎀성폭력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밀양시성가족상담소, 벧엘성가족상담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부산성폭력 · 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 사단법인원선복지회부설평택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부설용인성폭력상담소,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서울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속초성폭력상담소 ·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아라리가족성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양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 · 성폭력통합상담소, 연천행복뜰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마음쉼터, 예산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 · 경북지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 · 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 · 성폭력통합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 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부설청주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부설충주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파주여성민우회부설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가족성상담센터,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여성인권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함께하는공동체부설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함평보두마상담센터, 해남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 · 성상담소, 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행복만들기상담소,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222개 단체

**[성명서]**

**군산 개복동 성매매 업소 화재참사를 기억하라.**

**우리는 달라진 세상을 원한다.**

**성매매 수요차단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을 멈춰라!**

2002년 1월 29일 오전 11시 50분, 전라북도 군산시 개복동 유흥주점 '아방궁'과 '대가'에서 불이 나 관리자 1명, 성매매여성 1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2000년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가 발생한지 불과 1년 4개월만이었으며, 거리는 500미터에 불과했다. 화재는 25분 만에 진압되었지만 피해는 컸다. 아방궁과 대가는 외부에서 보면 두 개의 업소처럼 보이지만 1층에는 연결통로가 있고 2층은 공용으로 사용해 사실상 하나의 업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은 2층으로 통하는 계단에서 의식을 잃고 뒤엉켜있던 14명과 2층 숙소에 쓰러져 있던 여성 1명을 발견했다. 아방궁과 대가의 성매매여성들은 1층에 모여 함

께 잠을 자고 있었고 건물에는 비상시 탈출할 수 있는 통로가 2층 창문과 비상계단이 유일했다. 1층 유리 현관문은 아방궁 1개, 대가 2개가 있었지만 특수 잠금장치를 한 문이어서 안에서 열 수 없었다. 밖에서 열쇠로 잠글 때 12시 방향으로 뽑으면 안에서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 수 있으나 3시 방향으로 뽑으면 문을 열지 못하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한 특수 제작 문이었다. 유일한 탈출구인 2층 비상계단도 열쇠가 있어야만 열 수 있는 특수 제작된 문이어서 탈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군산시와 경찰은 합동브리핑에서 참사의 책임을 여성들에게 돌렸다. 당시 군산시장은 "새벽까지 함께한 음주로 인해 일어난 사고"라고 설명하며 "창호와 탈출구가 밀폐되어 발생한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사고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해당 업소 업주는 2000년 9월 이미 성매매와 감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벌금형에 불과했기 때문에 명의를 달리하여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해 왔다. 그리고 화재현장 50미터 거리에 개복파출소가 있었다. 정부는 2000년 대명동과 2002년 개복동은 다르다고 강조했지만 변한 것은 없었다.

2004년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성매매 알선 등 착취구조를 근절하고 성매수 행위를 처벌하여 수요를 차단하고 여성 인권 관점의 성매매여성 탈성매매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는 〈윤락행위등방지법〉 시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획기적인 변화였다. 성매매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의 한계는 분명했다. 성매매 착취의 명백한 피해자인 성매매여성을 여전히 '성매매 행위를 한 자'로 규정하고 성매수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비록 '성매매피해자' 규정이 신설되었지만 법적으로 피해자 인정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성매매여성은 '강제'와 '자발'의 이분법에 갇혀 성매매의 강제성을 입증했을 때에만 온전히 피해자로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이제 피해자는 없으며 성매매여성은 자발적으로 성매매 한다고 주장한다. 마치 2002년 개복동 화재참사 당시 이제 감금 성매매는 없다, 자발적 성매매여성만 있다고 한 주장들에 기시감이 든다. 과연 이제는 다른가?

성매매는 착취를 근간으로 한다. 착취의 방식만 눈에 보이던 쇠창살, 자물쇠, 특수 제작된 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진화한 것뿐이다. 그럼에도 군산 화재참사 전과 후에도 착취는 없다고 했으며, 현재도 착취는 없다고 한다. 성매매피해자는 없으며 자발적 성매매여성만 있다고 한다.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여전히 거대한 성산업이 존재하고 성매매 착취구조가 존재한다. 수많은 여성들이 이 성매매 착취구조로 고통 받고 있다.

우리는 달라진 세상을 원한다. 성매매로 착취되고 고통받는 이가 없는 세상을 원한다. 우리가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를 기억하는 이유다. 그리고 성매매 착취 구조의 해체는 성매매 수요차단과 성매매여성 비범죄화부터 시작이다.

2022년 1월 27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새움터, 수원여성인권 돋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 티움,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 [성명서] |
| --- |
| **불법 성매매를 용인하고 이권을 위해<br>시각장애인들의 권리를 짓밟아온 관련 협회와 단체의 행태를 규탄하며,<br>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br>안마시술소의 성매매를 묵인 방조해온 보건복지부는<br>종사자의 성병검사 항목을 삭제하고, 성매매 착취 카르텔 해체하라!** |
| 최근 “안마사협회가 성매매 유착”이라는 제목으로 “대한안마사협회가 불법 성매매를 하는 안마시술소를 통해 이권을 챙기고, 어려운 시각장애 안마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수십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제멋대로 쓰고 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MBC,2023.02.06.). 2021년 3월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매매 안마시술소를 막아주세요’란 제목으로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의 입을 틀어막는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으며 “안마가 더 이상 성매매 범죄조직의 막대한 범죄수익의 총알받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담긴 글이 올라온바 있다. 이 게시글에서도 위 기사의 내용과 동일하게 안마사와 시각장애인의 협회를 자처하며 “성매매 업소 개설권, 허가하는 경유권 행사, 즉 성매매 업소 보증인 역할을 중단”해야 하며, 이러한 행위가 오히려 안마사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었다.<br><br>한국의 대표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안마시술소’를 입력하면 “청소년에게 부적합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알리며 성인인증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안마시술소를 설명하는 대부분의 페이지에서 “안마시술소는 100% 성매매를 하는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안마시술소를 광고하는 이미지들에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노골적인 내용들이 담겨있다. 관련한 뉴스의 내용 또한 성매매 단속에 대한 것이 대부분으로 지난 해 한 기사에서는 5층짜리 건물 전체를 안마시술소로 운영하며 성매매영업을 하며 코로나 감염사태로 모든 자영업이 힘들었던 2년여의 기간 동안 최소 38억의 수익을 챙겼다고 한다.<br><br>안마시술소의 성매매 불법영업은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던 2004년에도 이미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이었고, 당시 '안마시술소'는 여성들이 성매매 피해를 호소하는 주요 업종이었다.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했던 많은 여성들은 그곳이 얼마나 착취적이었는지 수없이 고발해왔다. 24시간 대기하며, 업소가 요구하는 착취적 형태의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해 성매매를 해야 하는 곳이었다. 영화에 등장하는 안마시술소는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사람들에게 ‘안마시술소’는 성매매업소로만 각인되어왔던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19조(건강진단) “성매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에 따라, ‘안마시술소 종사자’는 3개월에 1회 매독검사, 6개월에 1회 HIV검사, 3개월에 1회 그 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를 받아야 한다.<br><br>기사에도 쓰고 있듯이 안마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으로 나뉜다. 안마사는 의료유사업자로 분류되어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안마시술소’는 안마실이 5개 이상의 대형시설을 말하는 것이며, ‘안마원’은 칸막이가 없 |

는 소규모 시설을 말한다. ‘안마원’은 2002년 의료법 개정으로 설립근거가 마련되어 2003년부터 영업을 해오고 있다. 대형 업소인 ‘안마시술소’를 불법성매매 업소로 인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던 그간의 상황들은 전문인으로서 일하는 시각장애인들, 작은 규모이지만 실질적인 안마를 받을 수 있는 곳인 안마원의 운영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밖에 없었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과 사회권 등 인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것이다. 또 이런 상황에 저항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있었음에도 관련 협회와 단체들은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면서 소수의 이권을 위한 행태를 이어왔다.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핑계로, 오히려 그들의 생존권을 이용해 성매매 업소 방어막이 되게 하고, 불법 이익을 챙겨왔던 안마사협회 및 관련자들을 규탄한다. 그리고 이를 방조해온 정부와 행정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불법 성매매를 자행해온 안마시술소 영업행태와 불법이익의 착취 카르텔을 형성해온 협회와 알선업자들에 대해 엄정 수사하여 처벌하고,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하라.
2. 안마시술소 종사자에 대한 ‘성매개 감염병’ 검사를 법으로 규정하여 성매매·성착취를 승인하고 성병관리를 해온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2월 8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새움터, 수원여성인권 돋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 티움,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공동성명]**

**법무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지 말라**

**: 법무부의 성폭력 법률 개정 과제에 대한 악착같은 ‘모두 반대’ 규탄한다**

법무부는 2023년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 중 〈형법상 강간죄 개정 검토〉과제를 ‘반대’ 한다며 좌초시켰다. 같은 날 UN 제4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한국 정부는 “형법상 강간죄개정 권고받은 바를 이행하고 있는가?”, “강간죄 규정이 좁은데 피해자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다’며 국제인권 수준에 못미치는 현행 강간죄에 대한 개정 의지가 없는 것은 국회인 것처럼 답했다. 〈형법상 강간죄 개정〉 과제에 대해 검토가 아니라 개정 반대라고 극구 강조한 것은 법무부 였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2023년 2월 10일자 기사에 따르면, 언론 기자의 질의에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5개 과제를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5개 과제는 무엇인가. 1)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 2) 형법 제32장 제목 ‘강간 및 추행의 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개정 3)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

해자 과거 성 이력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 금지하는 조항 신설 4) '성적수치심' 용어 개정 5) 메타버스 등 온라인에서 사람을 성적 대상화 해 괴롭히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신설이다. 두 번째 과제의 현실성과 필요성은 한동훈 장관도 지난 2월 8일 제403 국회 제4차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죄 라는 것을 인정했다. 세 번째 과제는 19세미만 진술녹화 증거능력 위헌 결정 이후 법무부가 입법예고 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과정에 대한 법률개정에서도 다뤄지고 있는 필요성이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과제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에서 권고했던 개정과제다. 첫 번째 과제인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하지만, 앞선 대정부 질의에서 법무부 장관은 "동의 없는 성관계는 당연히 범죄입니다" 라고 하였고 이는 강간죄 개정의 근본적인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법무부가 성폭력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본분으로 둔 이상, 당연히 견지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미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던 성폭력 법률 개정과제의 현실성과 필요성을 모두 무시하고, 배척하고, 삭제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법무부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성폭력 무고죄 강화'는 검토하면서, 오랜 현실 변화를 반영하는 '형법상 강간죄 개정'은 검토조차 두려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5개 과제는 법무부의 '검토 조차 반대'라는 입장으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의 이러한 행보는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할 뿐 아니라 "폭행·협박을 수반하지 않은 기습 추행이나 강요, 지위 이용 등의 상황에서 성추행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강간(강간미수 포함) 피해 역시 폭행·협박이 없는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정부 조사에 기반한 현실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게다가 법무부의 비논리적 성폭력 법률 개정과제 '모두 반대'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주요 국가 과제를 '갈등을 조장하는' 과제로 전락시키고 있다.

일례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법무부의 이러한 문제적인 입장을 지적한 국회의원들은 남초 커뮤니티에 좌표가 찍히고 갈라치기와 조리돌림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유죄율 90%는 낙인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고소한 피해자들에 국한된 것', '비동의 강간죄 개정 논의는 20년 동안 멈춰있었던 논의', '성폭력 판례들이 동의여부를 묻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가' 등 성폭력 현실을 적확하게 짚으며 질의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법무부 장관과 친하냐"는 진영논리에 입각한 공격을 받는다. 피해자 의사에 반했음에도 최협의의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판결 현실을 짚으며, 지난 대정부 질의에서 비동의 강간죄를 피고인에게 입증책임을 돌려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는 법으로 규정지은 한동훈 장관 발언을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법 전문가한테 예의없다"는 공격을 받는다. 법무부가 쏘아올린 '검토 조차 반대' 라는 입장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에 기반하고 그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편파적이고 갈등에 의존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다.

법무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지 말라. 대검찰청 2021년 범죄분석 통계 25,131건의 성폭력 사건에서의 피가해자 관계는 타인 59.1%, 고용관계 1.8%, 친구 등 9.0%, 애인

5.4%, 친족 3.0%, 이웃지인 14.9%으로 분류됐다. 수사기관에 접수된 성폭력 사건 현황과 달리, 현실에서는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84.2%로 대다수이며(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직장 내 위력 관계, 친밀한 관계, 친족-가족 내 성폭력 피해자들은 여전히 법의 문턱을 제대로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현실을 바꾸어나가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실을 호도하지 말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제 역할을 다하라. 시작에 불과한 변화의 요구, 이미 시작된 변화의 요구를 가로막지 말라. 다시 한번 요구한다.

-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하라
- 형법 제32장 제목 '강간 및 추행의 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개정하라
-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과거 성 이력 증거 채택을 금지하라
- '성적 수치심' 용어를 폐기하라
- 메타버스 등 온라인에서 사람을 성적대상화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라

2023년 2월 21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셰도우핀즈, 장애여성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탁틴내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상담센터, 한국여성의전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사)광주여성의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사)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사)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사)수원여성의전화, 새움터,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사)여성인권티움,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새움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한국여성상담센터,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사)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부설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사)경남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사)국제문화교육진흥원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기장열린상담소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사)법률구조법인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아산지부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사)부산여성의전화성 · 가정폭력상담소, (사)생명과마음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사)생명의전화울

산지부부설남구통합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전주성폭력상담소, (사)시흥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사)울산성가족상담소부설울산성폭력상담소, (사)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사)진해여성의전화부설진해성폭력상담소, (사)한마음부설한마음상담소, (사)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가정폭력 · 성폭력상담소,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북인권지원센터 부설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고양여성민우회부설고양성폭력상담소, 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인권센터부설군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김포성폭력상담소, 김해성폭력상담소, 꿈터성폭력상담소, 나주여성상담센터,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부설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 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천가족성통합상담센터,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동해가정폭력 · 성폭력상담소, 로뎀나무상담지원센터, 로뎀성폭력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밀양시성가족상담소, 벧엘성가족상담센터,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부산성폭력 · 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가정통합상담소, 부여성폭력상담소, 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사단법인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 사단법인원선복지회부설평택성폭력상담소, 사람과평화부설용인성폭력상담소,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서울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서천성폭력상담소, 서초성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속초성폭력상담소 ·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아라리가족성상담소,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안양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 • 성폭력통합상담소, 연천행복뜰상담소, 영월성폭력상담소 마음쉼터, 예산성폭력상담소,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레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대구 · 경북지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 · 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제천성폭력상담소, 종촌종합복지센터가정 · 성폭력통합상담소,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 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여성의전화부설청주성폭력상담소, 충남성폭력상담소,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주생명의전화부설충주성폭력상담소, 칠곡종합상담센터,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파주여성민우회부설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가족성상담센터, 포항여성회부설경

북여성통합상담소, 필그림가정복지통합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하동성가족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여성인권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함께하는공동체부설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함안성•가족상담소, 함평보두마상담센터, 해남성폭력상담소, 행가래로의왕가정 · 성상담소, 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 행복만들기상담소,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222개 단체

**[연대성명]**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을 훼손하고**

**성차별적 이중구조를 고착하는 주당69시간 개악안을 철회하라!**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1주일 단위인 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를 노사 합의로 '월·분기·반기·연'으로도 관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주당 64~69시간 노동이 가능해 진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어 노동자를 회사에 붙잡아둘 수 있는 시간은 최대 13시간이 된다. 24시간 중 나머지 11시간은 연속휴식이라 하지만 식사와 수면, 출퇴근도 모자란 시간이다. 이렇게 주 6일을 일하면 주당 69시간 노동이 완성된다. 더군다나 휴일근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주7일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일해야 하는 시간은 주80.5시간까지 늘어나게 된다. 현재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노동시간 기준은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또는 '발병 전 4주 연속 주 64시간'이다. 과로사에 최적화된 노동시간이다. 역설적이게도 이정식 장관은 본 제도에 대해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노동자의 선택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심각한 건강에 대한 위협'이며 '휴식없는 삶'을 만들기 위한 악마의 계략이다. 3.8세계여성의날을 앞두고 있지만 이 지독한 장시간 노동이 여성들을 얼마나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

장시간 노동은 여성에게 더욱 가혹하다. 장시간 노동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그림자 노동을 전제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돌봄노동은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다.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 아래서 장시간 노동 강화는 결국 여성의 돌봄노동을 함께 강화한다. 사회는 여성을 늘 돌봄 전담자로 배치했다. 장시간 노동을 하는 남성을 가장으로 호명하고 떠받들도록 요구해 왔다. 그래야만 가정 내의 위계가 만들어지고 가부장적 질서 속에 자본의 착취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장시간 노동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 위계는 공고해 진다. 남성들은 장시간 노동 탓에 돌봄의 책임이 면제되고 권리가 박탈된다. 모든 돌봄노동은 여성의 몫이 된다. 성별화된 이중구조인 노동시장 내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는 더욱 강화된다.

이 제도 아래서 여성 역시 장시간 노동을 요구받게 된다. 하지만 늘어난 돌봄노동과 임금노동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의 돌봄노동 전담과 직장의 포기를 합리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도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결국 여성노동자들은 시간제와 같은 비정규직의 더 취약한 일자리로 이동하게 된다. 여성의 독박 돌봄노동은 더욱 강화되면서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까지 견뎌내야 한다. 이는 현재 채용과정에 있는 여성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다. 회사는 모든 여성이 미래의 돌봄전담자가 될 것을 가정한다. 장시간 노동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 여겨지는 여성은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을 차단당한다. 이렇듯 남성중심의 장시간 노동체제는 여성의 삶의 주권을 박탈한다.

유연해진 노동시간 정책이 사용자의 뜻에 따라 특정 주, 특정 일에 쏠린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에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총량 관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하고,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하는 등 직·간접적인 장치를 통해 장시간 근로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근로자 대표제를 정비할 뜻을 밝히며 "근로자 대표의 선출·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등 근로자 대표의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다양한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다수 여성노동자가 노동조합조차 없는 미조직,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일한다. 철저히 '종속관계'인 일터에서, '연장근로 총량관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하고,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한다며 장시간 근로를 방지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말은 허울뿐인 말장난에 불과하다. 결국 대다수의 여성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대로 장시간노동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노동자는 인간이다. 인간의 삶은 임금노동과 잠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노동자이자 돌봄자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있다. 정부는 적정 노동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꾸리고, 서로를 돌보고 돌봄을 받으며,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변화를 고민하는 시간과 공간을 가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지금도 여성노동자들은 시간빈곤자로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 무엇을 더 보탠다는 말인가. 이정식 장관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고 자평했다. 부끄러움은 왜 시민의 몫인가. 수치를 모르는 자평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과로사와 가부장제 강화를 부르는 제도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노동에 대한 착취와 여성에 대한 수탈이 아니라 임금 하락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시간주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이 아닌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시간주권을 보장하라!

2023년 3월 7일

여성노동연대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여성노동조

합 대전충청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 고양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수원여성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한부모연합

**[논평]**

**성착취 피해자가 아동학대 가해자로, 이 비극은 누구의 책임인가**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영양결핍에 시달리던 네 살 아이가 폭행 끝에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가해자는 아이의 친모로, 여성이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 지인 부부의 집에서 거주하게 된 지 2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지난 3월 19일자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아이의 친모는 동거 중이던 지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받았다고 한다. 성착취 피해자인 여성이 결국 학대와 방임, 폭력으로 눈까지 먼 딸아이를 숨지게 한 가해자가 된 것이다. 한 아이의 생명이 꺼져갈 때까지 누구도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 그리고 아이에 대한 학대와 폭력을 막지 않았다. 묻고 싶다. 학대와 폭력의 연쇄고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이 학대와 폭력을 끊는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20대 여성이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올 정도의 극한 상황에 몰렸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과 불화, 이에 따르는 아이에 대한 방임과 학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집을 나와 고립된 상태의 여성은 자신과 딸을 위해 살 공간을 내어 준 지인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했다. 지인은 여성과 아이의 생존을 볼모로 성적인 착취를 강요하며 포주노릇을 했다. 하루에도 수차례 이루어진 성적인 착취의 결과로 2년 동안 1억 2천만 원의 돈이 지인에게 흘러갔다. 무엇보다도 성구매자들은, 여성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극단적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휴대전화 앱에서, 손만 뻗으면 돈을 지불하고 사람의 몸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을 가능케 만들었다.

성별에 기반한 젠더 폭력의 연속적인 과정 속에서 한 인간의 생존과 존엄은 유지될 수 없었다. 착취와 폭력에서 살아남고자 애썼던 피해자인 여성은 돈벌이 수단이자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되었고, 결국 최종적인 가해자가 되었다. 부모와 사회의 사랑과 돌봄이 누구보다도 필요했던, 너무나도 어리고 약한 생명이 최종적인 피해자가 되었다. 돌봄의 부재와 여성가장 생존의 문제가 아동학대와 성착취라는 비극으로 이어지는 현실, 피해를 입은 약자가 더 어리고 취약한 약자에게 가해를 저지르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참담하다. 비극적인 폭력과 학대의 사슬을 끊기 위하여 우리 사회는 그 무겁고 엄중한 책임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돌봄 부재와 여성가장 생존의 문제가 아동학대와 성착취라는 비극으로 이어진 구조적 사건이다. 여성에게 가해진 성 착취는 전형적인 성별에 기반한 젠더 폭력의 결과이며, 돌

봄과 생존이라는 당연한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 더 취약한 아동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또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에 이어 성착취까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망을 강화하고 공공 아동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은 물론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 착취 등 젠더폭력 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은 사회관계망서비스와 휴대전화 앱을 통한 성구매가 얼마나 일상화되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만연한 성구매는 여성의 몸을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취급하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그 결과는 심리적 지배에 따른 가혹한 착취로 이어졌다. 언론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아이의 죽음에 성매매가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성구매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성 구매를 통한 착취가 한 개인에게 미치는 심각성 또한 이번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또한 정부는 만연한 성구매를 차단하기 위한 수요 차단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2023년 3월 22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성명]**

**'벗방' 피해자의 용기를 지지하며 정부는 '벗방' 산업을 철저히 조사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벗방'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고발하였다. 피해자는 3명의 가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협박, 불공정 계약, 강제 '벗방' 출연 등 약 1년의 기간동안 성착취 피해를 당하였다. 피해자는 "일반 토크 방송이다", "시청자와 소통만 하면 된다"는 호스트의 설명을 듣고 인터넷 방송의 게스트로 출연하기로 하였으나 방송이 시작되자 호스트가 권하는 '맥주'를 먹고 정신을 잃고 강제추행 당하였으며 이것은 그대로 방송되었다. 이후 호스트의 협박으로 '벗방' 엔터와 계약을 맺고 약 1년간 감시와 협박 속에서 '벗방'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주 6회, 일 8시간 '벗방'을 하여야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억 8천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협박을 받았다.

피해자의 호소 내용은 실로 참담하다. 피해자를 속이고 협박하여 성착취 '노예'로 만들고 금전적 이득을 얻은 이번 사건은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과 너무도 닮았다.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가해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더욱 참담하고 분노스럽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송출 되었고 시청자들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강제추행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포인트를 선물하며 가해행위에 동참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악랄하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의 존엄이 회복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벗방' 산업의 성착취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1월 12일 뉴시스 기사에

따르면, ‘벗방’ BJ가 엔터 대표를 벗방 강요 및 사기로 고소하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되었다고 한다. 경찰은 강요와 사기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경찰에 보강 수사를 지시하지 않은 채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비단 이 사건뿐만이 아닐 것이다. ‘벗방’ 산업의 피해자들이 무수히 수사기관의 문을 두드렸으나 “사건이 되지 않는다”, “증거가 없다”, “당신이 동의한 것이 아니냐” 등의 말을 듣고 사건을 포기하거나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벗방’ 산업으로 인한 피해는 지속되며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벗방’ 산업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돈이 필요한 피해자를 속여 유인하고, 강제 또는 여러 수단을 통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맺어 ‘벗방’을 하도록 강제하는 구조 말이다. 이러한 방식이 일부의 일탈인지, ‘벗방’ 산업의 일상화된 구조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벗방’ 산업 자체가 거대한 성착취 산업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 또한 또다른 ‘벗방’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도 자신을 드러내고 피해를 호소한 이유를 다른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피해자의 용기를 지지하며, 피해자의 용기가 빛바라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화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착취 산업 피해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벗방’ 산업 또는 여타 형태의 성착취 상황에 놓인 피해자가 계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단체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혼자 자책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지원단체 또는 주변의 도움을 꼭 요청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023년 3월 22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공동성명]**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뭉치는 일본 콜라보를 지지하며 버스 카페 운영 중단을 결정한 도쿄도를 규탄한다.**

우리는 도쿄도와 신주쿠시, 젊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지지를 구하며, 콜라보 버스 카페의 지속적인 운영을 요구한다.

콜라보는 가정 폭력이나 빈곤 등의 이유로 집에 갈 수 없는 10대 소녀들을 지원하는 일반 사단법인이다. 2018년 10월부터 콜라보는 신주쿠 시청 밖에 버스를 배치해 어려운 여성 청소년에게 음식, 옷, 생리 용품 등 필수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위험으로부터 여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밤에 거리를 순찰하고 여성 청소년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어른들과 연결하는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 4월부터, 후생노동성과 도쿄도는 ‘젊은 여성 피해자 지원사업’ 형태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 8일 사이에, 수많은 남성들이 난동을 부려 사업을 방해했고, 법원은 신주쿠 시청 600m 이내 접근금지와 방해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도쿄도에서 이 사업을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이슈를 빌미로 사실상 버스 운영 중단을 요구해왔고, 현재 3월 22일 이후 운영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2018년에 사업을 운영한 이후로, 버스 카페는 3,500명 이상의 여성 청소년이 이용했고, 야간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통해 15,000명이 넘는 거리 여성 청소년들과 만날 수 있었다. 예컨대 3월 1일에는 48명의 여성 청소년들이, 3월 8일에는 37명의 여성 청소년들이 버스 카페를 이용했다. 많은 여성들이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버스 카페를 이용할 수 있었다. 콜라보가 버스 카페를 운영할 수 없다면, 여성 청소년들은 밤 거리에 버려지게 된다. 우리는 도쿄도와 신주쿠시에 버스 카페 운영 중단 요구를 철회하고, 4월부터 신주쿠시 시청 밖에서 버스 카페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콜라보는 안전하게 집에 머물 수 없는, 공공 복지 지원이 부재한, 성착취 피해자인 여성 청소년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수년간, 신주쿠 가부키초 지역에서는 이익을 위해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다양한 방법이 고안되었고 지속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성착취 업소(Brothel) 운영자와 관계자들은 여성 청소년들에게 숙소나 일을 제공하며 접근한다. 여성 청소년에게 높은 보수를 요구하며 성적 거래로 끌어들이는 업주, 남성의 지하아이돌(underground idol), 남성 콘카페 등도 있다. 콜라보의 카페 버스와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잔인하고 잔혹한 세상으로부터 여성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콜라보는 업소 운영자와 관계자가 여성 청소년에게 접근하기 전에, 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과 숙소를 제공하고, 다른 필수품을 제공하고 있다. 콜라보에 대한 반대는 근거없는 루머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는 여성 혐오와 연결되어 있으며, “좋아요”와 같은 형태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이들의 배출구가 되고 있다. 나아가 유튜버를 통해 대량 생산되고 있고, 차별을 통해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후보에 의해 사회적 현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성-차별 비즈니스 모델이다. 루머, 근거없는 공격, 구경거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성착취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네트워크, 기반, 신뢰 관계를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여성 청소년들이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는 여성 청소년들을 성착취로 몰아넣는 사회적 환경에 변화를 주고자 한다. 우리는 정부, 행정 기관, 사회가 여성 청소년들이 거리에서의 삶과 성착취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버스 카페 운영을 중단함으로써 이러한 방해에 굴복하는 것은 공격자들에게 성공의 맛을 줄 것이다. 이는 콜라보 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 지원 단체에게도 더 많은 공격을 하도록 이끌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도쿄도와 신주쿠시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1. 버스 카페 운영 중단 요구를 철회하라!
2. 4월부터 신주쿠 시청 밖에서 버스 카페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
3. 콜라보 활동에 대한 방해에 굴복하지 말고, 젊은 여성 피해자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보호하라!

| [공동성명] |
| --- |
| **법무부는 성범죄 무고 수사 골몰하지 말고, 성폭력 수사부터 제대로 하라.** |

지난 3월 6일 한 언론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이 불송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직접 보강수사를 강화해 무고 범죄를 엄벌'하고 있다는 사실이 성폭력 무고 사례들과 함께 보도되었다. 해당 검사는 "여성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성폭력 사건은 특성상 상당한 의심이 들어도 수사가 어려운 영역" "검찰은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무고 범죄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어떤 성폭력 범죄도 피해자 일방적 진술만으로 유무죄를 판단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경우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실이 성폭력 수사재판에 만연한 것처럼 말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사법질서를 해치는 무고 건을 가려내는 것인가,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 불신', '여성 의심' 편견과 통념을 유포하겠다는 것인가. 검찰이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과 피해자들의 진술을 허위라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해당 검사의 적극적인 기소는 검찰의 입장인 것으로 확인된다. 2월 14일 검찰청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검찰은 2022년 하반기 '위증 무고 등 사법질서를 왜곡하는 거짓말범죄'에 대해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하여 엄단한 결과 결과 무고 사범 입건수가 대폭 증가하였다'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의 성과로서 증가된 무고 입건 수와 사례를 제시했다. 이 배경에는 2021년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둘러싼 정치적 싸움이 있다. 두 차례에 걸친 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차례대로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범죄), 2022년 5월에는 2대 범죄(부패 경제범죄)로 축소되었다. 2022년 6월 법무부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검사들은 해당 법 개정이 헌법적 권한인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며 법개정을 통한 수사권 조정이 문제가 없음을 결정하였다. 그 사이 2022년 5월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접 수사 범죄 범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규정된 부분을 활용하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나섰다. 다시금 공직자, 선거 관련 범죄 일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로 포함되었으며, '중요범죄'이자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무고'가 포함되게 되었다. 검찰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자마자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죄 중에서도 무고와 위증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 인지수사 및 기소하였고, 지난 14일 '검수완박'에 맞선 '검수원복' 개정의 '성과'로 성폭력 무고 적발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이다.

보도자료에서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 은폐하여 피해자를 양산하고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증 및 무고 범죄를 엄단하여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무고죄를 제대로 걸러내야만 진짜 성범죄 엄벌이 가능해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검찰수사권 문제만이 배경인가? 윤석열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성폭력 무고죄 강화'를 소위 청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110대 정책과제에도 관련 정책을 포함했다. 검찰이 집중 수사 및 기소한 것은 성폭력 무고에 국한되지 않

고 무고 범죄 전반에 대한 것이나, 성폭력 무고는 다른 것보다 더욱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되고 주목받고 있다. 핵심 성과로 제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 신고 중 무고가 많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여성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폭력 유무죄가 판단된다', '대다수의 성폭력 사건이 신고하기만 하면 유죄 판결을 받는다', '성폭력 무고때문에 현재 억울한 가해자가 대거 양산된다' 라는 강력한 통념이 그 환경이다. 통념은 대통령, 정치인, 정당, 변호사, 검사, 언론 등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거듭 공신력을 확인하며 만들어져왔다.

2017~2018년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연구원이 살핀 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에 비해 성폭력 무고로 기소된 경우는 0.78% 에 불과하다. 성폭력 가해 지목자가 무고죄로 역고소 한 경우에도, 84.1%는 불기소 처분이었다. 경찰이 불송치한 건에 대해 무고인지 아닌지 직접 보강수사하여 인지하고 기소한 것을 홍보하는데, 검찰은 무고수사를 홍보하기 이전에 여성폭력에 대한 수사, 기소,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2022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 중 불송치 처분된 성폭력 사례를 분석한 결과, 피해유형으로는 '강간'이(52.9%), 피가해자관계로는 '친밀한관계에서'(29.4%), 처분의 이유로는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이 작용하여'(32.4%) 가 가장 많았다. 강간으로 수사기관에서 인정되려면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만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데 여러 이유로 강력한 저항을 하지 못한 경우 불송치, 불기소 되는 경향이 이번 상담통계에서도 확인되었다. 2019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담 분석에 따르면 71.4%가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이다. 협소한 강간죄 규정으로 인해 대다수의 성폭력 사건들은 수사기관에서 인정이 안될 수밖에 없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가해자들의 적반하장 무고 고소를 부추기고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침묵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2019년 성폭력 사건의 무혐의, 무죄가 무고의 근거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검찰은 2018년 수사 매뉴얼을 개정하여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료된 이후 무고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흐름에도 역행한다. 무고가 중요 범죄로 사법질서를 교란한다고 본다면, 성폭력 무고 불기소 처분 결과가 84.1%에 이르는데 형사법체계를 왜곡하는 것은 오히려 성폭력을 했음에도 무고로 고소하는 가해자 아닌가?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무고로 역고소 함으로써 형사법체계를 교란하는 가해자를 인지하여 기소하고 있는가?

법무부는 검찰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정치적 싸움에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더불어 대통령의 반여성적 공약을 시도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고 의심, 인지수사를 '활용'하지 말라. 법무부가 먼저 해야할 일은 성폭력 수사와 기소를 제대로 하는 것, 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 현재 공백상태인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초기 진술 제도 확보다.

2023년 3월 30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새움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경남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수원여성회, 울산여성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탁틴내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제주여민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장애여성공감, 한국한부모연합,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전화

**[공동성명]**

**성평등과 여성인권 빠진 민주화운동, 민주주의는 없다**

**- 박원순 전 서울시장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 이장 소식에 부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를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으로 이장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은 비서를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마자 해명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본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통해 성희롱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유족측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고, 2022년 11월 1심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그동안 피해자는 끊임없는 2차 피해에 시달려야만 했다. 성폭력 문제제기에 대한 부정은 박 전 시장 지지자와 유족의 일관적인 행보였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와 조력자에 2차 피해를 가하는 일부 지지자들의 행위는 기록적이었다.

이번에는 '민주열사' 묘역으로의 이장이다. 이 행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새삼 궁금하지 않다. 성폭력 문제제기 이후 훼손된 '명예'의 복구를 민주진보의 이름으로 실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묻는다. 민주열사 묘역 안장 기준은 무엇인가, 무엇이 민주화운동인가, 민주화운동에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성평등은 의제가 아닌가, 이는 누가 판단하고 누가 결정하는가.

박 전 시장 사건은 우리 사회에 소위 진보진영의 성인지 인식과 실천에 대한 근본적 성찰의 필요성을 던졌다. 사건 발생 3년이 되어가는 지금은 그 필요성에 얼마나 응답했는가 돌아보고 점검할 때다. 이에 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려 하는 이들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만들어온, 이에 조응한 우리 사회 성평등의 가치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움직임은 결코 거스를 수 없다. 무의미한 행보로 피해자에 2차 피해를 가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23년 3월 30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거창여성회,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노동당 학생위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주의그룹 나쁜페미니스트,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회, 부천여성의전화, 불꽃페미액션, 사회복지법인 새길공동체 해봄터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성남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주여성의전화, 정치하는 엄마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

**[공동입장문]**

**한국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을 반대하는 여성·시민단체 입장문**

- 한국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절대 반대한다.
- 대한민국이 전쟁 개입국가가 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 한국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전쟁의 장기화와 인명 피해를 증가시킬 것이다.
- 한국정부는 전쟁 피해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난민 인정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 한국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도록 외교적·평화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제(2023년 4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지원에 머물러 이것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분쟁 중인 나라 한쪽에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미 한국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수십만 발을 우회지원하고 있다는 추측이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얼마 전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전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미국의 도청한 유출 문서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도청에 대해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했다. 주권국가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다.

러시아 대통령궁에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전쟁에 일정 부분 개입하게 되는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연방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소셜 미디어에서 "우리의 적을 도우려고 열광하는 이가 등장했다. 우리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에 최신 무기를 제공한다면 한국 국민들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라고 경고했다.

반면에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우크라이나 국방연합그룹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것이다. 미국 방문을 앞두고 공개된 인터뷰에 대해 미국 정부가 환영 의사를 밝힌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나 한국정부의 의사결정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분쟁 국가 중 어느 한 편을 서는 것을 넘어, 전쟁이 지속되는 데, 그리고 어느 쪽이든 인명의 희생이 더 늘어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 역할을 담당하는 나라, 전쟁에 개입하는 나라, 전쟁국가가 되는 것이다. 한국정부에 지금 필요한 것은,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에 온 난민을 인정하고 돕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한국전쟁을 끝내지 못했다. 한국은 휴전 국가로서 우선 한국전쟁 종식을 위해, 그리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평화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처지에 다른 나라 전쟁에 무기를 제공하여 전쟁에 개입하고, 그 무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록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또 그 선택으로 한반도가 더 위험에 빠지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안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관료들은 전쟁하는 국가로 탈바꿈하는 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왜 이렇게 대통령이 외국 방문 전에 외국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대한 사안에 대해 발언하는지,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러시아의 반발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자세히 읽어보라"고 대답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우리가 바로 듣고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밝혀야 한다.

- 우리는 한국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 우리는 한국정부가 전쟁하는 어느 쪽이든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반대한다.
- 우리는 대한민국이 전쟁 개입국가가 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 우리는 한국정부가 전쟁 피해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난민에 대한 인정 등 평화에 더 기여하기 바란다.
- 우리는 한국정부가 두 나라가 평화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23년 4월 20일

한국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을 반대하는 여성·시민단체들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기장전국여교역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평화여성회, 부산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사)겨레하나, 경기평화교육센터, (사)어린이어깨동무, 수원평화나비, 우리학교시민모임, 윤석열정권심판서울시국회의,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통일맞이, 시민모임 독립,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몽당연필, KIN(지구촌동포연대), 창작21작가회, 통일로, 통일시대연구원, 평화아카데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1년 기자회견]**

**시민이 지켜낸 여성가족부, 걸림돌 장관은 빠지고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었다. 윤 정부는 출범 당시 국정과제를 통해 ‘상생’과 ‘공정’, ‘약자와의 동행’을 표방했다. 그러나 그 주장이 무색하게 지난 1년 사이 노동, 복지, 외교,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등 분야를 막론하고 전반적인 정부 정책과 기조가 심각하게 퇴행했고 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대선 시기부터 한국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성평등 전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추진하고, 국가 성평등 정책과 추진체계를 무화시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중앙 정부의 ‘여가부 폐지’ 기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추진체계 또한 축소되었고, 정부 정책에서 ‘여성’은 지워지고, ‘성평등’은 삭제됐다. 구조적 성차별을 해결해야 할 국가는 자신의 책무를 방기했고, 이는 곧 여성들의 노동, 교육, 경제, 정치, 돌봄 등 삶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어졌다.

한편, 윤석열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인 김현숙 장관은 인사청문회부터 꾸준히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하며 이를 추진했다. 이는 국가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최고 책임자로서,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구조적 성차별 해소를 위해 힘써야할 책임부처 장관으로서의 직무 유기에 다름 없다. 여성가족부가 독립 부처로 존재했기에 가져온 입법권과 예산편성권 등 실질적 권한이 축소되는 부처 폐지안에 대해 “지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업무는 축소되거나 약화되지 않을 것”(UPR, 유엔인권이사회 제4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본심의 당시 여가부 답변)이라며 사실을 왜곡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고 집행되던 ‘버터나이프크루’ 사업을 여당 국회의원의 전화 한 통으로 충분한 근거나 검토도 없이 중단하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위원회의 심의・확정 절차를 거쳐 발표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동의간음죄’ 개정 검토 과제를 번복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인하대 성폭력 사건, 신당역 여성노동자 살해사건과 같은 명백한 젠더 기반 여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젠더폭력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김현숙 장관은 “여성폭력이 아니”라며 구조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함을 드러냈다. 이렇듯 김현숙 장관은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를 부정하고 성차별을 여성과 남성 간 ‘젠더갈등’으로 틀 짓는 혐오정치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등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오히려 성평등에 걸림돌이 되는 행태를 보여왔다.
그러나 절망적인 퇴행 속에서도 시민들은 정부와 장관 주도로 여성가족부라는 국가 성평등 정책 추진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을 두고 보지 않았다. 수많은 시민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입장을 정부에, 국회에 전달하고 부처 폐지가 아닌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를 요구해왔다. 결국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안이 제외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가 한 차례 일단락되었다. 시민들의 힘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는 성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한국은 성격차지수 146개국 중 99위(세계경제포럼, 2022), 여성의원 비율 129위(국제의회연맹, 2022), 성별임금격차 OECD 국가 중 최고(31.1%, OECD) 등의 국제 통계가 말해주듯이 여전히 성차별이 만연하고, 사회변화에 따라 성폭력의 양상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이후 여성 고용은 열악해지고 비가시화된 돌봄노동은 여성에게 더욱 편중되고 있으며, 여성 및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성차별적인 한국 사회구조와 문화를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아니라 강화되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전담부처로서 기능과 집행력 강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 여성(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 강화, 누구나 돌볼 권리와 돌봄을 받을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는 돌봄 정책,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권리보장 강화 등 본연의 책무를 다하여 한국사회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성평등에 걸림돌이 되는 직무유기 여성가족부 장관 필요 없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퇴하라!
하나, 여성가족부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구조적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본연의 책무를 다하여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

2023년 5월 16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전국 902개 단체)

**[공동성명]**

**‘벗방’, 성차별적 사회 구조의 문제이다.**
**- 4월 25일 PD수첩 ‘위험한 초대장, 게스트 방송의 함정’ 방송을 보며**

2023년 4월 25일, MBC PD수첩에서 ‘위험한 초대장, 게스트 방송의 함정’ 방송을 통해, ‘벗방’이라고 불리우는 인터넷 방송에 대해 다루었다. 보도에서는 방송 내용을 속여 출연이 이루

어지고 폭행 또한 발생하는 '게스트 방송'을 고발했다.
인터넷 방송 제작자는 계약을 근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불공정 계약인 점을 짚고, 출연자의 동의 없이 녹화와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와 이에 대해서 또다시 계약을 근거로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다루었다.
이러한 '벗방'을 통해 제작자, 엔터테인먼트사, 플랫폼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고, 플랫폼에서도 수익이 되기 때문에 이를 방관하고 있으며, '음란물'임에도 규제방법이 없음에 대해 지적했다.

PD수첩의 보도는 '벗방'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 피해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반가우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흔히 '벗방'에 대한 반응은 성적 행위를 송출하는 여성 BJ들을 향한 혐오가 일반적이며, 문제의식이 있더라도 "음란물이기 때문에 문제이다"라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 보도 또한 '벗방' 중 기망을 통한 출연만 다루었다는 점에서, 일부 '진짜 피해자'만을 구분하고 그 외의 여성 BJ들을 향한 차별과 혐오는 여전할 가능성을 남겨두었고, '벗방'의 구조적인 문제는 빗겨갔다는 우를 범했다.

그러나 우리는 '벗방'에 대한 우리의 시선과 질문을 보다 깊이할 필요가 있다. '벗방'은 '음란'하기 때문에 문제인가? '벗방'은 여성 BJ들의 문제인가? 누가, 무엇을 위해 '벗방'을 시청하는가? 누가, 무엇을 위해 '벗방'을 생산하고 유통하는가?

여성의 신체와 성적인 행위를 송출하는 온라인 방송인 '벗방'은 대다수의 시청자는 남성으로, 남성 시청자들은 더 높은 수위를 요구하며 돈을 지불한다. 남성 시청자들이 '벗방'을 시청하는 이유는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의 신체 이미지를 소비하기 위함이며, 돈을 지불하는 이유는 해당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종속성을 획득하기 위함이다. 남성 시청자들이 '벗방'을 함께 시청하고 여성을 성적으로 통제하는 과정은 그들에게 '놀이'로서 작용한다.

'벗방' 제작자들과 엔터테인먼트사는 기망을 통해 여성들을 확보하기도 하고, 경제적 동기를 지닌 여성들을 유입하기도 하며 '벗방'을 생산하고 유통한다.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으며 플랫폼 또한 마찬가지로 수익을 얻는다. 이처럼 '벗방'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활용하여 통제하는 것이 남성들의 즐거움이 되고, 이를 통해 엔터테인먼트사와 플랫폼 등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며, 이들의 수익을 위해 여성을 향한 성적 통제의 장이 마련되는 온라인 성산업이다.

'벗방'은 '음란'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성적 대상화와 통제가 남성들의 놀이가 되는 성차별적 사회 구조의 반영과 재현의 문제이며, 이를 활용하여 수익을 착복하는 성산업의 문제이다. 여성 BJ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소비하고 생산하고 유통하는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문제이다. 이러한 구조적 성차별에 우리 사회는 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벗방'을 만들어내는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문제제기 해야 한다.

많은 여성 BJ들이 성적인 여성을 향한 혐오와 편견에 기인하여 비난받고 있는 현실에 문제제기해야 한다. 남성권력과 자본이 여성의 몸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가)'벗방'피해자공동지원단은 이를 위해 '벗방' 산업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다.

2023년 5월 18일
(가)'벗방'피해자공동지원단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공동성명]**

**한국 정부, 비동의강간죄 반대한다고 국제기구에 답변?**
**정부는 성평등 퇴행 백래시를 멈추고, 성폭력 법적 체계 개선에 나서라!**

한국 정부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반대한다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서면답변을 6월 6일 제출했다. CEDAW는 지속적으로 한국정부에 형법상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을 권고하고 있는 유엔 기구 중 하나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첫째 "성폭력 범죄의 근간에 관한 문제"이며, 둘째 "입증책임을 사실상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셋째 "여성의 의지나 능력을 폄하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맞다, 성폭력 범죄 근본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는 '정조에 관한 죄'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로 법과 인식의 방향이 바뀌어 왔음에도 여전히 형법 제297조에서는 폭행·협박을 강간 범죄 성립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피해자의 몫이다. 물리적 폭행 협박이 동반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수사사법기관은 피해자에게 그에 준할 만큼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가 있었는지 끊임없이 묻고 입증을 요구한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강간 상담의 71.4%가 명시적 폭행 협박 없는 사건이었다. 우리는 정부에 묻고 싶다. 정부는 현재 발생하는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착취가 여성의 의지나 능력이 없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가? 성폭력이 사회 구조적 성차별에 기반 한 폭력임을 간과한다면, 정부는 누구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한국 정부의 서면답변은 성평등 개선에 역행하는 '백래시'다. 3차 양성평등기본계획 상 '형법상 강간죄 개정 검토'가 결정되었음에도, 여당 관계자가 '무고죄가 많아진다'라고 선동했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성폭력특별법에 '무고죄' 신설을 공약한, 성평등 백래시 정부다.

유엔 인권이사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등 UN기구들은 한목소리로 성폭력 법적 기준을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 부재'로 수립하라고 권고한다. 이 와중에 어제 발표된 UN개발계획 젠더사회규범지수(GSNI)보고서에 따르면 조사한 38개국 중 한국은 성평등에 반하는 편견이 가장 많이 심화된 국가였다. 그럼에도 이를 개선하기보다 오히려 강간죄 개정 반

대 입장을 표명한 정부의 행태는 한국사회의 성차별을 더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시민들의 삶을 퇴행시키지 말라. 70년간 지속된 극심한 유형력, 극심한 저항만을 요구해온 성폭력 인식과 문화를 강화시키지 말라. 형법상 강간죄 개정 방해를 멈춰라. 시대적 변화에 나서라. 우리는 성평등이 증진되는 사회에서 평등한 성적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싶다.

2023년 6월 13일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등 240개 여성 ·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

**형법 297조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하라!**

1953년 형법이 제정되면서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가 명문화되었다. 2023년 현재 강간죄 관한 법은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되어 있다. 70년의 시간 동안 변한 것은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부녀"가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상대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사실은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70년간, 우리는 많이 변했다.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미투운동과 텔레그램 성착취 등을 지나며, 성폭력은 '폭행과 협박'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구조적 성차별 속에서 만연하게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의 문제임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의심받고, 부정당하고, 침묵을 강요받아도, 자신의 피해 경험을 발화하며, 다양한 피해 경험을 해석하고, 연대를 확장해 가며, '진짜' 피해자의 틀을 깨고 성폭력에 관한 상식을 만들어왔다.

2022년 진행된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는 '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 중 폭행과 협박이 수반된 경우는 전체 중 10% 미만이었으며, 대부분은 가해자의 속임, 갑작스러운 상황, 가해자의 강요, 가해자의 지위 이용 등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서 발생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2023년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가 진행한 '강간죄 개정 촉구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97%가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강간죄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강간죄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하였다.

70년의 긴 시간을 거쳐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 되었다. 그럼에도 1953년 제정된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이를 둘러싼 구조적 성차별은 모두의 상식을 쫓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욱 퇴행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서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반대한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모두의 상식과 변화 요청은 묵살한 채, 허상에 불과한 '무고죄' 증가를 미리 우려하며 무고죄를 강화하겠다고 한다.

폭행, 협박을 중심으로 한 현행 법체계는 이 협소한 정의에 맞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를 법 밖에 있게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해를 입힌다.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현행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성폭력 관련 법들을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성폭력이 반복되는 성차별 사회의 원인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요구한다.

'동의'는 이미 모두의 상식이 되었다.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개정하라!
가해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개정하라!
70년간의 낡은 굴레, 형법 제297조 강간죄를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개정하라!

2023년 7월 25일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및 여성시민사회 243개 단체
국회의원 권인숙, 류호정, 백혜련, 용혜인, 장혜영, 정춘숙,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공동성명]**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는 퇴행이다!**
**행정안전부의 성평등 정책 퇴행 시도 규탄한다!**

행정안전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개발추진단'은 지난 3일 진행된 1차 분과회의에서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노력'이라는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에 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모든 시·도가 해당 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의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모든 시·도가 달성했다는 목표치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이다.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지표'는 평가 실시율과 평가결과 도출된 정책개선 이행률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기준 모두 충족했을 때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실시율은 기존 전체 단위사업수의 1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올해(2023년) 실시율은 7%로 하향조정되었고, 정책개선 이행률 목표치도 최대치가 24%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높게 설정해야 할 목표치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정하고는 '변별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상황인 것이다.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 시도는 행정안전부 본연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성별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성별영향평가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성별영향평가의 본래 목적에 따르면 시행되는 모든 사업이 기준을 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

성했다는 이유로 지표를 삭제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성인지예산제도를 주관하는 부처이다. 때문에 관련 지표가 삭제된다면, 대상사업에 성별영향평가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성인지예산제도마저 그 실효성에 심각한 손상을 받을 것이다.

성별영향평가 지표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달성 목표치를 높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정책적 견인과 집행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합동평가 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 지표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는 '지표' 삭제가 아닌 달성 목표치를 높여 정책의 효과성을 이끌어야 한다. '성별영향평가 지표'가 합동평가 지표에서 삭제된다면 이미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정책 연구기능은 더욱 약화될 것이며, 그동안 지역에서 숱한 노력과 민관협력을 통해 이루어온 성평등 운동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계속되는 성평등 정책의 퇴행을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여성가족부 기능 마비와 정책 집행을 방기하고 있다. 현 정부는 성평등 관련 지표들이 명백히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을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 자체를 부인하고 사실을 왜곡시켜 왔으며, 이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까지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반인권적인 행보를 규탄한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개발추진단'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인지하고 성별영향평가 관련 지표를 반드시 포함하며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라. 우리는 앞으로도 지자체 합동평가 전 과정에서의 성평등 정책 퇴행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3년 7월 27일
전국 231개 여성시민사회단체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강릉여성의전화, 강원성별영향평가센터, 강화여성의전화,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도민여성의회, 경남성별영향평가센터, 경남여성가족재단,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고양성폭력상담소, 고양여성민우회, 고양YWCA, 관악여성회, 광명여성의전화, 광명YWCA, 광양YWCA,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YWCA, 군산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기독여민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성폭력상담소, 김해여성의전화, 김해YWCA, 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난민안전연구소,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남양주YWCA, 남원YWCA, 노원여성회, 녹색당,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전여민회, 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다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대전해송아동복지연구소, 대전YWCA,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마산YWCA, 마산YWCA어린이집, 목포여성의전화, 목포YWCA,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의전화, 부산YWCA,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YWCA, 불꽃페미액션, 브랜드유 리더십센터, 사)경남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사)대구여성회,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창원여성살림공동체, 사)청주여성의전화, 사단법인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사단법인 부산여성회, 사단법인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사단법인 행복누리, 사단법인 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사람과평화, 사람사이관계교육센터, 사천YWCA,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샨티젠더폭력에방교육센터, 서귀포YWCA,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연대(준), 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 지부 동서울여성회, 서초성폭력상담소, 서페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성남여성의전화, 성남YWCA,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평등교육연구소 공감, 성폭력예방치료센터 , 세상의 절반, 세종YWCA, 속초YWCA,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인권돋음, 수원여성회, 순천YWCA, 아우르니, 안동YWCA,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산YWCA, 안양과천군포의왕YWCA, 안양시청소년성문화센터, 안양여성의전화, 양산가족상담센터, 양산성가족상담소, 여성교회, 여성시민문화연구소, 여성평등공동체숨, 여성환경연대, 여수새날상담센터, 여수ywca,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성가족상담소부설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원주YWCA, 유쾌한젠더로, 의정부YWCA, 이레성폭력상담소, 이음연구소, 익산여성의전화,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자립지지공동체, 장애여성공감, 전교조 경북지부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 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주여성의전화,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 제주여민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여성인권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제천YWCA,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사회문화연구소 -이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좋은세상, 진주성폭력상담소, 진주여성회, 진주YWCA, 진해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부설 진해성폭력상담소, 진해YWCA, 창녕성 · 건강가정상담소, 창원시성평등재정연구소, 창원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 창원YWCA, 천안서북여성의용소방대, 천안여성의전화, 천안YWCA,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청주YWCA,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춘천여성민우회, 충남다문화가정협회 , 충남성별영향평가센터, 충남여성포럼, 충북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턴트단,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재단, 충북여성정책포럼,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 충주YWCA가정폭력상담소, 통영YWCA성복력상담소, 파주YWCA, 페미니즘당 창당준비위원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폭력예방교육아카데미, 하남YWCA, 하동성가족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의정 충남아카데미,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여성정치연맹 광주연맹,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YWCA연합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함안성가족상담소, (사)강릉YWCA, (사)군산YWCA, (사)논산YWCA, (사)대구여성인권센터, (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 (사)대구YWCA, (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사)부천여성의전화, (사)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사)수원YWCA, (사)시흥여성의전화, (사)씨알여성회, (사)익산YWCA, (사)인천여성회, (사)인천YWCA, (사)전주YWCA, (사)

| |
|---|
| 제주YWCA, (사)춘천YWCA, (사)충주YWCA, (사)파주여성민우회,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 (사)한국음악협회,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홍천군지회 |

| [공동성명] |
|---|
| **서울시 일본군‘위안부’ 기억의 터 기습철거 강행 규탄 성명서**<br>**기어이 기억의 터를 철거해 일본군‘위안부’, 반성폭력 운동 역사 통째로 지우려는**<br>**오세훈 서울시장 규탄한다!**<br><br>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어이 일본군 ‘위안부’ 추모공원 ‘기억의 터’를 철거했다. ‘아픈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겠다’는 다짐으로 19,754명의 시민들이 마음 모아 서울 남산자락 옛 통감 관저 터에 조성한 여성인권·평화의 터를 짓밟고 깨부수었다. 기억의 터 건립추진위원회를 비롯 2천 명이 넘는 시민과 단체가 성급한 철거 전에 임옥상의 성폭력과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모두 기록하고 기억할 수 있는 방안을 공론의 장을 통해 먼저 마련하자고 제안했으나, 오세훈 시장은 결국 철거로 답했다. 수차례의 면담 요청 거부, 새벽부터 모인 100여 명의 시민들의 절절한 제안에 대한 답이 반성폭력 역사 지우기라는 것이 참담하다. 오세훈 시장의 불통과 독단을 규탄한다.<br><br>우리는 임옥상 성추행 사건을 통해 만연한 여성폭력의 현실을 드러내고, 범죄 이후 그의 파렴치한 행보까지 모두 기록하는 방안을 찾자고 하였으나 서울시는 이를 무시하고 기습적으로 철거를 강행했다. 서울시가 철거한 ‘대지의 눈’과 ‘세상의 배꼽’은 임옥상 개인의 작품이 아니다. ‘대지의 눈’에는 故 김순덕 할머니가 그리신 '끌려감' 작품과 할머니 한 분 한 분의 생애와 말들이 새겨져 있었다. 결국 오세훈 서울시에 의해 그 기록이 지워지고 부숴졌다. 피해자들의 말과 이름이 지워지면 일본의 과오 또한 지워진다. 동시에 임옥상의 성폭력도 제대로 기록되지 못하고 그대로 지워진다.<br><br>서울시의 기억의 터 철거는 임옥상 지우기가 아닌 일본군‘위안부’ 역사 지우기, 여성폭력 저항의 역사 지우기다. 여성폭력의 역사를 공적 공간에서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려는 시민들의 노력까지 지워버렸다. 기억하고 성찰하여 다시는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기억의 터가 서울시에 의해 임옥상 개인의 것으로 전락했다. 기억의 터 철거로 일본군‘위안부’, 반성폭력 운동 역사 통째로 지우려는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한다.<br><br>기억의 터의 역사적 의미와 평화와 여성인권을 염원하는 피해자 및 시민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작업에 성추행 범죄에 대한 책임과 반성 없이 감히 참여한 임옥상의 행보로 인해 더욱더 큰 상처와 고통을 겪었을 임옥상 성폭력 피해자와 연대할 것이다. 그리하여 임옥상이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평가와 기록 기억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오늘 기억의 터를 철거한 오세훈 시장의 잘못에 대해 낱낱이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앞으로 서울시가 기억의 터 공간을 어떻게 재조성할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피해자를 기리는 일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똑똑히 지켜보고 말하고 개입할 것이다.

2023년 9월 5일

일본군‘위안부’ 기억의 터 추진위원장 최영희 포함 추진위원 모금 참여자 총 98명 (강덕제, 강순원, 강현욱, 고영민, 고원선, 권미경, 구슬기, 김경안, 김경애, 김귀균, 김금옥, 김덕주, 김미령, 김법열, 김삼열, 김상은, 김선영, 김순진, 김연순, 김은혜, 김은희, 김지선, 김지영, 김학민, 김화영, 노혜경, 류문수, 박명은, 박화영, 배외숙, 서도명, 서지원, 선미라, 소연선, 소종현, 소현정, 소홍선, 송가람, 송정심, 송찬길, 신낙균, 신순애, 신효석, 안경덕, 안성오, 양성덕, 엄규숙, 윤현봉, 오상석, 이경서, 이공현, 이길연, 이명아, 이미경, 이상경, 이선종, 이성심, 이숙진, 이순자, 이영희, 이운숙, 이은혜, 이제원, 이종화, 이청숙, 이한매, 이혜경, 이현숙, 이호연, 임광제, 임규완, 임진은, 장상환, 장하진, 정강자, 정명선1, 정명선2, 정상덕, 정영숙, 정은선, 정춘생, 조명자, 조정하, 주혜은, 지은희, 차경애, 차옥숭, 최규선, 최금례, 최도윤, 최영희, 한은경, 허석, 홍은용, 황도묵, 황순하, 황주영),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총 61개 여성단체 (거창여성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포여성민우회, 기독여민회,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울산여성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을위한 부산여성행동,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춘천여성민우회,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파주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기자회견문]**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온상인 엑스(전 트위터) 코리아는**
**성착취 피해를 더 이상 묵인하지 말라**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통해 전 국민이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성착취의 실태와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착취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피해 예방,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만 3년이 지난 현재에도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성착취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엑스는 성착취 유인, 광고, 알선 계정과 게시물이 그 수를 추산하기에도 어려울 만큼 매분·초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들에게 담배나 술을 대리구매해주겠다고 하며 유인하거나 정서적으로 취약한 자해계, 일탈계 등을 대상으로 그루밍하는 방식을 취하며 더욱 교묘하게 성착취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엑스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는 "아동 성착취물을 없애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선언하였으나 유해차단팀을 전원 해고하고 성착취물 탐지를 위한 기술 비용 지불도 중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해 방관하며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하기 쉬운 환경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2022년 7월, 87개 인터넷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신고가 1만 4935건을 기록했으며 이 중 트위터 건수는 9,647건으로 전체 6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엑스가 다른 매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엑스는 '표현의 자유'를 기조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게시글과 계정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매매 신고 카테고리조차 없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 신고는 별도의 고객센터 사이트 안에서만 따로 접근할 수 있으며, 청소년 및 성착취물을 뜻하는 키워드는 차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엑스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2년 5~10월 5개월간 엑스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 계정, 게시글 325건을 신고하였으나 신고에 대한 조치가 된 건은 37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치가 취해진 37건은 대부분 계정 일시정지만 되었습니다.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 계정에 대한 신고임에도 일부 경우에는 사후처리가 되었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아무런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기에 따라 신고 처리되는 계정의 양이나 속도가 다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성착취 신고 및 대응활동을 하는 현장단체 중 일부 단체 계정은 오히려 영구이용정지가 되었으며, 정지에 대한 이유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엑스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행위와 관련하여 무관용 정책을 고수하며, 계정 영구정지를 한다고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으나 그들이 말하는 무관용 정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인터넷 사업자는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플랫폼 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자정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엑스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온상이 되는 현실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표현의 자유가 범죄행위의 명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수를 추산하기도 어려울 만큼 쏟아지는 성착취 목적의 게시물이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엑스는 절대 모를 수 없으며, 모른다는 말로 책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호주 정부는 엑스에 아동·청소년 성학대 관련 콘텐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구체적인 대응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하루 최대 70만 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엑스는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단체와 협조하여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에 엑스에 요구합니다.

하나, 엑스는 성착취 게시물 및 계정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라!
하나, 엑스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정책을 실행하라!
하나, 엑스는 성매매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신고항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라!
하나, 엑스는 현장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하라!

2023년 9월 19일

전국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하랑', (사)대구여성회 대구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사)울산여성의전화 울산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점프', (사)인권희망강강술래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잇다',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전북지원센터 '나우',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사업단 제주아동·청소년지원센터 '반짝', (사)평화의샘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띠앗', (사)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강원아동청소년인권지원센터, (학교법인) 박영학원 부산광역시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드림스텝, 사회복지법인범숙 경남아동청소년통합지원센터'모해', 십대여성인권센터 〈서울 성착취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수원여성인권돋음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모아', 여성인권티움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다락',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전남아동·청소년지원센터 '나비', 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 충남아동·청소년지원센터 '보담', (사)충북여성인권 부설 상담소 늘봄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해봄, 포항여성인권지원센터 경북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이팝', (사)탁틴내일,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강원여성인권지원공동체 부설 춘천길잡이의집 (22개 단체)

**[기자회견문]**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142억(1백4십2억8천8백만 원) 감축!**
**성평등을 퇴보시키고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예산안에 반대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1조 7135억 원 규모로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약자복지·저출산 대응에 집중투자 하는 예산'이라고 보도하였다. 하지만 국가가 말하는 '약자복지'에 여성폭력 피해자의 자리는 없었다. 여성가족부 2024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지원 관련 예산 142억이 삭감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두고 "지출구조 혁신을 통한 사업 효율화에 중점"을 두었다며 예산 삭감 이유를 밝혔다.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통폐합, 인식개선 예산 삭감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퇴보시킬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에 관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였으나 동시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급기야 효율성을 운운하며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되어야 한다"며 예산 감축을 통해 여성가족부와 관련 정책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이주여성 폭력피해,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예산이 모두 삭감되었다. 폭력 재발 방지와 폭력에 대한 전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이 모조리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행보는 종국에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퇴보시키는 길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적과 효율을 운운하는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외면한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과 의료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운영 등의 예산을 삭감하였다. 이러한 예산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다. 여성가족부는 감액 사유로 지원 실적 반영, 입소율 저조, 의료비 집행률 반영 및 부정수급 발생에 따른 사업 효율화를 말하였다. 이는 정부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보다는 실적과 효율성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실적에 급급한 예산 감축이 아닌, 실질적 피해자 치유·회복을 위한 예산 확보와 예산의 효과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정비이다.

로드맵 없는 통합상담소 전환은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불가능하게 한다. 정부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예산을 전년 대비 31억9천7백만 원 삭감하였다. 이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중 전면 감액된 예산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금액으로 예산이 삭감된 영역이다. 개별 가정폭력상담소를 대폭 감축하고 '여성폭력피해 통합상담소(가)'를 소폭 증대하여 '가정폭력, 성폭력뿐만 아니라 스토킹, 디지털성폭력, 교제폭력 등 신종 범죄 피해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예산안을 살펴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으로 세목만 바꿨을 뿐이다. 실질적 예산 확충 없이 어떻게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스토킹, 디지털성폭력, 교제폭력, 성매매,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등 여성폭력은 통시적인 관점으로 그 맥락을 이해해야 하나,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책적 연구와 피해자 지원 현장단체들과의 논의,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는 성폭력과 성매매라는 문제에 입각해서 의료, 상담, 치유회복프로그램, 삭제 지원 등이 3년간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2024년 1월부터 이 업무를 아직 있지도 않은 통합상담소로 이관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행정 중심적 탁상공론 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통합상담소로의 전환은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을 가로막는 것이다.

성평등 퇴보! 피해자 지원 부재!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인다는 것은 국가가 어떠한 방향으로 향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여성가족부의 2024년 예산안은 그나마 일궈온 성평등 사회를 퇴보시키는 예산이다. 실적

과 효율을 운운하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치유를 외면한 예산이며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예산이다. 전국의 12개 여성폭력피해지원 협의회 및 연대체 총 569개의 단체들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을 구성했다. 또한 241개의 시민사회단체와 7,254명의 시민들이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을 막기 위한 1만인 서명'에 함께 하였다. 성평등을 퇴보시키는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막기 위해 총 8,065 명/단체의 의지가 모인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성평등 관점 없이 피해자 지원 예산을 삭감한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폐기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

우리는 성평등을 퇴보시키고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예산안에 반대한다!
우리는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2023년 10월 30일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전국 12개 협의회 및 연대체, 569개 단체) 외 1만인 서명에 참여한 241개의 시민사회단체 및 7,254인 일동

**[기자회견문]**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속칭 '미아리 텍사스'가 이제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한다. 여성 성착취의 대명사로 오래 악명 높았다.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폭력과 착취가 난무했다. 성매매여성들만 오롯이 그 고통을 감내했고 많은 이들이 떠나고 일부가 여전히 여기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미아리 텍사스'가 사라진 줄 알지만 아니었다. 여전히 불을 밝히고 '영업' 중이고 성구매자들이 찾는다. 코로나 기간 중에도 업주들은 더 많은 불법 수익을 가져갔다. 그 안에서 여성들은 무허가 건물, 불법영업,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지도 못하는 완전한 무법지대 속에 놓여 있었다. 진작 사라졌어야 할 공간이다. 이 공간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무고한 피해는 지금 현재까지도 지속되었다.
그런데 이제 개발 이익을 차지하려는 성매매 업소의 건물주와 업주들에 의해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진행되며 성매매여성들은 마땅한 대책도 없이 더욱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성매매여성을 착취하며 불법적으로 돈을 벌어왔던 건물주와 업주만 다시 막대한 보상을 받게 되었다. 건물주와 업주에 대한 보상을 말하기 전에 그 동안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우선이다. 불법이익에는 몰수 추징과 환수 조치를 해야한다. 그리고 성매매집결지를 국가 공권력이 방관하고 오히려 조장하며 키워오는 오랜 동안 그 곳에 있었던 여성들에 대해 지금이라도 역사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지는 자세로 자활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예견되며 성북구는 2017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매매 예방 및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서울시도 2021년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활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성북구와 서울시는 아직까지 조례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성매매는 결코 성매매여성 개인의 문제이거나 책임이 아니다. 성매매를 허용하고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온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 성매매집결지가 불법으로 버젓이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방치했다. 성매매여성들이 폭력을 호소하고 신고해도 경찰은 외면했다. 성매매는 가장 취약한 약자들의 몸을 착취하는 폭력이며 착취가 제도화된 산업이다. 성매매여성의 탈성매매와 자활, 자립에는 책임과 지원이 필요하다. 자활 대책이 없다면 폐쇄의 과정에서도 가장 취약한 여성들이 마지막까지 남을 것이며 결국 더욱 열악한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비극을 막아야 한다. 역사 앞에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구한다.
경찰은 성매매집결지 건물주와 업주를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리고 불법이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라.
성북구와 서울시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자활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조례를 시행하라.

성북구민은 요구한다. 우리 지역에서 그 누구든 존엄을 회복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하월곡동 성매매집결지가 정의롭게 폐쇄될 수 있도록 불법이익과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야만 한다. 성북구민으로서, 서울시민으로서 우리는 요구한다.

2023년 12월 6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기자회견문]**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출범선언문]**

**우리는 차별과 폭력, 불평등에 맞서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정치를 만들 것이다.**

2023년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현실은 어떠한가. 여성들은 여전히 사회경제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의 남성과 여성의 격차는 18.9%p,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는 전체 여성 임금노동자의 46.0%로 남성(30.6%)에 비해 15.4%p 많고(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성별임금격차는 27년째 OECD 국가 중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돌봄, 가사 노동은 전적으로 여성의 몫이며, 여성은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거나, 공원에서 강간살해 당하기도 하는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해 국가와 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래도록 산적해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대선부터 정치는 오히려 혐오와 차별의 언어로 여성을 정치와 정책에서 지우고, 페미니즘을 왜곡하고 구조적 성차별을 부인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언했다. 그 결과

여성·성평등 추진체계와 정책의 퇴행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제22대 총선 과정

에서도 여성에 대한 혐오 차별 전략을 또다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여성·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막고, 성평등한 국회, 여성과 소수자의 삶을 바꾸는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권자들의 목소리와 힘을 보여주어 총선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오늘 이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 수년간 기존의 남성 기득권 정치를 비판하고 성평등 정책을 마련하라고 꾸준히 외쳐왔다.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_내_성폭력_사건, 2018년 미투 운동,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등을 통해 여성들은 일상에서 성차별·성폭력 문제를 의식하고 본인의 경험을 용기 내어 말했으며 개인의 경험 말하기에서 그치지 않고 온·오프라인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출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어떻게 답을 하였나. 21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여성 후보 공천 30%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양당의 여성 후보자 비율은 평균 11.81%에 그쳤으며, 그 결과 이전과 다를 것 없는 고학력·고소득·이성애·중년 남성의 얼굴을 한 21대 국회가 출범하였다. 21대 국회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의 입법도,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도 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여성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2020년 총선뿐인가. 2021년 재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네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정치권의 여성·성평등 지우기는 심화되었다. 2021년 재보궐선거는 광역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로 치러진 선거였음에도 후보자들의 정책 중 성평등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선거 후 정치권은 성평등에 투표한 여성의 투표행태가 아닌, 20대 남성의 투표행태에만 주목하였다. 그리고 소위 '이대남'을 결집시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서 성평등에 반하는 군가산점제 부활, 성폭력특별법에 무고죄 조항 신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러 번의 주요 선거에서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여성을 배제하고 차별과 혐오를 택하는 행태는 한국 남성 기득권 정치의 기본값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지난 4년 동안 국회가 여성·성평등 입법을 외면하고, 여성들의 안전하고 평등한 일상을 향한 외침을 무시하고, 성평등 민주주의를 위한 담론을 왜곡하고 훼손하며 제 역할을 방기한 동안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와 이에 따른 성평등·여성 정책 분야 공공기관 및 예산의 통폐합과 축소, 각종 중앙·지방정부의 정책 추진체계와 교육과정 등에서 '성평등'과 '여성' 지우기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24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는 여성 폭력과 피해자 지원, 일터에서의 성차별 방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국가의 국민 보호 책임 방기를 선언하였다. 한편, 여성정책 뿐만 아니라 노조·시민사회·언론 탄압 등 다방면에서 퇴행과 폭거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성을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성평등 정책을 실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는 실종되었으며 여성의 삶은 더 위태로워졌다.

남성 기득권 정치가 여성과 소수자의 존재를 지우고 목소리를 틀어막으려 했으나 우리는 멈추지 않고 투쟁하며, 연대하며 나아가고 있다. 이 퇴행과 암흑의 시대를 우리의 연대가 바꿔놓을 것이다. 우리는 선거 때만 투표장에 가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가 아니라, 이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22대 총선에 임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여성과 소수자의 삶을 후순위에 두거나 삭제하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정치, 우리의 요구를 갈등이나 논쟁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해하고 실질적 변화를 만들 정치, 우리를 여의도 셈법에 의한 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으로 대할 정치가 필요하다. 또한 후퇴하는 여성·성평등 정책을 저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가부장제 자본주의·군사주의·기후위기 속에서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 젠더관점을 견지하는 정치가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하다.

우리는 여성 주권자의 삶을 외면하고 퇴행을 거듭한 정치에 책임을 묻고, 정당이 젠더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지, 공천 과정에 젠더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지, 후보자에게 성인지 감수성이 있는지 제대로 따져 묻고 감시하며 심판할 것이다. 남성 기득권만을 대변하는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동안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던 여성과 소수자를 대변하는 민주주의로 거듭나도록 전국 곳곳에서 힘을 모아낼 것이다. 국회가 여성·성평등 정책의 후퇴를 막아내는 것을 넘어서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부정의를 해체하고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삶에 평등과 존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 책무를 다할 것을 끝까지 관철시킬 것이다.

〈2024년 총선! 여성주권자행동 '어퍼'(UPPER)〉는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퇴행을 거듭하며 밑바닥으로 치닫는 정치의 수준을 끌어올릴 것이다!
하나, 우리는 그동안 묻혀있던 여성·성평등 정책을 정치의 수면 위로 띄울 것이다!
하나, 우리는 남성 기득권 중심의 정치를 허물고 그 위에 성평등한 국회,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를 세울 것이다!

2023년 12월 12일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참여단체 명단(전국 145개 여성시민사회단체)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거창여성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군산여성의전화, 군포여성민우회, 기독여민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모두의 결혼, 목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회,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

| |
|---|
| 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불꽃페미액션, 새움터,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한부모회, 서페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세종여성,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인권'돋움', 수원여성회, 순천여성장애인연대, 시흥여성의전화, 실천여성회'판',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여성의전화, 여성생활문화교육공동체광주여성센터, 여성인권동감,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티움, 여성환경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우리더불어이웃, 우리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원주여성민우회, 익산여성의전화,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희망 강강술래,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연대, 인천여성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주여성의전화, 정치하는엄마들,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주여성의전화, 추적단불꽃, 춘천여성민우회, 충남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통영여성장애인연대, 파주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풀뿌리여성'마을숲',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청각장애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부모가족회 한가지, 함께크는여성울림, 함께하는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전국연대 제21차 정기총회 별첨

# 정 관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회의 (주)사무실은 서울시에 위치한다.

**제3조(목적)**

1. 본회는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적착취행위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신매매, 성매매 근절 및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 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본회는 성매매에 대한 사회인식 및 정부정책을 변화시키고 성매매여성들을 옹호,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성매매에 대한 사회인식변화를 위한교육, 홍보 및 연구사업
2. 법률 및 제도개선활동
3.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사업
4. 정부정책참여 및 감시활동
5. 인신매매 및 성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연대활동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1. 본회는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
   ⑴ 정회원 :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회원이 될 수 있다.
   ⑵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단체 및 사람은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2. 본회의 정회원은 단체추천과 활동경력들을 심사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부설기관의 형태로 운영되는 단체의 경우 대표단위가 가입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각종 회의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에 참

여 한다.

3. 회원 및 회원단체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 및 징계)**

1. 회원은 단체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 탈퇴할 수 있다.
2.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진행한 단체는 운영위원회에서 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및 제명 등을 결정한다.

## 제3장 조직과 회의

**제8조(총회의 구성)**

1.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가 있다.
2.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3. 정기총회는 1년에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대표가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표가 소집한다.
   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나. 총회 구성원 1/3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한 때

**제9조(총회개최 및 통지)**

대표는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총회의 의결사항)**

1. 정관의 개정 및 본회의 해산
2. 임원 및 감사의 임명 및 해임
3. 전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4.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결정

**제11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총회가 열리지 않는 평상시의 총회를 대행한다.
2. 운영위원회는 임원 및 단체의 대표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는 제반 업무 및 기타 운영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4. 운영위원회는 격월로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시에는 대표가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5.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12조(임원)**

1. 본회는 3인 이내의 대표와 2인의 감사를 둔다.
2.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며 2인을 두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임원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3조(특별위원회)**

1. 본회의 목적수행을 위해 특별사업, 특히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과 과제 수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한다.
2.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4조(사무국)**

1. 본회의 의결사항과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 할 수 있다.

## 제4장 부설기관

**제15조(부설기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의 목적사업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설기관을 설치·운영한다.

**제16조(부설기관의 직무와 임명)**

① 부설기관은 본회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부설기관장은 본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부설기관장은 부설기관의 제반 업무를 총괄 집행하고 본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7조(부설기관구성 및 운영)**

부설기관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규정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 제5장 재정 및 시설

**제18조(재정)**

1. 본회의 경비는 회비, 기타 수입 및 사업비로 운영한다.
2. 회비의 종류와 액수는 총회에서 정한다.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19조(자산의 구분)**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본회의 목적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0조(재산의 관리)**

1. 본회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재산목록에 편입 조치한다.

2.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제21조(예산 및 결산)**

1. 예산 및 결산은 정기총회에서 심의한다.
2. 대표는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 제6장 보칙

**제23조(해산)**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4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2. 본회 해산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24조(개정)**

1.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2. 회칙의 개정은 정회원1/3이상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
3. 본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25조(준용)**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 이 정관은 창립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정 : 2004년 6월 9일
1차 개정 : 2007년 2월 9일
2차 개정 : 2010년 2월 4일
3차 개정 : 2014년 2월 12일
4차 개정 : 2014년 8월 20일
5차 개정 : 2017년 2월 8일

# 전국연대 회원단체 주소록

| (사)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
|---|
| (우: 61934)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04번길 15(농성동 391-49)<br>전화 : 062-384-8297<br>전송 : 062-447-6078 |
| 이메일 : hanolgiki@naver.com \| 홈페이지 : www.gjhotline.org |

| (사)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 | |
|---|---|---|
| (우: 61720)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831 준영빌딩 9층<br>전화 : 062-227-8297<br>전송 : 062-653-8297 | | |
| 상담소 언니네 | 전화 : 062-232-8297 | 전송 : 062-228-1140 |
| 자활지원센터 다힘 | 전화 : 062-226-8297 | 전송 : 062-712-2447 |
| 아동청소년지원센터 하랑 | 전화 : 010-4462-8297 | |
| 쉼터 푸른꿈터 | | |
| 이메일 : gj8297@daum.net \| 홈페이지 : www.gj8297.com | | |

| 수원여성인권돋음 | |
|---|---|
| (우: 1626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51-8 남강빌딩<br>전화 : 031-245-1219<br>전송 : 031-244-7780 | |
| 오늘상담소 | 031-235-7780 |
| 자활지원센터 모모이 | 031-243-7780 |
| 이메일 : suwondodum@naver.com | |

| (사)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
|---|
| (우: 51167)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102 대남상가 304호<br>전화 : 055-273-2241<br>전송 : 055-273-2281 |
| 이메일 : key10@hanmail.net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kn8297 |

|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
|---|
| (우: 58705) 전남 목포시 용당로 151 2층<br>전화 : 061-276-8297<br>전송 : 061-276-8290 |
| 이메일 : jnwoman@naver.com |

|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 |
|---|---|
| (우: 49256) 부산 서구 천마로 192, 501호<br>전화 : 051-246-8297<br>전송 : 051-247-8229 | |
| 살림상담소 | 전화 : 051-257-8297 \| 051-247-8292 |
| 자활지원센터 숲 | 전화 : 051-256-8297 |
| 살림 쉼터 | |
| 이메일 : survivors1206@naver.com \| 홈페이지 : www.wom-survivors.or.kr | |

| (사) 대구여성인권센터 | | |
|---|---|---|
| (우: 41955) 대구 중구 명덕로 279, 403호<br>전화 : 053-422-5898<br>전송 : 053-422-5897 | | |
| 상담소 힘내 | 전화 : 053-422-4898 | 전송 : 053-421-4897 |
| 자활지원센터 생생이랑 | 전화 : 053-426-4898 | 전송 : 053-426-2678 |
| 쉼터 단디이음 | | |
| 이메일 : himne1004@hanmail.net \| 홈페이지 : www.himne.org | | |

| (사) 여성인권티움 | |
|---|---|
| (우34918)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36-1 호원빌딩 3,4,5층<br>전화 : 042-252-9790<br>전송 : 042-222-0815 | |
| 느티나무상담소 | 전화 : 042-223-3534 |
| 여성자활지원센터 | 전화 : 042-254-3534 |
| 아동청소년지원센터 다락 | 전화 : 042-222-8297 |
| 이메일 : tree3534@hanmail.net \| 홈페이지 : www.nuteenamoo.org | |

| (사) 인권희망 '강강술래' | |
|---|---|
| (우: 2215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336-1 청운빌딩 3층<br>전화 : 032-881-8297<br>전송 : 032-515-0117 | |
| 희희낙낙상담소 | 전화 : 032-501-8297 |
| 달빛공방 자활지원센터 | 전화 : 032-518-8297 |
|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잇다 | 전화 : 032-874-8297 |
| 쉼터 나무그늘 | |
| 이메일 : kksoole2@hanmail.net \| 홈페이지 : www.kksoole.net | |

| 새움터 | | |
|---|---|---|
| (우: 17761)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247-11 2층<br>전화 : 031) 663-4655<br>전송 : 031) 663-4611 | | |
| 동두천새움터 부설 자활지원센터 | 동두천시 중앙로 320, 2층 | 전화 : 031-867-4655 |
| 평택새움터 부설 자활지원센터 | 평택시 탄현로 250, 2층 | 전화 : 031-663-4655 |
| 이메일 : swoom2@chol.com | | |

| (사)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 |
|---|---|
| (우: 55006) 전주시 완산구 권삼득로 76<br>전화 : 063-283-8297<br>전송 : 063-282-4248 | |
| 현장상담센터 | 전화 : 063-232-8297 |
| 여성자활지원센터 Doing | 전화 : 063-232-4248 |
| 아동청소년지원센터 '나우' | 전화 : 063-288-8297 |
| 쉼터 민들레 / 그룹홈 우리집 | |
| 이메일 : jb-stop@hanmail.net \| 홈페이지 : www.yonggamhan.org | |

| (사) 제주여성인권연대 | |
|---|---|
| (우: 63275) 제주시 고마로 84(일도이동), 효은빌딩 4층<br>전화 : 064-723-5004 / 전송 : 064-752-8297 | |
| 제주현장상담센터'해냄' 상담소 | 전화 : 064-751-8297 |
| 제주아동·청소년지원센터'반짝' | 전화 : 064-723-8297 |
|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 전화 : 064-722-7304 |
| 여성의 쉼터 불턱 | |
| 이메일 : jejupeacemaker@hanmail.net \| 홈페이지 : jwr.or.kr | |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자활센터 [해봄] |
|---|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20길 37-6 해송빌딩 4층<br>전화 : 02-928-8297<br>전송 : 02-929-8297 |
| 이메일 : haebom22@daum.net |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
|---|
| (우: 02801)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52길 8-9 송은빌딩 401호<br>전화 : 02-982-0923<br>전송 : 02-982-0921 |
| 이메일 : bodawom@hanmail.net |

2024년. 제21차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기총회 자료집

발행일 : 2024년 2월 16일
주소 :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52길 8-9 401호
전화 : 02-312-8297
팩스 : 02-982-0921
이메일 : 2004-609@hanmail.net
홈페이지 : www.jkyd2004.org